

전략연구 2012-06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

신동호 외

발 간 사

충남 지역경제는 최근 10년 동안 산업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북부권 지역의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연평균 9.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자원이나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의 양적성장을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그간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은 외생적 발전(exogenous development)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러한 외생적 발전은 지역 내 생산의 이익이 외부자본가에게 유출되고 지역생산의 증대가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직접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내 제조업이 밀집된 서북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여타 지역 간의 경제적인 성장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생산과정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재투자 및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 즉,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feed-back)되는 이른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충남이 당면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활동에 투입된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수익이 피용자 보수와 자본소득으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소득과 지역 내 재투자 및 자금순환 수준 등을 증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지역민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재투자 증가가 다시 생산활동을 유발하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선순환적 지역경제 구조의 구축·정착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대해 담론수준에서만 다루어질 뿐 관련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지향적인 외래형 개발방식의 제 부작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제 정책수단들을 발굴하여 충남 지역경제의 질적성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내발적 발전이론에 기초하여 선순환 경제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둘째, 현

충남경제의 “생산 → 분배 → 지출”의 순환과정 및 정도를 거시·미시적 양 측면에서 규명하고, 셋째, “생산 → 분배 → 지출”의 메커니즘 속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성요소와 각 요소별 필요조건(requirements)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모델’을 설정 내지 정립하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들이 충청남도의 정책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좀 더 세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지역경제의 순환구조 분석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성장을 도모하는 충남도가 당면한 여러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용한 분석수단이 될 것이며, 나아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입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본 연구가 충청남도 선순환 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애써주신 목원대학교 박 경 교수님과 우리 연구원의 지역경제연구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연구 요약

1. 필요성과 목적

외부자원이나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의 양적성장을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그간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은 외생적 발전(exogenous development)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이러한 외생적 발전방식은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발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한 반면, 지역 내 생산의 이익이 외부자본가에게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외부시장과 자본에 의하여 통제되는 의존성이 심화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약화되며, 지역생산의 증대가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직접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도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지향적인 외래형 개발방식의 제 부작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제 정책수단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지출활동을 확대하도록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feed-back)되는 이른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정착시키는 데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1) 주요내용

본 연구는 충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론적 검토결과, 지역경제 선순환(virtuous circulation of regional economy)구조를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feed-back)되는 구조” 라 개념적으로 정의 내렸다. 이러한 지역경제 선순환 개념은 내발적 발전론에서 지향하는 ‘개발성과의 지역 내 귀속’ 또는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 을 생산 → 분배 → 지출이라는 경제순환과정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정량적·정성적 분석의 지역적 범위설정을 위해 지방노동시장권(LLMAs) 접근법을 이용한 결과, 충남지역 15개 시군지역은 노동시장의 기능으로 볼 때 10개의 ‘독립 지역노동시장’, 2개의 ‘통합 노동시장’, 1개의 ‘타광역권 연계형시장’으로 구분된다. 이 중 분석대상지역인 서천군은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천안·아산지역은 통합노동시장, 그리고 금산군은 대전광역권 연계시장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남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 “생산 → 분배 → 지출”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과정에서는 투입되는 자원 및 서비스의 역내조달 비율이 낮았으며 분배과정에서는 지역 외로 유출되는 요소소득(피용자 보수, 영업잉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출과정에서는 최종재화시장에 있어서 지역 내 소비보다 타 지역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산과정 있어 중간재 수요에 대한 지역 내 조달비중은 30.8% 수준이며, 나머지 69.2%를 역외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분배과정에 있어 요소소득의 역외유출은 2000년 25.4%에서 2005년 32.3%, 그리고 2010년 36.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영업잉여의 비중은 2000년 23.6%에서 2010년 14.2%로 감소하였으며, 피용자 보수는 동 기간 중 27.8%에서 26.0%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리고 민간소비지출의 비중은 2000년 40.3%에서 2005년 32.4%, 그리고 2010년 28.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정량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지역(천안·아산, 금산, 서천)에 따라 지역경제의 순환정도는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정량적 분석의 결과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선과제

본 연구는 내발적 발전이 지향하는 지역 내 경제순환을 충남 전역과 전 산업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외연적 확대를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정량·정성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나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다만, 지역통계 구축의 한계로 시군단위 정량적 경제순환구조 규명에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아울러 시군단위 사례조사가 지역상권, 제조업, 소비실태 등에 국한됨에 따라 시군단위 경제순환구조 규명에 한계를 노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미흡함을 보이는 등 1차년도에 한계를 노정한 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별로 심화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시군단위 경제순환 구조를 보다 세밀하게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구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충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각 필요조건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산측면에서는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업가치사슬 미비로 인한 지역 내 산업생태계가 취약하여 중간재 수요에 대한 역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해외 및 타지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역내 조달비율을 제고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역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관련산업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을 보완하여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연관을 형성하고, 기업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지역 내 토착화를 유도해야한다.

분배측면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으로 인해 지역 내 창출된 부가가치가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역외유출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처럼 영업잉여가 역외로 유출되는 주요 원인은 분공장 형태의 기업입지 및 재투자 환경의 미흡함에 기인하며, 피용자 보수는 정주환경 미흡으로 인한 직주분리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종합하면, 임금 및 자본소득의 지역 내 배분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하여 자본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임금소득의 역외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주환경의 개선과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QWL)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출측면에서는 분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소소득의 역외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성장에 비해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의 확대가 요구되나, 순환과정 상 지출은 분배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배측면에서 선순환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충남 내 기업의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하고,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통해 소비의 타 지역 의존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외생적 개발의 한계 노정	1
2) 지역경제 발전 패러다임 전환	2
2. 연구목적	4
3. 연구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6
1) Phase #0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개념적 정의 설정방법 및 과정	6
2) Phase #1 : 지역범위 설정기준 및 방법	7
3) Phase #2 :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방법 및 내용	10
4) Phase #3 :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설정 방법 및 내용	16
4. 연구 추진체계	17
제2장 지역경제 선순환의 의미와 개념적 정의	18
1. 지역발전전략에 관한 두 가지 논쟁	18
1) 외생적 발전전략 vs. 내생적 발전전략	18
2) 두 전략의 특성비교	21
2.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동향	23
1) 이론적 배경	23
2) 관련연구 및 정책동향	33
3. 지역 경제순환의 의미와 선순환 구조 개념	42
1) 지역경제 순환 매커니즘	42
2) 지역경제 순환분석 체계	43

3)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개념적 정의	44
4.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의 필요성 및 배경	46
1) 외부자본 및 기업유치에 따른 제조업의 양적성장 촉발	46
2) 외생적 발전의 한계 노정	48
제3장 지역경제 순환구조분석을 위한 지역범위 설정	50
1. 지역의 범위설정 기준 및 방법	50
1) 지역의 범위 설정기준	50
2) 지역의 범위설정 방법	52
3) 지역노동시장권의 도출과정	54
4) 자료의 구성	56
2. 충남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58
1) 전체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58
2) 시사점	61
제4장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	62
1.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 과정	62
2. 거시적(Macro) 측면의 정량적 분석	63
1) 분석개요	63
2) 분석결과	69
① 충남 지역경제 순환구조	70
② 생산측면 : 중간 수요의 타 지역 의존실태	74
③ 분배측면 : 요소소득의 역외 유출실태	79
④ 지출측면 : 최종 수요의 타 지역 의존실태	89
⑤ 지역내총생산 vs. 민간소비지출	94
3. 미시적(Micro) 측면의 정성적 분석	96
1) 조사개요	96
2) 조사결과	98
① 제조업 부문 - 제조업 실태조사	98
② 가계소비 부문 - 가구소비 실태조사	111
③ 유통 부문(지역 상권중심) - 지역상권 유통 환경조사	127
④ 기업 심층 인터뷰	138
4. 시군 단위 지역경제 순환 분석	150

1) 분석개요	150
2) 지역별 경제 순환현황	151
① 천안·아산 지역	151
② 금산 지역	154
③ 서천 지역	158
5. 요약 및 시사점	162

제5장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과제 164

1. 지역경제 선순환 모형설정	164
1)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필요조건	164
2) 지역경제 선순환 모형설정	166
2.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과제	167
1) 생산측면	167
2) 분배측면	171
3) 지출측면	176
4) 기타	17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3

1. 요약 및 정책제언	18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85

참고문헌 186

<부록 1> 시군단위 분석결과	190
<부록 2> 설문지	200
<부록 3> 설문결과	221

표 목 차

<표 1-1> OECD 국가들의 기능지역(functional area) 설정사례	8
<표 2-1> 신내생적 발전의 주요 요소	27
<표 2-2> 충남의 연도별 유치기업 수	46
<표 2-3> 외자유치 실적	46
<표 2-4> 업종별 유치건수 현황	47
<표 3-1> OECD 국가들의 기능지역(functional area) 설정사례	51
<표 3-2> 충남지역 취업자의 통근행렬 예시	55
<표 3-3> 통근행렬로부터 산출된 지역노동시장권 지표들	56
<표 3-4> 통근행렬 분석에 사용된 표본(가중치 적용)	57
<표 3-5> 통근행렬 분석결과 : 전체 취업자	60
<표 4-1> 통계청 지역계정 자료제공 내용	64
<표 4-2> 부문별 분석내용 및 과정	70
<표 4-3> 시도별 소득의 역외유출 비율	79
<표 4-4> 충남 지역 피용자보수의 지역 간 유출입 추정량	86
<표 4-5> 충남 지역 영업잉여의 지역 간 유출입 추정량	87
<표 4-6> 충남 지역 영업잉여의 지역 간 유출입 추정량	88
<표 4-7> 충남 지역내총생산, 민간소비지출,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	95
<표 4-8> 기업 납품현황	99
<표 4-9> 대표 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	99
<표 4-10> 위탁기업과의 평균적 거래기간	100
<표 4-11> 납품거래시의 애로사항	101
<표 4-12> 하위 협력업체 수	102

<표 4-13> 기업지원 애로사항	104
<표 4-14> 인력수급 애로사항	105
<표 4-15> 자금조달 애로사항	105
<표 4-16> 지역내 금융기관 이용 애로사항	106
<표 4-17> 기술개발 애로사항	106
<표 4-18> 기술도입처	107
<표 4-19> 충남도내 장비이용 애로사항	107
<표 4-20> 동종업종 및 이업종간 교류활동	108
<표 4-21> 교류활동을 위한 지원	108
<표 4-22> 지역별 근로자의 정주환경	109
<표 4-23> 12대 소비지출 항목	111
<표 4-24> 충남 시군별 소비지출 비중	113
<표 4-25> 식료품 소비지출 분석결과	114
<표 4-26> 의류 및 신발 소비 지출 분석결과	115
<표 4-27> 가정용품 소비지출 분석결과	116
<표 4-28> 보건 소비지출 분석결과	117
<표 4-29> 오락·문화 소비지출 분석결과	118
<표 4-30> 교육의 소비지출 분석결과	119
<표 4-31> 외식 소비지출 분석결과	121
<표 4-32> 가구당 타시도 및 시군 소비지출 비용	122
<표 4-33> 타시도 및 시군 총소비지출 비용(년)	123
<표 4-34> 천안시 농산품 생산지역	127
<표 4-35> 천안시 수산품 생산지역	127
<표 4-36> 천안시 축산품 생산지역	128
<표 4-37> 천안시 공산품 생산지역	128
<표 4-38> 아산시 공산품 생산지역	129
<표 4-39> 아산시 수산품 생산지역	129
<표 4-40> 아산시 축산품 생산지역	129
<표 4-41> 아산시 공산품 생산지역	130
<표 4-42> 금산군 농산품 생산지역	130
<표 4-43> 금산군 수산품 생산지역	131
<표 4-44> 금산군 축산품 생산지역	131
<표 4-45> 금산군 공산품 생산지역	132
<표 4-46> 서천군 농산품 생산지역	132
<표 4-47> 서천군 수산품 생산지역	133
<표 4-48> 서천군 축산품 생산지역	133

<표 4-49> 서천군 공산품 생산지역	133
<표 4-50> 대형마트 농산품 생산지역	134
<표 4-51> 대형마트 수산품 생산지역	135
<표 4-52> 대형마트 축산품 생산지역	135
<표 4-53> 대형마트 공산품 생산지역	136
<표 4-54> 시군 단위 지역경제 순환 분석 대상 시군선정	150
<표 4-55> 가구당 타시도 및 시군 소비비중 및 금액(천안·아산)	153
<표 4-56> 가구당 타시도 및 시군 소비비중 및 금액(금산)	157
<표 4-57> 가구당 타시도 및 시군 소비비중 및 금액(서천)	161
<표 5-1>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필요조건	166
<표 5-2> 현행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급비율	172

그림 목 차

<그림 1-1> 내발적 발전에 기초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목적	4
<그림 1-2>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개념적 정의 설정과정	7
<그림 1-3> 지역경제 순환구조분석 진행과정	13
<그림 1-4> 지역 사회계정의 작성과정 및 이용 자료	14
<그림 1-5>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 설정과정	16
<그림 1-6> 연구추진체계	17
<그림 2-1> 외생적 발전전략과 내생적 발전전략의 제 한계	21
<그림 2-2> 외생적 발전전략과 내생적 발전전략간 특성비교	22
<그림 2-3> 지역 경쟁우위의 기반	29
<그림 2-4>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 프레임워크	30
<그림 2-5>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선순환 과정	31
<그림 2-6> 총자본, 지식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정	33
<그림 2-7> 도쿄대학 「지역경제 순환연구회」의 지역경제 순환모델	37
<그림 2-8> 지역경제 선순환 과정	44
<그림 2-9> 도내 시군별 GRDP 규모, 구성비, 생산구조(2007)	48
<그림 3-1> 충남지역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 전체취업자	59
<그림 4-1>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 과정	62
<그림 4-2>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66
<그림 4-3> 다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67
<그림 4-4>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과정	68
<그림 4-5> 충남의 산업 비율	71
<그림 4-6> 충남의 소득계정별 비율	71

<그림 4-7> 충남의 지출내역별 비율	72
<그림 4-8> 충남과 수도권의 생산-분배-지출 구성요소 비중(2010)	73
<그림 4-9> 충남 중간 재화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지역 별 조달비율	74
<그림 4-10> 충남 중간 재화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지역 별 조달비율	75
<그림 4-11> 충남 농림수산업 중간 수요의 지역별 조달비율	76
<그림 4-12> 충남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중간 수요의 지역별 조달비율	76
<그림 4-13> 충남 도소매업 중간 수요의 지역별 조달비율	77
<그림 4-14> 충남 금융 및 보험업 중간 수요의 지역별 조달비율	77
<그림 4-15> 충남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중간 수요의 지역별 조달비율	78
<그림 4-16> 시도별 소득의 역외유출 비율(2000~2009)	80
<그림 4-17>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수 비율	80
<그림 4-18>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 종사자수 비율	81
<그림 4-19>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 규모	81
<그림 4-20> 분공장과 소득역외유출 간의 상관관계	82
<그림 4-21> 피용자보수의 시도별 유출입 비율	83
<그림 4-22> 영업잉여의 시도별 유출입 비율	84
<그림 4-23> 충남 피용자보수의 지역 간 유출입 분석 결과	86
<그림 4-24> 충남 영업잉여의 지역 간 유출입 분석 결과	88
<그림 4-25> 충남 최종 재화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지역별 소비비율	89
<그림 4-26> 충남 최종 재화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산업별 소비비율	90
<그림 4-27> 충남 농림수산업 최종 재화 수요에 대한 지역별 소비비율	91
<그림 4-28> 충남 섬유 및 가죽 제품업 최종 재화 수요에 대한 지역별 소비비율	92
<그림 4-29> 충남 정밀기기업 최종 재화 수요에 대한 지역별 소비비율	92
<그림 4-30> 충남 도소매업 최종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지역별 소비비율	93
<그림 4-31> 충남 지역내총생산 중 민간소비 비중 변화	95
<그림 4-32> 위탁기업의 지역간 분포 현황	102
<그림 4-33> 협력업체 지역별 분포현황	103
<그림 4-34> 충남 시군별 평균 소비지출	112
<그림 4-35> 천안아산 지역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	152
<그림 4-36> 천안아산 지역 중간재 수요의 조달 비율	153
<그림 4-37> 금산 지역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	156
<그림 4-38> 금산 지역 중간재 수요의 조달 비율	156
<그림 4-39> 서천 지역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	159
<그림 4-40> 서천 지역 중간재 수요의 조달 비율	160

<그림 5-1> 지역경제 선순환 모형	167
<그림 5-2> 중간재 수요에 대한 산업별 역내 조달비율	168
<그림 5-3>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체계	169
<그림 5-4> 기업가치사슬별 기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	170
<그림 5-5> 통합적 기업지원서비스 공급시스템(RASS) 구축방안	171
<그림 5-6> 노동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형 Edu-care Complex 도입기능	174
<그림 5-7> 최종재 수요에 대한 산업별 역내조달 비율	176
<그림 5-8>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연계방안	177
<그림 5-9> 중소기업 유형별 동반성장 핵심과제	18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외생적 개발의 한계 노정

충남 지역경제는 최근 10년 동안 제조업의 비약적 성장을 토대로 연평균 9.0%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한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인접하여 있으며, 산업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북부권 지역은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집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처럼 외부자원이나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의 양적성장을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그간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은 외생적 발전(exogenous development)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이러한 외생적 발전은 지역 내 생산의 이익이 외부자본가에게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외부 시장과 자본에 의하여 통제되는 의존성이 심화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약화되며, 지역생산의 증대가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직접 연계되지 못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천안·아산지역은 상당수의 대기업이 분공장 형태로 입지한 탓에 창출된 영업잉여가 본사가 소재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의 역외유출에 기인한 지역 내 생산과 소득의 괴리 탓에 민간소비지출 증가가 충남 지역경제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경, 2011).

더욱이 도내 제조업이 밀집된 서북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여타 지역 간의 경제적인 성장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생산 과정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재투자 및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즉,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feed-back)되는 이른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충남이 당면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생산활동에 투입된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수익이 피용자 보수와 자본수익으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소득과 지역 내 재투자 및 자금순환 수준 등을 증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지역민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재투자 증가가 다시 생산활동을 유발하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선순환적 지역경제 구조의 구축·정착이 요구된다.

2) 지역경제 발전 패러다임 전환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지역단위에서의 순환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내발적 또는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에 기초하여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지역경제가 지향해야할 목표를 생산성 보다는 내부 생산능력을 제고하는데 두고 내부자원의 활용 및 내부수요의 진작 등 내부순환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는 지역불균등발전을 비판하면서 지역산업의 부가 지역 내에 귀속되는 방식의 내발적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1970년대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된 내발적 발전론은 1990년대 이후 지방도시와 공업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박 경, 2008). 한편, 유럽은 일본과 달리 산업도시의 재생문제에서 출발하여 농촌개발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내발적 발전론에 기초하여 정책화되고 있다(Lowe 외, 1998).

이러한 내발적 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발전을 대단위 기업이나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 한편, 지역발전의 동기여부나 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지역내부에서 찾아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지역의 자족성(self-sufficiency)과 자립성(self-reliance)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다(김용웅 외, 2003).

구체적으로 주민의 소득, 고용, 보건 및 교육 등의 수요충족을 우선하기 때문에 생산이나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외부기술이나 자원보다는 지역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중시한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 및 수공업을 중시하고, 공공분야의 투자도

경제적 하부구조 개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민의 교육, 보건,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경향성을 띤다.

특히, 일본의 경우 ‘투자과 소비의 지역 내 순환’, 지역사회적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학·관 네트워크 시스템을 토대로 농·공연계 및 기존 산업집적을 활용한 신기술 창조 프로젝트를 발굴을 통한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 활용측면에서 농·공·상 융합(6차 산업화), 관광업에 의한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계획 측면에서는 주택건설, 중심시가지 활성화 및 콤팩트 시티 조성을, 농촌계획 측면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금융 측면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해 순환형 지역경제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분석수법의 미발달로 인해 분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분석대상 지역의 경제 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사람, 재화, 돈, 정보 등의 이·출입을 파악해야 하는데 관련 통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정량적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앙케이트 및 설문조사 등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수준이다.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들에 대한 관련연구들이 부분적으로는 행해져 왔으나 대부분 자신의 학문적 분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이를 지역경제의 순환구조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려는 시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마찬가지로 충남의 경우에도 현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관련해서는 담론수준에서만 다루어질 뿐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에서 경제의 순환구조를 규명하는 것은 경제순환 측면에서 분석 대상 지역이 경제순환 중심지역인지 혹은 외부의존도가 높은 지역인지, 특히 어떤 외부와의 거래가 지역경제에 불가결하고 또는 부족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순환구조 분석은 그간의 양적성장을 넘어 질적성장을 도모하는 충남도가 당면한 여러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용한 분석수단이 될 것이며, 나아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입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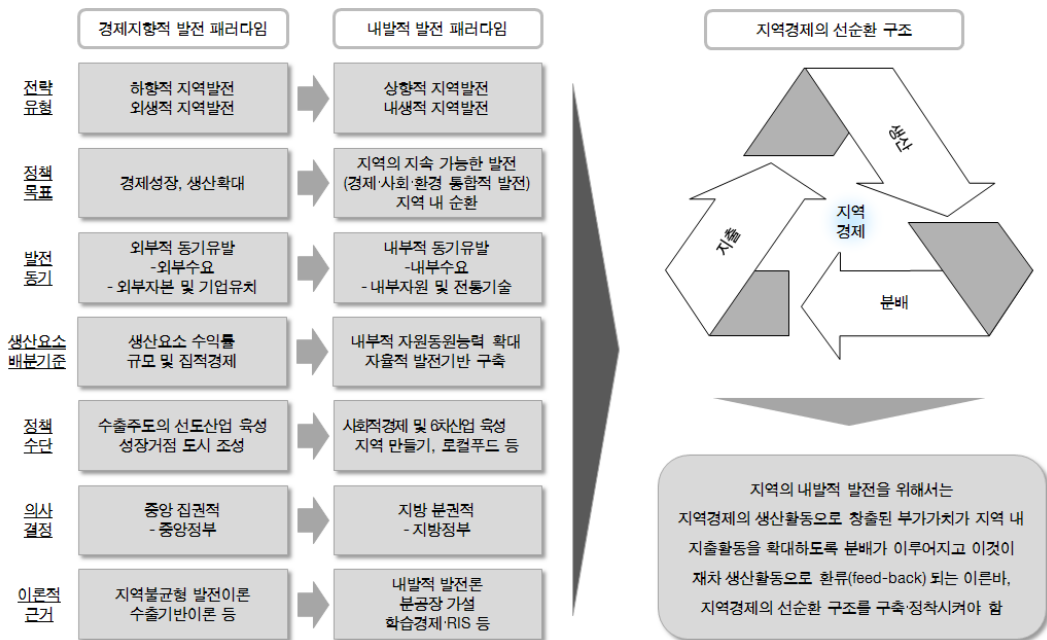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지향적인 외래형 개발방식의 제 부작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제 정책수단들을 발굴하여 충남 지역경제의 질적성장을 도모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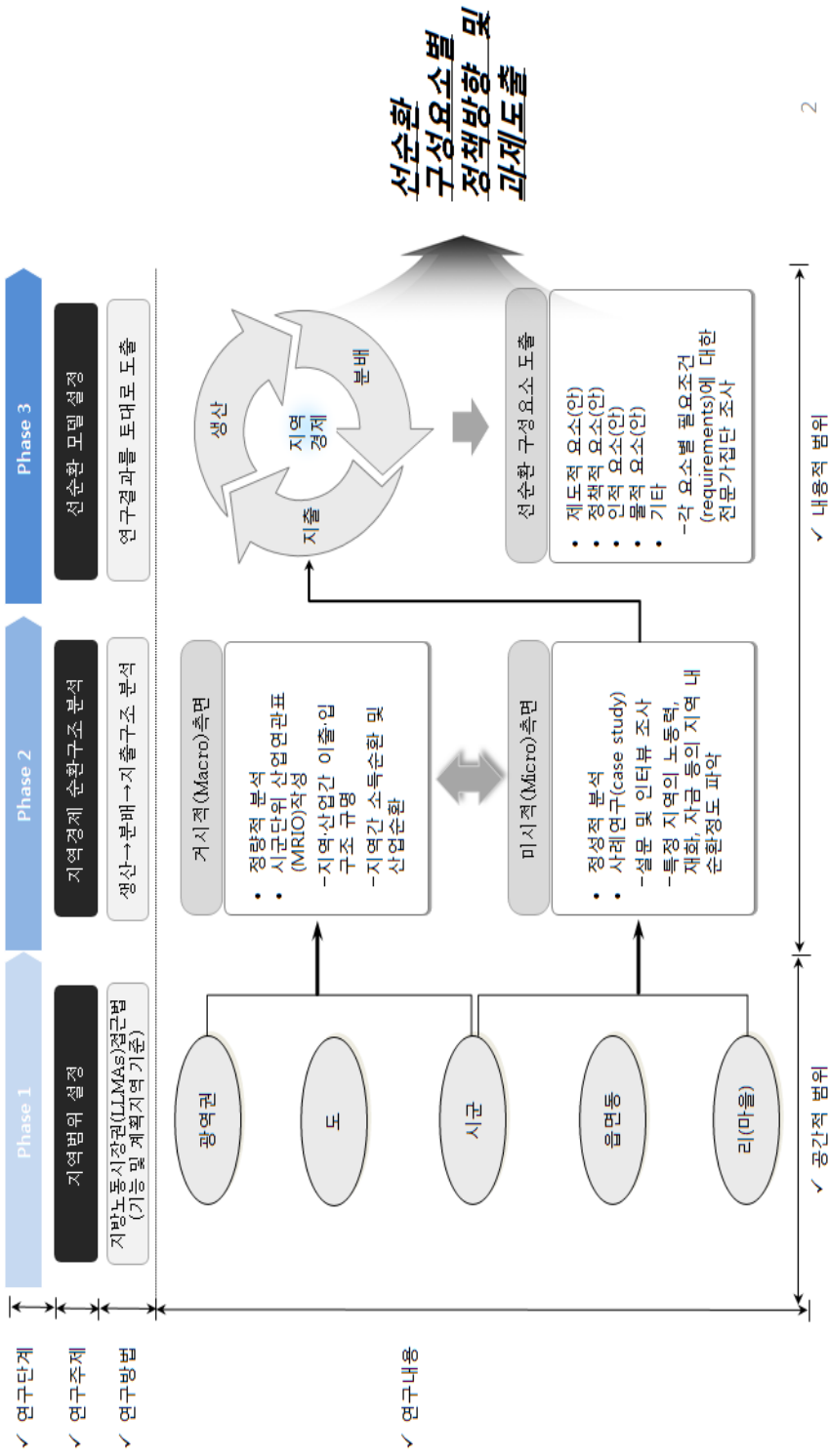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내 지출활동을 확대하도록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feed-back) 되는 이른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내발적 발전이론에 기초하여 선순환 경제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둘째, 현 충남 경제의 “생산 → 분배 → 지출”의 순환과정 및 정도를 거시·미시적 양 측면에서 규명하고, 셋째, “생산 → 분배 → 지출”의 메커니즘 속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성요소와 각 요소별 필요조건(requirements)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모델’을 설정 내지 정립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세부 부문별 정책수단을 발굴·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내발적 발전에 기초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목적



Framework



3. 연구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Phase #0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개념적 정의 설정방법 및 과정

■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대한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 설정

(1) 기본방향

“생산 → 분배 → 지출”이라는 경제순환과정의 메커니즘 내에서 기존 충남의 외생적 개발로 인한 양적성장이 초래한 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주체간 균형적 발전, 나아가 지역경제의 질적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발적 발전이론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린다.

(2) 전제

“글로벌 경제(Global Economy)”로 대변되는 개방구조하에서 단순히 내부적 수요와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주체적 역량속에서 외부적 수요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는 순환형 경제구조를 전제한다.

■ 수행방법

(1) 문헌조사

국내외 내발적 발전이론 연구동향 및 내발적 발전전략에 기초한 EU(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본, 그리고 국내의 관련 정책수단을 검토한다.

(2) 「지역경제 순환연구회」 중심의 내부 study 및 관련 워크숍 개최 정례화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3)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

거시적(정량적)·미시적(정성적) 분석을 병행한다.

〔그림 1-2〕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개념적 정의 설정과정



2) Phase #1 : 지역범위 설정기준 및 방법

■ 지역범위 설정기준

본 연구에서 충남의 지역범위는 Boudeville의 지역유형 분류 중 계획지역(region plan)과 기능지역(functional area)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계획지역은 교역 및 소득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자원활용 등 특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속된 공간을 의미하며, 계획지역과 기능지역은 개념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다만, 계획지역은 언제나 기능지역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기초로 설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순환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지역산업연관표를 토대로 광역 시·도 및 시군단위의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이 작성되므로 계획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범위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기능지역은 결절 또는 극화지역(nodal/polarized region)으로 지칭되며,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지역범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지리적 영역이 하나의 결절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거점과 주변지역 간의 생산, 소비 및 각종 사회활동에 있어 밀접한 상호작용이 존재해야 한다.

공간거점간 기능적 상호연계성은 흐름(flow)의 현상으로 가시화 되는 바, 흐름은 ① 지역계정(regional account system), ② 투입-산출(input-output system)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OECD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기초로 공식적 혹은 준공식적 기능지역(functional area)을 설정하고 있다.

〈표 1-1〉 OECD 국가들의 기능지역(functional area) 설정사례

국 가	기 준	지 역 구 분
캐나다	근무지와 거주지간의 통근비율	센서스 대도시권(census metropolitan)과 센서스 집적지역(census agglomeration) 으로 구분
독일	노동수급의 자족성	노동시장지역(LMR, 현 271개)
스웨덴	노동수급의 자족성	지방노동시장지역(현 81개)
이탈리아	노동수요 자금률과 공급자금률	지방노동시장지역(LLMAs)

자료 : 지역발전론(2003).

이에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기능적 접근방식인 「지역노동시장권(LLMAs: local labor market areas)」접근법을 활용하여 충남의 지역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지역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경제활동의 지역·산업·경제주체간 상호작용(생산과 소비의 관계)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통계자료의 구득한계를 감안하여 계획지역과 기능지역의 요건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 지역범위 설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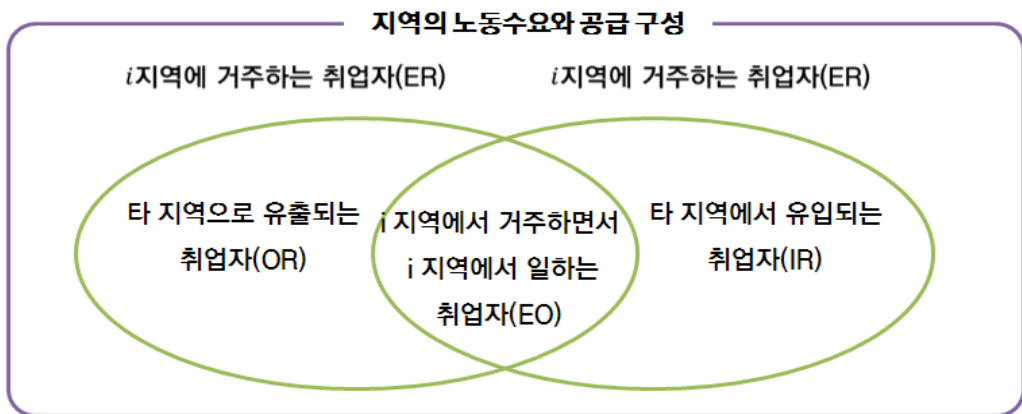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기초한 기능지역 설정방법 중 지방노동시장권(LLMAs) 접근법을 활용하여 충남도의 지역범위를 기능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1) 지방노동시장권(LLMAs: local labor market areas) 접근법

지역노동시장권 접근법은 지역노동시장에 관한 기능적 접근(functional approach)법으로 그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TTWA's: travel to work areas)을 의미한다(Campbell, 1996, OECD, 1998).

동 방법은 지역노동시장에 관한 기능적 접근(functional approach)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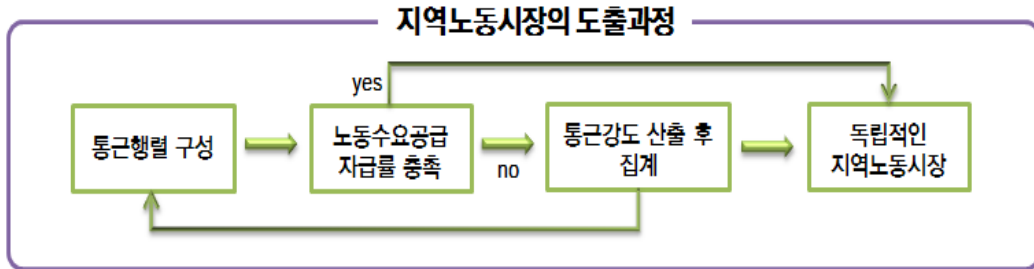
이 접근법에 따르면 하나의 단위지역은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크게 주거지와 업무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이 때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노동공급 기능과 연관되며, 업무지로서의 역할은 노동수요 기능과 연관된다.



그리고 특정 시군이 주거지와 업무지 중 어느 것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 지역에서 주거하거나 일하는 취업자들 각각의 규모와 타 지역과의 공간적 의존도(spatial dependency)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통근관계 속에서 어떤 단위 지역 i 의 노동력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i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취업자(ER-EO),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취업자(OR),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취업자(IR)로 구분할 수 있다.

(2) 지방노동시장권 도출과정



노동수요 자급률(housing self-containment ratio, HSC) : 특정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 중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통근자를 제외한 지역 내 취업자의 비중

- 노동공급 자급률(employment self-containment ratio: ESC) :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중 역외로 유출되는 통근자를 제외한 지역 내 취업자 비중

* HSC와 ESC의 최소값 > 75% : 독립적인 노동시장으로 간주(기존 연구결과)

통계청의 2011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micro data)와 시군별 거주지-근무지 자료이용

3) Phase #2 :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방법 및 내용

■ 지역경제 순환구조 규명의 개요

(1) 거시적(macro)측면

사회계정행렬(SAM)작성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생산→분배→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간 상품 및 화폐흐름을 정량적으로 규명

- 예) 제조업(전략산업), 유통업(도·소매), 농업, 관광업 등 제 부문에서의 지역 간 이출입 관계규명을 통해 충남지역 내 순환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

(2) 미시적(micro)측면

기존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특정 지역(업종)을 대상으로 정성적 측면의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

- 예) 제조업(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유통업(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농업(향토제품 및 농수산물), 관광업 부문 등에서의 「지역 내 순환정도」를 정성적으로 파악

■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방법 및 내용

(1) 거시적측면

: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지역경제의“생산 → 분배 → 지출”구조 분석개요

경제의 순환구조는 생산과 분배 지출 국민소득이 동일한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으로부터 해석될 수 있다.

경제(economy)의 생산과정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에 대해 각각 피용자 보수와 자본수익으로 분배되며, 이 소득분배의 결과물로부터 경제 내 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비로부터 다시 생산 활동이 유발되고 앞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경제의 순환(circulation of economy)이라 하며, 이러한 경제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경제의 선순환이라 한다.

따라서 경제의 순환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잡고 선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 내 재화와 화폐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순환하고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 단위에서는 국민경제 단위와 다르게 재화와 화폐의 지역간 거래(interregional transaction)가 발생하며, 이 부분이 지역경제 내 “생산 → 분배 → 지출”의 순환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의 순환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UN에서는 각국의 경제통계 작성 시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에 입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SNA를 경제의 순환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통계라 할 수 있다.

지역경제 단위에서도 UN과 OECD에서는 SNA에 입각하여 “생산 → 분배 → 지출”의 순환 구조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경제분석을 통한 정책수립을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서야 광역시도 지역경제 단위에서 지역소득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시군단위 소지역 단위 지역 및 도시경제에서 지역간 거래를 포함한 생산과 분배 지출의 순환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지역경제통계가 작성되어 제시되지 않는 경우,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과 국제기구들의 Working pap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이 훌륭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2007 KNS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wth, Distribution and Social Accounting Matrices”).

- 상기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에서 2007년 주최한 행사로 지역경제 순환 구조 관련된 경제통계의 작성에 사회계정행렬(SAM)의 적용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 이외에도 경제의 순환구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제수단으로 일반균형 체계(general equilibrium framework)의 CGE 모형을 적용한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도 분석의 기초자료로 필수적인 지역경제 통계로 지역의 사회계정행렬(SAM)을 언급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가교통D/B, 충청남도 및 개별시군의 자료를 활용하여 충청남도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의 순환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경제통계 D/B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순환구조에 대한 진단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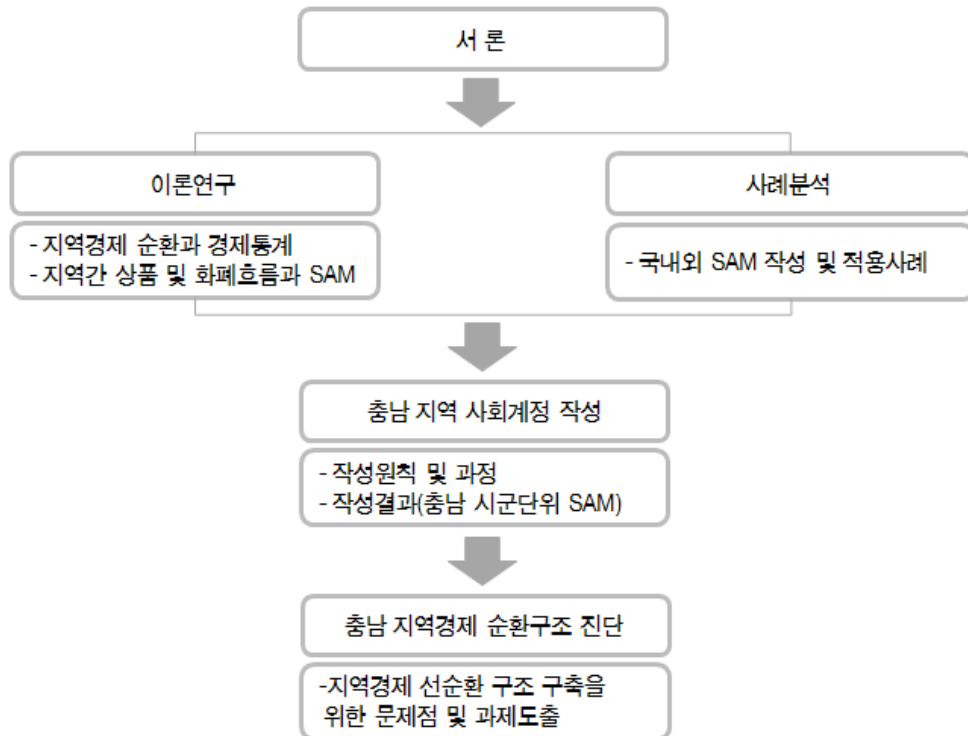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정행렬(SAM)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로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며,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시군단위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여 시군단위에서의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진단할 예정이다.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며, 시범적인 시군단위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의 분석과정은 향후 연구를 포함한 지역경제 순환구조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다.

▶ 분석과정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의 진행과정은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그림 1-3〕 지역경제 순환구조분석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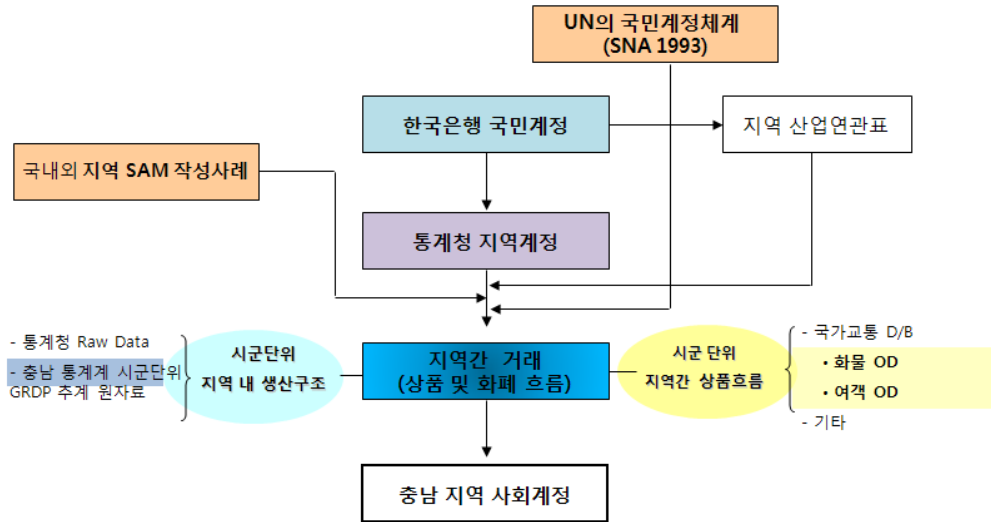


먼저 1단계에서는 관련이론과 선행 연구사례 등이 검토되며, 이로부터 경제의 순환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경제통계로서 사회계정행렬(SAM)의 유용성 및 관련 이론적 토대가 제시된다. 여기서는 또한 국내외 사회계정행렬(SAM) 작성 및 적용사례에 대한 검토결과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충남 지역사회계정행렬 작성의 기본원칙과 함께 과정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앞의 내용을 토대로 충남 지역사회계정행렬이 작성되며, 이렇게 작성된 지역 사회계정을 토대로 3단계에서는 충남 지역경제의 순환구조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다. 작성되는

충남 사회계정행렬 상의 지역 및 산업구분은 충남 내 15개 시군을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지역 경제를 기준으로 18개 산업 대분류로 이루어짐(15시도 + 충남 15 시군) × 18 산업(충남 사회계정의 작성과정 및 통계자료의 이용에 대한 내용은 그림에 정리된 바와 같다).

(그림 1-4) 지역 사회계정의 작성과정 및 이용 자료



참고적으로, 현재 지역경제연구부는 우리나라를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하고 경제 내 산업 부문을 총 168개 업종으로 세분한 금액단위(monetary unit) 및 물량단위(quantity unit)의 품목별 지역간 거래(interregional transaction)표를 작성해 놓은 상태이다.

이 외에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충남 물류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시군 단위에서의 주요 품목별
물동량 OD 조사에 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회계정행렬의 특성 상 경제를 구성하는 전 경제주체(가계, 기업, 공공부문, 대외부문)와 모든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이 포괄되며, 상품과 화폐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역간 거래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구축되는 경제통계 D/B는 그 자체만으로 지역경제 순환과정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부문과 분야에 있어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체계 하의 경제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원에서 2006년 수행된 「충남 지역경제 분석 및 정책진단을 위한 CREAM 개발연구」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다.

(2) 미시적측면

： 미시적 측면 ： 도쿄대학 「지역경제 순환연구회」의 지역경제 순환분석 방법 활용

▶ 분석의 범위설정

- 생산과 소비의 관계 속에서 지역구분 : 시장권, 금융권, 상권, 통근권 등 경제활동이나 생활 행동의 실태에 입각한 지역구분
- 동 연구회에서는 도시 고용권(시·읍·면간의 통근유동) 단위의 지역경제 분석을 시도

▶ 지역경제 순환모델 작성방법

동 연구회에서는 사람, 재화, 돈, 정보의 유동(이·출입)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기존 통계자료 이용, 둘째, 앙케이트·히어링에 의한 정보수집(통계구득의 한계에 기인)

- 사람의 유동 : 통근 데이터를 이용 + 쇼핑동향조사(도도부현 단위 실시)를 토대로 분석
- 재화의 유동 : 출하액, 생산액, 판매액 + 앙케이트(출하장소, 외주처, 조달처)
- 돈(자금)의 유동 : 금융(예대율)통계 + 앙케이트·히어링(역내 금융기관 조달, 본사 일괄 조달 등)
- 정보의 유동 : 지역간 전화 통화량 등 + 앙케이트·히어링

▶ 사례연구를 위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개요(안)

① 제조업 부문

- 조사내용 : 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및 출하실태, 산·학·연 연계 수준, 공급사슬(supply chain), 인력 및 자금흐름 등
- 조사대상 : 제조업체 200개소(전자정보 및 자동차 관련 업체)
- 조사지역/방법 : 천안·아산 또는 기타 지역/설문 및 인터뷰 조사

② 유통업 부문

- 조사내용 : 지역민 쇼핑동향 및 지역 내 농수산물 물류, 그리고 자금흐름 실태 등
- 조사대상 :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SSM 포함) 관계자, 지역주민
- 조사지역/방법 : 천안·아산 또는 기타 지역/설문 및 인터뷰 조사

③ 소비부문

- 조사내용 : 지역 내 소비실태

- 조사대상 : 지역민
- 조사지역/방법 : 천안·아산 또는 기타 지역/설문 및 인터뷰 조사

4) Phase #3 :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설정 방법 및 내용

■ 기본방향

“생산 → 분배 → 지출”의 메커니즘 속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성요소와 각 요소별 필요조건(requirements)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모델”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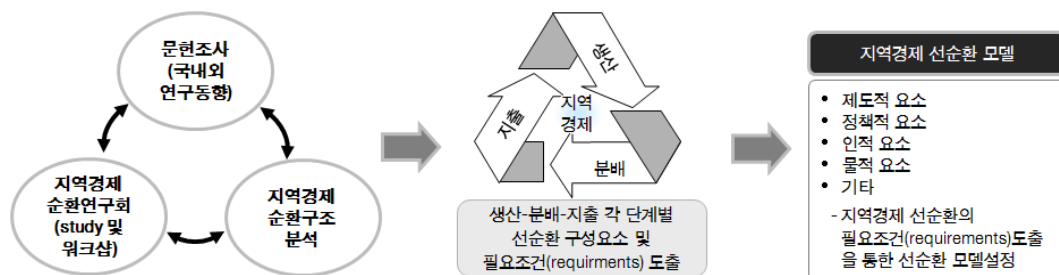
지역경제의 순환에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순기능은 제고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설정한다.

■ 설정방법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설정 절차는 우선 문헌조사, 본원 지역경제 순환연구회의 내부 study 및 관련 워크숍 개최, 그리고 지역경제순환구조 분석을 토대로 경제선순환의 구성요소를 “생산→분배→지출”의 메커니즘 속에서 찾아낸다.

다음으로 개별 요소별 필요조건(requirements)에 대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선순환(virtuous cycle)모델을 설정한다.

〔그림 1-5〕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 설정과정



4. 연구 추진체계

■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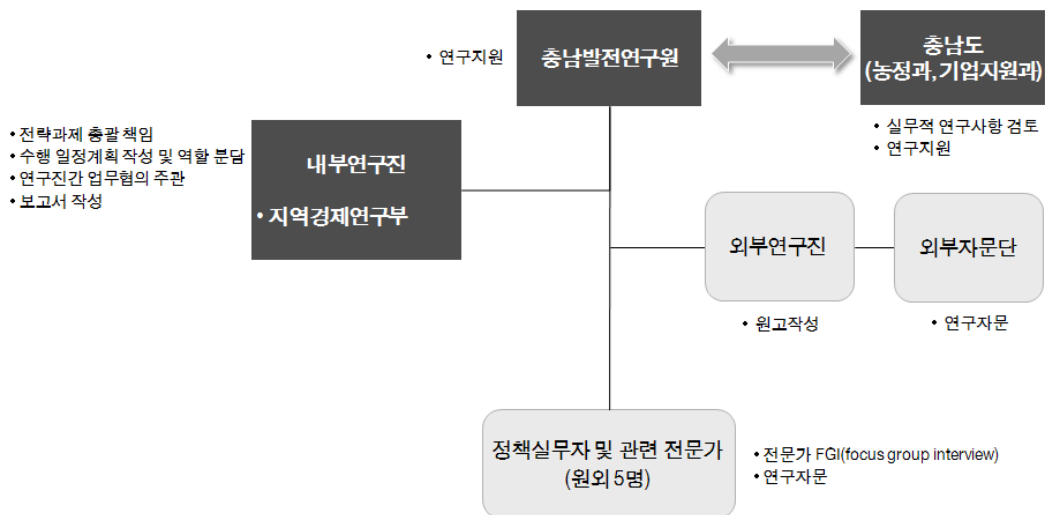
본 연구는 본원 내부연구진을 중심으로 범부서적 연구로 진행하는 한편, 충남도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연구협의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외부연구진과 외부자문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의 완성도 및 현실 적합성 제고한다.

또한, 지역경제순환연구회를 조직·운영함으로써 관련 워크샵 및 스터디(study)를 통해 연구 아이디어를 얻고 연구역량의 향상을 도모한다.

본 연구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연구부는 연구수행 일정계획 작성 및 역할분담, 그리고 연구진간 업무협의 주관 등 연구총괄 및 분야별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림 1-6] 연구추진체계



제2장 지역경제 선순환의 의미와 개념적 정의

1. 지역발전전략에 관한 두 가지 논쟁

1) 외생적 발전전략 vs. 내생적 발전전략

지역성장에 있어 내부적 자극이나 잠재력보다는 외부적 자극과 잠재력에 의존하는 성장지향적 발전전략을 외생적 지역발전(exogenous development)이라 한다.¹⁾ 이와 같은 외부지향적 발전(external-oriented development)은 발전의 힘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지역경제규모의 확대만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이전적 접근방법(transferential approach)이라 불리운다(김용웅 외, 2003). 외생적 발전전략은 발전의 이념, 목표 및 전략차원에서 하향적 지역발전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여기서 발전이란 경제의 양적성장을 의미하고 발전의 목표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는 지역내부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산업의 경쟁력도 낮기 때문에 외부자원이나 기업의 유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한정된 자원은 주민의 복지보다는 생산에 우선하여 확대재생산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의 기반이

1) 2차대전 후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한 경제발전모델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정에도 적용됨.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나 주민복지의 문제에 치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내생적 지역발전전략(endogenous development)은 발전의 동기여부나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지역의 내부에서 찾는 전략을 의미한다.²⁾ 지역의 발전목표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 지역발전은 지역 내 자극과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기술에 의존한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동 전략은 경제성장이나 산업의 발전보다 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복지지향적 지역발전(welfare-oriented regional development)이라고도 한다.

이 전략은 대단위 기업이나 산업보다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 및 수공업을 중시하고, 공공분야의 투자도 경제적 하부구조 개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민의 교육, 보건,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소득, 고용, 보건 및 교육 등 수요충족을 우선하기 때문에 생산이나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외부기술이나 자원보다는 지역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중시한다. 동 전략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내부의 모순제거 등 사회 및 생산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전환적 접근 방법(transformational approach)이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인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으로는 Friedmann과 Douglass(1978)의 농도지구 개발모형을 들 수 있다.

외생적 지역발전전략의 특성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 내 생산의 이익이 외부자본가에게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외부시장과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의존성이 심화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약화되며, 지역의 생산증대가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직접 연계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노동력이나 토지 등 자원을 단순히 생산 수단화함으로써 지역 잠재자원과 발전역량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자원과 환경의 남용 및 오용을 가져와 환경을 파괴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1980년대 이후 제 3이테리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되었으며,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산업클러스터 이론의 실제적 모태임.

이러한 외생적 지역발전전략은 단순히 경제나 생산체제의 확대만을 의미하므로 주민의 소득, 교육, 의료 등 복지의 증진, 사회체제의 구조적 개선 등 발전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지역이 지닌 잠재자원을 살리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운명을 지역외부의 여건에 의존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의 특성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인 수요와 자원에만 의존하므로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빈곤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발전 지역에 있어 내부적인 수요유발이 곤란하다.

셋째, 주어진 자원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넷째, 폐쇄경제가 아닌 한 지역의 고용, 보건, 교육 및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외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이 불가피한데 내생적 발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바, 그 이유는 지역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화폐소득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동 전략은 이념적인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수준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 도달한 이후부터 부분적인 채택이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성숙사회에서는 산업의 기술력도 일정수준에 달하고, 발전에 대한 주민의 가치관도 단순한 경제의 성장보다 환경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다원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역발전전략의 선택이 일반이론에 의해 양자택일로 결정되기 보다는 경제발전 수준, 지역의 발전잠재력과 추진능력, 그리고 발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참여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신내생적 발전개념(neo-endogenous development)에서는 내부적 수요와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주체적 역량 속에서 외부적 수요와 자원의 활용을 혼용하고 있다.

[그림 2-1] 외생적 발전전략과 내생적 발전전략의 제 한계



2) 두 전략의 특성비교

외생적 발전전략과 내생적 발전전략은 전략의 유형, 발전목표, 발전동기, 생산요소의 배분기준, 발전방식, 의사결정 방식 등에서 상이하다.

첫째, 전략의 유형 상 외생적 발전전략은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공간적 불균형발전전략과 하향적 발전전략으로 구분되며, 내생적 발전전략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분배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공간적 균형발전과 상향식 발전전략으로 구분된다.

둘째, 발전의 목표측면에서 보면 외생적 발전전략은 발전을 경제성장과 생산확대로 보고 있으나, 내생적 발전전략은 발전을 기회의 확대로 보고 지역내 잠재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가를 중요시한다.

셋째, 발전의 동기나 의사결정 등 지역발전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외생적 발전전략은 지역의 발전을 외부수요와 자본, 현대적 기술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추진방식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내생적 발전전략은 지역발전이란 내부적 수요에 기반을 두며 이에 필요한 자원도 지역적으로 획득과 통제가 가능하고 재활용성이 높은 자연자원 및 전통적 중간기술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다.

넷째,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요소의 배분, 즉 투자결정에 있어서 외생적 발전전략은 생산요소별 수익을 극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집적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외생적 지역발전전략은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잠재자원의 동원을 최대화하고 지역 내 생산 및 사회구조를 개선하여 자율적 발전기반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마지막으로 외생적 발전전략은 수출산업과 선도산업의 육성을 중시하고 이를 위하여 현대적 기술 및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전략을 채택하지만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은 농업 및 소비재 등 주민과 직결과 산업의 육성을 중시하고 노동 및 전통기술 등 지역적 자원에 의존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그림 2-2〕 외생적 발전전략과 내생적 발전전략간 특성비교

구분	외생적 발전전략	VS.	내생적 발전전략
전략 유형	하향적 지역발전 공간적 불균형발전		상향적 지역발전 공간적 균형발전
발전 목표	경제성장, 생산확대		복지 및 개인소득 증진
발전 동기	외부적 동기유발 - 외부수요 - 외부자본 및 기업유치		내부적 동기유발 - 내부수요 - 내부자원 및 전통기술
생산요소 배분기준	생산요소 수익률 규모 및 집적경제		내부적 자원동원능력 확대 자율적 발전기반 구축
발전 방식	수출주도의 선도산업 육성 성장거점 도시 조성		다양한 생업 및 소비산업 육성, 지역사회여건 개선
의사 결정	중앙 집권적 - 중앙정부		지방 분권적 - 지방정부

자료 : 김용웅·차미숙·강현수, 지역발전론(2003).

2.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동향

1) 이론적 배경

① 내발적 발전론

내발적 발전론은 1970년대 일본의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된 지역발전이론으로 정치경제권력을 배제한 사회적 운동으로서 츠루미 가츠코(鶴見和子)에 의해 동 용어가 최초 사용되었다. 한편,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는 지역불균등론을 비판하는 동시에 외래형 지역개발의 대응논리로 동 이론을 발전시켰다(宮本憲一, 1977).

내발적 발전론은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개발성과의 지역 내 순환을 지향하는 바, 구체적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다양한 경제부문의 발전을 토대로 지역 내 산업연관의 형성 및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을 중시한다. 구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의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순환형 경제를 실현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다(박진도, 2011).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의 내발적 발전의 목적은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부문의 발전을 통한, 지역 내 산업연관의 형성과 지역 내 경제순환의 추구라 요약될 수 있다. 나아가 내발적 발전의 목표는 단순한 경제적 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즉,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세 요인을 모두 감안하는 통합적 발전(integrated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것이다(박진도, 2011).³⁾

이와 같은 내발적 발전론은 내생적 발전론과 유사하나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띄고 있다(宮本憲一 외, 2004).

3) 이를 위해 발전의 동력을 지역 내에서 찾되, 현실적으로 지역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고, 지역 밖과 항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바, 외래자본이나 정부의 지원책 등을 적극 활용하지만 그들에게 지역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닌 지역의 주체적 계획에 의해 외부와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라 역설함

첫째, 대기업이나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의 기술, 산업, 문화를 토대로 지역 내 시장의 발전을 중시하고 지역주민이 학습, 계획, 경영하는 것이다.

둘째, 환경보전의 틀 속에서 개발을 생각하고 자연의 보전이나 아름다운 거리를 창출하는 쾌적성을 중시하며 복지나 문화를 향상시킴에 따라 주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는 개발이다.

셋째, 산업의 발전은 특정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연관구조를 지역 내에서 완성하여 부가가치가 그 지역에 귀속하는 것과 같은 지역경제의 질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자치단체가 주민의 요구를 기초로 하여 자본이나 토지소유를 공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자치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외래형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진출한 기업의 경영방침은 기업계열의 이익을 우선하고 해당지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회사를 동반하거나 계열 내 거래로 인하여 지원산업 및 지원기업과의 산업연관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

둘째, 유치·진출한 기업의 이익은 본사가 있는 대도시 등 역외로 빠져나가 지역경제의 확대 재생산에 귀착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다수의 외래형 개발은 환경파괴형으로 지원기업이 아니므로 환경이나 지역고용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발을 정비할 수는 있어도 진출이나 철수, 조업 등의 의사결정은 민간기업이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의지대로 계획적인 경제진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특히, 분공장 형태로 유치된 대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내 자본의 역외유출은 지역경제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역외로 유출된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분공장 경제(branch plant economies)가설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들로는 첫째, 투자결정 등 경영전략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역외의 본사로부터 외부통제를 받으므로 자율성이 부족하다(宮本憲一 외, 2004).

둘째, 지역간 산업연관은 활발해도 지역 내 관련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역 내 산업연관은 미약하다(宮本憲一 외, 2004; Turok, 1993; Phelps, 2008).

셋째, 일자리 측면에서도 일자리 안정성 및 질이 부족한데 특히, 국내기업의 분공장이 다국적 기업 분공장보다 일자리 안정성이 더 나쁘며 대부분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한다(Colombo and Delmastro, 2000; Roberts, 1996).

넷째, 고차원의 연구개발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연구개발 및 제품변형이 주를 이룬다(Morris et al., 2007).

끝으로 전술한 요인들로 인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력이나 내발적인 혁신력이 형성되지 않는다(宮本憲一 외, 2004).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에 의하면 지역경제를 진흥하는 본래의 목적은 현 세대와 함께 미래 세대를 걸쳐 전체 지역주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경제진흥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주된 과제는 다음과 같음을 역설하였다.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서는 부의 유출을 억제하고 유입을 늘려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 소득분배의 공평을 유지하는 것, 고용기회를 확대해 가는 것, 그리고 환경과 자원을 보전하면서 경제발전은 진전시켜 가는 것이 주된 과제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활동의 성과인 사회적 잉여를 지역경제를 확대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기업을 유치하여 출하액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이윤이 역외의 본사로 유출되거나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지역경제를 진흥하려는 목적은 결코 달성되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내발적 발전에 입각한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⁴⁾

첫째, 지역 내 기존 산업·기업을 시대의 수요에 맞춰 재설계하고 그 육성과 진흥을 꾀하는 방법, 둘째, 기존산업에서는 부족한 분야나 경제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산업·기업의 이업종 교류나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육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역에 있는 하드자원과 소프트웨어

4) 관련하여 山崎允은 산업측면에서 ① 진출기업의 활발한 생산활동의 추진, ② 지장기업의 활성화, ③ 신산업의 창출 등 3가지를 들고 있음(지역경제활성화의 길, 1984).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주체적인 창의성을 가미하여 경제적 자율성을 높여 공동성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② 신내생적 발전론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은 1995년 Lowe et al.(1995)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후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었으며, 2001년 Ray(2001)에 의해 신내생적 발전(neo-endogenous development)이라는 용어로 정의된다. 동 이론은 지역의 능력향상에 초점을 둔 내생적 발전모델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Ray(2004)에 의하면 “내생적 발전에 기본을 두고 있는 발전으로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외부요소들(extra-local factor)을 인식하고 이들이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발전이지만 여전히 발전의 전 과정은 지역의 잠재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발전”이라고 정의한다(김태연 · Philip Low, 2010).

이러한 신내생적 발전론은 내생적 발전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내생적 발전모델의 한계로 첫째,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 둘째, 외부요소의 기능과 역할배제, 셋째, 외부와의 상호연계체계 결여, 넷째, 발전과정을 조율하고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관련하여 Slee(1994)는 “비록 내생적 발전전략이 지역사회와 경제의 발전과정을 형성하는데 매우 유용할지라도 외생적 발전론을 대체한 것이고 보는 것은 오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Van der Ploeg와 Long(1994)은 “내생적 발전이 주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즉, 환경생태자원, 노동력, 지식, 지역의 생산소비체계 등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발전이나, 내부요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내·외부 요소간의 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Low(1996)는 모든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발전과정에는 항상 내부와 외부의 힘이 상호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발전의 전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역의 능력 즉, 지역의 경제적·정치적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내생적 발전의 목적은 지역에서 창출된 이익을 지역 내에 최대한 보전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이 해당지역의 물질적·사회문화적인 자원들을 이용하고 가치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권적인 정책시행체계와 지역 파트너십의 형성 및 주도라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며,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의 순환체계를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이 언제나 외생적 또는 내생적 발전형태로 전환될 것임을 역설한다.

이러한 점에서 내생적 발전이 지역발전의 성취를 이상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신내생적 발전에서는 각각의 농촌지역이 자신들의 역량에 맞게 지역발전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발전의 실행과정에서 모든 참여주체들에게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김태연·Philip Low, 2010).

신내생적 발전에 적용되는 주요 원리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와 네트워크(network)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범위의 경제는 내생적 발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내생 발전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해야하며, 지역내부와 외부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다.

김태연·Philip Low(2010)는 유럽지역에서 농촌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업가구(business household), 사업네트워크(business network),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학습지역(the learning region)은 신내생적 발전의 주요 요소로서 각각 신내생적 발전에 있어 주체, 제도, 자원, 작동체계와 연계되어 활용되어진다.

〈표 2-1〉 신내생적 발전의 주요 요소

구 분	개 념	역 할
사업가구	1명 이상의 가족경영체	지역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의 기초단위
사업네트워크	지역 내 사업체 소유자들의 네트워크	외부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착근
장소정체성	문화적 체계와 정체성	지역내외간 역동적 관계형성 시 촉매역할
학습지역	상호학습 및 의견수렴 체계	지역내외간 지속적인 상호작용

자료 : 김태연·Philip Low(2010)의 논문을 인용하여 재정리함.

신내생적 발전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에서 출발한 신내생적 발전론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신내생적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들이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신내생적 발전을 정책적으로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개념상의 혼란을 극복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외부요소와 지원을 수용할 때 지역에서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농촌개발 및 정책사례를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요소와 분석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신내생적 발전이 작동하는 전체적인 체계를 설명하는 분석 틀은 무엇이고 이런 체계에서 어떤 주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분석들과 요소들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Shucksmith, 2010; Ray, 2006).

③ 지역경제 성장이론의 최근 흐름 : 신성장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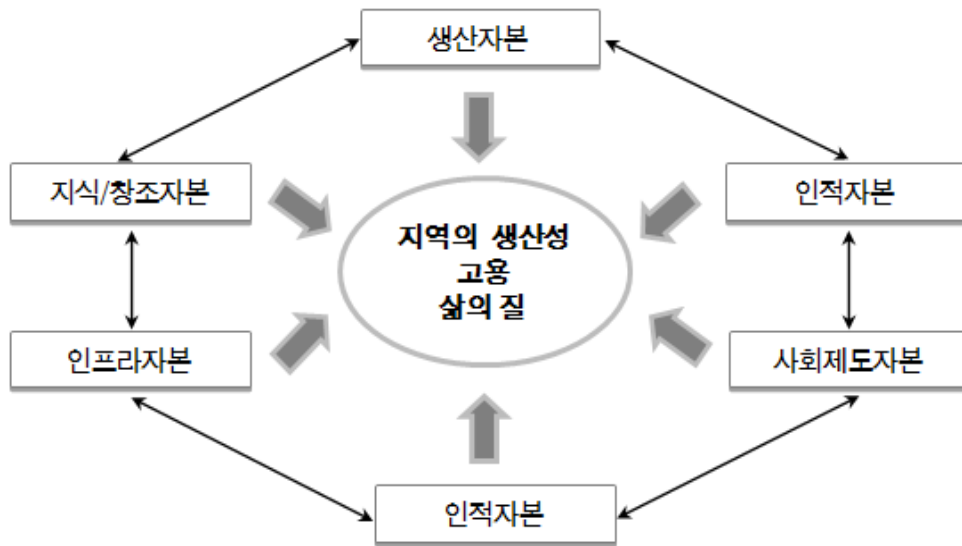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다루는 많은 논의들에 있어 지역경제의 발전 또는 경쟁력은 투입과 산출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본적으로 지역 내 물적 조건의 개선에 따른 생산성 확대에 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인간본성의 계발이란 측면은 다소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태적인 경쟁우위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⁵⁾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차원의 동학적인 경쟁우위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성장을 역동적인 적응역량의 제고로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역동적인 적응능력은 기본적으로 혁신에 관한 것이고, 혁신은 지역의 기존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환경이나 기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관련하여 Michael Kitson et al(2004)은 지역경제

5) 한편, 내생적 성장론에 의하면 숙련된 인적자본의 축적 및 유치가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요 원천이며, 이러한 인력의 국지화가 지식창출 및 확산 나아가 지역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기제로 봄

성장의 추동요인을 기업의 관점에서만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은 다양한 자본이나 자원이 조합 될 수 있는 역동적인 장을 제공할 수 있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림 2-3〕 지역 경쟁우위의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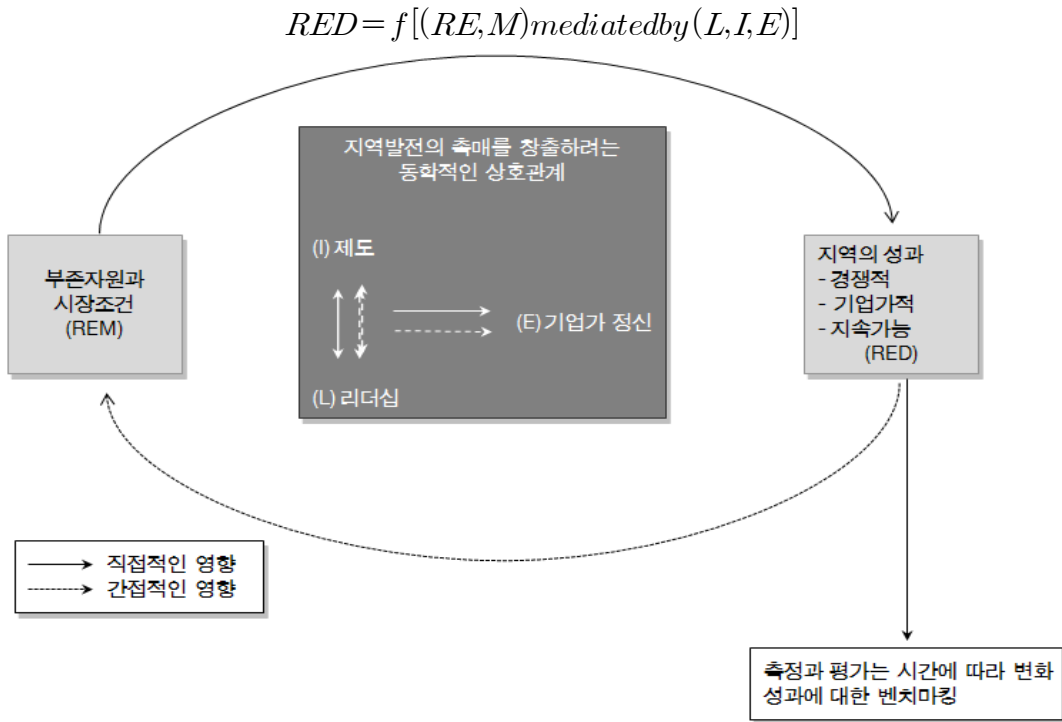


자료: Michael Kitson et al(2004)

관련하여 최근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내생적 요소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상의 접근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에 있어 내생적 요소의 중요성은 ‘신성장 이론’의 기초되고 있다. 이러한 신성장론은 과거 내생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과 지역의 내생적 성장의 변수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한 한계를 가진 내생적 성장론을 보완하는 추세이다.

Stimson et al.(2005)은 제도, 리더십, 기업가 정신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매개요소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내생적 성장의 공간적 변동성을 설명하는 모델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제시한다. 지역경제발전은 리더십(L), 제도적 요인(I), 기업가정신(E)에 의해 중재되는 부존자원과 시장의 함수라 정의한다.

(그림 2-4)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 프레임워크



자료: Stimson et al.(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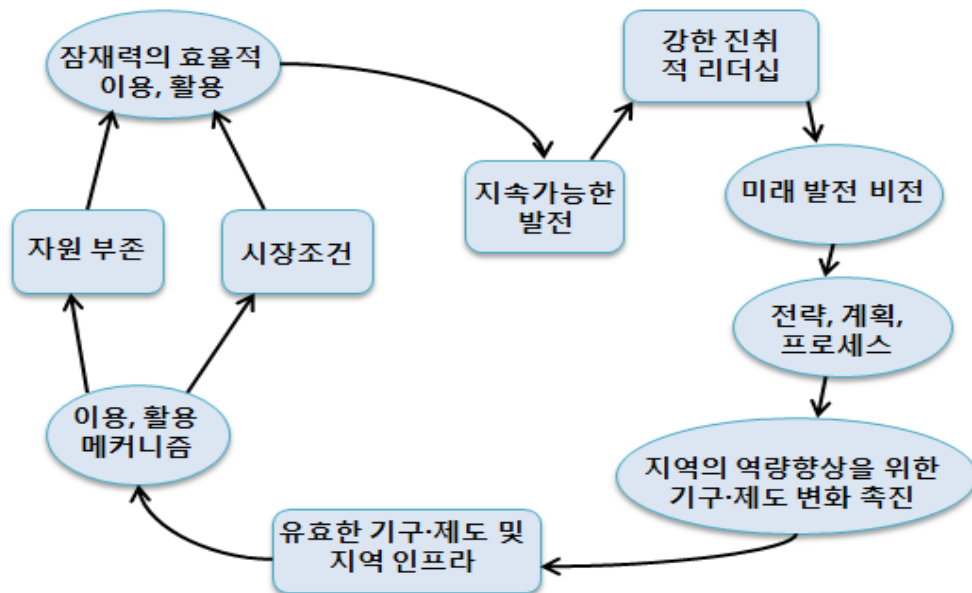
부존자원(RE), 시장(M), 리더십(L), 기업가 정신(E)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 부존자원은 지역의 면적, 기후, 지형, 산업 주요부문의 집적, 인구 및 인구성장률, 교육수준, 소득, 주택, 산업 및 인프라 투자, 산업구조 및 변화, 지역의 조직 등에 의해 측정된다.
- 시장은 주요산업 부문에서의 기본적 경제행위, 다른 지역/도시의 연관성, 도로운송, 중요재화와 서비스의 수출량과 가치 등에 의해 측정된다.
- 리더십은 주요산업 부문에서의 기본적 경제행위, 지역정치의 리더십 변화 및 안정의 정도, 리더십의 질에 대한 전문가 평가, 기업본사의 지역소재 여부, 지역사회조직과 밀도, 지역 내 조직/협회의 예산 및 고용의 크기 등에 의해 측정된다.
- 기업가 정신은 창업율 및 자연 감소율, 벤처자본 활동, 기업의 벤처활동, 근로자 10,000명 당 특허 수, 고용의 입지계수 등에 의해 측정된다.

한편, Stimson et al.(2003)은 지역 발전의 ‘선순환(virtuous circle)’의 개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의 선순환은 지역의 펀더멘탈(fundamental)과 지역의 외부경제를 창출하려는 전향적인 리더십이 제도 및 기업가 정신과 결합되어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소득, 고용, 삶의 질 제고로 이어져 지역의 발전이 지속가능하게 됨을 역설하였다.

(그림 2-5)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선순환 과정



자료: Stimson et al.(2003)

Stimson et al.(2003)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우선 초기 지역경제발전에 있어 강한 리더십이 지역의 성과에 대한 감시를 주도해야함은 물론 미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아울러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은 제도변화를 가능케 하는 절차와 계획을 지시함으로써 지역의 수용력이나 역량 자체를 강화해야만 한다.
- 그리고 변화하는 지역내외의 상황을 조정하고 시장상황에 부합하여 지역의 부존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선순환에 중요한 기재로 작동될 것이라 한다.

4 사회적 자본

최근 들어 사회과학 분야에 걸쳐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과 집단이 협력하도록 하는 자원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을 사회에서 사람들이 특정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체제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추상적 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다(World Bank, 2000). 한편, 경제학자들은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의 구조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특성 즉, 신뢰, 상호의존, 사회적 기술 등과 거시적인 제도의 특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Glaeser, Laibson & Sacerdote, 2000; Putnam 1993). 다만, 사회적 자본은 그 개념과 역할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각 학문 분야별로, 그리고 개별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개략적으로 일정집단을 형성하는 사회성원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가운데서 동반되는 많은 사회·환경적 비용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문화 등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공존하고 그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조건의 상호관계,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 경제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 그 사회의 문화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한다. 왜냐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제 영역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이 서로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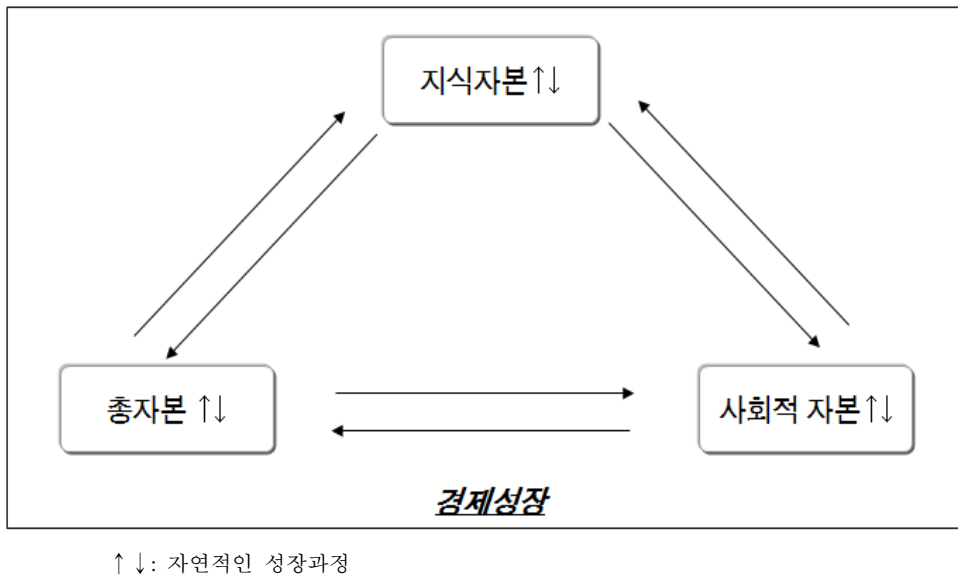
이처럼 사회적 자본을 통해 사회비용들을 내부화시키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은 다양한 선호와 우선권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경제주체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가는 의사소통적인 방법과 윤리를 필요로 한다(Ulrich, 1998).

또한 Knack and Keefer(1997), Dasgupta and Stiglitz(1980) 등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의 중개확산과 혁신을 촉진하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정(+)의 외부효과를 야기한다면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결정인

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 국가의 총 자본축적과정이 외부성을 통해서 지식자본축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본에 의해서 그러한 축적과정이 직간접적으로 강화됨을 의미한다. 미래의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로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공공제도의 공정성 강화, 사회적 자본 우호적인 도시기본계획, NGO 활동 및 기능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6〕 총자본, 지식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정



2) 관련연구 및 정책동향

① 지역경제순환 사례연구 동향

일본의 경우, ‘투자와 소비의 지역 내 순환’,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나가노현과 오카야마현의 지역경제 순환 구조에 대한 사례연구를 소개 한다.

■ 나가노현 사례

이이다·시모이나 경제자립화 연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비 및 사회부담액을 지역산업의 역량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상태로도 지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나가노현 이다시를 중심으로 1시 3정 14마을(약 1,929km², 인구 177,2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가노현의 필요소득액은 3,724억엔으로 시산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산업별 부가가치액, 산업별 파급 총소득액, 그리고 공적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파급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을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별 부가가치액 즉, 지역외로부터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인 농업, 임업, 공업, 관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 합은 1,730억엔으로 필요소득액의 46.5%임을 밝혔다.

산업별 파급 총소득액 즉, 동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각종 통계와 앙케이트 등을 통해 계산한 금액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하여 지역 총소득 1,720억엔을 산출한 바, 이는 필요소득액의 46.2%임을 밝혔다. 끝으로 공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파급소득은 부가가치액과 기타소득을 합하여 구했다.

그 결과 나가노현 이다시의 필요소득액은 지역 내 산업별 부가가치액과 파급소득액에 공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파급소득을 다 합한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 연구회에서는 그 대책으로서 제조업, 농림업 등의 산업활성화, 지역 외로부터의 외화 획득과 상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순환을 제고하는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오카야마현 사례

오카야마현 아카사카쵸에서는 종래 산업진흥 등의 지역활성화 정책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그 원인을 「인·물·돈」의 요소가 지역의 유출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지역내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분석프레임이 요구된다.

이에 「오카야마현 아카사카쵸의 지역경제 순환구조의 정량적 분석프레임과 이에 기초한 개산(概算)」이라는 조사가 착수되었다.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오카야마현 아카사카쵸(면적:43km², 인구 5,171명)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각종 통계 및 개별 기업·가게 인터뷰 조사(町内・町際取引表 작성)와 지역민의 소득과 지출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앙케이트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결과, 제조업의 지역내 구입·분배율이 낮은 것은 원재료의 지역외 조달이 지역내 조달을 크게 상회하는 것 외에 제조업 종사자 중 지역민이 적고 이로 인해 임금소득의 역내분배가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임을 규명했다.

구체적으로 아카사카쵸 제조업의 「지역외 조달·지역외 판매」패턴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 지역내 구입·분배율 20.3%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반면, 농업의 경우 「지역내 조달·지역외 판매」패턴으로 역내 구입·분배율이 76.2%로 여타 산업 중 가장 높았다. 나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 보다 농업의 효과가 크므로 이를 향후 경제순환 구조조정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임을 제언했다.

그 적용 예로 아카사카 「아침해 미(未)」를 들 수 있는 바, 아침해 미의 지역 외 판매 이외에도 밥술 가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매방식에 있어서도 농협이 전량구매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민 중심의 고용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순환의 효과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는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지방세수 측면에서도 여타 농촌 및 도시에 비해 기여도 높은 것이다.

② 지역경제순환구조 분석방법 연구동향

일본의 경우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분석수법의 미발달로 인해 분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분석대상 지역의 경제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사람, 재화, 돈, 정보 등의 이·출입을 파악해야 하는데 관련 통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정량적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앙케이트 및 설문조사 등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쿄대학 「지역경제 순환연구회」의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 연구회에서는 지역경제 분석을 위해 flow측면에서는 지역내·지역간 사람, 재화, 돈(자금), 정보의 유동을 파악·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순환정도를 규명하는 한편, stock 측면에서는 지역내 인재축적, 교양·문화자산(교육·직업훈련·교양·문화시설), 공중위생, 주택 등을 파악·분석함으로써 지역고유의 자산을 규명하는 것을 추고한다.

지역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순환 및 고유자산분석의 양자병용이 바람직하나, 현재까지는 양자 모두 분석수법의 미발달로 인해 분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동 연구회에서는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단위로 설정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 속에서 지역구분을 구분하고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시장권, 금융권, 상권, 통근권 등 경제활동이나 생활행동의 실태에 입각한 지역구분을 상정하고 이 중에서 도시 고용권(시읍면간의 통근유동) 단위의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 연구회에서 제시한 지역경제 순환모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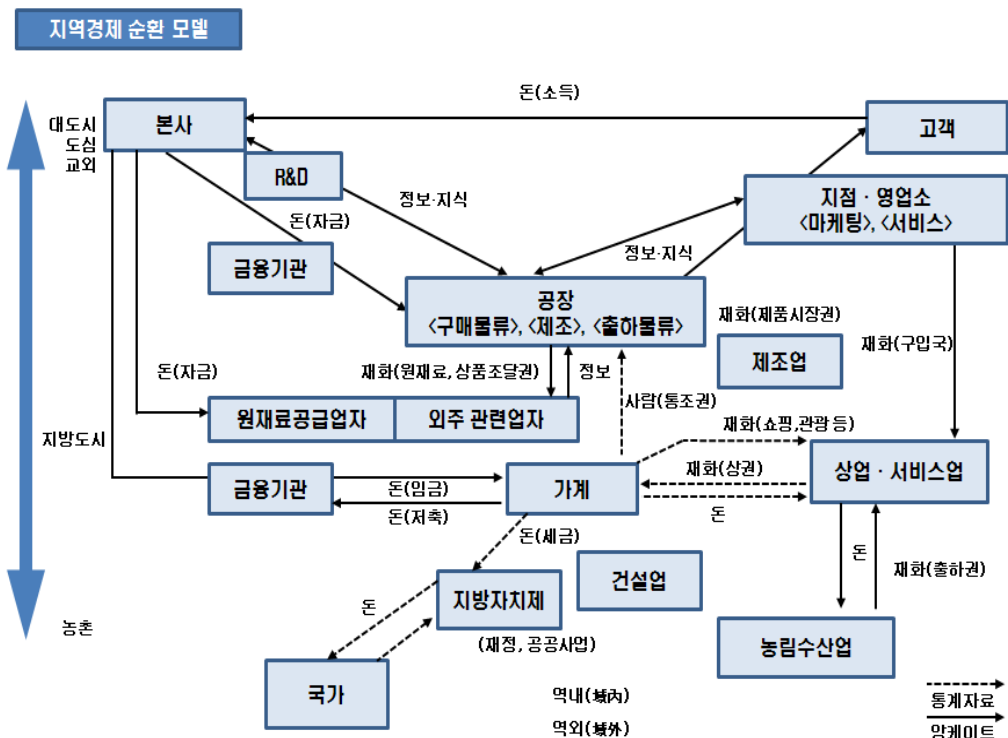
사람, 재화, 돈, 정보의 유동(이·출입)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기존 통계자료 이용, 둘째, 통계구득의 한계로 인해 앙케이트·히어링에 의한 정보수집을 병행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유동은 기존 통근 데이터를 이용하되, 도도부현 단위로 실시되는 쇼핑동향조사를 병용하여 파악했다.

재화의 유동은 출하액, 생산액, 판매액 이외에 출하장소, 외주처, 조달처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토대로 파악했다. 돈(자금)의 유동은 금융(예대율) 통계 이외에 역내 금융기관과 본사를 대상으로 앙케이트·히어링을 병용하여 파악했다.

끝으로 정보의 유동은 지역간 통화량 이외에 앙케이트·히어링을 병용하여 파악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토대로 지역산업의 역내·외 유동분석은 산업별 산출액 비율의 특화계수 또는 자급자족경제를 가정한 수정된 특화계수를 이용하여 산업별 순이출액 추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산업별 산출액 비율을 알면 앙케이트 없이 지역 내 이출초과나 이입초과를 간단하게 추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2-7〕 도쿄대학 『지역경제 순환연구회』의 지역경제 순환모델



자료: 경제산업성, 통상백서(2004).

③ 지역경제순환 관련정책 사례

일본의 지역경제 순환과 관련한 정책수단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 사회, 환경, 도시, 행정 등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⁶⁾

첫째, 길어지는 경기침체와 행·재정 핍박에 의한 지방도시와 농촌부의 심각한 지역쇠퇴, 1990년대 이후 지방도시가 공동화 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둘째, 정부의 행·재정 개혁이 “시장논리”와 “경쟁논리”를 토대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투자와 소비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사회 그리고 젊은 층의 대도시 유출은 의료복지 및 연금 등 지방도시의 행·재정 핍박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1960년대 이후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지방도시 내 유기적 연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다섯째, 지방분권 조류와 행·재정개혁의 전개의 변화양상, 그리고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1998년)” 책정은 지역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등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변화는 지역 경제순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① 제조업과 순환형 지역경제

지역 내 제조업 측면에서 순환형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학·관 네트워크 시스템을 토대로 농·공연계 및 기존 산업집적을 활용한 신기술 창조프로젝트를 발굴을 통한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차세대 의료산업집적 프로젝트로는 대학의 ‘知的 창조거점’ 역할을 토대로 산·학·관 연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현내 대학/高専(고등3년+전문대2년의 학교)을 망라하여 신속히 구축하고, 하이테크 플라자 등 공적 연구기관의 산·학 연계 코디네이트 기능을 강화한다.

신기술창조연구 프로젝트로는 수요 대응형 농공연계 차원에서 먹거리의 안전/안심, 건강에 착안한 기능성 식품가공기술, 지구온난화 대책, 환경보전 등에 대응한 카본 뉴트럴 연료, 재료 등과 관련한 정책수단을 강구한다.

6) 일본 「순환형 지역경제의 재구축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정리 함.

산업집적활용형 신기술창조 프로젝트로는 집적도가 높은 정보가전산업의 연계를 구축키 위해 국제경쟁력을 가진 전자부품, 재료, 세트메이커 등 관련산업 조사를 토대로 장래의 정보가전의 혁신을 창출할 베이스가 될 IT, 나노 테크놀로지 등 기반적 요소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한다.

② 관광업과 순환형 지역경제

지역의 자원 활용측면에서 관광업에 의한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관광수입 증가는 지역 내 고용, 관련사업에 영향을 주어 지역농산물과 토산품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은 지역의 중요한 산업으로써 지역내의 공헌이 매우 크다.

정책방향으로는 「마을 만들기」와 온천지, 글로벌화, 정보화시대의 온천지, 고객 니즈에의 대응과 제안형 온천지 만들기, 연계에 의한 관광지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지역계획, 주택건설과 순환형 지역경제

지역계획 측면에서는 주택건설, 중심시가지 활성화 및 콤팩트 시티 조성을, 농촌계획 측면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중심시가지 공동화와 대형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대형점 입지 규제 조항을 수록한다. 또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책정과 그 후의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설립을 통해 행정, 상공단체, 지역주민 등에게 일정 권한을 부여하며, 도시계획과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정합성을 강조한다.

컴팩트 시티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의 시가화 구역 재설정 및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스톡의 활용과 공공교통노선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기성 시가지로의 유도를 진행한다. 지방도시의 시가지와 농촌의 연계를 통한 지역순환형 경제구조 구축의 과제로 현내 관광지의 식재유통과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퇴비 만들기, 저농약/무농약 농작물생산, 시가지에서 생산야채와 어패류의 시장을 재생하는 등 지역사회의 재생을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과 동일시한다.

주택건설과 관련해서는 커뮤니티 재생, 지역 내 건설업자의 수주 등을 통해 지역순환형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④ 금융업과 순환형 지역경제

금융 측면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해 순환형 지역경제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의 경우, 대부분 개인예금이나 지역대출이 거의 없어 민간경제 껍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내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업, 개인” 즉, 관광산업과 개인 주택산업이 성장가능업종으로 이를 중심으로 자금 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의 순환형 지역경제 재구축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삼는다.

또한 지역과 민간으로의 재투자 유도가 중요과제로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지역금융기관은 지역의 예금을 지역으로 환원(대출)하는 것과 지역의 자금을 지역 완결형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관련하여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토치기현, 군마현 등의 인접 현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NPO에 대한 융자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NPO에 대한 융자는 제도상 보증협회 부보(付保)융자(=보증협회의 적립금을 초과한 융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독자상품으로 되어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동금고가 적극적으로 NPO론을 창설하여 NPO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내 민간금융기관에서는 후쿠시마 신용금고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론으로 융자 한도액 1천만엔(증서대부: 기간5년, 어음부대: 기간1년, 금리: 변동2.175%..0.3%~0.5%의 우대금리有)을 신설하여 NPO 등에 대한 융자에 비교적 빨리 대처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의 경우, 현 단위에서는 지방은행이, 시정촌 단위에서는 신용금고와 신용조합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 각 금융기관의 연계/협조하에 창업, 벤처기업육성, 기존기업의 경영력 강화, 사업전환을 위해 “후쿠시마현 뱅크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다.

4 시사점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구성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역외로 생산물을 이출해 역외로부터 소득을 얻어 오는 산업을 기반산업으로 보는 한편, 역내에서의 소득순환에 의존하는 산업을 비기반산업으로 본다.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순환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재화의 생산·판매에 의해 기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역경제 내에 얼마나 순환하는지 규명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순환 측면에서 분석대상 지역이 경제순환 중심지역인지 외부의존도가 높은 지역인지, 특히 어떤 외부와의 거래가 지역경제에 불가결하고 또는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별·업종별로 실시하는 지역경제 순환분석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정책의 입안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역의 경제순환구조 분석에 이용되는 유량(flow)측면의 통계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미흡할 경우 앙케이트 및 설문조사 등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차선이다.

지역순환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제조업, 관광업, 지역개발, 금융 등 여러 측면에서 관련 정책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3. 지역 경제순환의 의미와 선순환 구조 개념

1) 지역경제 순환 매커니즘

현대의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세계, 국가 또는 도시라고 하는 각 영역의 속에서 다수의 기업이나 가게, 정부라고 하는 경제주체가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통하여 상호밀접하게 이어져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종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한편에서 생산되고 다른 한편에서 소비된다고 하는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경제의 순환이라고 한다.

이 경제의 순환을 실통하여 흐르고 있는 것은 생산물의 가치이고, 이 생산물의 가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의하여 하나의 국가 또는 도시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의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다.

지역 또는 도시의 경제순환에 대하여 검토할 제1단계로서 소득의 순환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적인 정리를 하고 있다. 지역민의 활동에 의하여 벌어들인 소득은 생산활동에 참여한 고용자나 기업에 대하여 임금 및 이윤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배된다.

임금으로서 고용자에게 분배된 고용자 소득의 일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저축되어지며, 이윤과 임금으로부터 流用(유용)되어진 배분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업에 대출되고 기업은 그 자금으로부터 투자하여 자본설비의 확충에 의하여 재차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하여 만들어낸 생산물의 합계로부터 중간생산물이나 생산시설 등의 감가상각분을 控除(공제)한 것이 지역총생산이고 이것이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입분이나 輸入(수입)과 합쳐져, 지역 총공급을 구성한다. 한편, 소비나 투자와 타 지역으로의 이출 및 輸出(수출)이 합쳐 지역 총수요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순환의 제 측면을 파악함으로써 지역 또는 도시의 경제활동의 특성과 함께 타 지역과의 의존관계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단위의 투자가 그 것만으로 그 지역의 소득을 만들어 내는가는 그 지역 내의 소득율, 소비성향 등의 수요구조, 원재료의 지역 내

조달을 등 분배지출 및 공급과 소득순환의 제 측면의 구조를 나타내는 계수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적 자립의 程度(정도)는 지역 내 에서의 收支(수지)의 구조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총공급과 총수요에 관해서는 ‘지역총생산 + 移輸入(이수입)=시내 총지출 + 移輸出(이수출)’ 라는 형태로 거시적인 항등관계는 항상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수입이 이수출을 상회하여 지역 내 수지의 적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몫만큼 지역지출이 지역총생산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민이 생산한 이상으로 지출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 차이는 지역의 차입을 늘이거나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수출, 이수입의 구조나 자금의 유출입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내 경제순환을 파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2) 지역경제 순환분석 체계

지역경제는 첫째, 소득순환, 둘째, 산업간 순환, 셋째 지역간 순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순환에 의하여 성립된다.

소득순환은 생산, 분배, 지출이라고 하는 소득의 흐름에 관한 것으로 생산활동의 결과 생산된 소득이 임금, 이윤, 이자 등의 형태로 분배되고 그것이 다시금 지출활동을 통하여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하여 가는 흐름을 의미한다.

산업간 순환이란 생산활동단계에 있어서 기업간 산업간의 재물의 거래의 흐름을 의미하며, 지역간 순환은 지역상호의 소득의 흐름이나 기업간의 재물의 거래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들의 순환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소득계정이나 지역산업연관표가 사용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자금의 유출입 및 지역 내 순환을 나타내는 자금순환표도 작성되고 있다. 지역민의 소득으로서 추계되는 지역소득계정은 생산, 분배, 지출사이의 소득순환을 중심으로 지역간 순환을 고려하면서 이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고안된 경제계정체계이다.

경제순환의 주체 또는 분야별의 개별계정과 총괄계정과의 관계를 요약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중앙에 나타내고 있는 개별계정의 요소를 근간으로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파

악하는 것에 의하여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가 지역의 발전, 계획, 재정정책 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지역산업연관표는 재화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의 산업간 순환 및 지역간 순환의 실태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고안된 경제계정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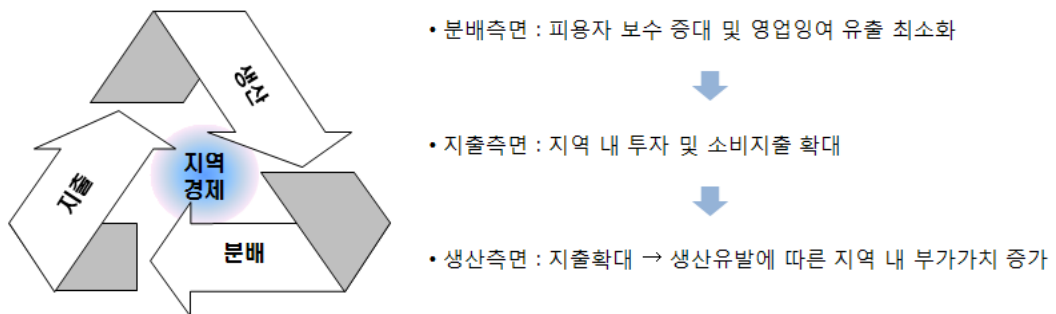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에는 대단히 많은 비용과 기초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작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경제순환 이해에 있어 주요한 분석수단이라 할 수 있다.

3)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개념적 정의

경제순환(circulation of economy)이란 생산 → 분배 → 지출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 으로부터 도출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경제의 생산과정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에 대해 각각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로 분배되며, 이러한 소득분배의 결과로부터 경제 내 산업활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투자 및 소비지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투자 및 소비지출로부터 다시 생산활동이 유발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경제의 순환(circulation of economy)이라 한다.

〔그림 2-8〕 지역경제 선순환 과정



이러한 경제의 순환과정을 토대로 지역경제 선순환(virtuous circulation of regional economy) 구조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진다.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feed-back)되는 구조라 정의 내려진다.

이는 분배측면에서는 피용자 보수의 증대와 영업잉여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출측면에서는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을 확대해야하며, 확대된 지출이 다시 생산유발을 통해 지역 내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경제 선순환 개념은 내발적 발전론에서 지향하는 ‘지역 내 경제순환’을 생산 → 분배 → 지출이라는 경제순환의 메커니즘 속에서 도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산측면에서는 지역사회의 주체적 역량을 토대로 외부적 수요와 지역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면 분배측면에서는 경제활동 또는 개발의 성과 즉,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최소화됨에 따라 지역 내 귀속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지역 내 재투자 및 지역민의 소비지출 확대에 귀결 된다.

또한 지역 내 재투자 및 지역민의 소비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고용의 기회 역시 확대된다. 아울러 투자 및 소비지출의 확대는 지역의 생산증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4.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의 필요성 및 배경

1) 외부자본 및 기업유치에 따른 제조업의 양적성장 촉발

충남은 지역발전과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와 외자유치를 주요 성장전략으로 채택했다. 2006~2009년 기간 중 유치기업은 연평균 약 18.2%씩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도권 이전기업은 동 기간 중 연평균 약 35.2%씩 증가하였다.

〈표 2-2〉 충남의 연도별 유치기업 수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치기업	632	860	665	482	548	495	1,004	855	817
수도권 이전기업	4	6	19	22	73	114	378	292	282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2006.7~2010년 기간 중 외자유치 MOU 체결 건수 및 금액은 각각 39건, 5,375백만\$이며, 이중 실제 투자는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25건, 2,779백만\$이다. 2006.7~2010년 기간 중 외자유치실적은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괄목할 만한 것이며, 특히, 2007년에는 MOU를 체결한 5건을 모두 실제투자자로 유도하였으며, MOU 체결금액의 51.7% 정도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표 2-3〉 외자유치 실적

(단위: 백만\$)

구분	합계		2006.7~12		2007		2008		2009		20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MOU금액(A)	39	5,375	7	1,371	5	299	9	1,921	13	1,591	5	193
신고금액(B)	28	2,743	6	1,103	5	273	6	1,066	9	271	2	30
도착금액(C)	25	2,779	6	1,112	5	273	5	1,154	9	240	-	-
C/A*100	(64.1)	(51.7)	(85.7)	(81.1)	(100.0)	(91.3)	(55.5)	(60.1)	(69.2)	(15.1)	0	0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또한 전자정보, 자동차, 농축산바이오, 첨단문화 등 4대 전략산업 중심의 외투유치를 추진한 결과, 전체 외자유치 39건 중 14건(35.9%)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주로 천안, 아산지역 등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등 입지여건상 투자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타 시군으로까지는 분산시키지 못했다.

〈표 2-4〉 업종별 유치건수 현황

합계	반도체	전기 전자	자동차	석유 화학	기계 장비	서비스	비금속 광물	식품	의약품	기타
39	4	6	4	2	2	3	1	2	1	14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이처럼 동 기간 중 유치된 대부분의 기업 및 외자는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도내 북부권에 입지했다. 즉, 수도권과 인접한 도내 북부권을 중심으로 외부자본 및 기업유치를 통해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 산업집적이 빠르게 진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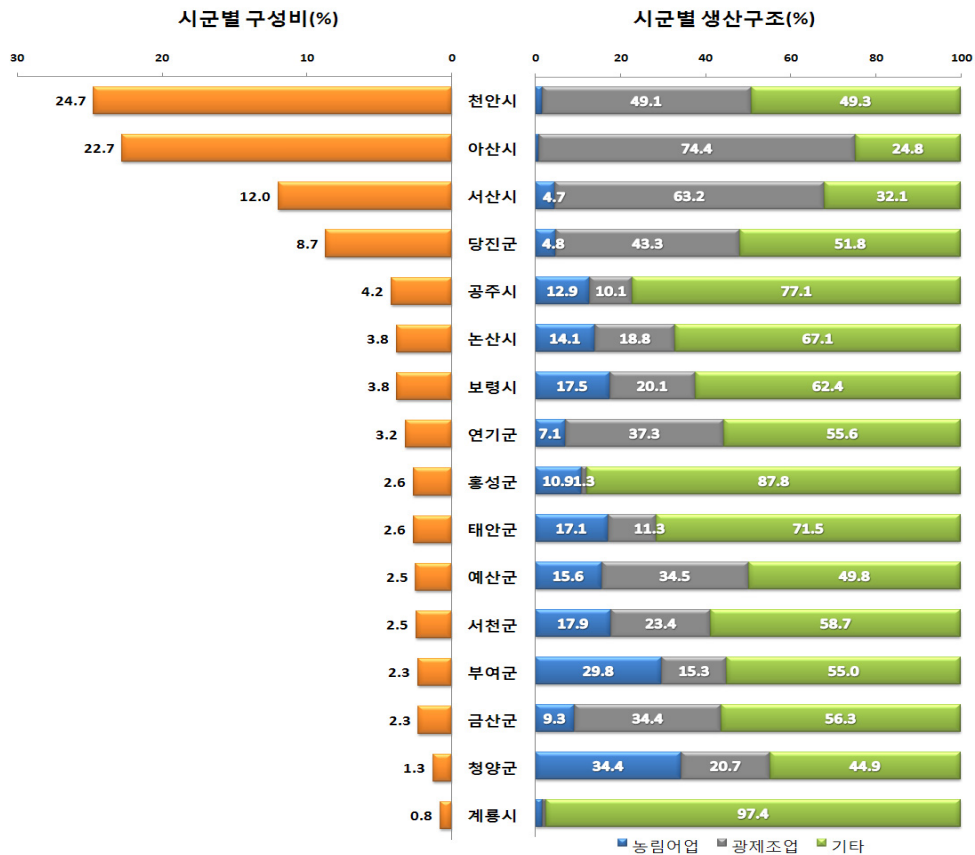
충남지역에 유치된 외부자본 및 기업은 대부분 제조업 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조업의 고도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급성장이 촉발되었다. 구체적으로 GR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4.0%에서 2010년 57.4%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중 연평균 9.4%씩 성장함에 따라 전국대비 GRDP 비중 역시 2000년 4.5%에서 2010년 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외부자본 및 기업유치에 의해 충남 지역경제의 양적성장이 촉발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이는 외생적 발전(exogenous development)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외생적 발전의 한계 노정

이러한 양적성장의 이면에는 외생적 발전으로 인한 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7년 기준으로 도내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 GRDP의 약 68.1%를 차지하며, 나머지 12개 시군이 31.9%를 점유함에 따라 도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매우 큰 양상이다.

〔그림 2-9〕 도내 시군별 GRDP 규모, 구성비, 생산구조(2007)



또한 지역의 생산증대가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것이 미흡함에 따라 민간의 소비지출 수준 역시 지역경제의 성장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구체적으로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률이 9.4%인데 반해 본원소득의 증가율은 7.6%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총생산

중 민간소비 비중은 2000년 44.6%에서 2010년 24.2%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역외유출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소득의 역외유출 비중이 23.1% 수준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출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비중은 2000년 9.7%, 2005년 14.9%, 2009년 23.1%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외생적 발전으로 인해 충남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 및 정착을 적극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제3장 지역경제 순환구조분석을 위한 지역범위 설정

1. 지역의 범위설정 기준 및 방법

1) 지역의 범위 설정기준

본 연구에서 충남의 지역범위는 Boudeville의 지역유형 분류 중 계획지역(region plan)과 기능지역(functional area)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계획지역은 교역 및 소득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자원활용 등 특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속된 공간을 의미하며, 계획지역과 기능지역은 개념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다만, 계획지역은 언제나 기능지역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기초로 설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순환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지역산업연관표를 토대로 광역시·도 및 시군단위의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이 작성되므로 계획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범위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기능지역은 결절 또는 극화지역(nodal/polarized region)으로 지칭되며,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지역범위를 의미한다.

〈표 3-1〉 OECD 국가들의 기능지역(functional area) 설정사례

국 가	기 준	지 역 구 분
캐나다	근무지와 거주지간의 통근비율	센서스 대도시권(census metropolitan)과 센서스 집적지역(census agglomeration) 으로 구분
독일	노동수급의 자족성	노동시장지역(LMR, 현 271개)
스웨덴	노동수급의 자족성	지방노동시장지역(현 81개)
이탈리아	노동수요 자급률과 공급자급률	지방노동시장지역(LLMAs)

자료 : 지역발전론(2003).

구체적으로 특정한 공간적 거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지리적 영역이 하나의 결절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거점과 주변지역간의 생산, 소비 및 각종 사회활동에 있어 밀접한 상호작용이 존재해야 한다.

공간거점간 기능적 상호연계성은 흐름(flow)의 현상으로 가시화 되는 바, 흐름은 ① 지역계정(regional account system), ② 투입-산출(input-output system)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OECD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기초로 공식적 혹은 준공식적 기능지역(functional area)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기능적 접근방식인 「지역노동시장권(LLMAs: local labor market areas)」 접근법을 활용하여 충남의 지역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지역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경제활동의 지역·산업·경제주체간 상호작용(생산과 소비의 관계)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통계자료의 구득한계를 감안하여 계획지역과 기능지역의 요건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2) 지역의 범위설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기초한 기능지역 설정방법 중 지방노동시장권(LLMAs) 접근법을 활용하여 충남도의 지역범위를 기능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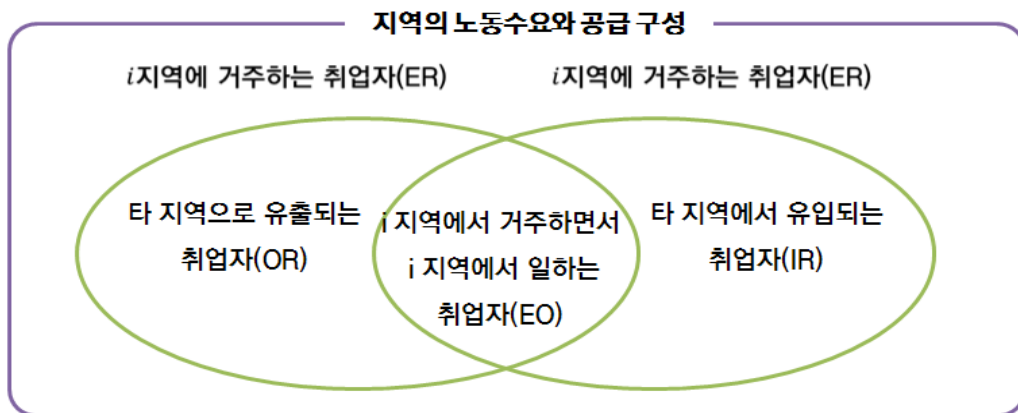
지방노동시장권(LLMAs: local labor market areas) 접근법은 지역노동시장에 관한 기능적 접근(functional approach)법으로 그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TTWA's: travel to work areas)을 의미한다(Campbell, 1996, OECD, 1998).

동 방법은 지역노동시장에 관한 기능적 접근(functional approach)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하나의 단위지역은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크게 주거지와 업무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이 때 주거지로서의 역할은 노동공급 기능과 연관되며, 업무지로서의 역할은 노동수요 기능과 연관된다.

그리고 특정 시군이 주거지와 업무지 중 어느 것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 지역에서 주거하거나 일하는 취업자들 각각의 규모와 타 지역과의 공간적 의존도(spatial dependency)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통근관계 속에서 어떤 단위 지역 i 의 노동력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i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취업자(ER-EO),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취업자(OR),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취업자(IR)로 구분할 수 있다.



Laan(2001)에 따르면 이 지역의 노동시장 기능은 노동공급 자급률(employment self-containment ratio: ESC), 노동수요 자급률(housing self-containment ratio: HSC), 그리고 일자리/주거 비율(home-work ratio: HWR)이라는 세 가지 척도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각각의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노동수요 자급률(HSC)은 ‘특정 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 중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통근자를 제외한 지역내 취업자 비중’을 의미한다.

노동공급 자급률(ESC)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중 역외로 유출되는 통근자를 제외한 지역내 취업자 비중’을 의미한다.

일자리/주거 비율(HWR)은 노동공급과 수요의 상대적 비율에서 1을 뺀값(상대적 비율이 동일하면 0, 업무지 기능이 강할수록 0보다 커지고, 주거지 기능이 강할수록 0보다 적어짐)으로 정의된다.

$$HSC = \frac{ER - OR}{(ER - OR) + Ir} \times 100 = \frac{EO}{EOI} \times 100 \quad (1)$$

$$ESC = \frac{ER - OR}{ER} \times 100 = \frac{EO}{ER} \times 100 \quad (2)$$

$$HWR = \left[\frac{ER - OR + IR}{ER} - 1 \right] \times 100 = \left[\frac{ESC}{HSC} - 1 \right] \times 100 = \frac{IR - OR}{ER} \times 100 \quad (3)$$

마지막으로 서로다른 두 지역간의 공간적 의존도는 ‘통근강도’(commuting intensity)로 표현될 수 있다.

통근강도란, ‘어떤 두 지역간의 통근행위가 밀접한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Coombes et al.(1986)에서 사용한 대칭적 통근강도 산출법을 이용한다.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지역의 통근강도는 ‘지역1에서 지역2로의 통근자수 제공/유출지의

거주자 합계와 유입지의 근무자 합계’ + ‘지역2에서 지역1로의 통근자수 제공/유출지의 거주자 합계와 유입지의 근무자 합계’ 으로 구성된다.

$$\text{통근강도}(CI_{1,2}) = \left\{ \frac{(OR_1 \times OR_1)}{(ER_1 \times EOI_2)} + \frac{(OR_2 \times OR_2)}{(ER_1 \times EOI_2)} \right\} \times 100 \quad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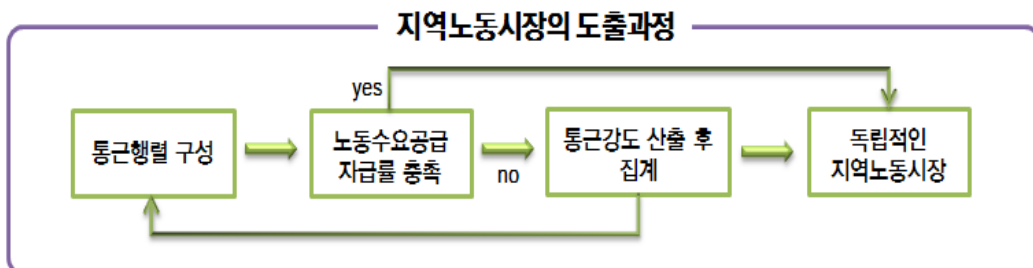
유의할 점은 분모에 각 지역의 인구규모를 가중하여 나누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두 지역간의 통근관계는 약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시군구 지역에서 대도시로의 통근자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대도시의 인구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근강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

3) 지역노동시장권의 도출과정

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도출하는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되어진다. 첫째, 충남지역 취업자의 거주지와 업무지간의 관계를 표현한 통근행렬을 구성하고, 둘째, 특정 지역이 노동수요 및 공급자급률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HSC와 ESC의 최소값이 70~75%수준을 넘어설 경우 독립적인 노동시장으로 간주한다.⁷⁾

셋째, 만일 특정지역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근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과 통합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지역이 노동수요 및 공급자급률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반복 진행된다.



7)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HSC와 ESC의 최소값이 75%보다 클 경우, 독립적인 노동시장으로 간주함

지역노동시장권의 도출과정에 사용되는 핵심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천안시와 아산시의 통근행렬을 예시한 [표 3-2]를 이용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천안시의 총 거주 취업자는 ER_1 , 총 통근 취업자는 EOI_1 , 천안시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취업자는 EO_1 , 천안시에서 아산시로 유출되는 취업자는 OR_1 (아산시 기준으로는 유입되는 통근자, 즉 IR_2), 천안시로 유입되는 아산시 통근자는 IR_1 (아산시 기준으로는 유출되는 통근자, 즉 OR_2)이 된다.

〈표 3-2〉 충남지역 취업자의 통근행렬 예시

(단위 : 명)

구 분		업무지			
		천안시	아산시	...	거주자 합계
거주지	천안시	207,626 (EO_1)	22,191 (OR_1, IR_2)	...	243,746 (ER_1)
	아산시	10,902 (OR_2, IR_1)	101,506 (EO_2)	...	118,793 (ER_2)

	업무지 합계	250,728 (EOI_1)	135,827 (EOI_2)

위의 행렬을 이용하여 천안시의 노동수요자급률, 노동공급자급률, 일자리주거비, 그리고 통근강도를 구하면 아래의 식 (5)-(8)과 같다.

아산시의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이용하여 지표를 산출하면 [표 3-3]과 같은 결과가 산출되며, 통근강도는 두 지역간에 대칭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동일한 수치를 가지게 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천안지역은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 자급률이 모두 75%를 초과하여 독립적인 지역노동시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의 경우 노동공급 자급률은 85.4%이나, 노동수요 자급률은 75%에는 미달하고 70%는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다.

여기서는 분석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HSC_1 = \frac{EO_1}{EOI_1} \times 100 = 82.8 \quad (5)$$

$$ESC_1 = \frac{EO_1}{Er_1} \times 100 = 85.2 \quad (6)$$

$$HWR_1 = \left[\frac{ESC_1}{HSC_1} - 1 \right] \times 100 = 2.9 \quad (7)$$

$$\text{통근강도}(CI_1) = \left\{ \frac{(OR_1 \times OR_1)}{(ER_1 \times EOI_2)} + \frac{(OR_2 \times OR_2)}{(ER_1 \times EOI_2)} \right\} \times 100 = 1.9 \quad (8)$$

〈표 3-3〉 통근행렬로부터 산출된 지역노동시장권 지표들

구 분		업무지		
		천안시	아산시	...
거주지	천안시	85.2 (ESC_1)	1.9 (CI_1)	...
		82.8 (HSC_1)		
	아산시	1.9 (CI_1)	85.4 (ESC_2)	...
			74.7 (HSC_2)	

4) 자료의 구성

충청남도의 지역노동시장권 도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micro data)이다.

최초 조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회 실시되다가, 2010년 4분기부터 분기별 조사로 조사주기가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0년 연간 자료’ 이다.

본 자료는 2005년 인구센서스 전수자료로부터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도지역’의 시군구 대표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다만,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에 대해서는 시군구 식별 코드가 제공되지 않음). 주요 변수로는 거주지 시군구코드, 근무지 시군구코드, 취업여부, 종사상지위 등 지역노동시장권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자료외에 인구센서스 샘플자료(2%, 5%)가 사용될 수 있으나, 충청남도의 경우 15개 시군 지역모두 식별이 가능한 점, 조사시점이 2005년인 점, 서로 다른 자료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석상의 오차문제 등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조사 응답자 354,508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205,841명이다. 이중 충남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취업자 16,725명을 대상으로 통근행렬을 도출했다.

통근행렬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3가지 형태의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9개도 156개 시군구 집계에 사용되는 ‘가중치1’ 을 사용했다.

〈표 3-4〉 통근행렬 분석에 사용된 표본(가중치 적용)

(단위 : 명, %)

거주지		통근지		총합
		타지역	충남지역	
타지역	명	0	93,495	93,495
	%	0	8.7	8.7
충남지역	명	33,993	947,123	981,116
	%	3.2	88.1	91.3
총합	명	33,993	1,040,617	1,074,610
	%	3.2	96.8	100

분석표본 1,074,610명(가중치 적용) 중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통근하는 취업자는 88.1%, 충남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는 3.16%,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충남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는 8.7%로 나타났다.

본 표본을 기준으로 <표 3-2>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15개 시군에 대해 통근행렬을 도출하고, <표 3-3>와 같은 지역노동시장권 지표들을 산출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2. 충남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1) 전체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충남지역 15개 시군지역은 10개의 ‘독립 지역노동시장’, 2개의 ‘통합 노동시장’, 1개의 ‘타광역권 연계형시장’ 으로 구분된다(그림 3-1, 표 3-5 참조).

시군 단위가 하나의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지역은 총 10개 시군이다.

이중에서 노동수요공급 자급률이 모두 90% 이상인 지역([그림 3-1]에서 가장 짙은 지역)으로는 보령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 등 7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은 인접 지역에 대한 공간적 의존도가 극히 낮은 지역이다.

완전 독립시장 중 노동수요 혹은 공급 자급률이 90% 미만인 지역으로는 공주시, 당진군, 부여군 등 3개 시군 지역이다.

시군단위가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접 시군과 통합한 지역으로는 천안·아산과 논산·계룡시가 있다.

아산시의 경우 전체 노동공급 자급률은 85.4%로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하지만, 노동수요 자급률은 74.7%로 다소 유보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농업부문 종사자, 청소년취업자(19세미만), 노령취업자(65세 이상)를 제외한 ‘비농부문 주(主) 경제활동연령층’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동공급 자급률이 71.7%, 노동수요 자급률이 83.8%로 더욱 낮아지고 있다.

즉 주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 두 지역간의 공간적 의존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산시로 노동력 유입이 가장 많은 1차 유입지는 천안시이며, 노동력 유입이 두 번째로 많은 2차 유입지는 경기도 평택시이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공간적 의존도를 의미하는 통근강도 역시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도시를 하나의 지역노동시장권으로 통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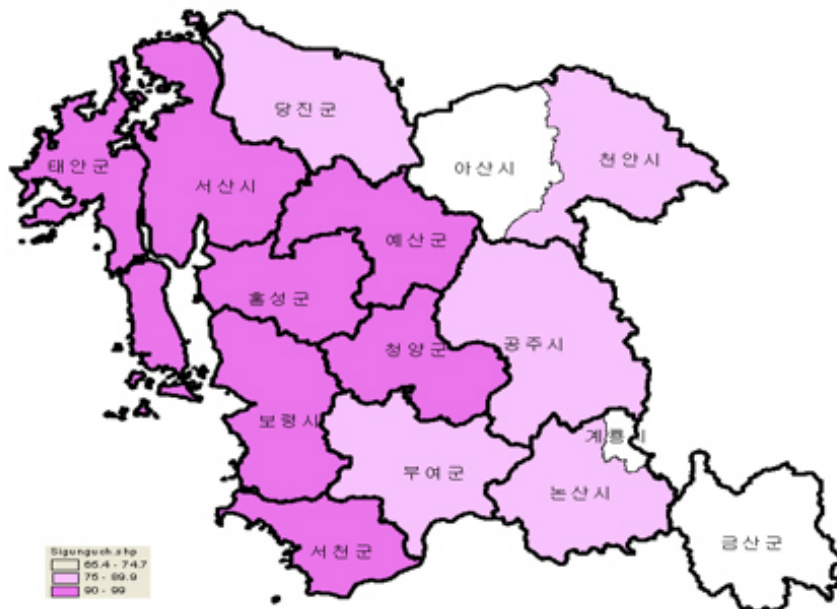
두 도시를 통합할 경우 통합된 천안·아산시의 노동공급자급률은 94.4%, 노동수요자급률은 88.5%로 나타나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시킨다.

계룡시의 경우 노동수요 자급률이 65.4%, 노동공급 자급률이 52.9%로 충남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계룡시의 경우 1차 유출지는 대전광역시이지만, 인구규모를 고려한 통근강도를 산출할 경우 가장 밀접한 공간적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논산시(0.40)로 나타난다. 계룡시와 논산시를 통합할 경우 노동공급자급률은 88.0%, 노동수요자급률은 86.4%로 나타나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시킨다.

‘타광역권 연계형시장’이란, 자체적으로는 독립적인 노동시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타지역과의 통근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충남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시장권 통합과정을 거치지 못한 시군이다.⁸⁾ 금산군은 대전 지역이 1차 유출입지역이며, 통근강도 역시도 0.41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림 3-1) 충남지역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 전체취업자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그림 3-1) 독립노동시장은 서부지역 및 중부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타광역권 의존형시장 및 통합노동시장 지역은 북부 및 동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8) 세종시로 통합되기 이전의 연기군은 1차 유출입지역이 충청북도 청원군이며 통근강도 역시 0.42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바 있음

마지막으로 충남지역 15개 시군구의 노동시장 기능을 살펴보면, 아산시·금산군·당진군 등은 업무지로서의 기능이 큰 반면, 계룡시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3-5〉의 ‘일자리/주거비’ 에서 0보다 값이 클수록 업무지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취업자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금산군이 3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산시 14.3, 당진군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일자리/주거비’ 의 값이 0보다 적을수록 주거지로서의 기능도 역시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며, 계룡시는 이 수치값이 -1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충남도 내 최대도시인 천안시의 경우 일자리/주거비가 2.9로 업무지와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골고루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19-65세미만 비농업부문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주거지와 업무지의 특성값이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금산군의 경우 일자리 주거비가 전체표본에서 제시된 값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63.1값을 기록하였다.

〈표 3-5〉 통근행렬 분석결과 : 전체 취업자

시군명	취업자 전체			비농부문 주(主) 경제활동연령층 (19세 이상, 65세 미만)		
	노동수요자급률	노동공급자급률	일자리/ 주거비	노동수요자급률	노동공급자급률	일자리/ 주거비
천안시	82.8	85.2	2.9	81.3	84.1	3.4
공주시	84.9	90.8	7.0	77.9	86.0	10.5
보령시	94.7	97.6	3.1	92.9	96.9	4.4
아산시	74.7	85.4	14.3	71.7	83.8	16.8
서산시	95.1	96.4	1.4	93.7	95.1	1.5
논산시	86.9	92.9	6.9	80.2	89.3	11.4
계룡시	65.4	52.9	-19.0	64.0	50.7	-20.8
금산군	72.1	95.5	32.4	56.5	92.1	63.1
부여군	89.9	94.9	5.5	79.9	90.2	12.9
서천군	91.1	96.0	5.4	86.7	94.3	8.8
청양군	90.9	94.7	4.2	81.7	90.1	10.3
홍성군	94.5	94.2	-0.4	92.1	91.1	-1.1
예산군	92.0	90.2	-1.9	86.5	86.5	-0.1
태안군	95.1	95.8	0.8	93.6	93.7	0.2
당진군	89.2	98.6	10.5	85.5	98.0	14.6

2) 시사점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 독립노동시장은 서부지역 및 중부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타광역권 연계형(의존형)시장 및 통합노동시장 지역은 북부 및 동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따른 권역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일용품 구매권과 노동시장권이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다소 차이점도 확인된 바, 일용품 구매권에서 천안·아산이 동일권역으로 나타나고, 계룡 등도 대전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노동시장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태안과 서산의 관계가 높게 나타나며, 금산·논산이 대전과 독립적인 권역으로 나타나는 점, 그리고 공주와 대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은 다소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산업단지와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산업단지가 밀집된 동부 접경지역들이 주로 노동수요 자급률이 낮다는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당진·서산·보령·서천 등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노동시장권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노동력의 수급이 기초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체제를 살펴보면, 향후 충남지역의 노동시장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서산·예산·홍성의 접경지역에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현재는 독립적 노동시장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세 지역의 공간적 관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시의 경우에도 교통인프라 등의 개선에 따라 세종시 및 대전광역시와의 공간적 의존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4대 개발경영권을 살펴보면 종으로 구획된 서해안권을 제외한 북부권, 내륙권, 금강권이 횡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종으로 통합된 노동시장권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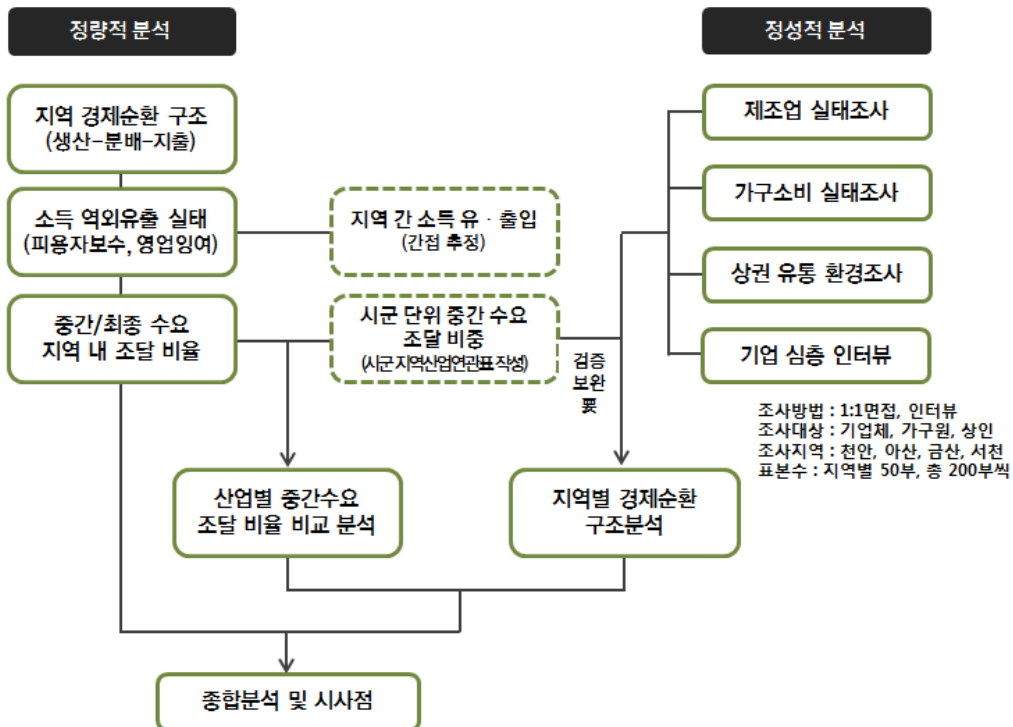
만일 4대 개발경영권이 실제 충남지역내 소권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향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권 역시도 이와 비슷한 권역으로 재편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지역경제 순환구조분석

1.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 과정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1〕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 과정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 과정은 분석 방법적인 측면에서 크게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분석 범위로는 광역차원에서 시도단위, 시군단위는 앞서 제시된 노동시장권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먼저, 충남 전체의 생산-분배-지출 순환과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생산, 분배, 지출의 각 측면에서 실태분석이 이루어진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제조업(기업), 가구소비, 상권유통환경의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량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한다.

2. 거시적(Macro)측면의 정량적 분석

1) 분석개요

① 분석의 흐름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거시적 측면의 정량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이는 생산-분배-지출의 순환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 순환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정량적 분석은 다시 분석 자료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계정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있으며, 두 번째로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이다.

지역계정을 활용한 분석은 지역경제 순환구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산업연관분석은 지역 간, 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분석 자료를 생산-분배-지출의 순환구조에 따라 살펴보고 두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규명한다.

지역 범위에 따라 광역권 및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2 분석방법 및 자료

■ 지역계정을 활용한 분석

지역계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지역경제 순환구조에 따라 거시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살펴본다. 지역 내 자원의 순환을 고려하여 구성요소 간 비율을 살펴보고, 지역의 산업구조, 소득의 역외유출, 생산과 소비지출의 순환실태 등을 제시한다. 지역경제의 생산-분배-지출 순환구조를 타 시도와 비교하여 충남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제시한다.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지역계정 자료의 경우,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시도 단위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만을 제공하며, 일부 지역에 대해 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자료가 있다.

〈표 4-1〉 통계청 지역계정 자료제공 내용

구분	범위	내용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시도	(17개 산업별) - 지역내총생산, 순생산물세 - 총부가가치(기초가격) -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경제활동별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시도	(17개 산업별) - 산출액, 중간소비 - 지역내총부가가치, 고정자본소모 - 지역내순생산, 기타생산세 - 지역별 요소소득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시도	-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 재화와 서비스 순이출
지역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시도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 순생산 및 수입세, 재산소득 - 순본원소득, 총본원소득 - 경상세, 사회부담금 - 순처분가능소득, 총처분가능소득 등
시군구 GRDP	시군구	-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경제활동별 지역내총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일부지역만 제공)

■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지역 간, 산업 간 자원의 흐름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파악한다.

시도 또는 해외로부터 지역 내로 유입되는 중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충남이 생산을 위해 어느 지역으로부터 자원을 가져다쓰는지 살펴보면, 지역 내의 자원의 활용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한다.

산업별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이 가진 생산구조 상 순환 흐름이 규명될 수 있다. 산업연관표에서 제시되는 부가가치 자료와 지역계정의 요소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지역외 유출입 비율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지역 내 소비, 타 지역의 재화 및 서비스의 활용정도 등을 분석하여 소비측면에서의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규명한다.

분석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로, 경제순환과정에서 산업간 순환을 주축으로 하여 소득순환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 간 순환까지도 제시한다. 국민계정, 지역계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은 타 산업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고,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최종재를 생산, 타 산업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산업연관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분, 노동·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부분, 산업의 최종재 판매부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경제순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는 [그림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열과 행으로 구분되며, 열은 투입구조로 중간재, 노동, 자본 등의 구입내역이라 볼 수 있으며, 행은 배분구조로 생산물의 판매내역을 의미한다.

[그림 4-2]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공제)	총산 출액
중 간 투 입	<div style="text-align: center;"> ↑ 열 ← 행 : 배분구조 (생산물 판매 투입구조 </div>	내역	(-)	
부가 가치	(중간재 구입내역) ↓			
총투 입액				

중간수요(중간투입)은 산업별로 구분되며, 산업구분은 28, 78, 168부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로 구성되며, 최종수요는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및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수출입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에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 간 거래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두 지역 n개 산업으로 구분된 지역산업연관표의 구조는 <그림 4-3>에 제시한다. 지역이 구분됨에 따라 r지역에서 s지역으로 지역 간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또한 지역별로 비교분석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에서는 2003년 지역을 광역권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처음으로 작성한 이후 2005년 지역을 세분화하여 16개 시도단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단위 분석에 이어 분석범위를 시군단위로 확장하기위해 16개 시도단위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시군단위로 세분화하는 과정이 시도된다.

지역을 세분화하여 제시한 지역산업연관표는 2005년이 최근자료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지역의 경제순환구조를 분석한다.

분석의 기준년도가 2005년으로,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으로 분석한다.

[그림 4-3] 다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배분 투입			중 간 수 요								최종수요		총 산 출
			지역 r				지역 s				지역	지역	
			1	...	j	...	n	1	...	j	...	n	
중 간 투 입	지 역 r	1 : i : n	$c_i^{rr} a_{ij}^r X_j^r$				$c_i^{rs} a_{ij}^s X_j^s$				$c_i^{rr} F_i^r$	$c_i^{rs} F_i^s$	X_i^r
	지 역 s	1 : i : n	$c_i^{sr} a_{ij}^r X_j^r$				$c_i^{ss} a_{ij}^s X_j^s$				$c_i^{sr} F_i^r$	$c_i^{ss} F_i^s$	X_i^s
부가 가치	노동 자본 토지		$w_j^r L_j^r$ $r_j^r K_j^r$ $b_j^r N_j^r$				$w_j^s L_j^s$ $r_j^s K_j^s$ $b_j^s N_j^s$						
		총투입	X_j^r				X_j^s						

c_i^{rs} : 지역 간 교역계수, a_{ij}^r : 투입계수, F_i^r : 최종수요, X_i^r : 총산출액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은 실측자료를 가지고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국토연구원에서 단계적으로 방법적인 검토와 함께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방법은 RIMS II (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가 있다. 전국산업연관표와 지역경제계정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수요를 추정하여 승수를 계산하고 LQ(Location Quotients)를 통해 보정하여 작성한다. 통계자료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함에 따라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의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장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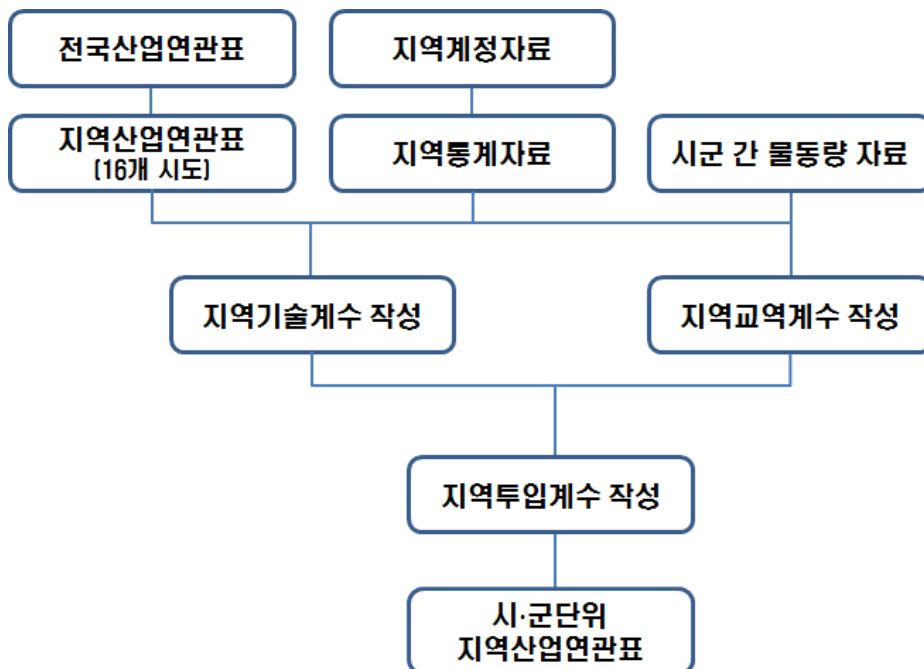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는 전국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를 고려하되 지역의 통계자료를 통해 투입액과 산출액을 추계하고, 이를 통해 투입계수를 작성 후 가로, 세로의 계수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조정하는 RAS방법을 활용한다.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방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는 RAS모형으로 지역기술계수 작성, 두 번째로는 지역상품균형, 중력모형으로 지역교역계수를 작성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를 이용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작성하고 보정하여 완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확보 가능한 통계자료의 유무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단위의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을 시도한다.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단계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과정



지역기술계수 작성은 지역산업연관표와 지역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생산액 자료를 보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산물혼합기법(Product Mix Method)을 이용한다.

생산물혼합기법은 지역의 세부 산업구성을 이용하여 상위 산업의 기술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역이 세분화되어도 산업간 기술구조는 다르지 않을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비교적 방법이 간편하고 단순하지만 지역 간 산업세분 비교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지역교역계수 작성은 시군간 물동량자료와 지역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산업 간 교역량을 정리한 후 이를 이용한다. 지역 간 물동량자료의 산업구분은 1, 2차 산업, 즉 농림수산업과 광업, 제조업의 3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되나 서비스업에 대한 물동량자료는 없음. 따라서 서비스업에 대한 교역계수는 지역의 생산액자료를 활용하여 LQ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보정하여 추정한다.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교역계수가 작성되면 이를 이용하여 지역투입계수를 도출하며, 전국산업연관표와 시도단위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보정한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직접조사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 경제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단위의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분석내용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세분화된 지역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그 지역의 경제상황과 비교하여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장에서 언급할 미시적인 분석, 즉 사례조사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향후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통계자료의 구축을 통해 좀 더 현실 상황에 가깝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지역계정 분석에 이어 지역산업연관분석(시도단위) 결과를 정리하고, 이번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인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분석과 영업잉여 및 피용자보수의 지역 간 유출입 추정 순서로 제시한다.

〈표 4-2〉 부문별 분석내용 및 과정

구분	부문	분석내용	비고
지역계정	생산	생산을 위한 충남의 산업구조 비율	
	분배	충남의 소득계정별 비율, 소득의 역외유출 비율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 비율과 소득 역외유출	
	지출	충남의 지출내역별 비율 지역내총생산 vs. 민간소비지출	
	기타	경제순환구조 비교(충남 vs. 수도권)	
지역산업연관표 (시도단위)	생산	중간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지역별 흐름 중간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산업별 흐름	
	분배	영업잉여, 피용자보수의 유출비율	보정(지역계정)
	지출	최종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지역별 흐름 최종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산업별 흐름	
지역산업연관표 (시군단위)	생산	중간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지역별 흐름	시범적 단계
지역 간 소득 유출입 추정	분배	충남 피용자보수의 지역간 유출입 추정 충남 영업잉여의 지역간 유출입 추정	시범적 단계

① 충남 지역경제 순환구조

■ 생산-분배-지출의 구성요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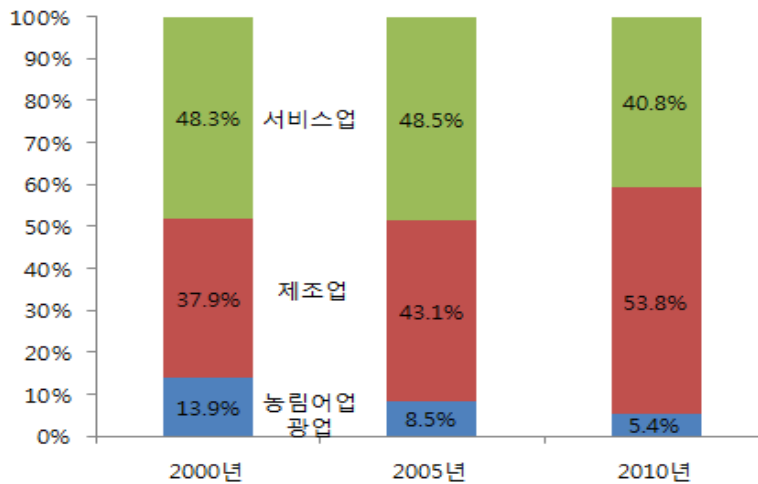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생산 → 분배 → 지출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각각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별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산과정에서는 경제활동별 생산액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산업구성 비율, 분배과정에서는 지역의 소득계정별 구성 비율, 지출과정에서는 총생산에 대한 지출내역별 비율을 각각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국민계정체계에서 경제의 순환구조를 제시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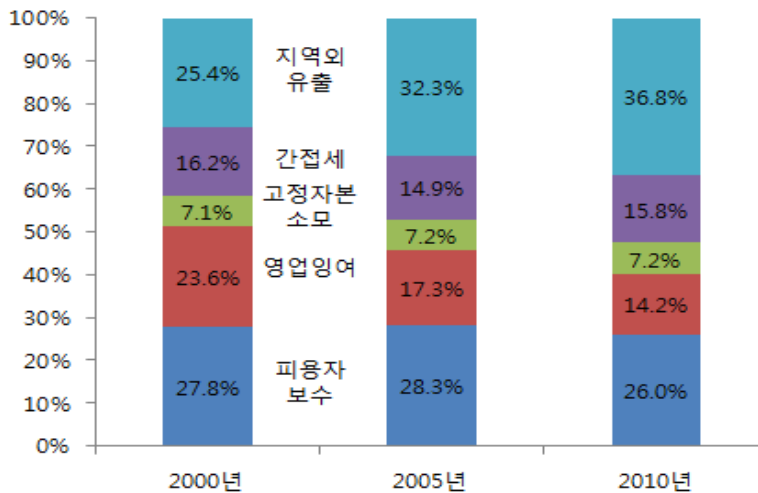
충남의 산업구성 비율은 2000년 서비스업의 비율이 제조업보다 높았으나, 2010년 제조업이 53.8%, 서비스업이 40.8%로 제조업이 더 높게 나타났다. 충남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광업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인다.

(그림 4-5) 충남의 산업 비율



충남의 소득계정별 비율은 2000년에서 2010년 기간 내 지역의 유출 비율이 증가하고 영업 잉여와 피용자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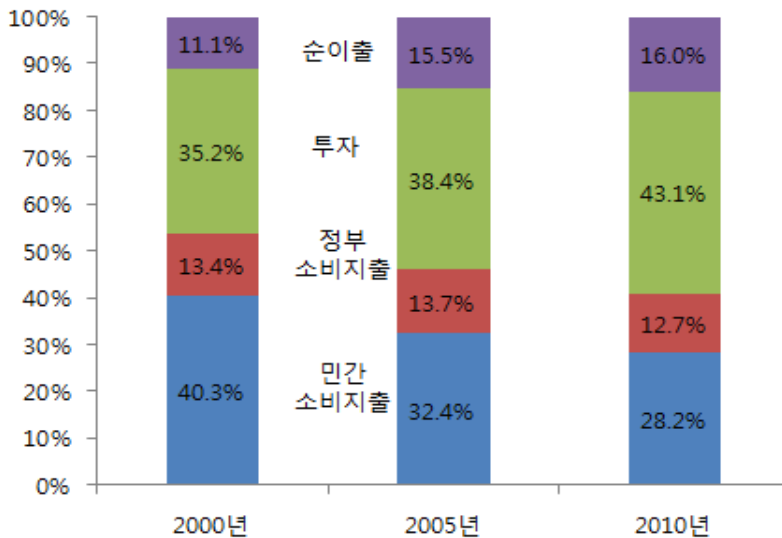
(그림 4-6) 충남의 소득계정별 비율



비용자보수 비율의 감소보다 영업잉여 비율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영업잉여의 지역외 유출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충남의 지출내역별 비율을 보면 2000년에서 2010년 기간 내 지역의 민간소비는 감소하고 순이출이 증가하고 있다. 순이출의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민간 소비지출의 비율은 2000년 40.3%에서 2010년 28.2%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4-7〕 충남의 지출내역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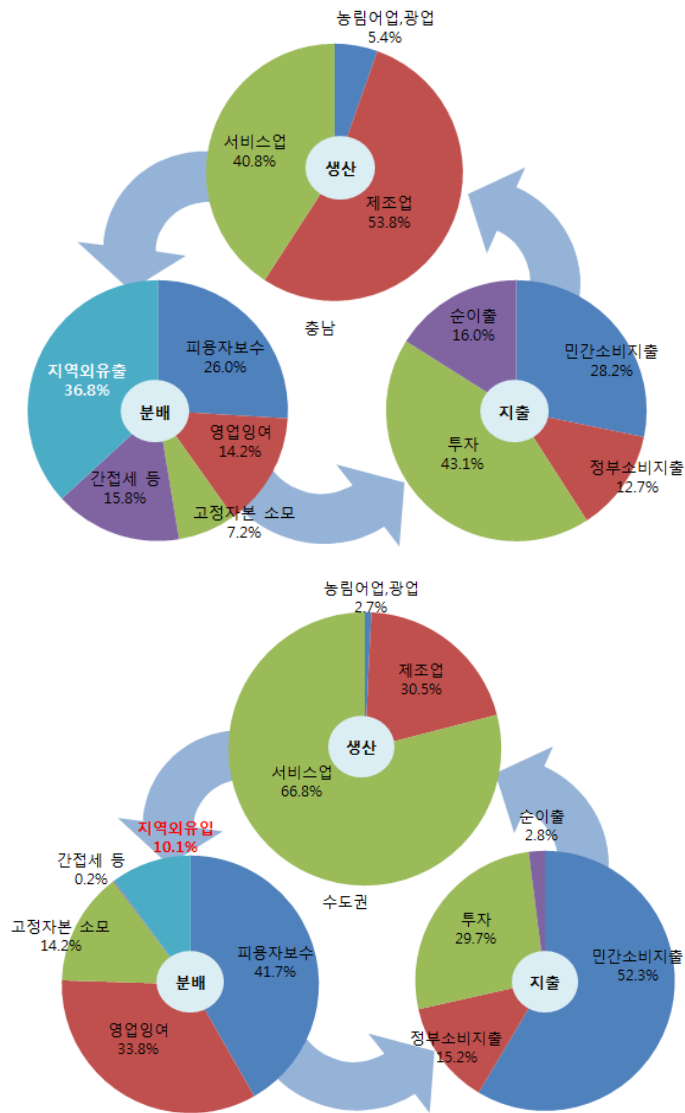


충남의 생산-분배-지출의 구성요소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실태를 살펴본 결과 2000년에서 2010년의 기간 동안 충남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의 요소소득 감소, 지역외 유출 증가, 소비 감소로 나타났다.

충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지역외 유출 비율의 증가와 민간소비 비율의 감소는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에 따라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민간 소비의 위축으로 지역 내에 재차 환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충남과 수도권의 생산-분배-지출 구성요소 비중을 비교해보면 충남의 경제순환 구조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충남과 수도권의 생산-분배-지출 구성요소 비중(2010)



충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인 반면, 수도권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였다. 충남은 지역 외 유출이 36.8%인 반면, 수도권은 지역 외 유입이 10.1%로 대조적이다. 충남은 민간소비지출 비율이 28.2%로 투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도권은 민간 소비지출이 52.3%로 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② 생산측면 : 중간 수요의 타 지역 의존실태

■ 중간수요 : 중간재화 시장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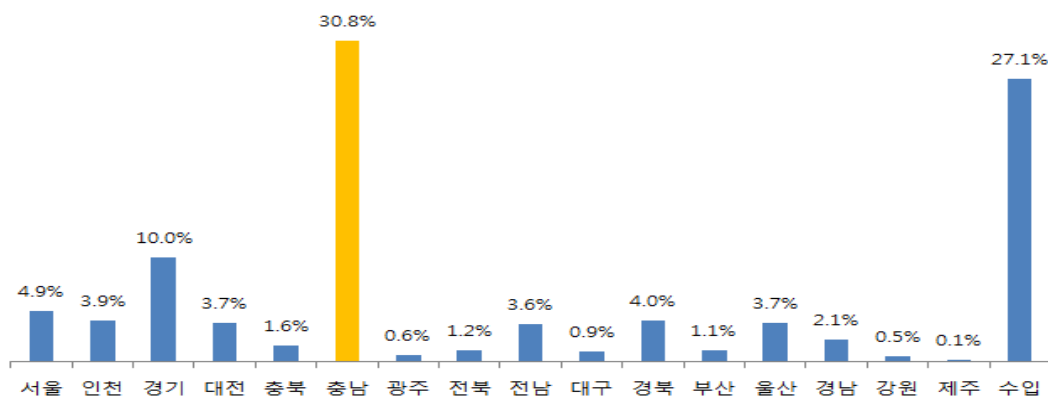
지역경제 순환실태 분석에서 지역 간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은 지역 내 생산된 재화의 지역 내 소비비율, 해당 산업의 타 지역 의존도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지역경제의 생산 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 다시 투자되고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때, 경제 선순환구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중간재화 및 서비스의 지역 내 조달비율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경제 순환구조의 규명을 위해 중요하다.

지역산업연관표의 중간수요 부분은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중간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을 의미하며, 지역 내에서 필요한 총수요와 지역 내에서 조달한 비율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가져온 재화 및 서비스의 양을 파악할 수 있다.

충남 지역의 중간 수요 중 지역 내 조달 비율은 30.8%, 타 지역 으로부터 조달 비율은 42.1%로 나타났다. 타 지역 조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10.0%이며,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조달 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해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가 전체의 27.1%로 나타남. 이는 지역 내에서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원료, 부품, 등의 해외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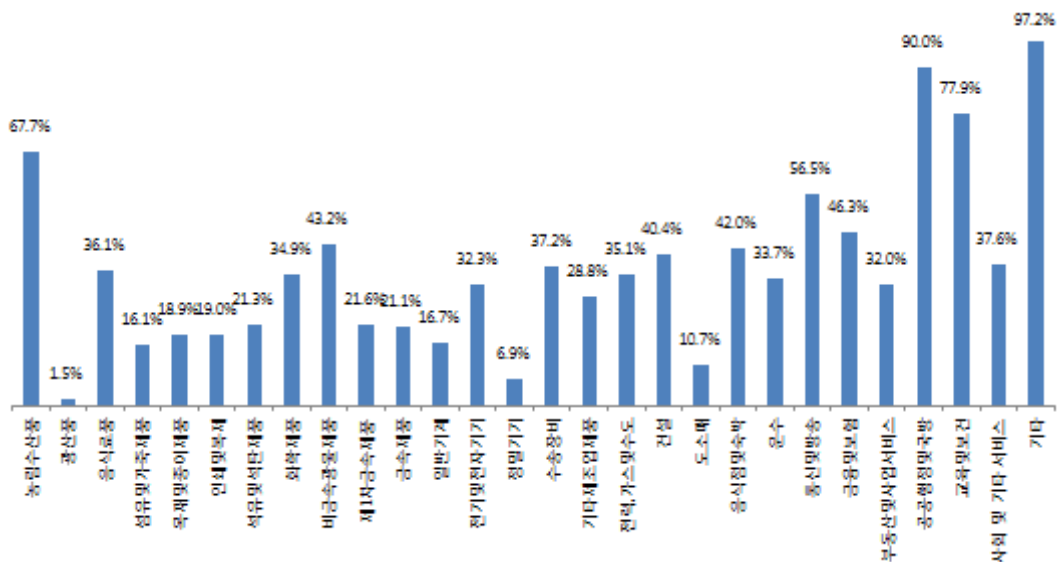
〔그림 4-9〕 충남 중간 재화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지역 별 조달비율



중간재화 및 서비스의 지역 내 조달 비율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1차 산업의 경우, 농림수산품은 충남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의 67.7%가 지역 내에 조달되고 있었다. 2차 산업에서는 비금속광물제품이 43.2%로 지역 내 조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수송장비 37.2%, 음식료품 36.1% 순으로 나타났다.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서는 공공서비스인 공공행정 및 국방이 90.0%로 가장 높으며, 교육 및 보건 77.9%, 통신 및 방송 56.5% 순으로 나타났다. 광산품과 정밀기기의 경우 지역 내 조달비율이 1.5%, 6.9%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의 경우는 10.7%로 지역 내 조달비율이 낮게 나타남. 이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지역 내 소비가 낮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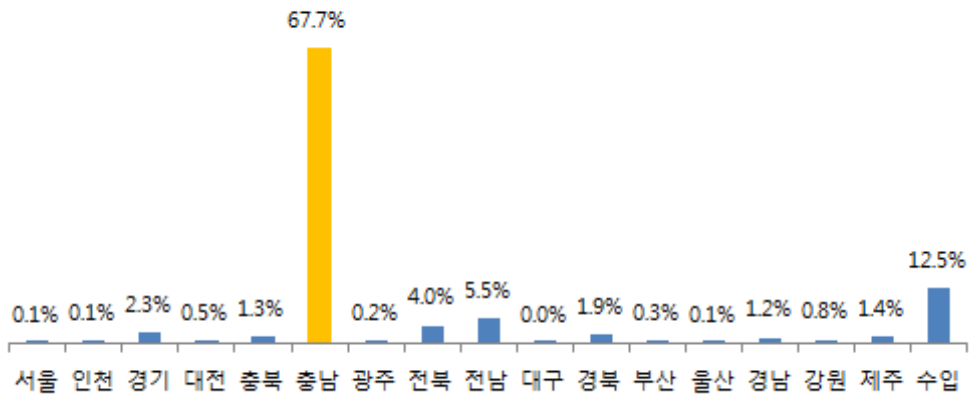
〔그림 4-10〕 충남 중간 재화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지역 별 조달비율



충남 농림수산업의 중간 수요 중 12.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조달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5.5%이다.

충남의 농림수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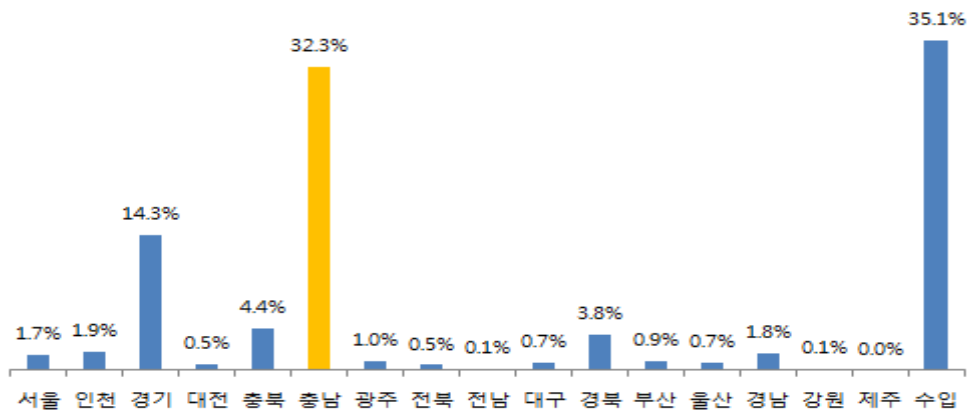
〔그림 4-11〕 충남 농림수산업 중간 수요의 지역별 조달비율



충남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중간 수요 중 35.1%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조달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지역으로 14.3% 이다.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이 많은 산업의 특성상 지역 내 조달 비율이 수입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역 내 조달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다. 타 지역 조달비율은 경기 14.3%, 충북 4.4%, 경북 3.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충남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중간 수요의 지역별 조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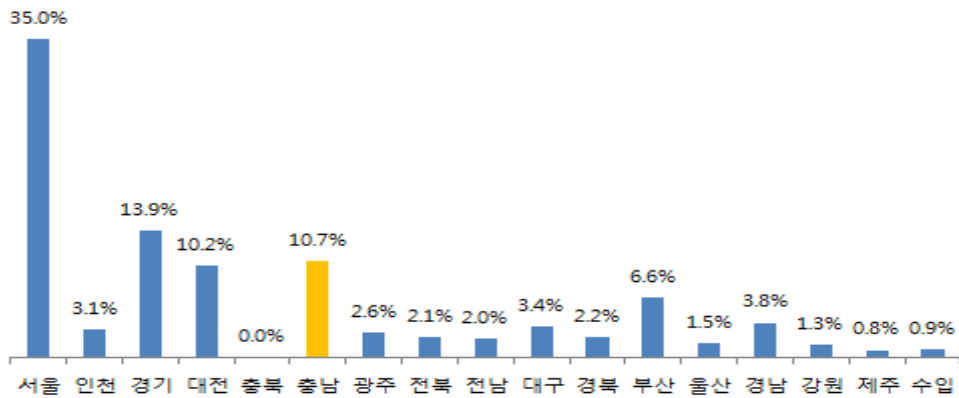


충남 도소매업의 중간 수요 중 지역 내 조달 비율은 10.7%로 낮게 나타난 반면, 서울 35.0%, 경기 13.9% 등 수도권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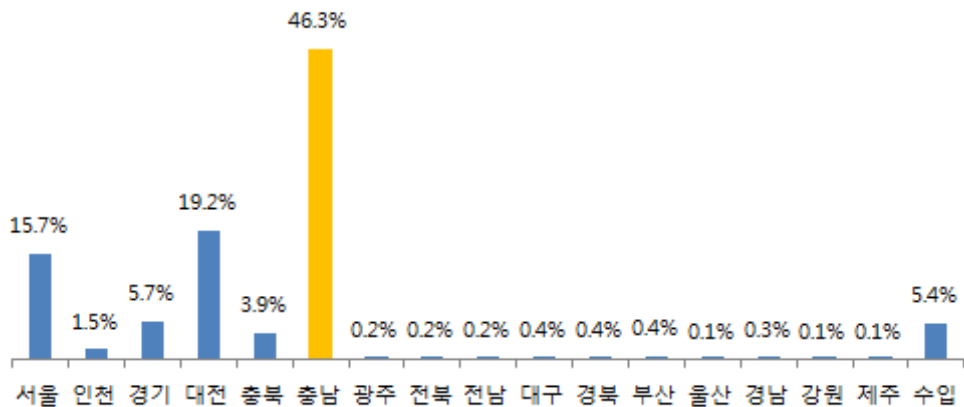
수도권 지역이 충남 도소매업의 중간 수요 조달 비율은 52.0%로 전체 수요 중 절반이상을 수도권에서 조달하고 있다. 인접 지역인 대전으로부터 조달되는 비율은 10.2%로 충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부산지역으로부터의 조달비율도 6.6%로 나타났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도소매업이 발달하는 산업적 특성상 인접 지역 중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3〕 충남 도소매업 중간 수요의 지역별 조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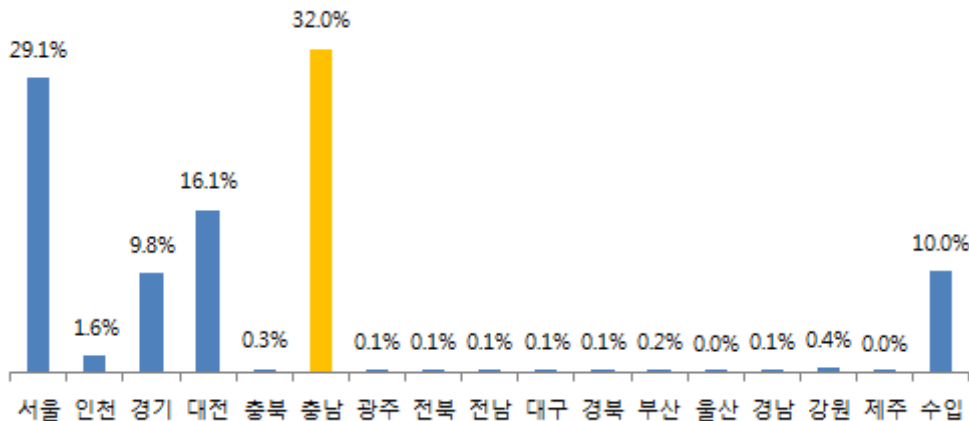
〔그림 4-14〕 충남 금융 및 보험업 중간 수요의 지역별 조달비율



충남 금융 및 보험업 중간 수요 중 지역 내 조달 비율은 46.3%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 내 조달을 보이고 있다. 타 지역 중에서는 대전이 19.2%로 가장 높고, 서울 15.7%, 경기 5.7%로 나타남.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69.4%로 수도권 2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충남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중간 수요 중 지역 내 조달 비율은 32.0%로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조달 비율 29.1%와 비슷한 수준이며,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으로부터의 조달 비율은 40.5% 이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과 함께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지역 내 조달 비율이 높을수록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4-15〕 충남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중간 수요의 지역별 조달비율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 재화 및 서비스의 지역별 조달 비율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내 조달비율이 높은 산업이 있는 반면, 해외로부터 수입의 비중이 큰 산업, 수도권에 의존적인 산업,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수입을 많이 하고, 수도권에 의존적이라고 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생산 활동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커지고 나아가 지역 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중간 재화를 지역 내 산업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높이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③ 분배측면 : 요소소득의 역외 유출실태

■ 소득의 역외유출

소득의 역외유출입은 지역 내 요소소득과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중 피용자보수, 영업잉여와의 차이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 내 요소소득은 지역 내 생산 활동에 투입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를 의미하며, 소득계정 중 피용자보수, 영업잉여는 지역 외로 유출되는 소득을 제외한 순본원소득 중 요소소득을 의미한다.

충남의 소득의 역외유출 비율은 39.6%로, 인접 도 지역인 충북 21.2%, 전북 19.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 4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소득의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3.8%이며, 대구, 경기 15.0%, 대전 11.0% 순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에서는 수도권 지역 중 하나인 경기 지역이 유일하게 소득 유입지역이며 유입률은 15.0%로 나타났다.

〈표 4-3〉 시도별 소득의 역외유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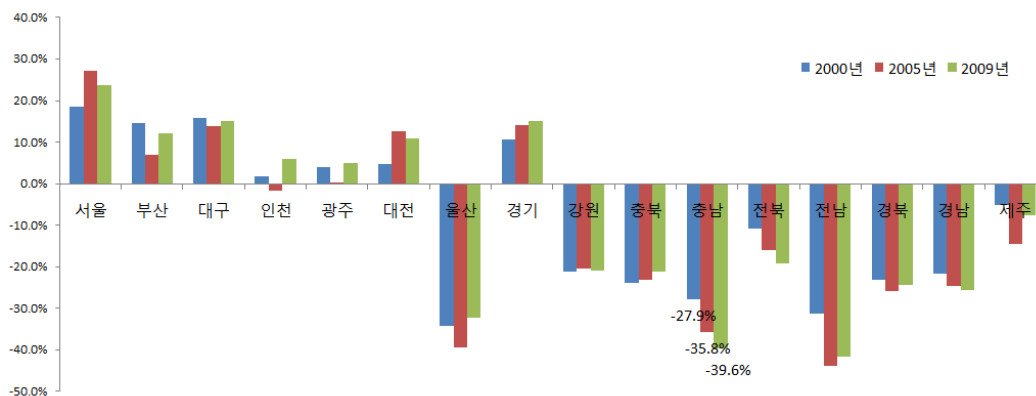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구분	지역내요소소득 (a)	제도부문별 소득		소득 역외유출 (+ 유입, - 유출) (d = b + c - a)	소득 역외유출비율 (+ 유입, - 유출) (e = d/a)
		피용자보수(b)	영업잉여(c)		
서울	203,577	128,147	123,790	48,359	23.8%
부산	43,284	33,528	14,976	5,220	12.1%
대구	25,643	20,968	8,528	3,854	15.0%
인천	36,580	26,245	12,486	2,150	5.9%
광주	17,454	13,901	4,425	872	5.0%
대전	19,130	15,289	5,945	2,104	11.0%
울산	33,786	15,436	7,388	-10,935	-32.4%
경기	156,529	118,704	61,336	23,511	15.0%
강원	20,976	11,664	4,933	-4,378	-20.9%
충북	24,000	13,060	5,856	-5084	-21.2%
충남	46,673	17,520	10,658	-18,496	-39.6%
전북	24,676	13,676	6,278	-4,722	-19.1%
전남	34,915	12,760	7,605	-14,551	-41.7%
경북	51,906	21,665	17,546	-12,659	-24.5%
경남	59,803	28,597	15,922	-15,284	-25.6%
제주	7,602	4,254	2,772	-576	-7.6%

※ 자료: 지역계정(통계청,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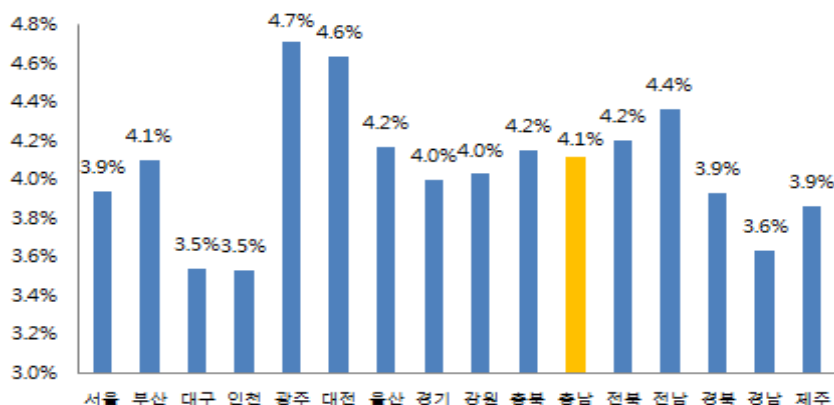
소득의 역외유출 비율을 시기에 따라 살펴보면 충남의 유출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남 소득의 역외유출 비율은 2000년 27.9%에서 2005년 35.8%, 2009년 39.6%로 증가했다. 유출 비율이 큰 울산과 전남 지역은 2005년에 비해 2009년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충남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그림 4-16〕 시도별 소득의 역외유출 비율(2000~2009)



소득의 역외유출을 지역의 사업체 형태와 관련하여 분석해보면, 규모가 큰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가 많은 지역이 유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충남은 지역사업체 중 분공장 형태의 공장, 지사, 영업소 비율이 4.1%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 수의 비중은 광주, 대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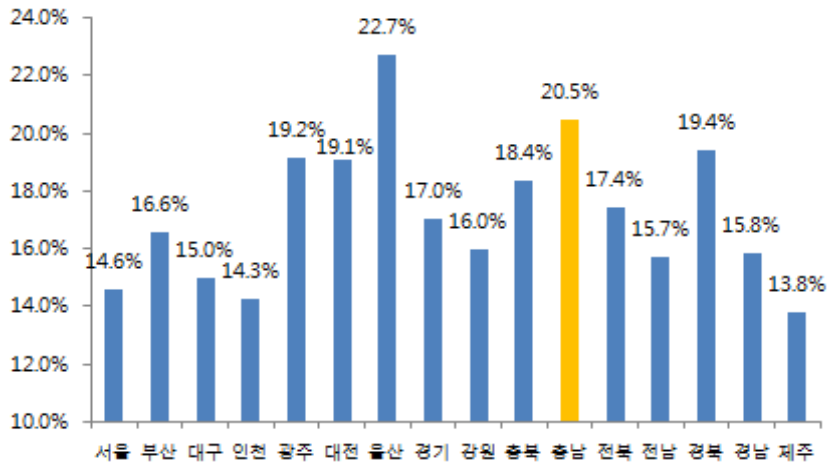
〔그림 4-17〕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수 비율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10)

그러나, 지역 종사자수 중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 비율을 보면, 울산 22.7%에 이어 충남이 20.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17.2%를 상회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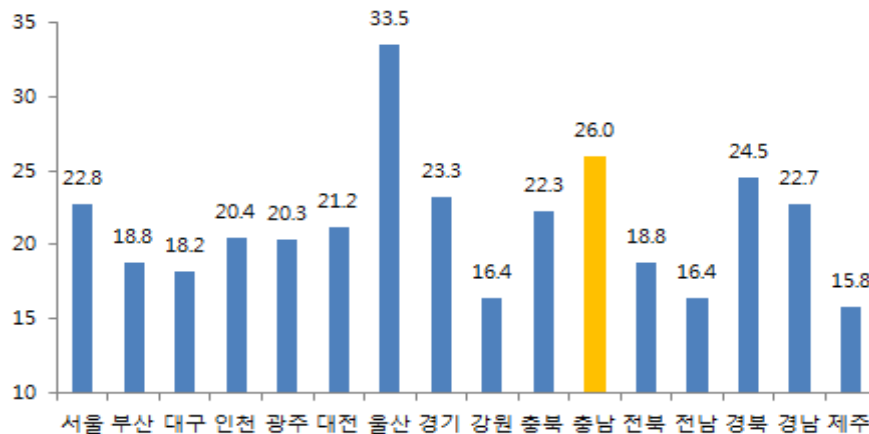
(그림 4-18)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 종사자수 비율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10)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 규모에서도 충남은 26.0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충남에 위치한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큼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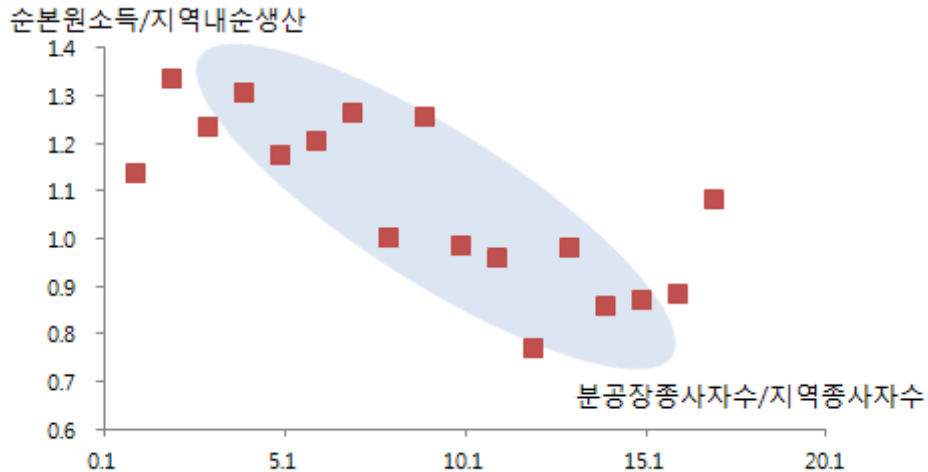
(그림 4-19)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 규모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10)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과 지역내순생산 중 순본원소득 비중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공장 형태의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득의 역외유출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4-20〕 분공장과 소득역외유출 간의 상관관계



*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09), 지역계정(통계청, 2009)

지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 활동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영업잉여의 역외 유출에 있어서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 부가가치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의 흐름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 부분에 제공되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 자본 등의 요소소득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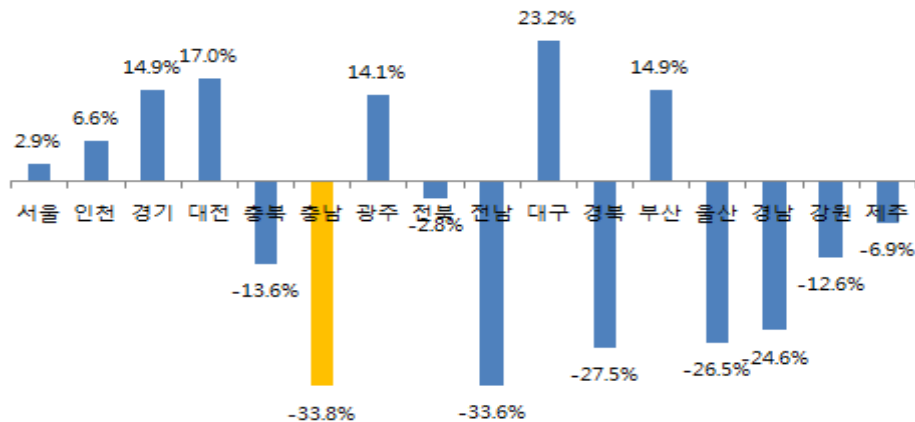
지역에서 생산을 위해 투입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의 합계가 피용자보수를 의미하며, 지역에서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자본소득의 합계가 영업잉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제시된 지역 내로 투입되는 요소 소득을 활용하면, 각각에 대한 지역 외 유출입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된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지역 피용자보수의 타 지역 유출비율은 33.8%로 나타난다. 이는 충남지역에서 생산을 위해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임금 중 33.8%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용자 보수의 지역 외 유출입 비율은 [그림-22]와 같다.

타 지역 거주자가 충남 지역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피용자보수 유출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추정된 수치에 따르면 충남의 유출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남, 경북 순으로 나타남. 충남의 인접 지역인 충북과, 전북은 유출, 대전은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는 유출이 크며, 비율로 보았을 때 서울 지역의 유입률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21] 피용자보수의 시도별 유출입 비율



영업잉여의 경우, 충남은 지역 내에서 발생된 영업잉여의 38.9%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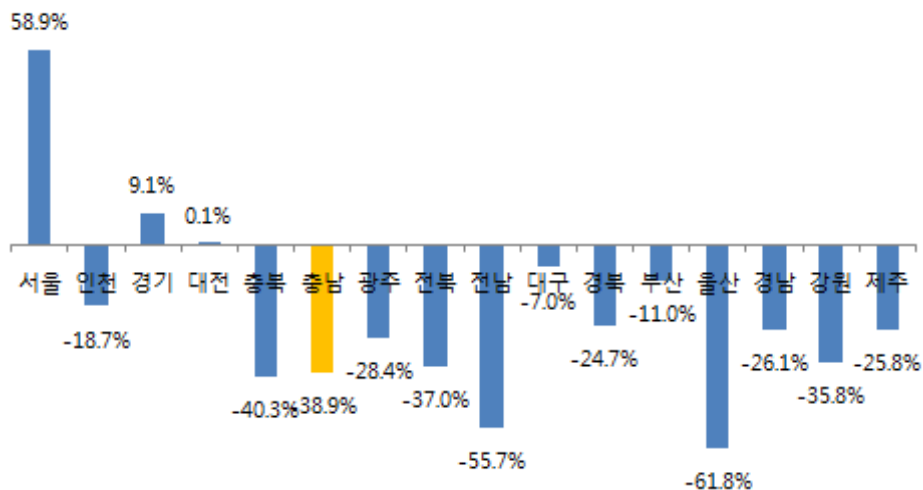
영업잉여의 지역 외 유출입 비율은 [그림-23]와 같다.

지역 내 생산 공장, 영업소의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발생한 영업잉여가 타 지역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서 분공장 가설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충남은 본사가 타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생산 공장이 많이 있다. 발생한 영업잉여의 대부분이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귀속된다고 볼 때, 충남의 유출 비율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울산의 경우에 분명히 나타난다. 울산의 경우 유출 비율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수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을 보여주듯 서울의 유입 비율이 58.9%로 높았다.

충남과 인접한 충북과 전북 모두 유출 비율이 40.3%, 37.0%로 나타난 반면, 대전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유입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영업잉여의 시도별 유출입 비율



■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지역 간 유출입(추정)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지역 간 유출입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도 간 분배를 통해 추정할 수 있으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음에 제시하는 분석 결과는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검증되어야 하며, 직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용자보수의 유출입이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를 경우 발생함을 가정하여 물동량 자료 중 목적별OD에서 출근, 업무의 목적으로 발생한 통행량을 활용, 간접적으로 피용자보수의 지역 간 유출입을 추정한다.

피용자보수의 지역 간 유출입을 추정한 결과 충남은 지역에서 발생한 피용자보수의 57.1%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며, 지역 내 피용자보수의 24.7%가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발생한 피용자보수는 18,882,604백만원으로 이 중 8,092,855백만원이 지역에 남고,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며, 타 지역으로부터 2,647,967백만원이 지역 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발생한 피용자보수 중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고 충남에 남는 부분과 타 시도에서 충남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피용자보수의 유출 비율은 43.1%로 나타났다.

충남 피용자 보수의 유출량은 유입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별로는 대전이 가장 높고, 경기, 서울 순으로 나타남. 유입량은 경기지역이 가장 높고 대전, 전북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충남 지역 피용자보수의 지역 간 유출입 추정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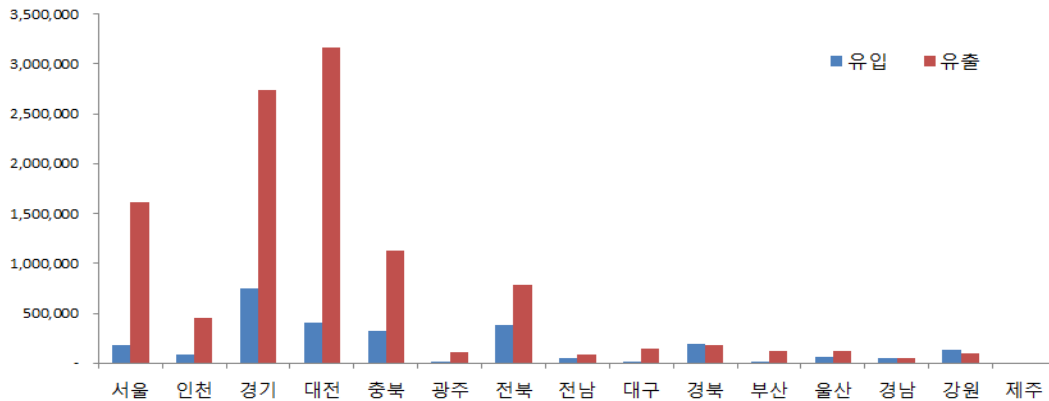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지역	유입*		유출**		유입-유출
서울	185,797	1.7	1,617,390	8.6	-1,431,593
인천	85,843	0.8	458,697	2.4	-372,854
경기	748,996	7.0	2,734,732	14.5	-1,985,736
대전	409,695	3.8	3,167,611	16.8	-2,757,916
충북	327,266	3.0	1,128,363	6.0	-801,097
광주	11,648	0.1	109,351	0.6	-97,703
전북	377,922	3.5	782,175	4.1	-404,253
전남	50,317	0.5	80,797	0.4	-30,480
대구	12,843	0.1	141,238	0.7	-128,395
경북	195,699	1.8	182,063	1.0	13,636
부산	4,957	0.0	120,984	0.6	-116,027
울산	58,632	0.5	116,872	0.6	-58,240
경남	50,306	0.5	55,622	0.3	-5,315
강원	128,046	1.2	93,854	0.5	34,192
제주	-	0.0	-	0.0	-
충남	8,092,855	75.3	8,092,855	42.9	-
합계	10,740,822	100.0	18,882,604	100.0	-8,141,781
합계-충남	2,647,967	24.7	10,789,748	57.1	-8,141,781

* 유입 : 타 지역에서 발생한 피용자보수 중 지역 내로 들어오는 피용자보수

** 유출 : 충남 내에서 발생한 피용자보수 중 타 지역으로 나가는 피용자보수

〔그림 4-23〕 충남 피용자보수의 지역 간 유출입 분석 결과



영업잉여의 경우, 자본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지역산업 연관표의 금융 및 보험 부문의 지역 간 중간투입액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영업잉여의 지역 간 유출입을 추정한 결과 충남은 지역에서 발생한 영업잉여의 48.3%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며, 지역 내 영업잉여의 16.7%가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발생한 영업잉여는 12,526,139백만원으로 이 중 6,471,510백만원이 지역에 남고,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며, 타 지역으로부터 1,297,995백만원이 지역 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자보수와 마찬가지로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가장 많은 유출지역은 대전으로 충남에서 발생한 영업잉여의 19.2%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입량은 충북이 가장 많고, 대전, 경기 순으로 나타났으나, 충북지역의 유입량이 5%로 유출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표 4-5〉 충남 지역 영업잉여의 지역 간 유출입 추정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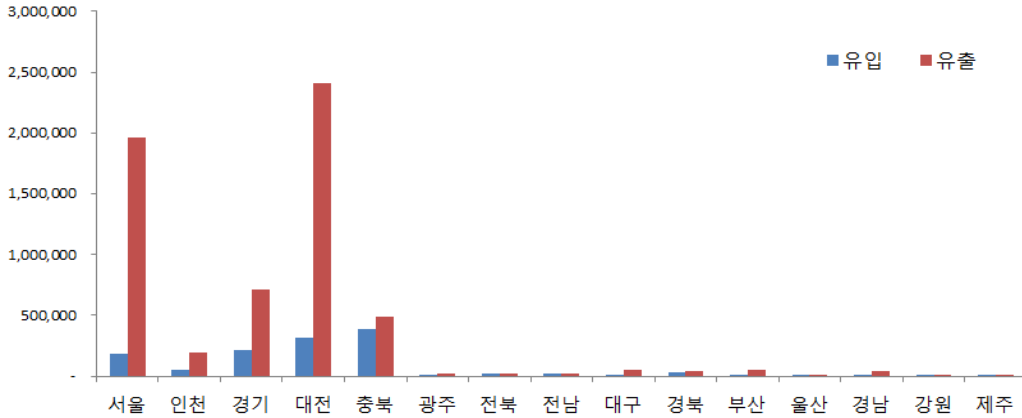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지역	유입*		유출**		유입-유출
서울	185,802	2.4	1,964,933	15.7	-1,779,131
인천	52,431	0.7	193,048	1.5	-140,617
경기	211,379	2.7	711,101	5.7	-499,722
대전	317,583	4.1	2,404,055	19.2	-2,086,472
충북	387,481	5.0	486,610	3.9	-99,128
광주	6,210	0.1	23,177	0.2	-16,967
전북	21,027	0.3	23,349	0.2	-2,322
전남	21,795	0.3	24,602	0.2	-2,807
대구	8,351	0.1	51,673	0.4	-43,322
경북	35,180	0.5	45,434	0.4	-10,255
부산	11,156	0.1	54,540	0.4	-43,384
울산	8,935	0.1	13,408	0.1	-4,473
경남	13,440	0.2	40,289	0.3	-26,850
강원	13,909	0.2	9,297	0.1	4,612
제주	3,318	0.0	9,112	0.1	-5,794
충남	6,471,510	83.3	6,471,510	51.7	-
합계	7,769,505	100.0	12,526,139	100.0	-4,756,634
합계-충남	1,297,995	16.7	6,054,629	48.3	-4,756,634

* 유입 : 타 지역에서 발생한 영업잉여 중 지역 내로 들어오는 영업잉여

** 유출 : 충남 내에서 발생한 영업잉여 중 타 지역으로 나가는 영업잉여

[그림 4-24] 충남 영업잉여의 지역 간 유출입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득유출에 대한 분석결과가 상이한 것은 분석 자료와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세 방법 중 지역 간 소득유출의 경우 간접 추정방법임에 따라 분석결과가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서 제시한 분석결과 모두 충남은 소득의 역외유출이 큰 지역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시된 수치보다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크기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

〈표 4-6〉 충남 지역 영업잉여의 지역 간 유출입 추정량

구분	분석자료	분석방법	분석결과
소득의 역외유출	지역계정(2009년) - 지역내 요소소득 - 제도부문별 소득	지역 내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요소소득 중 지역 외로 빠져나간 부분에 대한 비율	소득 역외유출 비율 충남 39.6%
부가가치 유출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지역산업연관표(2005년) - 부가가치 중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각각에 대한 역외유출 비율 (지역계정자료 활용 보정)	소득 역외유출 비율 비용자보수 33.8% 영업잉여 38.9%
지역 간 소득유출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지역산업연관표(2005년) - 부가가치 중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 물동량자료 목적별 OD - 금융 및 보험 투입액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각각에 대한 지역 간 유출입 비율 (물동량 자료, 금융 및 보험 투입액 등을 활용, 간접 추정)	소득 역외유출 비율 비용자보수 57.1% (43.1%)* 영업잉여 48.3% (38.0%)*

* ()안의 수치는 타 시도에서 지역 내로 유입되는 부분을 고려할 경우 유출 비율임(a+b/c)
지역 내 발생한 비용자보수(영업잉여) 중 충남에 남는 부분 (a)
타 시도에서 지역으로 유입되는 비용자보수(영업잉여) (b)
지역 내 발생한 비용자보수(영업잉여) 총량 (c)

4 지출측면 : 최종 수요의 타 지역 의존실태

■ 최종수요 : 완제품 시장(소비지출)의 흐름

지역산업연관분석에서 중간 재화 수요의 흐름이 생산과정을 반영하고, 부가가치가 소득의 분배를 의미한다면, 최종 재화 수요의 흐름은 소비지출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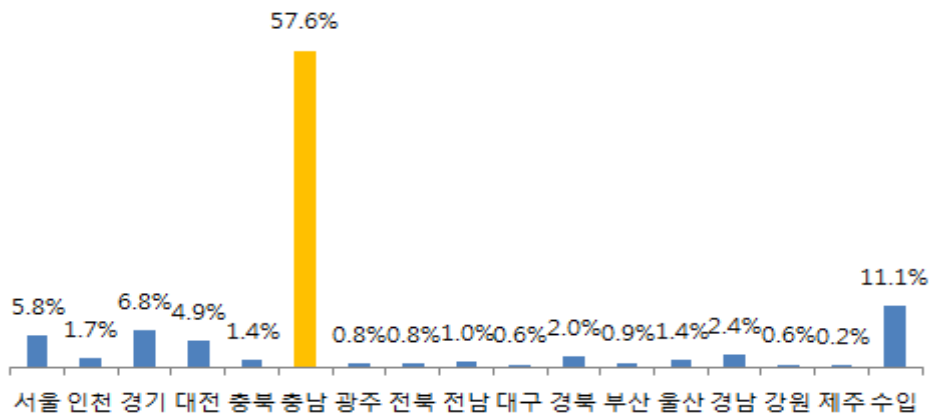
지역에서 생산된 최종재화(완제품)의 소비는 생산 활동으로 창출된 소득이 다시 생산 활동으로 환류(feed-back)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지역 내 생산된 재화가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자족성 및 자립성 확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종 재화 수요 중 수출은 제외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만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 중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 하고 지역 내 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율이 57.6%로 나타났다. 중간 재화 수요 중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로 조달 하는 비율이 30.8%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최종 재화의 소비 지출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수입 재화에 대한 소비 지출은 11.1%로 중간 재화에 대한 수입이 27.1%임을 고려할 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입에 대한 상대적인 의존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그림 4-25) 충남 최종 재화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지역별 소비비율



타 지역 중에는 경기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5.8%, 대전 4.9%이다.

충남 지역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지역 내 소비지출 비율을 산업별로 살펴 보면,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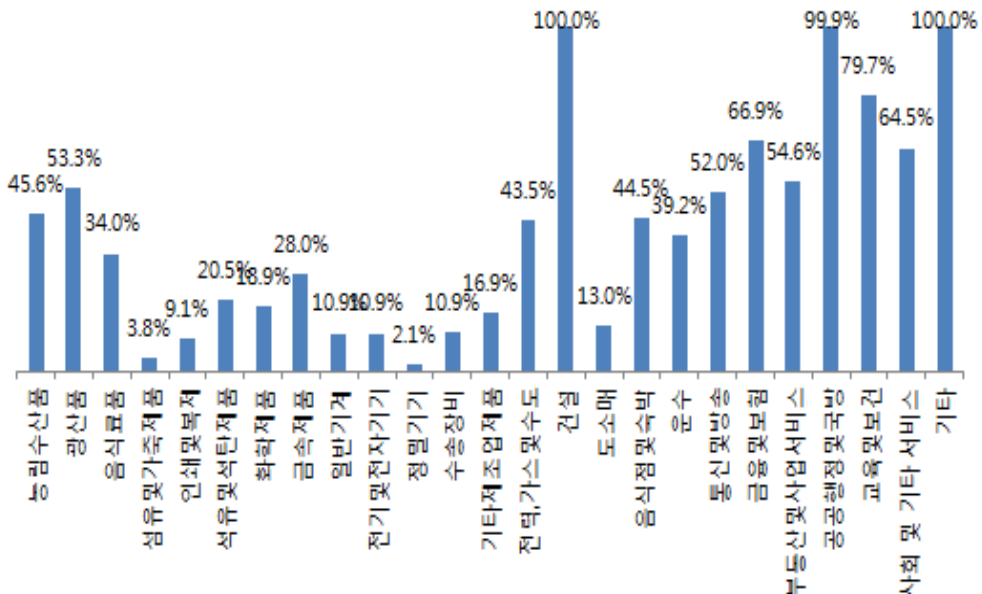
1차 산업인 농림수산품은 최종 재화 수요 중 45.6%를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 되고 있음. 중간 재화 수요 중 지역 내에서 조달 비율 67.7%와 비교할 때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음식료품 34.0%를 제외하면 모든 산업에서 지역 내 생산된 최종 재화의 지역 내 소비가 30% 이하로 낮았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이 13.0%로 가장 낮고, 대부분이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건설부문은 지역 내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남 최종 재화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해 지역 내 생산된 재화, 서비스 소비 비율이 57.6%로 중간 재화 조달 비율30.8%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서비스업의 소비 비율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 4-26〕 충남 최종 재화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산업별 소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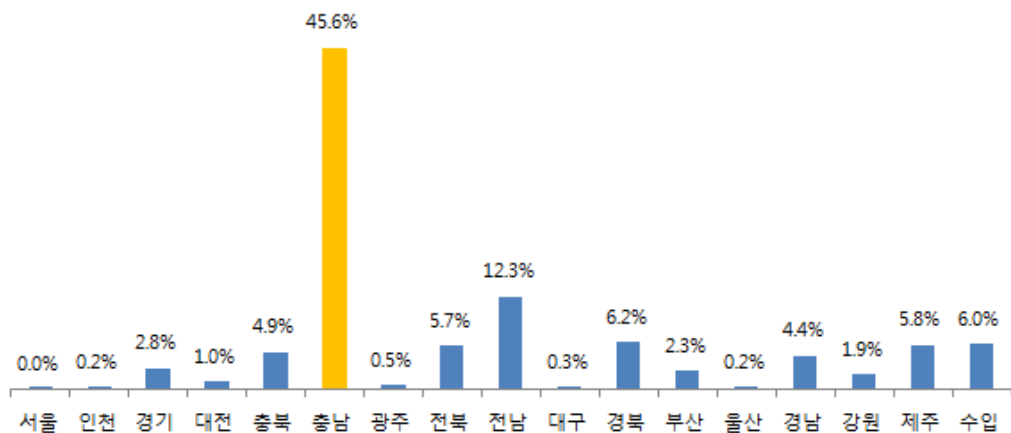
충남 농림수산업 최종 재화 및 서비스 수요의 지역별 소비지출 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 다음으로 소비지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2.3%를 보이고 있으며, 경북 6.2%, 수입 6.1%, 제주 5.8%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들이 수도권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농림수산업은 수도권 전체 소비비율이 3.0%로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이 농림수산업 보다는 제조업,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산업구조 상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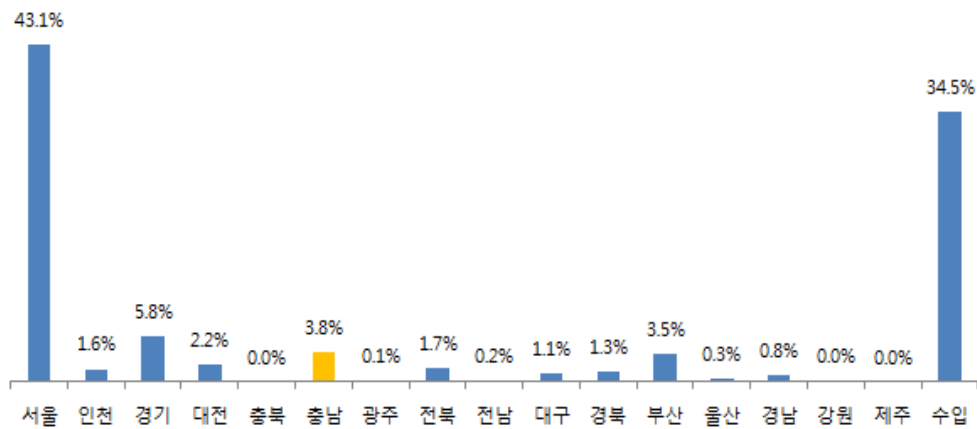
〔그림 4-27〕 충남 농림수산업 최종 재화 수요에 대한 지역별 소비비율



섬유 및 가죽제품의 경우 충남 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지역 내 소비는 3.8%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에서 생산된 재화의 소비 비율은 43.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충남 내에서의 섬유 및 가죽제품 생산량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수입 재화에 대한 소비비율도 34.5%로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한 충남의 최종 수요 중 대부분이 수도권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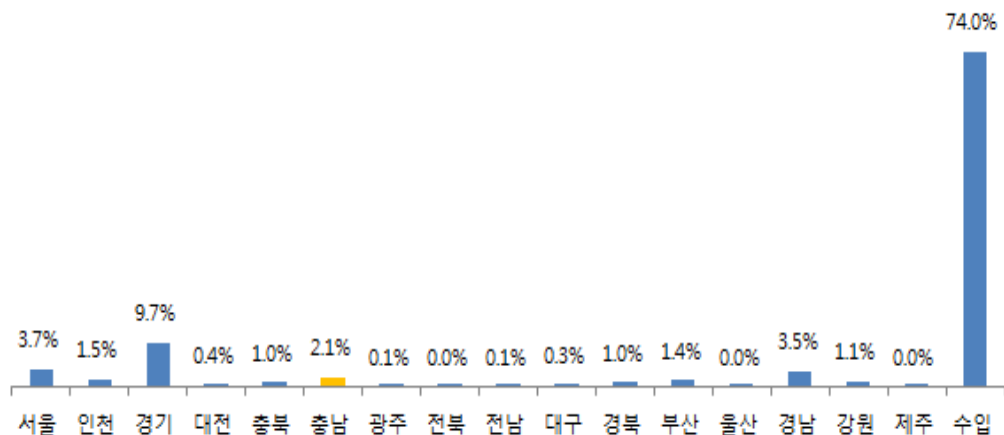
〔그림 4-28〕 충남 섬유 및 가죽 제품업 최종 재화 수요에 대한 지역별 소비비율



충남 정밀기기업 최종 재화에 대한 수요 중 지역 내 생산 재화에 대한 소비비율은 2.1%로 낮았다. 반면 수입 재화에 대한 소비지출이 74.0%로 높게 나타났다.

중간 재화의 수요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산업으로 최종 재화의 수요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을 제외하면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의 소비 비율이 9.7%로 높고 서울 3.7%, 경남 3.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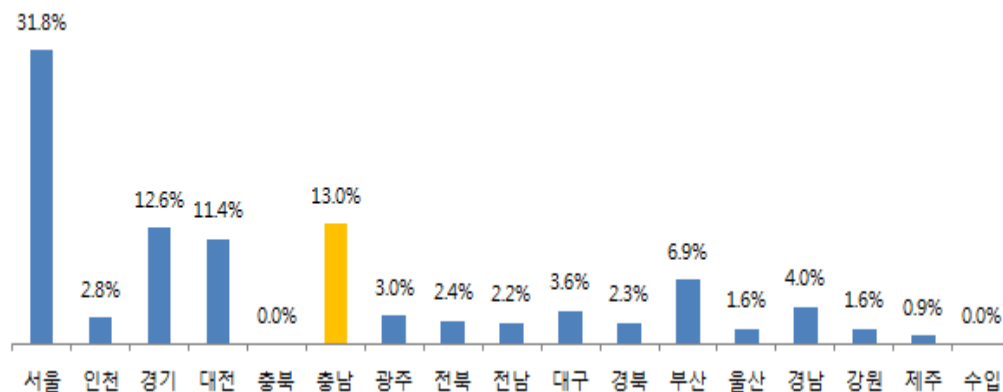
〔그림 4-29〕 충남 정밀기기업 최종 재화 수요에 대한 지역별 소비비율



충남 도소매업에 대한 최종 서비스 수요 중 서울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비율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남 지역 내 서비스 소비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13.0%이며, 경기 12.3%, 대전 11.4%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 재화의 수요에서도 수도권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재화의 수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역 내의 도소매업 서비스보다 타 지역, 특히 수도권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전의 도소매업 서비스의 이용도 많았다.

〔그림 4-30〕 충남 도소매업 최종 서비스 수요에 대한 지역별 소비비율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이 가진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산업별 특성에 따라 수도권 또는 수입에 의존하기도 한다.

충남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비율이 낮게 나타난 산업 중에는 지역의 산업구조상 생산 활동이 적은 경우도 있으며, 생산량은 많지만 대부분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지역 간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산업의 지역 내 산업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소비가 부족한 산업을 규명할 수 있다.

지역이 가진 산업구조와 생산-분배-지출로 이어지는 경제 순환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산업별 맞춤형의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지역내총생산 vs. 민간소비지출

■ 지역경제 고성장 vs. 민간소비 감소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년 31조원에서 2010년 76조원으로 연평균 9.4%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지출은 2000년 14조원에서 2010년 18조원으로 연평균 2.9%의 성장에 그쳤다.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으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중 민간소비의 비중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년 44.6%에서 2010년 24.2%로 감소하였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생산증가가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증가로 이어져 생산 활동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은 생산은 증가하지만 소비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 내 순 본원소득 중 피용자보수는 2000년에서 2010년의 10년 동안 연평균 9.0%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성장률 9.4%와 유사하다. 반면, 영업잉여는 같은 시기 연평균 4.4%의 성장을 보였다.

지역경제의 성장을 통해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커지고 있지만 영업잉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4-7〉 충남 지역내총생산, 민간소비지출,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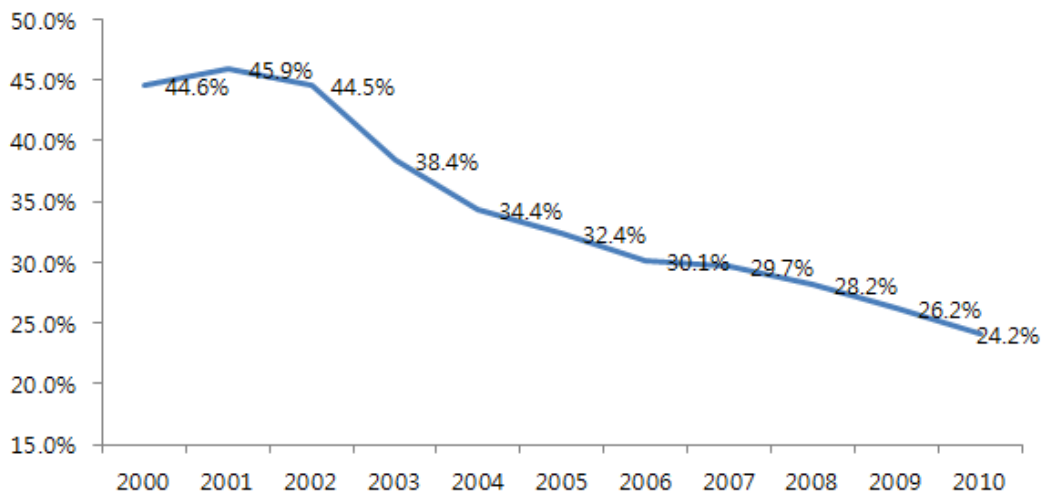
(단위 : 10억원)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성장률
지역내총생산(a)	30,963	47,497	76,031	9.4%
민간소비지출(b)	13,808	15,376	18,380	2.9%
피용자보수(c)	8,129	13,429	19,328	9.0%
영업잉여(d)	6,899	8,225	10,563	4.4%
b/a	44.6%	32.4%	24.2%	

* 지역계정(통계청, 2010), 2005년 기준가격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는 지역 내 순분원소득임

〔그림 4-31〕 충남 지역내총생산 중 민간소비 비중 변화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위해서는 영업잉여의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지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미시적(Micro)측면의 정성적 분석

1) 조사개요

① 조사목적

거시적(Macro)측면에서 이루어진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정량적 분석의 결과를 정성적 차원에서 검토·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및 출하실태, 공급사슬(supply chain), 경영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의 수요수준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가계소비 부문에서는 주민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지역 내 소비구조와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유통부문에서는 지역에서 소비되는 제품(농수산물, 공산품)의 유통 구조 즉, 주요 구매지역 및 비중, 상품의 거래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한다.

②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방법은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설문조사만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 아울러 설문조사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대상 지역과 설문내용 등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친다.

③ 조사내용

■ 제조업 부문

- 기업일반현황(업종, 주생산물, 종사자 일반현황(직능별 인력현황), 매출액 현황)
- 기업간 네트워크 및 가치사슬(기업거래단계, 위탁기업수, 위탁기업의 지역, 단일위탁 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 위탁기업과의 평균거래 기간, 위탁거래시 애로사항, 위탁거래 단절시 대안, 하위협력업체 수, 하위협력업체의 지역, 원자재 구매관련 애로사항)

- 기업입지환경, 기원지원체계[아산시의 기업입지환경(SOC, 기업집적, 산업인력 수급 및 재교육,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노력, 입지관련 세제 및 보조금, 공장 신증축 및 용도 변경 용이성, 유통 및 물류 인프라, 행정 및 금융지원서비스 등), 아산지역에서 사업경영 이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시책, 추가 지원책 등

■ 가계소비 부문

- 충남 가구의 10대 소비지출 항목(식료품,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중 충남에서만 소비가 가능한 주거·광열·수도, 교통, 통신은 설문에서 제외
- 충남 가구의 소비지출 비율에 대한 조사, 충남 가구의 소비지출 지역에 대한 조사

■ 유통 부문

- 주요품목, 영업형태, 구매지역 및 구매처 업태(도매상, 도매시장, 지역농협, 산지공판장, 기타 등), 지역별 물량 및 금액비중

④ 조사대상 및 지역

■ 조사대상

제조업 부문에서는 산업 중분류(2digit)상의 200개 업체를 층하·추출하였고 가계소비 부문과 유통부문의 조사대상은 각각 지역 내 거주주민과 전통시장 상인 50명씩 총 200명이다.

■ 조사지역

본 연구의 지역노동시장권 분석결과에 따라 통합노동시장, 독립노동시장, 타광역권 연계형 시장권에서 하나의 지역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10개의 독립지역노동시장 중 1개 시 또는 군 지역, 2개의 통합노동시장 중 천안·아산지역, 그리고 단 하나의 타광역권 연계형 시장인 금산, 서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결과

① 제조업 부문 - 제조업 실태조사

지역경제 순환구조 분석에 있어 제조업 부문은 충남소재 제조업체 20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권시장 분류에 따라 천안시·아산시, 금산군, 서천군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위탁기업 및 하청기업에 대한 소재지, 매출비중, 거래기간, 애로사항 등의 기업간 네트워크 및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를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기업지원 및 지원책에 대한 조사와 근로자의 정주여건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과정에서의 순환구조에 대한 조사와 함께 생산과 소비를 위한 정주여건 등도 함께 고려하였다.

■ 위탁기업과의 거래관계 및 가치사슬

기업의 거래단계는 크게 주기업과 위탁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위탁기업에 있어서도 1차 위탁, 2차 위탁, 3차 위탁 등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기업 거래단계별 위치에 있어 1차 벤더 기업이 가장 많은 127개 기업(63.5%)이 분포하고 있으며, 2차 벤더와 3차 벤더가 각각 65개 기업(32.5%), 8개 기업(4.0%)으로 나타나 주기업과 관련된 1차적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러한 거래단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매출액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 지에 따라 기업간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진다. 즉, 납품기업에 대한 총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상호 밀접한 수직적관계로 연계되고, 반대의 경우는 이러한 수직적 관계에서 다소 자유로울수 있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생산품의 납품(판매)에 있어서 3개사 이상 다각적인 납품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8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더별로 살펴보면 3차 벤더보다는 1차 벤더로 갈수록 여러 기업과 폭넓은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폭넓은 위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기업 납품현황

구분	응답기업(수)	비율(%)
1개사 전속	5	2.5
2개사	36	18.0
3~5개사	100	50.0
6개사 이상	53	36.5
없음(소비자 판매)	6	3.3

그러나 이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위탁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조사기업의 3/4이 총매출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거래관계에 있어 여러기업과의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주기업과의 위탁관계가 기업매출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기업에 있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총매출액대비 주위탁기업의 매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업거래단계별 분석에 있어서는 1차 벤더의 경우 가장 큰 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크게 나타나 주 위탁기업과의 전문공급형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2차와 3차벤더의 경우는 1차 벤더보다는 다소 낮은 범용공급형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대표 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기업 수	비중
60% 미만	49	25.0
60% 이상	57	29.0
70% 이상	54	27.0
80% 이상	29	15.0
90% 이상	11	6.0

기업의 거래관계에 있어 기업수 및 매출액처럼 직접적인 관계와 함께 기업간의 신뢰 관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제조업의 생산에 있어서 부품소재의 수요과 공급은 1회 성이나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업과 위탁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평균적 거래기간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모기업과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5년 이상의 장기적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7.5%인 75개 기업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2008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5년 이상의 거래가 63.8%에 달하고 있어 충남지역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3년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82.0%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기업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위탁기업과의 평균적 거래기간

거래기간	기업 수	비중
1년 미만	1	0.5
1~3년	29	14.5
3~5년	88	44.0
5~10년	62	31.0
10년이상	13	6.5
단품거래	1	0.5

이러한 기업들의 납품거래시의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37.5%의 기업이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를 지적하였으며, 지나친 품질수준요구 19.0%, 기업이 납기 단축 14.5% 등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문제가 대·중소기업 거래에서 아직까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기업 거래에 있어 기술보다는 거래당사자간의 힘의 논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통한 해결과제 도출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의 중소수탁기업들 간의 협력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표 4-11〉 납품거래시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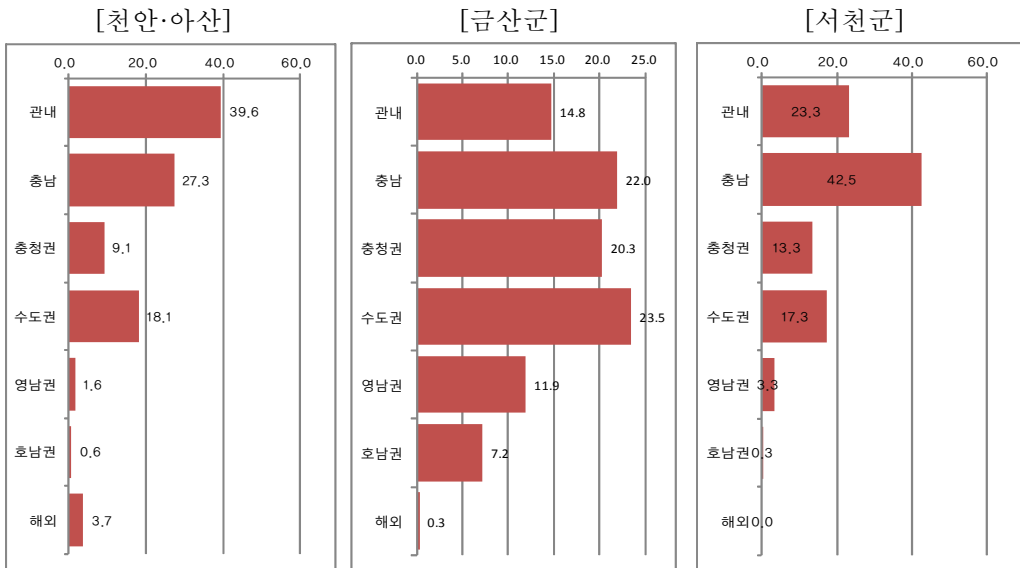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38	19.0
납기단축	29	14.5
불규칙한 발주	17	8.5
거래선 변경시도	5	2.5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	75	37.5
최저가 입찰로 채산성 악화	11	5.5
납품대금 결제기일 장기화	13	6.5
일부납품 후 발주 취소	1	0.5
없음	5	2.5

이러한 위탁기업들이 지역내에 소재하고 서로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역내의 제조업의 생산과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 융복합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으로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충남도 역시 지역내 산업의 가치사슬을 형성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조사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지역별 위치에 대해 충남지역이 6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이 18.3%, 충청권지역이 11.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아산지역과 서천군은 지역내 및 충남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산군은 충청권,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의 산업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천안아산지역의 경우는 전자부품산업과 기계장비, 조립금속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어 충남 및 수도권과의 연계가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금산군은 인삼관련 식품제조산업과 대형공장 등이 입지해 있어 지역내 교류보다는 전국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천군의 경우는 식품제조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금산과는 달리 해산물관련 식품제조업이 많아 위탁기업이 관내 및 충남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위탁기업의 지역간 분포 현황



기업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탁관계뿐만 아니라 하청관계 혹은 협력업체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탁기업보다는 규모면인 측면이나 협력적 측면이 다소 느슨한 것이 특징이지만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의 하위 협력업체는 3개사 미만의 소수 기업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5개 기업도 34.0%, 5~10개사 26.5%로 대부분 10개사 미만의 협력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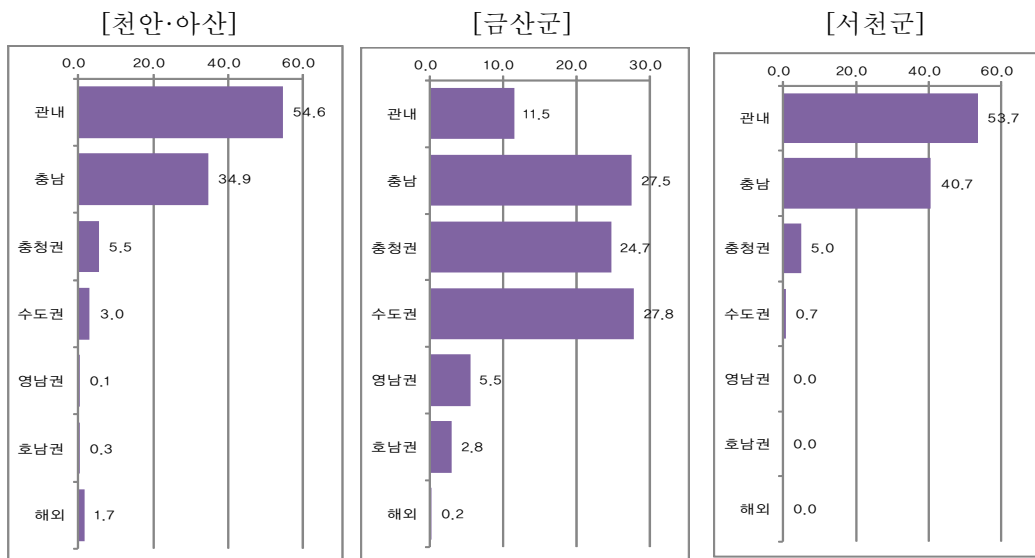
〈표 4-12〉 하위 협력업체 수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3개사 미만	69	34.5
3~5개사	68	34.0
5~10개사	53	26.5
10개 이상	9	4.5

이러한 하위 협력업체의 지역별 입지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이 8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권과 수도권은 각각 8.3%, 6.4%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충남 및 인접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중 충남지역에서 100%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8개 업체(9.0%)에 이르고 있어 중소기업과의 하위 협력업체가 지역적 인접성이 위탁기업과의 인접성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아산지역의 경우 위탁기업대비 협력업체는 관내비중이 가장 높고 충남도를 포함하면 89.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금산군은 위탁관계와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천군은 협력업체의 비중이 관내 53.7%, 충남 40.7%로 충남내 비중이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원재료의 납품과 관련하여 지역생산물을 활용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림 4-33] 협력업체 지역별 분포현황



■ 기업 애로 및 기업지원

기업지원과 관련된 것은 자금, 유통 및 판매, 인력수급, 연구개발투자 지원, 규제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기업지원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문제가 49.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0%로 나타났다.

〈표 4-13〉 기업지원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지원자금 조달 및 확보	99	49.5
유통 및 판매 지원	66	33.0
인력수급 지원	12	6.0
연구개발투자 지원	15	7.5
각종 규제완화 노력	8	4.0

먼저 인력수급 문제이다. 조사기업들의 인력수급에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채용시장 정보부족, 채용인력의 잦은 이직이 각각 25.5%, 20.5%로 나타나 기업 및 주변 환경의 영향보다는 인력 자체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의 지리적 입지 등의 교통문제는 인력수급에 있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지역의 선정에 있어 대부분이 독립된 노동시장권, 혹은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지역인 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기업의 지리적입지는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인력수급 애로사항

구 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채용시장 정보부족	41	20.5
관련 전문인력 부족	56	28.0
지리적 입지 한계	18	9.0
외국인 근로자 채용곤란	3	1.5
채용인력의 잦은 이직	51	25.5
낮은급여수준	22	11.0
낮은복리후생	7	3.5
주변정주여건 미비	2	1.0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는 판매부진 및 매출감소를 원인으로 응답한 기업 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정책자금 이용곤란,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 곤란을 자금 조달 애로사항으로 나타냈다.

〈표 4-15〉 자금조달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판매부진 및 매출감소	65	32.5
정책자금 이용곤란	40	20.0
대출금리 및 부대비용 과다	25	12.5
판매대금 회수 지원	16	8.0
금융권 대출조건 강화	18	9.0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 곤란	36	18.0

지역내 금융기관 이용에 있어서는 조사된 기업들 대부분은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주 금융 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94.5%) 지역내의 금융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지역내 금융기관 이용함에 있어서 금융정보 등의 서비스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그 뒤로 차별화되지 않는 금리를 선택하여 금융기관들의 기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금융이용에 대한 정보부족의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표 4-16〉 지역내 금융기관 이용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금융기관의 부재	36	18.0
금융정보 등의 서비스 부족	79	39.5
차별화되지 않는 금리	54	27.0
애로사항 없음	31	15.5

마지막으로 연구기술개발 및 지원이다. 기업의 기술개발에 있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기술개발비 조달 곤란이 3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문기술인력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업들의 기술개발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비용과 인력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7〉 기술개발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전문기술인력 부족	63	31.5
기술개발비 조달 곤란	74	37.0
신기술 정보부족	36	18.0
연구장비구비능력 부족	12	6.0
개발기술의 사업화여력 부족	15	7.5

기술개발에 있어 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개발된 성과들을 기업이 도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기술 도입에 있어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들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입하여, 동종업종간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이 대학과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기술도입이 다소 미흡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8〉 기술도입처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 등)	64	32.0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투자기관 포함)	54	27.0
민간 연구기관	18	9.0
대기업(모기업)	16	8.0
중소기업	27	13.5
외국기업 및 기관(대학, 연구소 등)	2	1.0

이러한 연구개발 및 시험·검사 등의 활동에 있어 지역내 장비활용율을 살펴보면 기업의 평균 장비이용률은 45.7%에 이르고 있으며, 이용률이 낮은 형편이다. 이러한 낮은 장비이용률은 이용절차의 복잡성과 이용비용의 비싼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도의 장비 자체가 디스플레이와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장비가 주로 구축이 되어 타 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검사장비 보유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9〉 충남도내 장비이용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수	응답기업 비중
이용비용이 너무 비싸다	42	21.0
이용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46	23.0
이용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18	9.0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보유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20	10.0
필요한 시험·검사장비가 없다	42	21.0
시험·검사장비 보유기관과의 거리가 멀다	20	10.0
시험·검사를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2	6.0
기타	0	0.0

■ 기업간 교류활동

기업간의 교류활동은 지역내 산업간·산업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의 지역내 정착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기술개발의 도입을 쉽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동종업종 및 이업종간 교류 활동에 있어 교류활동자체가 없거나 분기당 1회 정도의 형식적인 교류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76.5%로 나타나 기업간 교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류에 있어서 소속업종협회 및 소속업종 교류회가 전체의 6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류활동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기관 및 지자체 중심의 교류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체의 2.5%로 극히 드물어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교류회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동종업종 및 이업종간 교류활동

구분	응답기업수	응답기업 비중
활동안함	38	19.0
년 4회 미만	115	57.5
년 10회 미만	37	18.5
월 1회 이상	10	5.0

이러한 기업간의 교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내의 기업교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39.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교류활동을 위한 자금지원이 38.0%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교류의 장 마련하는 것과 활성화되기까지 지자체 주도의 운영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교류활동을 위한 지원

구분	응답기업수	응답기업 비중
직접적인 자금지원	76	38.0
지역의 기업교류분위기 조성	79	39.5
지자체 주도 운영	15	7.5
다양한 교류의 장 마련	19	9.5
기업경영인의 마인드 변화	11	5.5
기타	0	0.0

■ 정주환경

기업의 생산과 근로자의 소비는 지역내 정주여건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기업의 생산과 함께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내의 생산과 소비의 연계는 필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정착 못지 않게 종사자의 정착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조사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은 교통 등 주변 인프라 및 주거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지만, 교육여건 및 소비, 문화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 이는 지역별로 살펴보면 뚜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천안아산지역의 경우는 정주여건 6가지 모두의 지표에서 평균(3점)이상으로 나타나 기업 활동 못지않게 정주환경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산군은 주거수준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평균(3점)이하로 낮게 나타나 기업근로자의 정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권에 있어서도 금산군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에 의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서천군은 주거수준과 교통인프라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문화생활 등의 여건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표 4-22〉 지역별 근로자의 정주환경

구분	평균값	천안아산	금산군	서천군
1. 교육여건	3.2	3.4 (+0.2)	2.7 (-0.5)	2.5 (-0.7)
2. 소비(쇼핑)여건	3.1	3.2 (+0.1)	2.6 (-0.5)	3.0 (-0.1)
3. 문화생활 여건	2.9	3.1 (+0.2)	2.6 (-0.3)	2.7 (-0.2)
4. 의료수준	3.1	3.3 (+0.2)	2.6 (-0.5)	3.0 (-0.1)
5. 주거수준	3.5	3.6 (+0.1)	3.0 (-0.5)	3.8 (+0.3)
6. 교통 등 인프라	3.6	3.7 (+0.1)	2.9 (-0.7)	3.9 (+0.3)

* 평점은 3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임

■ 종합결론 및 시사점

충남지역은 조립가공형 제조업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타 시도에 비해 대기업과 이와 연관된 계열사들이 집적되어 있다. 기업 거래관계에 있어 위탁기업, 판매기업과의 입지적 관계에 있어서는 충남에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지만, 수도권과의 거래관계도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산업이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위 협력업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접근성 및 시급성 등으로 지역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리적 인접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아산지역의 경우 전자부품산업, 기계장비, 조립금속 등의 산업으로 이는,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수요공급기업의 연계가 중요한 장치산업으로 지리적 연계가 중요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위탁기업의 지역내 조달비율은 39.6%에 해당하고 있으며 충남지역 27.3%, 수도권 18.1%수준이며, 기타 권역은 낮은 편으로 나타나 충남지역과 함께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의 경우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종사자의 1/3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인삼관련 산업이 발달해 있다. 대기업 및 인삼가공산업의 경우는 수요처가 전국적인 특성을 띄고 있으며, 고속도로 등의 지리적 요인으로 전국적인 지리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위탁관계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충남 22.0%, 충청권 20.3%, 영남권 11.9%순으로 광범위한 연계를 나타내고 있고, 지역내 거래관계는 14.8%에 불과해 전국적 연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에 있어서는 대규모 기업을 제외하면 김, 장류, 냉동식품 등의 식료품 가공 제조업이 발달해 있고, 연안지역의 특성상 이와 관련한 소규모 조선산업(FRP 등)이 타시군에 비해 발달해 있다. 이러한 지역자원기반의 가공산업은 지역내 위탁 및 협력 등의 폭넓은 거래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자원활용기반의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지역내 23.3%, 충남지역 42.5%, 수도권 17.3%, 충청권 13.3% 순으로 지역내의 거래관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② 가계소비 부문 - 가구소비 실태조사

■ 설문 개요

○ 설문의 목적

지역이 내발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이 갖는 한계로 인해 지역상권은 인근 대도시 상권으로 흡수되기도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시장은 지역 외 대형마트나 백화점등에게 그 수요를 상당부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충남 도민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충남과 충남내 시군의 소비구조와 지역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는 것이 본 조사의 최종 목적이다.

○ 설문의 표본

충남 15개 시군을 표본 조사하여 개별 시군의 소비구조를 파악해야하나, 전체 시군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충남의 개별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아산, 천안, 금산, 서천 4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표본 수는 각 시군별 50가구로 한정하였다.

○ 설문의 주요내용

본 조사는 충남 가구의 10대 소비지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10대 소비지출 항목 중 충남에서만 소비가 가능한 주거·광열·수도, 교통, 통신과 타지역에서의 숙박은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표 4-23〉 12대 소비지출 항목

1	식료품	7	통신
2	의류 및 신발	8	오락, 문화
3	주거 및 수도광열	9	교육
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0	음식(외식)
5	보건	11	숙박
6	교통	12	기타

본 조사는 크게 2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충남 가구의 소비지출 비율에 대한 조사이며, 두 번째는 충남 가구의 소비지출 지역에 대한 조사이다.

■ 충남 가구소비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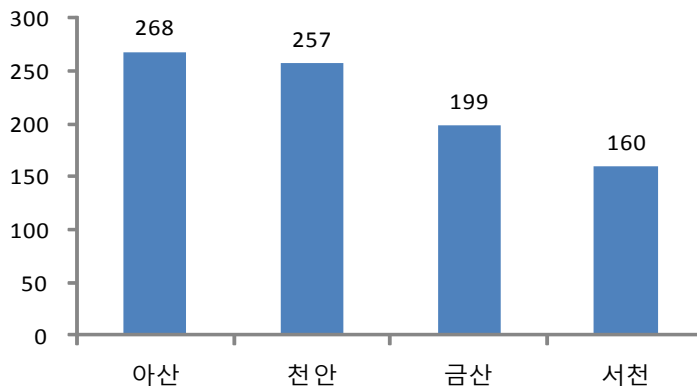
○ 소비지출

2012년 우리나라 1·4분기 가계 소비지출은 256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였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2.2%였으며, 경기불안 등으로 직전분기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1분기 만에 플러스를 회복했다.

12개 주요 소비지출 품목 중 교육을 제외하고 11개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음식·숙박(7.9%), 통신비(7.1%), 주거·수도·광열(6.9%) 등의 지출은 증가한 반면 교육비는 감소(-0.2%)하였다.

〔그림 4-34〕 충남 시군별 평균 소비지출

(단위: 만원)



충남 시군별 평균 소비지출은 아산시 268만원, 천안시 257만원, 금산 199만원, 서천 16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순이며 지출이 소득과 비례한다고 가정할 때 아산시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천의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을 10대 소비항목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4-24〉 충남 시군별 소비지출 비중

(단위: 만원,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식료품	51	19.1	51	19.7	45	22.5	40	25.0
의류 및 신발	22	8.3	17	6.6	15	7.3	11	7.2
주거 및 수도광열	18	6.7	18	7.1	14	7.0	13	7.9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4	5.2	16	6.2	12	5.9	9	5.8
보건	17	6.4	20	7.6	14	7.0	10	6.3
교통	27	9.9	24	9.2	18	9.2	13	8.3
통신	17	6.5	17	6.8	18	9.2	11	6.8
오락, 문화	19	7.3	23	8.8	14	6.9	10	6.2
교육	37	13.9	29	11.3	26	13.1	24	15.1
외식	22	8.1	22	8.7	14	6.9	10	6.3
숙박	8	3.2	12	4.5	6	3.2	3	1.8
기타	15	5.7	9	3.7	4	2.3	6	3.5
계	268	100	257	100	199	100	160	100

4개 시군 모두에서 식료품의 소비비중이 가장 높았고, 교육비중이 다음 순이었다. 특히 지출 수준이 낮은 금산과 서천지역에서 식료품의 소비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소비지출 지역

① 식료품

식료품 지출은 가구에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식료품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87.2%로 가장 높았고, 서천(84.9%), 금산(82.2%), 아산(79.3%) 순이었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대전이, 천안은 경기,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4-25〉 식료품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식료품	충남내 소비비중과 충남 외 주소비지역	낮음	보통	보통	보통
		(대전)	(경기)	(대전)	(전북)
	자გი지역소비비중과 충남내 주소비지역	낮음	보통	보통	보통
		(천안)	(아산)	(논산)	(부여)
	타지역 소비이유	낮은 질	높은 가격	낮은 질	낮은 질
	주소비 장소	대형매장	대형매장	소형매장	대형매장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든 시군에서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გი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86.8%로 가장 높았고, 금산(84.2%), 서천(83.9%), 아산(71.8%) 순이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გი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부여가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가장 높았고, 천안은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산의 경우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았고 서천의 경우도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료품의 주 소비처는 아산시의 경우 대형매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안은 대형매장(80.0%), 금산은 소형매장(70.0%), 서천은 대형매장(76.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② 의류 및 신발

의류 및 신발 지출은 의류 및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또는 제작하기 위해 구입한 재료비와 제작, 유지, 수선 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표 4-26〉 의류 및 신발 소비 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의류 신발	충남내 소비비중과 충남 외 주소비지역	낮음	보통	낮음	낮음
		(서울)	(서울)	(대전)	(전북)
	자გი지역소비비중과 지역외 주소비지역	낮음	높음	보통	보통
		(천안)	(아산)	(논산)	(부여)
	타지역 소비이유	낮은 질	낮은 질	낮은 질	지역에 없음
	주소비 장소	대·소형매장	백화점	소형매장	소형매장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천안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83.6%로 가장 높았고, 아산(76.6%), 서천(71.0%), 금산(67.9%) 순이었다. 특히 서천과 금산은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서울이, 천안은 서울,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გი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7.3%로 가장 높았고, 서천(82.8%), 금산(81.7%), 아산(65.4%) 순이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გი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부여가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가장 높았고, 천안도 역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산의 경우도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았으나, 서천의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류 및 신발의 주 소비처는 아산시의 경우 대형매장과 소형매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안은 백화점(48.0%), 금산은 소형매장(54.0%), 서천도 소형매장(6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③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지출은 장롱 등의 가구와 가정생활에 필요한 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필요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표 4-27〉 가정용품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가정용품	충남내 소비비중과 충남 외 주소비지역	보통 (서울)	보통 (서울)	낮음 (대전)	낮음 (전북)
	자გი지역 소비비중과 지역외 주소비지역	낮음 (천안)	높음 (아산)	보통 (논산)	보통 (부여)
	타지역 주소비이유	낮은 질	높은 가격	낮은 질	지역에 없음
	주소비 장소	대형매장	대형매장	소형매장	대형매장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가정용품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천안, 아산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87.7%로 가장 높았고, 아산(81.0%), 서천(68.4%), 금산(64.0%) 순이었다. 특히 서천과 금산은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서울시, 천안은 경기,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გი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6.3%로 가장 높았고, 서천(83.4%), 금산(82.8%), 아산(71.3%) 순이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გი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부여가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고, 천안은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산의 경우는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았으나, 서천의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용품의 주 소비처는 아산시의 경우 대형매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안은 대형매장(88.0%), 금산은 소형매장(58.0%), 서천은 대형매장(7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④ 보건

보건 지출은 사람의 질병 예방, 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표 4-28〉 보건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보건	충남내 소비비중과	보통	높음	낮음	낮음
	충남외 주소비지역	(서울)	(서울)	(대전)	(전북)
	자기지역 소비비중과	낮음	높음	높음	보통
	지역외 주소비지역	(천안)	(아산)	(논산)	(천안)
	타지역 주소비이유	낮은 질	낮은 질	낮은 질	낮은 질
	주소비 장소	500병상미만 종합병원	500병상미만 종합병원	500병상미만 종합병원	개인병원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보건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천안, 아산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1.7%로 가장 높았고, 아산(84.2%), 서천(76.0%), 금산(70.8%) 순이었다. 특히 서천과 금산은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서울이, 천안도 서울,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기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8.4%로 가장 높았고, 금산(92.0%), 서천(86.2%), 아산(73.8%) 순이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기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천안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시 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4%로 가장 높았고, 천안도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산의 경우도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8.0%로 가장 높았고, 서천의 경우도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 주 소비처는 천안, 금산의 경우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산 역시 500병상 미만 종합 병원이라는 응답이 92.0%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천의 경우 개인병원이라는 응답이 70.0%로 가장 높았다.

⑤ 오락·문화

오락·문화 지출은 오락, 취미, 문화활동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표 4-29〉 오락·문화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오 락 문 화	충남내 소비비중과	낮음	보통	낮음	낮음
	충남외 주소비지역	(서울)	(서울)	(대전)	(전북)
	자გი지역 소비비중과	낮음	높음	높음	보통
	지역외 주소비지역	(천안)	(아산)	(논산)	(부여)
	타지역 주소비이유	낮은 질, 가족과 떨어져 살기때문	낮은 질	지역에 없음	지역에 없음
	주소비 장소	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	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	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	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오락·문화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천안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85.5%로 가장 높았고, 아산(71.7%), 서천(70.1%), 금산(65.3%) 순 이었다. 특히 금산은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서울시, 천안도 서울,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გი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5.3%로 가장 높았고, 금산(93.1%), 서천(87.6%), 아산(67.2%) 순이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გი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부여가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가족이 나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0.6%로 가장 높았고, 천안은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산의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8.0%로 가장 높았고, 서천의 경우도 같은 이유가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락·문화의 주 소비처는 4개 시군 모두에서 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오락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개 시군에서 모두 낮았고 천안(14.0%), 아산(12.0%), 서천(8.0%), 금산(4.0%) 순으로 나타났다.

⑥ 교육

교육 지출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표 4-30〉 교육의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교육	충남내 소비비중과 충남 외 주소비지역	낮음 (서울)	낮음 (대전)	낮음 (대전)	낮음 (전북)
	자გი지역 소비비중과 지역외 주소비지역	낮음 (천안)	높음 (아산)	높음 (공주)	높음 (천안)
	타지역 주소비이유	낮은 질	낮은 질	낮은 질	낮은 질
	주소비 장소	유초중고 공교육기관	사설학원	사설학원	사설학원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교육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모든 시군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충남 내 소비비중은 금산이 74.7%로 가장 높았고, 아산(74.5%), 서천(71.8%), 천안(69.1%) 순이었다. 특히 천안은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서울시, 천안과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기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8.5%로 가장 높았고, 금산(96.4%), 서천(90.9%), 아산(69.7%) 순이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기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공주, 서천은 천안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4개 시군 모두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서천의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1.6%에 달해 타시도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교육의 주 소비처는 아산의 경우 공교육기관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안은 시설학원이라는 응답이 63.6%로 가장 높았다. 금산과 서천의 경우도 사설학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42.9%, 48.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⑦ 외식

외식 지출은 여타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서비스 받는 데에 대해 지불하는 식사비용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외식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모든 시군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충남 내 소비비중은 천안이 79.7%로 가장 높았고, 아산(70.3%), 금산(67.6%), 서천(66.2%) 순이었다. 특히 금산은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대전이, 천안은 부산,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4-31〉 외식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외 식	충남내 소비비중과 충남 외 주소비지역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대전)	(부산)	(대전)	(전북)
	자გი지역 소비비중과 지역외 주소비지역	낮음	보통	높음	낮음
		(천안)	(아산)	(논산)	(부여)
	타지역 주소비이유	낮은 질	낮은 질	지역에 없음	지역에 없음
	주소비 장소	일반식당	패 밀 리 식 당 등 중급식당	일반식당	일반식당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გი지역 내 소비비중은 금산시가 92.9%로 가장 높았고, 천안(84.6%), 서천(78.7%), 아산(71.6%) 순이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გი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부여가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과 천안은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금산과 서천의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식의 주 소비처는 아산의 경우 일반식당이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안은 패밀리 식당 등 중급식장이라는 응답이 52.0%로 가장 높았다. 금산과 서천의 경우는 일반식당이라는 응답이 각각 76.0%, 86.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역외 유출 비용계산

가구당 타 시도 및 타 시군 소비비용과 가구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역외 유출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표 4-32〉 가구당 타시도 및 시군 소비지출 비용

(단위: 만원)

10대 소비항목	아산		천안		금산		서천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식료품	10.6	11.4	6.5	5.8	8.0	5.8	6.0	5.5
의류 및 신발	5.2	5.9	2.8	0.4	4.7	1.8	3.3	1.4
가정용품	2.6	3.2	2.0	0.5	4.3	1.3	2.9	1.1
보건	2.7	3.8	1.6	0.3	4.1	0.8	2.4	1.1
오락·문화	5.5	4.6	3.3	0.9	4.7	0.6	3.0	0.9
교육	9.5	8.4	9.0	0.3	6.6	0.7	6.8	1.6
외식	6.4	4.3	4.5	2.7	4.5	0.7	3.4	1.4
계	42.6	41.6	29.7	11.0	36.8	11.7	27.8	12.8

아산시는 가구당 타시도에서 월43만원을 소비하고 충남내 타시군에서 월42만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가구당 타시도에서 월30만원, 타시군에서 월11만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은 가구당 타시도에서 월37만원을 소비하고 타시군에서 월12만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가구당 타시도에서 월28만원, 타시군에서 월13만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4개 시군의 가구수를 곱하고 1년 단위로 재계산하면, 타시도 및 시군의 연간 총 소비지출 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33〉 타시도 및 시군 총소비지출 비용(년)

(단위: 억원)

10대 소비항목	아산		천안		금산		서천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식료품	1,429	1,544	1,774	1,596	234	171	193	174
의류 및 신발	701	794	762	105	137	53	107	45
가정용품	355	435	537	142	125	38	94	34
보건	366	511	444	78	120	23	77	34
오락·문화	742	617	898	249	139	18	95	27
교육	1,284	1,136	2,457	82	194	21	217	50
외식	864	581	1,243	751	131	19	109	45
계	5,742	5,619	8,114	3,003	1,079	343	890	410

아산시는 타시도에서 연5,742억을 소비하고 충남내 타시군에서 연5,619억을 소비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타시도에서 연 8,114억, 타시군에서 연3,003억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은 타시도에서 연1,079억을 소비하고 타시군에서 연343억을 소비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타시도에서 연890억, 타시군에서 연410억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결론 및 시사점

○ 식료품

아산은 대전과 천안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식료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식료품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천안의 경우는 가격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산과 서천은 질적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금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에서 전통시장과 소형매장에서의 소비비중이 낮아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의류 및 신발

아산은 서울과 천안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의 경우는 자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질적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과 서천은 대전과 전북에서의 소비비중을 낮추어 가야할 것이며 특히 서천은 시장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시장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과 천안은 대형매장과 백화점에서의 소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점에서 영세상권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아산은 천안에서 소비되는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의 소비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의 경우는 자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질적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과 서천은 대전과 전북에서의 소비비중을 낮추어 가야할 것이며 특히 서천은 시장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시장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과 천안, 서천은 주 소비장소가 대형매장이라는 응답이 높아 전통시장과 소형매장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보건

아산은 천안에서 소비되는 보건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비중을 낮추기 위해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의 경우 자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질적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과 서천은 대전과 전북에서의 소비비중을 낮추어 가야할 것이며,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오락·문화

아산은 서울과 천안에서 소비되는 오락·문화의 소비비중을 낮추기 위해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시장의 질적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오락·문화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천안의 경우 자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질적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과 서천은 대전과 전북에서의 소비비중을 낮추어 가야할 것이며,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오락·문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 교육

아산은 서울과 천안에서 소비되는 교육의 소비비중을 낮추기 위해 이 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질적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의 경우도 대전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질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산과 서천은 대전과 전북에서의 소비비중을 낮추어 가야할 것이며, 사교육 시장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식

아산과 천안은 타지역으로 소비되는 외식의 소비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금산과 서천은 외식을 위한 시장형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

소비시장은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영세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충남은 부가가치의 외부유출이 타시도보다 높다. 아울러 지역으로 유입된 부가가치도 소비시장에서의 한번더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은 기업 부가가치의 유출과 더불어 소비시장에서의 유출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남은 서울 및 수도권과 가깝고 광역시인 대전과도 인접해 있다. 이는 지역의 시장집중력을 약화시켜 지역상권이 발전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지역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산시 는 연5,742억이 타시도에서 소비되고 있고 천안시는 연8,114억, 금산군은 연1,079억, 서천은 연890억이 타시도에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소비가 지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지역상권은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다. 충남내 타 시군에서의 소비는 차치하고서라도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이와 같은 지출은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아직까지 지역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해서 타시도에서의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상권을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 지자체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혜성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를 도입하고 로컬푸드 운동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협동조합법도 이와 같은 지역민의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시장도 이제는 변화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역간 비교우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호혜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이 지역 내에 정착된다면 지역상권은 지금보다는 건강한 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유통 부문(지역 상권중심) - 지역상권 유통 환경조사

■ 천안지역 전통시장 유통현황

① 품목별 유통

<농산물>

농산품의 생산지역 조사결과 천안지역 전통시장에서 취급되는 농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 지역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 9.5%, 지역내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중 천안 지역 및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비중은 73% 정도로 나타났다.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이 99.5%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자 직거래가 0.5%로 조사되었다.

〈표 4-34〉 천안시 농산물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7.9	65	-	9.5	-	4.5	6.9	6.2	100

<수산물>

주요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충남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22.1%, 경상권 17.0%, 호남권 11.9%,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품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타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표 4-35〉 천안시 수산물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1.1	38.1	-	-	10	11.9	17	22.1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로는 도매상 98.5%, 도매시장 1.5%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내 67.4%, 충남 32.6%로 조사되었다.

〈축산〉

축산품의 경우 취급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16.1%, 지역내 1.7%로 나타났다.

〈표 4-36〉 천안시 축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1.7	82.2	-	-	-	-	-	16.1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내 70.6%, 충남 29.4%로 조사되었다.

〈공산품〉

주요 공산품의 생산지역은 수도권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내 22.4%, 경상권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7〉 천안시 공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22.4	14	-	-	58.8	-	4.8	-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지역 내 73.6%, 수도권 21.7%, 충남 4.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아산지역 전통시장 유통현황

① 품목별 유통

〈농산물〉

아산시 전통시장에서 취급되는 농산품의 주요 생산지역은 충남지역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내가 33.7%, 기타지역 5%, 경상권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은 아산 지역 및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8〉 아산시 공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33.7	48.3	-	4.3	-	4	4.7	5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도매시장 28.7%, 생산자 직거래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충남이 61.7%, 지역내가 29.3%, 호남권이 4.3%, 수도권이 3.3%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수산품의 경우 주요 취급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22.8%, 호남권 17.2%, 경상권 16.1%로 나타났다.

〈표 4-39〉 아산시 수산물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	43.9	-	-	-	17.2	16.1	22.8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75.0%, 도매시장 22.2%로 나타났으며,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충남 57.8%, 지역내 27.2%, 수도권 7.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축산〉

축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내 36.2%, 기타 4.8%로 나타났다.

〈표 4-40〉 아산시 축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36.2	59	-	-	-	-	-	4.8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51.4%, 도매시장 36.2%, 생산자 직거래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내 49.5%, 충남 47.6%, 기타 1.9%, 호남권 1.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산품〉

취급되는 주요 공산품의 생산지역은 취급 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내 23.0%, 수도권 17.1%, 기타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1〉 아산시 공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23	37.1	1.4	4.6	17.1	5	5	6.8	100

주요 공산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68.7%, 도매시장 80.8%, 도매상 24.6%, 생산자 직거래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 내 48.6%, 충남 38.5%, 수도권 9.9%, 호남권 2.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금산지역 전통시장 유통현황

① 품목별 유통

〈농산품〉

금산지역 전통시장에서 취급되는 농산품의 주요 생산지역은 충남지역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 21.7%, 지역내 17.8%, 기타 9.6%, 경상권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은 금산 지역 및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산군의 특징은 다른 지역 보다 충남 지역의 농산물 비중이 낮고, 특히 충북지역의 농산물의 유통이 많게 나타났으며, 기타 타지역 농산물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2〉 금산군 농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17.8	34.4	0.8	21.7	1.9	5.7	8.1	9.6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생산자 직거래 32.8%, 도매시장 16.1%, 순으로 나타났다. 금산지역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구매처 특징으로는 생산자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대전이 38.6%, 충남 29.4%, 지역내 12.8%, 충북 8.6%, 경상권 8.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주로 취급되는 수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지역 28.8%, 경상권 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3〉 금산군 수산물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	36	-	-	-	15	20.4	28.8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로는 도매상 75.0%, 도매시장 25.0%로 나타났으며,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내 29.2%, 대전 25.4%, 충남 14.6%, 충북 10.4%, 경상권 8.8%, 호남 8.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축산〉

주로 취급되는 축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내 31.4%, 충북 17.6%, 기타 3.8%로 나타났다.

〈표 4-44〉 금산군 축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31.4	45.2	2.4	17.6	-	-	-	3.8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93.1%, 도매시장 6.2%, 생산자 직거래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대전 42.6%, 충남 38.1%, 경상권 6.9%, 지역내 6.2%로 조사되었다.

〈공산품〉

주요 공산품의 생산지역은 수도권 44.3%, 경상권 16.5%, 충남 13.9%, 지역내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5〉 금산군 공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11.7	13.9	7.0	4.6	44.3	1.3	16.5	0.7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79.6%, 도매시장 2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대전 44.4%, 수도권 31.5%, 충남 18.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서천지역 전통시장 유통현황

① 품목별 유통

〈농산품〉

서천군 전통시장에서 취급되는 주요 농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지역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 24.4%, 지역내 21.6%, 충북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중 서천 지역 및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비중은 64% 정도로 조사되었다. 특징으로는 호남권이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서천군 농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21.6	42.4	-	4.2	2.2	24.4	2.2	2.9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이 9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자 직거래가 6.7%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충남 66.7%, 지역내 30.2%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주요 취급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 22.1%, 지역내 18.3%, 기타 14.6%로 나타났다.

〈표 4-47〉 서천군 수산물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18.3	36.7	-	-	-	22.1	8.3	14.6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로는 도매상 98.5%, 도매시장 1.5%로 나타났으며,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충남 84.2%, 지역내 9.2%, 로 조사되었다.

〈축산물〉

축산품의 생산지역은 지역내 39.4%, 호남권 32.8%, 충남 2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8〉 서천군 축산물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39.4	27.8	-	-	-	32.8	-	-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생산자직거래 61.1%, 도매상이 38.9%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내 57.2%, 충남 42.8%로 조사되었다.

〈공산품〉

주요 취급되는 공산품의 생산지역은 수도권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 22.5%, 호남권 13.9%, 대전 9.1%, 지역내 5.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49〉 서천군 공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5.8	22.5	9.1	0.5	45.4	13.9	2.5	0.4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61.6%, 생산자직거래 3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 내 43.9%, 수도권 26.0%, 충남 13.2%, 호남권 10.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대형마트(SSM) 유통현황

천안, 아산, 금산, 서천지역내 대형마트 2곳, SSM 8곳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유통현황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품목별 유통

<농산물>

대형마트(ssm)에서 유통되는 주요 농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지역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31.1%, 대전 17.7%, 호남권 8.2%, 지역내 7.6%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농산품들은 지역의 전통시장 보다 수도권 및 타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내에서 공급되는 농산품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0〉 대형마트 농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7.6	33.6	17.7	1.2	31.1	8.2	0.6	-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이 5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자 직거래가 18.2%, 영농조합법인 18.2%, 도매시장 9.1%로 조사되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도매상의 비중이 낮고 생산자 직거래, 영농조합 법인에서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내 45.2%, 충남 20.6%, 호남권 17.3%, 충북 6.1%, 대전 5.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수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40.4%, 호남권 10.0%, 경상권 8.9%, 지역내 0.7%로 나타났다. 수산품의 공급지역도 전통 시장보다 지역내에서 공급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타지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1〉 대형마트 수산물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0.7	40	-	-	-	10	8.9	40.4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로는 도매상 77.8%, 생산자직거래 16.7%로 나타났다. 전통시장내의 각 점포들 보다 규모가 큰 대형마트의 경우 대량으로 물량이 거래됨에 따라 생산자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내 75.8%, 기타 9.3%, 경상권 6.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축산〉

취급되는 축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 75.6%, 호남권 15.2%, 충북 3.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축산품의 경우 지역내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2〉 대형마트 축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	75.6	-	3.5	0.6	15.2	-	5.2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86.4%, 생산자직거래 10.3%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내 69.7%, 호남권 12.7%, 충남 10.6%로 나타났다.

〈공산품〉

주로 취급되는 공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 33.6%, 수도권이 31.1%, 대전 17.7%, 호남권 8.2%, 지역내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3〉 대형마트 공산품 생산지역

구분	지역내	충남	대전	충북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기타	계
비율	7.6	33.6	17.7	1.2	31.1	8.2	0.6	-	100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81.2%, 생산자직거래 18.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 내 49.1%, 충남 24.8%, 대전 12.1%, 수도권 6.4%, 호남권 5.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종합결론 및 시사점

지역 상권 유통 환경 조사를 위하여 천안, 아산, 금산, 서천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SSM)에 공급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의 생산지역과 구매처, 구매처 지역을 조사하였다.

농산품의 유통은 대형마트의 경우 전통시장보다 수도권 및 타지역에서 공급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및 충남지역에서 공급되는 비중은 낮고 해외로 추정되는 기타지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내와 충남에서 공급되는 비중이 농산품의 경우 전통시장은 60~70%으로 나타났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40%정도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구매처의 경우 전통시장보다 도매상의 비중이 낮고 생산자 직거래, 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구매처는 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을 도매상에서 공급받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50% 정도의 물량을 도매상에서 공급받고 생산자 직거래, 영농조합법인의 비중이 36% 정도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서 생산자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대량의 물량이 공급됨에 따라 공급처가 다양해지고 직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산품의 경우 농산물 보다 지역내와 충남에서 공급되는 비중이 낮은 40%대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수산물도 지역적 특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서 공급되는 수산물의 비중은 전통 시장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의 공급은 전통시장의 경우 도매상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러나 대형마트의 경우 도매상에서 공급되는 비중은 전통시장 보다 낮고 생산자 직거래 비중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산물의 경우 전통시장의 경우 80% 이상이 지역내 및 충남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전통시장 보다 낮은 약 70% 정도가 공급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축산물이 대량으로 물량이 유통됨에 따라 생산자 직거래 비중이 전통시장의 각 점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산품의 경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비중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모두 40-50%정도로 나타났다.

지역적인 특징으로 서천군의 경우 호남권에서의 공급이 충남의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상권의 특성상 전북지역과 인접한 지리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기업 심층 인터뷰

기업 심층 인터뷰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목적으로, 설문조사 대상 지역인 천안, 아산, 금산, 서천의 기업들 중 일부 기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기업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관련기업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에서 창업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순환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기업가의 입장에서 논의하였다.

■ 천안지역 기업 인터뷰 내용

▶ 기업일반사항

(1) 기업일반

- 업종 : 음식료품
- 주 생산품 : 콩을 원료로 한 두유
 - 초기 일반 두유로 시작하였으나, 다양한 기능성 두유와 과채음료 등을 개발
- 기업규모 : 대기업
- 종사자수 : 천안공장 260명

(2) 기업입지 및 사업장 현황

- 사업장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 본사 및 공장 소재, 지사(전북 운주 제2공장, 경북 봉화 제3공장)
- 기업입지 : 1974년 지역에서 창업
 - 1982년 천안공장, 1993년 제3공장(전북), 1994년 제2공장(경북)

▶ 기업 거래

(1) 부품소재(중간재) 구매

- 생산원료는 중국, 캐나다, 러시아산으로 국가에서 수입한 물량을 배당받고 있음
 - 직접 수입할 경우 관세비중이 높아 원료비 상승요인이 됨

(2) 완성재, 부품소재 판매

- 완제품은 국내 전 지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두유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음
 - 국내 유통망으로 총판, 대리점 등 300여 곳
- 해외 15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10%를 차지함
 - 해외 3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제품 판매에 협력하고 있음
- 생산 활동에 따른 부산물을 활용하여 인근지역 농가에 비료로 되팔고 있음

▶ 기업 환경 및 지원 등

(1) 분야별 기업애로

- 판매분야
 - 주 생산품이 중소기업들의 생산품이었으나, 최근 대기업들의 진입으로 매출 유지가 어려움
- 연구기술개발분야
 - 상표권, 특허 등 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신제품 개발에 차질 있음

(2) 노사관계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주관 노사화합부문우수업체로 2006년, 2010년 수상하였음

(3) 근로자의 정주환경

- 천안지역 거주 및 생활하며 만족할 만한 수준

- 근로자의 대부분이 천안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 소비, 의료, 주거 등의 수준은 만족
- 전체 근로자의 10% 가량이 수도권 및 기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음
- 근로자들을 위한 다세대 주택과 어린이집을 운영 중임

▶ 시사점

- 1974년 천안지역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후 전북, 경북 지역에 공장을 증설
 - 원료구매가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생산품은 전국 대리점을 활용하여 판매
 - 생산활동에 따른 부산물을 인근 지역 농가에 비료로 판매하는 등 환경오염이 적은 산업임
- 기업활동, 정주여건 등 만족할만한 수준이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세대 주택과 어린이집이 있음
 - 전체 근로자 중 인접한 수도권 및 기타지역 거주자는 10% 수준임
- 주 생산품 부문에 대기업들의 진입으로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매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 상표권, 특허 등 법적인 문제가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가져옴

■ 아산지역 기업 인터뷰 내용

▶ 기업일반사항

(1) 기업일반

- 업종 : 기타기계 및 장비 업종
- 주 생산품 :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 디스플레이 클린룸, GMP시설, 냉동냉장저장도 등의 공조장비 설비 업체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종사자수 : 48명, 사무관리직(23명), 생산직(18명), 기술연구직(7명)
- 매출액 : 240억원(2011년), 210억원(2010년)

(2) 기업입지 및 사업장 현황

○ 사업장 : 아산시 음봉면

- 본사 및 공장 소재, 지사(서울)

○ 기업입지 : 1995년 창업 후 지역내 정착

- (주)센츄리의 제조 및 판매사업부 인수후 냉동, 공조기기 전문업체로 성장

▶ 기업 거래

(1) 부품소재(중간재) 구매

○ 부품소재의 성격상 대기업 생산품으로 대기업의 지역입지에 따라 구매비율이 결정

- 아산을 포함한 충남지역에서 20% 수준 구매, 수도권(30%), 영남권(15%), 호남권(15%)로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특정부품(콤프레샤)의 경우 해외(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
- 특정부품의 경우 국내 생산이 되고 있지만, 가격 등의 문제로 해외에서 조달하여 사용

(2) 완성재, 부품소재 판매

○ 완성재의 수요대상이 전국, 해외 등으로 지역구분의 제한이 없음

- 매출에 있어서도 지역구분의 의미 없음

○ 판매 대상 : 기업의 클린룸 설비, GMP시설, 고가연구장비연구실(학교, 기업, 연구소) 등 대규모 공조관련 설비

(3) 기업간 관계

- 구매에 있어서는 구매대상 기업이 대기업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대기업의 생산이 독점적이지 않아 전국을 대상으로 구매

- 판매에 있어서도 수요자(기업, 농가, 학교 등)가 다각화 되어 있어 지역 및 대상 구분없이 판매 활동

(4) 기업 네트워크

-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위한 활동은 소속업종협회 등의 교류만 있으며, 기타 이업 중간 기업간 활동은 크게 없음

▶ 기업 환경 및 지원 등

(1) 분야별 기업애로

- 판매분야
 - 국내판매는 큰 문제 없으며, 해외 판매의 경우 해외 판매국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애로
- 자금조달 및 금융분야
 - 대규모 설비시설 투자로 인한 판매대금의 회수 지연이 가장 크며, 일반적인 자금조달은 자체적으로 해결
 - 최근 5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1회 (*충남의 자금지원에 있어 빠르고 간소한 편 응답)
 - 금융기관 이용의 애로사항 없음
- 연구기술개발분야
 - 지역내 연구지원기관이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용이 저조함
 - 회사의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검사 장비(온도, 풍향)등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지역의 이용이 많음
- 인력수급분야
 - 기업입지(아산 음봉)가 천안시와 인접해 있어 큰 부담은 없으며, 현 종사자 역시 대부분 천안·아산지역에 거주
 - 그러나 신규 인력채용에 있어 관련 전문인력 부족과 지리적인 입지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2) 노사관계

-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관계는 상당히 좋은편임

(3) 근로자의 정주환경

- 천안·아산지역 거주 및 생활하며 만족할 만한 수준
 - 근로자의 대부분이 천안·아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 소비, 의료, 주거 등의 수준은 만족할 만한 수준임. 다만 문화생활여건은 다소 부족
 - 출퇴근시간 : 평균 30분

▶ 시사점

- 1995년 아산지역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산지역에 입지하게 된 요인은 대기업((주)센츄리,아산공장)의 영향
 - 대기업 제품의 수요기업으로 대기업 주변에 위치(천안·아산지역내 공조장치 대기업 만도, 센츄리, 두원 위치)
- 기업활동, 정주여건 등 만족할만한 수준이며, 아산지역내로 확장 이전할 계획
- 제품의 시험분석을 위한 장비 및 (공인)기관들이 경기지역에 집중(시험,검사,평가기관)
 - 충남의 기업지원이 디스플레이와 자동차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음
- 기업소재지가 아산지역으로 비교적 교통은 편리하지만 신규인력채용에 있어서는 지리적 여건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음
- 국내판매는 문제가 없으며, 해외판매의 경우 자금회수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해외판매 어려움
 - 판로개척 등의 지원과 함께 투자·판매국의 법률적 문제, 경영문제 등의 컨설팅 필요

■ 금산지역 기업 인터뷰 내용

▶ 기업일반사항

(1) 기업일반

- 업종 : 비금속원료 재생업(고무, 합성고무)
- 주 생산품 : 산업용 고무제품(NBR, BR, SBR, EP(D)M, SBS, AR, ER 등)
 - 합성고무원료 재생, 생고무 원료 재생, 한국타이어 타이어 리턴고무 재생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종사자수 : 50명, 사무관리직(7명), 생산직(40명), 기술연구직(3명)
 - 매출액 : 138억원(2011년)

(2) 기업입지 및 사업장 현황

- 사업장 : 금산군 금성면
 - 본사 및 공장 소재
- 기업입지 : 1992년 창업 후 지역 내 정착
 - 창업 이후 생산설비 증설(1999년 2공장 증설, 2005년 3공장 증설)

▶ 기업 거래

(1) 부품소재(중간재) 구매

- 합성고무 원료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및 등외품(OFF GRADE)을 가공, 재생산하는 업체로서 국내 및 세계 고무원료 생산업체로부터 구매
 - 과거의 경우 여수산업 단지 내 고무원료 생산업체로부터 50%, 수입 50%, 현재는 충남 지역(당진 대산 산업단지 내 고무원료 생산업체) 10%, 수입 90%

(2) 완성재, 부품소재 판매

- 완성재의 수요대상이 전국, 해외 등으로 지역구분의 제한이 없음
 - 국내의 경우 주로 부산지역(내수의 70%)으로 판매, 수출은 전체 생산품의 30%
 - 지역 대리점을 이용해 판매, 충남은 대리점이 없음
- 판매 대상 : 신발, 자동차 부품 중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 업체 등 합성고무,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업체에 판매하여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다 줌

(3) 기업간 관계

- 안정적인 중간재 구매를 위해 주로 대기업과의 거래, 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라면 지역 구분 없이 구매
- 판매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합성고무를 원료로 하는 업체들로 주로 부산지역 신발,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4) 기업 네트워크

-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으며, 해당 농공단지 내 기업들 간의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음

▶ 기업 환경 및 지원 등

(1) 분야별 기업애로

- 판매분야
 -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량 판매되므로 애로사항은 없음
- 자금조달 및 금융분야
 - 정부 지원이 설립 초기 3년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후는 어려움
 - 지역 내 금융관련 지원서비스가 부족하여 인접 지역인 대전 지역의 서비스를 활용

○ 연구기술개발분야

- 자체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은 없음

○ 인력수급분야

- 금산 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우며, 인접한 대전 지역에서 전체 인력의 40%를 수급하고 있음
- 인삼 농업관련 인건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 내 인력 채용도 어려움
- 대전 지역의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통근버스 운영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
- 대전과 금산지역의 통근자를 위한 시내버스 운영을 건의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장기 근로에는 한계가 있음

○ 기타

- 환경규제가 점점 높아지면서 기존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이 필요
- 용수사용문제, 오폐수 문제 등, 초기 정부지원시설의 노후 및 재정비가 필요
- 대기업에서 스크랩을 사오는 과정에서 대기업 간부가 중간상인으로 나타나 마진을 남기고 판매, 스크랩 단가가 상승, 제조원가 상승
- 신규 수출업체 뿐 만아니라 기존 업체도 수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

(2) 근로자의 정주환경

○ 금산 지역의 정주환경은 인접한 대도시인 대전 지역에 비해 수준이 낮음

- 근로자의 60%는 금산, 40%는 대전 지역에 거주
- 문화, 교육 등이 취약

▶ 시사점

○ 합성고무 원료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및 등외품을 가공하여 재생하는 업체로 경제성과 시장성을 가진 친환경적인 기업임

- 스크랩 및 등외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우, 관련 업체들의 원가절감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및 판매 업체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음
- 가공 재생된 원료고무는 전량 판매되고 있음

- 1992년 창업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음
- 지역 내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움에 따라 인접한 대도시(대전)에서 수급
 - 거주 뿐 만아니라, 교육, 문화 등 지역의 정주환경 수준이 낮음
- 환경규제가 높아지면서 농공단지 내 환경정화 시설의 증설, 재정비 등의 지원이 필요

■ 서천지역 기업 인터뷰 내용

▶ 기업일반사항

(1) 기업일반

- 업종 : 자동차 부품(과거) -> 농산물 1차 가공(현재 업종 변경 중)
- 주 생산품 : 자동차 부품(쿠팡 부품 생산) -> 농산물 1차 가공품
 - 과거 대기업 하청업체로 자동차 부품생산
 - 현재는 핫도그, 과일 및 채소 1차 가공품 등을 생산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종사자수 : 50명

(2) 기업입지 및 사업장 현황

- 사업장 : 서천군 중천면
 - 본사 및 공장 소재
- 기업입지 : 2012년 업종 변경 후 기존 공장부지 활용
 - 과거 자동차 부품 생산 당시 대기업 하청업체로 지역에 입주

▶ 기업 거래

(1) 부품소재(중간재) 구매

- 과거 자동차 부품 생산은 대기업으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
 - 대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 납품
- 농산물 구매는 가격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구매
 - 저장기간, 신선도, 유통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 내 구매 선호

(2) 완성재, 부품소재 판매

- 과거 자동차 부품의 경우, 대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전량 납품
- 농산물 1차 가공품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음식료품 제조업체에 판매
 - 지역의 구분은 없으며, 생산 전량을 한 번에 납품하기 위해 대기업 선호
- 판매 대상 : 음식료품 2차 가공 업체로 납품

(3) 기업간 관계

- 과거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경우, 계약된 대기업과의 관계만 있었음
- 구매에 있어서는 농산물 생산지에서 직접 생산자와 거래
- 판매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2차 농산물 가공업체로 지역 및 대상 구분 없이 판매

▶ 기업 환경 및 지원 등

(1) 분야별 기업애로

- 판매분야
 - 과거 자동차 부품 생산 당시는 생산량이 곧 판매량으로 대기업에 전량 납품함
 - 현재는 업종 변경 후 시작하는 만큼 시장개척, 마케팅, 디자인, 홍보 등에 지원 필요
- 자금조달 및 금융분야
 - 지역 내 금융서비스 활용이 어려움, 대부분 군산 지역의 서비스를 활용

- 기업지원서비스가 서천보다는 군산지역이 좋음
- 인력수급분야
 - 지역 내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움에 따라 인근 도시 지역인 군산에서 수급
 - 지역 내 인력을 우선고용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음
 - 군산 지역의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통근버스 운영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
 -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일부 채용 중임
- 기타
 - 대기업 하청업체의 경우 판매단가가 정해진 상태로 장기계약,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이윤추구가 어려워짐

(2) 근로자의 정주환경

- 지역에 정주여건이 거의 없음, 근로자들의 휴식처가 될 공원조차 없음
 - 근로자의 대부분은 군산에서 거주, 출퇴근

▶ 시사점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농산물 가공분야로 업종을 변경한 업체로 하청업체 당시 지역에 입주하였으며, 업종 변경 후 현재 공장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
 - 자동차 부품 당시에는 대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구매와 판매 모두 정해진 업체와 거래
 - 현재는 농산물 생산지에서 직접 구매, 판매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업종 변경 후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지역 내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움에 따라 인접한 도시(군산)에서 수급
- 대기업 하청업체로 자동차 부품 납품을 장기 계약하는 과정에서 납품 단가가 고정됨에 따라 초기 2~3년은 이윤이 발생하지만 이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할 경우 이윤추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4. 시군 단위 지역경제 순환 분석

1) 분석개요

앞서 제시된 다양한 분석 결과는 시도단위에서 충남의 경제순환 구조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본 절에서는 시군단위에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찾고 이에 따른 경제순환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충남 전체로 보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수도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시군의 경우는 지역이 가진 지리적인 특성이나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시군단위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미흡하나 향후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 단위 지역경제 순환실태 분석은 생산측면과 지출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지역 노동시장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생산측면에서는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분석 내용과 제조업(기업) 실태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특징과 거래관계 등을 제시하였다.

지출측면에서는 가계소비 부문과 지역 상권 유통 부문 실태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의 소비 구조를 제시하였다.

지역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2개의 통합 노동시장 중 천안아산 지역, 1개의 타 권역권 연계시장인 금산지역, 10개의 독립 노동시장 중 서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4-54〉 시군 단위 지역경제 순환 분석 대상 시군선정

구분		해당시군	분석 대상 선정
지역 노동시장권 분석결과	2개의 통합 노동시장	천안·아산, 논산·계룡	천안·아산
	1개의 타 권역권 연계시장	금산(대전)	금산
	10개의 독립 노동시장	보령, 서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공주, 당진, 부여	서천

2) 지역별 경제 순환현황

1) 천안·아산 지역

■ 생산측면 : 수도권 의존도가 높은 조립가공 중심의 제조업 입지

① 제조업 일반현황

2010년 기준 천안·아산시의 총 제조업체수는 5,068개업체 135,03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매출액 98조 5,085억원이다(2010년 경제총조사).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35,006명으로 25.9%로 전체의 1/4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17,520명으로 13.0% 순이다.

매출액에 있어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49.2%로 전체의 절반가까이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이 11.6% 순으로 나타났다.

② 제조기업의 가치사슬 특성

가공조립형 제조업의 특성상 위탁 및 협력업체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대기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자부품산업, 기계장비, 조립금속 등의 산업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수요공급기업의 연계가 중요한 장치산업으로 지리적 연계가 중요한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위탁기업에 대한 지역내 조달비율이 39.6%에 해당하고 있으며, 충남지역 27.3%, 수도권 18.1% 수준이며, 기타 권역은 낮은 수준이다. 반면, 협력업체의 지역내 비중은 지역내 54.6%, 충남지역 34.9%로 높게 나타나 위탁기업에 비해 협력기업은 지역내 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지역은 장치산업 중심의 산업지역으로 기업간의 지리적 연계가 중요한 특성을 띄었다.

③ 기업 근로자의 지역내 정주환경

기업의 생산활동이외 근로자의 지역내 정주환경에 있어 천안·아산지역은 교육여건, 소비여건, 문화생활여건, 의료수준, 주거수준, 교통 등 인프라 등의 6대 지표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3.4), 소비여건(3.2), 문화생활여건(3.1), 의료수준(3.3), 주거수준(3.6), 교통(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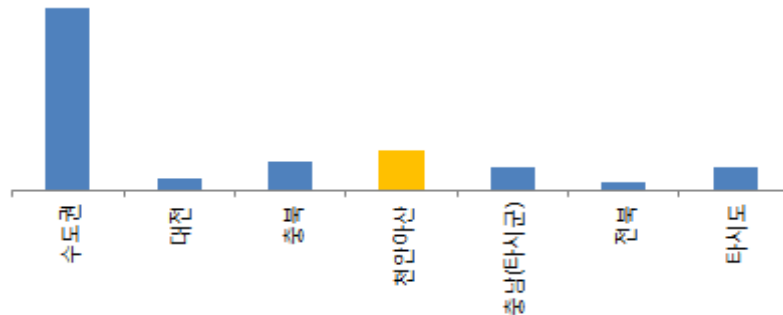
* 충남평균 : 교육여건(3.2), 소비여건(3.1), 문화생활여건(2.9), 의료수준(3.1), 주거수준(3.5), 교통(3.6)

④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천안아산 지역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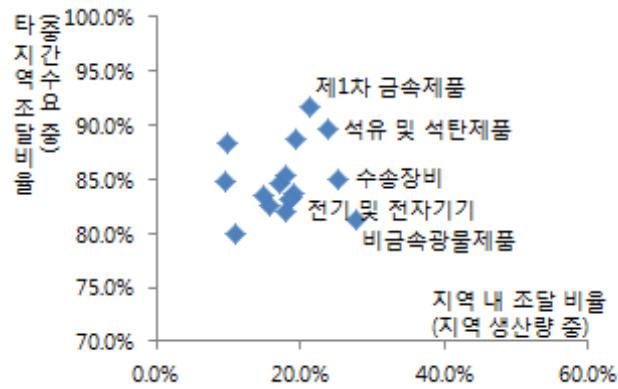
천안아산 지역은 충남 내 타시군보다 수도권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며, 인접한 타 시도인 충북, 대전과 비교할 때도 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4-35] 천안아산 지역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



산업별로는, 대부분의 제조업이 중간재 수요를 타 지역에서 조달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타 지역 조달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화의 지역 내 조달 비율은 30% 이하 수준이다.

[그림 4-36] 천안아산 지역 중간재 수요의 조달 비율



■ 지출측면 : 지역 내 소비 비중이 높음

① 가구 소비실태

천안·아산의 경우 교육과 외식, 오락·문화에서 타시도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가구당 타시도 및 시군 소비비중 및 금액(천안·아산)

(단위: %, 억)

구분	비중		금액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10대 소비항목				
식료품	16.8	8.2	3,485	1,412
의류 및 신발	19.9	0.2	1,589	10
가정용품	15.7	0.6	955	31
보건	12.1	0.2	907	13
오락·문화	21.4	3.6	1,842	244
교육	28.2	1.5	3,812	149
외식	25.0	7.5	2,246	504
계			14,836	2,363

이를 금액으로 재계산⁹⁾하면, 천안·아산은 타시도에서 연1조 4,836억을 소비하고, 타시군에서 연2,363억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의 경우 식료품 소비에서의 역외 유출이 3,4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외식, 순으로 나타났다.

② 상권 유통 환경

천안지역은 농산품, 수산품, 축산품이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각각 7.9%, 1.1%, 1.7%로 조사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22.4%로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내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65%로 조사되었으며, 조사지역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상품의 구매처는 생산자 직거래 비중이 0.5%로 조사지역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지역은 농산품, 축산품이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30% 정도로 조사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산품의 경우에도 지역내 생산되는 비중이 2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내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48.3%로 나타났으며, 그 외지역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다른 지역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자 직거래 비중은 축산물의 경우 12.4%로 조사되었으며, 농산품 3.3%, 수산품 2.8%로 나타났다.

② 금산 지역

■ 생산측면 : 중간재 수요에 대한 광범위한 조달 관계

① 제조업 일반현황

2010년 기준 금산군의 총 제조업체수는 824개 업체 7,49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매출액 2조 6,308억원이다(2010년 경제총조사).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2,559명으로 34.1%로 전체의 1/3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업이 1,731명으로 23.1% 순이다.

매출액에 있어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61.8%로 전체의 2/3가까이 점유

9) 타시도 연소비지출비용=가구당 월소비지출×지역별 총 가구수×타시도 소비비중×12개월

타시군 연소비지출비용=가구당 충남내 월소비지출×지역별 총 가구수×타시군 소비비중×12개월

하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업이 11.0% 순으로 나타났다.

② 제조기업의 가치사슬 특성

제조업에 있어 금산군은 지역종사자의 1/3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등의 교통의 요인으로 지역내 입지,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 제조업은 중소기업의 영세한 인삼관련 가공산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삼관련 가공산업의 경우 수요처가 전국적인 특성에 따라 타 지역과의 연계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탁관계에 있어 수도권이 23.5%로 가장 높고, 충남 22.0%, 충청권 20.3%, 영남권 11.9%의 순으로 나타나 전 권역에 걸친 광범위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내 거래관계는 14.8%에 불과하다.

협력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가장 많은 27.8%, 충남 27.5%, 충청권 24.7%순이며, 지역내 거래관계는 11.5%에 불과하다.

③ 기업 근로자의 지역내 정주환경

주거수준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평균이하로 낮게 나타나 기업근로자의 정주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2.7), 소비여건(2.6), 문화생활여건(2.6), 의료수준(2.6), 주거수준(3.0), 교통(2.9)

* 충남평균 : 교육여건(3.2), 소비여건(3.1), 문화생활여건(2.9), 의료수준(3.1), 주거수준(3.5), 교통(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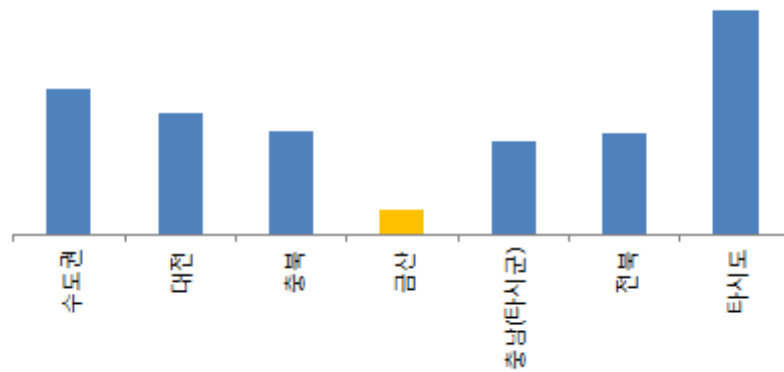
금산군의 경우 노동시장권 분석에 있어서도 대전을 중심으로한 대도시의존형 노동시장권이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의 정주환경 조성에 한계를 나타냈다.

④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금산 지역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을 보면, 수도권, 충청권, 전북 등 인접한 모든 시도에서 광범위한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산 지역은 중간재 수요의 조달 비중이 분산되어 있으며, 수도권 다음으로 대전에서의 조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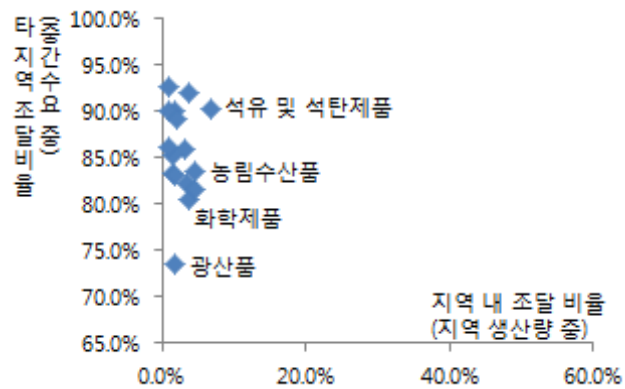
[그림 4-37] 금산 지역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



천안아산 지역과 비교할 때, 금산 지역의 제조업은 지역 내 생산량 중 지역 내 조달 비중이 낮고, 전체 중간 수요 중 타 지역 조달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타 지역 조달비율이 대부분 80%를 상회하는 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화의 지역 내 조달 비율은 10% 이하 수준이다.

[그림 4-38] 금산 지역 중간재 수요의 조달 비율



■ 지출측면 : 인접한 대전 지역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음

① 가구 소비실태

금산의 경우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오락·문화, 외식에서 타시도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용품의 경우 타시도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3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금산의 경우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타시도에서의 소비비중이 높아 지역 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금액으로 재계산하면, 금산은 타시도에서 연1,079억을 소비하고, 타시군에서 연 2,343억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의 경우 식료품 소비에서의 역외유출이 2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오락·문화,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6〉 가구당 타시도 및 시군 소비비중 및 금액(금산)

(단위: %, 억)

구분	비중		금액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10대 소비항목				
식료품	17.8	15.8	234	171
의류 및 신발	32.1	18.3	137	53
가정용품	36.0	17.2	125	38
보건	29.2	8.0	120	23
오락·문화	34.7	6.9	139	18
교육	25.3	3.6	194	21
외식	32.4	7.1	131	19
계			1,079	343

② 상권 유통 환경

금산군의 경우 농산품의 경우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17.8%로 나타났으며, 축산품의 경우 31.4%, 공산품의 경우 11.7%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34.4% 조사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지역과 비교되는 특징으로 충북, 호남권, 경상권등의 생산물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북지역의 비중이 21.7%로 높게 나타났다.

생산자 직거래 비중은 농산품이 32.8%로 조사지역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은 지역내와 충남이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금산군은 타지역의 비중이 60%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서천 지역

■ 생산측면 : 지역자원기반 가공식품 산업 발달

① 제조업 일반현황

2010년 기준 서천군의 총 제조업체수는 372개 업체 3,58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매출액 1조 8,747억원이다(2010년 경제총조사).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식료품 제조업이 1,479명으로 41.2%를 점유하고 있으며, 비금속 광물 제조업이 348명으로 9.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 346명, 9.6%순이다.

매출액에 있어서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5.3%로 전체의 절반가까이 점유하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업이 17.1% 순으로 나타났다.

② 제조기업의 가치사슬 특성

서천군의 경우 국내 대규모 제지사의 입지해 있지만, 고용규모면에서는 식료품산업이 제조업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자원기반의 가공산업으로 지역내 위탁 및 협력 등의 폭넓은 거래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자원활용기반의 산업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위탁기업의 거래에 있어 지역내 23.3%, 충남지역 42.5%, 수도권 17.3%, 충청권 13.3%순으로 지역내의 거래관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지역내 비중이 53.7%, 충남 40.7%로 충남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원재료의 납품과 관련하여 지역내 생산물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서천군은 대규모 기업을 제외하면, 김, 장류, 냉동식품 등의 식료품 가공 제조업이 발달해 있고, 연안지역의 특성상 이와 관련한 소규모 조선산업(FRP 등) 역시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분포하고 있다.

③ 기업 근로자의 지역내 정주환경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주여건은 주거수준과 교통인프라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문화생활 등의 여건은 평균이하로 나타나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2.5), 소비여건(3.0), 문화생활여건(2.7), 의료수준(3.0), 주거수준(3.8), 교통(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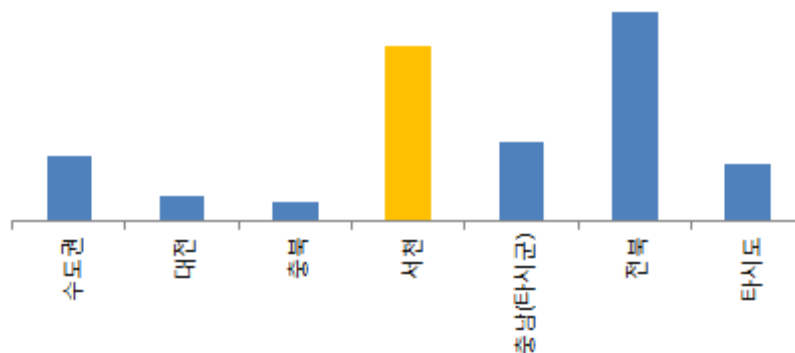
충남평균 : 교육여건(3.2), 소비여건(3.1), 문화생활여건(2.9), 의료수준(3.1), 주거수준(3.5), 교통(3.6)

④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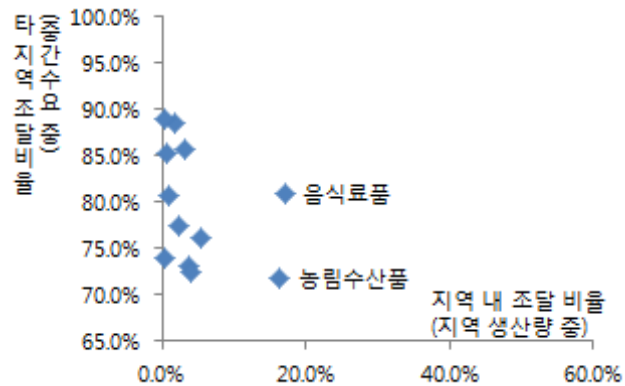
시군단위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 서천 지역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을 보면, 앞서 제시된 천안아산, 금산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지역 내 조달 비중이 높다.

서천 지역은 중간재 수요의 지역 내 조달 비중이 높고, 타 시도에 대한 조달 비중에서는 전북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에 대한 조달 비중은 충남 내 타 시군에 대한 비중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4-39] 서천 지역 중간재 수요의 지역별 조달 비중



[그림 4-40] 서천 지역 중간재 수요의 조달 비율



산업별로는, 1차 산업인 농림수산물과 제조업 중 음식료품이 비교적 지역 내 조달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대부분이 타 지역 조달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지역 내 조달 비중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 지출측면 : 인접한 대전 지역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음

① 가구 소비실태

서천의 경우 의류 가정용품, 외식에서 타시도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의 경우는 타시군에서 소비하는 비중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의 경우도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타시도에서의 소비비중이 높아 지역 시장의 활동성이 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4-57〉 가구당 타시도 및 시군 소비비중 및 금액(서천)

(단위: %, 억)

구분	비중		금액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10대 소비항목				
식료품	15.1	16.1	193	174
의류 및 신발	29.0	17.2	107	45
가정용품	31.6	16.6	94	34
보건	24.0	13.8	77	34
오락·문화	29.9	12.4	95	27
교육	28.2	9.1	217	50
외식	33.8	21.3	109	45
계			890	410

이를 금액으로 재계산하면, 서천은 타시도에서 연890억을 소비하고, 타시군에서 연410억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의 경우 식료품 소비에서의 역외유출이 1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의류 및 신발과 외식 순으로 나타났다.

② 상권 유통 환경

서천군의 경우 농산품의 경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21.6%로 나타났으며, 수산품은 18.3%로 해안에 인접한 지역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42.4%로 조사되었으며, 금산군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의 생산물이 고루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의 비중이 24.4%로 호남권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자 직거래 비중은 축산품이 38.6%로 높게 나타났다.

5. 요약 및 시사점

충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고성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재화의 타 지역 의존도가 높고, 소득의 역외유출이 많아 생산이 소득,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간재 수요의 역외 의존도는 업종별로 상이하나, 수도권 의존도가 높고, 지역 내 조달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요소소득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역외유출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종재 수요의 타 지역 의존도 역시 업종별로 상이하나, 지역 외 조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충남은 조립가공형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타 시도에 비해 대기업과 연관된 계열사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 협력업체의 경우 대기업과의 접근성 및 시급성 등으로 지역 내 입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도권과의 거래관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간 산업네트워크체계를 원활히 조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역내 부품소재산업 등의 전·후방 연관산업을 유치·육성하여 지역내 가치사슬(Value Chain)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에 있어 지역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산업생태계 및 기업 가치사슬 구축 및 인접 광역권과의 글로벌 산업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충남 지역의 바람직한 경제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들의 산업생태계 및 기업 가치사슬에 대한 진단과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요소소득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분공장 형태의 기업입지나 정주환경 미흡에 따른 직주분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주체계 연계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조립가공형의 제조업 생산구조에서 지식창출형 제조업으로 확대 전환하기 위한 수도권 및 대전과의 R&D연계를 통한 산업의 융복합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충남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역외유출도 크지만, 충남은 수도권과 대전권에 인접해 있어 소비의 역외 유출도 크게 나타났다.

소비항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역에 따라 인접한 수도권, 대전권 등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품의 경우 비교적 지역 내 구매가 높은 편이지만, 공산품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및 타시도 공급 비중은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의 역외유출은 지역의 시장집중력을 약화시켜 지역상권이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도록 장려하고,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소비의 일부를 지역 내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단위 지역경제 순환실태에 이어 시군단위 분석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제 순환실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지역의 자원과 지리적인 위치,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천안아산은 충남 지역경제 순환실태와 유사하게 수도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서천은 수도권 보다는 전북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금산은 지리적으로 대전, 충북, 전북의 경계에 위치함에 따라 모든 지역의 영향을 고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에서는 천안아산이 조립가공산업 형태로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관계로 입주되어 있는 반면, 서천은 지역이 가진 해양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들이 많았으며, 금산은 인삼 약초와 관련한 식품가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인 특성, 공간적인 접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추가 되어, 보다 지역 현실에 가까운 결과를 얻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제5장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과제

1. 지역경제 선순환 모형설정

1)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필요조건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지역경제는 “생산 → 분배 → 지출”이라는 경제순환과정의 양상에 따라 성장 또는 발전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귀결된다.

지역경제 선순환이 지역 내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되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충남경제는 생산 → 분배 → 지출과정상에 다음과 같은 선순환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bottle-neck)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생산측면에서는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업가치사슬 미비로 인한 지역 내 산업 생태계가 취약하여 중간재 수요에 대한 역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및 타지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중간재에 대해 역내 조달비율을 제고해야한다.

관련하여 역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관련산업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을 보완하여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연관을 형성하고, 기업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지역 내 토착화를 유도해야한다.

또한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지역내외의 자원·자본에 대해서는 지역주도의 주체적·계획적 활용이 요구되는 바, 우선 자원 및 자본의 주체적·계획적 활용수준을 증대하고 지역발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간의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중요하다.

분배측면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으로 인해 지역 내 창출된 부가가치가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역외유출이 상당한 수준이다.

영업잉여가 역외로 유출되는 주요원인은 분공장 형태의 기업입지 및 재투자 환경의 미흡함에 기인하며, 피용자 보수는 정주환경 미흡으로 인한 직주분리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소 소득 즉, 임금 및 자본소득의 지역 내 배분수준을 제고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하여 자본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내 재투자자를 유도하는 한편, 임금소득의 역외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쇼핑 등 정주환경의 개선과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QWL)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일자리와 거주지를 지역 내 일치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주환경 개선과 노동생활의 질 향상은 신규 기업유치와 임금소득의 역외유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출측면에서는 분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소소득의 역외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성장에 비해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의 확대가 요구되나, 순환과정 상 지출은 분배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배측면에서 선순환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충남 내 기업의 양호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하고,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통해 소비의 타 지역 의존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표 5-1〉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필요조건

구분	선순환 장애요인(bottle-neck)	선순환을 위한 필요조건	정책과제
생산	지역 내 산업생태계 및 기업가치사슬 취약	* 지역 내 조달비용 제고 (해외 및 타지역 의존도 완화)	기업 공급사슬 확충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
분배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① 영업임여 - 분공장 형태의 기업입지 - 재투자환경 미흡 ② 피용자보수 - 직주분리 현상(정주환경 미흡)	* 임금 및 자본소득의 지역 내 배분수준 제고 (요소소득의 지역 내 순환)	분공장 형태의 지역법인화 지역 재투자법 관련법제 마련 지역 가젤형 기업육성 직주분리 현상완화 (정주환경개선 및 노동생활의 질 향상)
지출	분배와의 인과관계	*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 확대 (소비의 타지역 의존도 완화)	생산과 소비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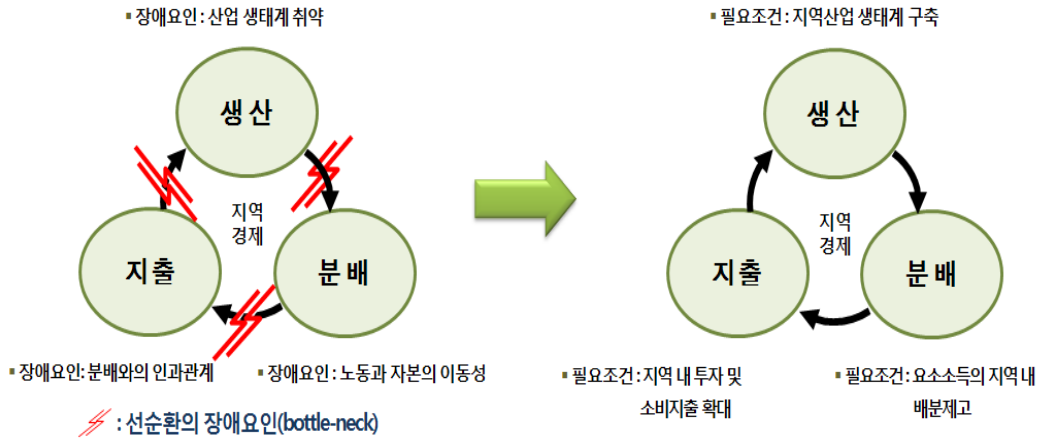
2) 지역경제 선순환 모형설정

“생산 → 분배 → 지출”이라는 경제순환 메커니즘 속에서 지역경제의 순환실태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순환을 위한 필요조건들은 동학적(dynamic)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경제순환의 양상을 규정하는 바,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로 장애요인의 완화수준에 따라 “생산 → 분배 → 지출”의 양상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 선순환 위한 필요조건들은 지역경제 순환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과정은 선순환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동학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림 5-1] 지역경제 선순환 모형



2.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과제

1) 생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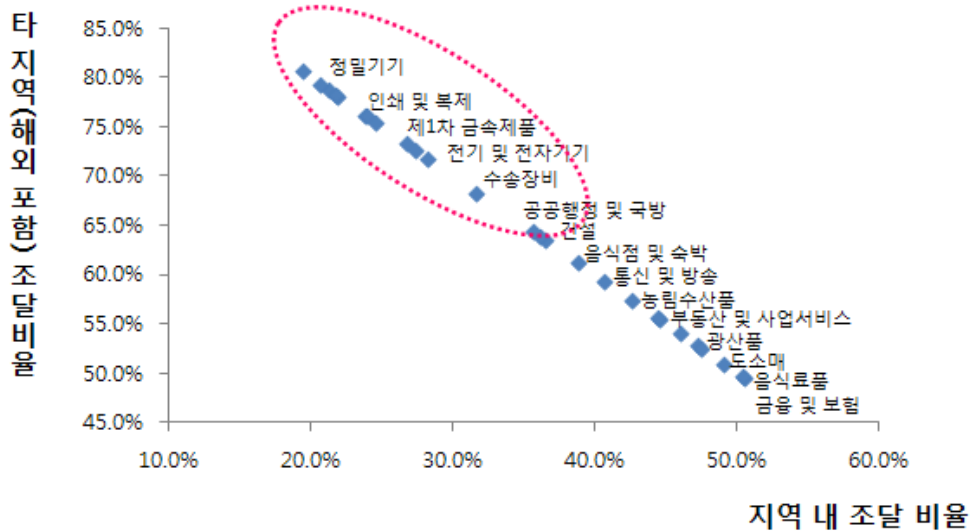
① 공급사슬 확충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충남의 전산업에서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수요에 대한 역내 조달비율은 평균 30.8%이며, 나머지 수요를 타 지역에서 42.1%, 해외에서 27.1%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4대 전략산업인 자동차 및 전자·정보산업의 중간재 수요에 대한 역내조달비율은 각각 37.2%, 32.3% 수준으로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실정이다. 이처럼 역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지역 내 부의 창출수준이 반대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역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부족한 공급사슬(supply chain)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업유치 및 집적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전·후방 산업연관 형성 및 관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대안이다.

[그림 5-2] 중간재 수요에 대한 산업별 역내 조달비율



구체적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이 단순한 업종은 수요기업의 대응을 고려하여 “거점식 클러스터” 방식으로 육성하고, 상대적으로 가치사슬이 다양한 업종의 경우에는 “집적식 클러스터” 방식을 전략적으로 채택하여 관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업종·권역별 공급사슬(supply chain) 공동발전 협의회를 전문가, 기업, 유관기관 실무자 등을 포함한 협의회 형태로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인 간담회와 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간 협력차원에서 충남 TP 주도하에 지역거점별로 1차벤더와 2,3차 벤더가 참여하는 공동 R&D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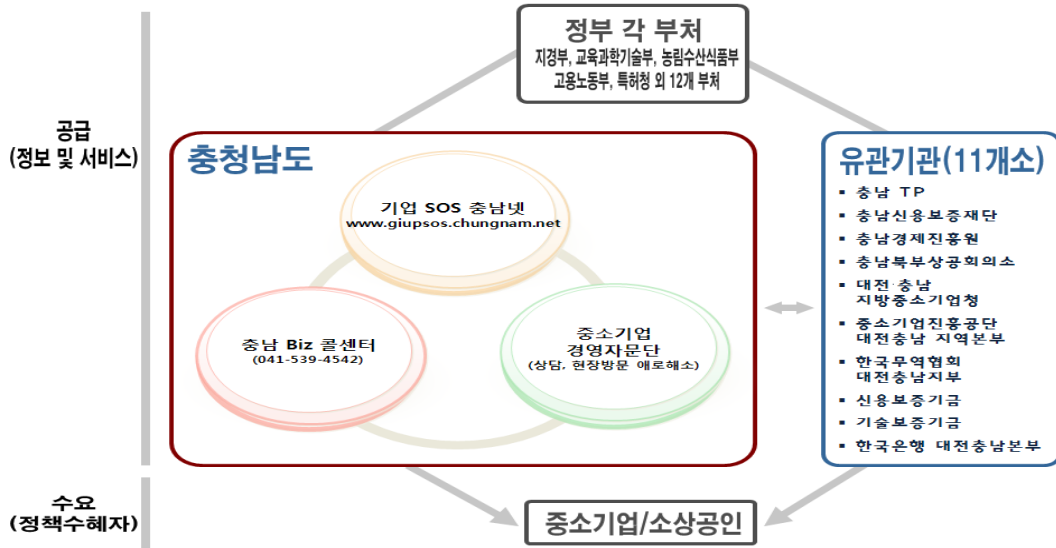
②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기업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도내 입지한 기업들의 토착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충남도는 “기업 SOS 충남넷(giupsos.chungnam.net)”을 통해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충남Biz콜센터와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을 통해 각각 컨설팅 및 일반 경영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남TP와 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분절화된 지원체계로 인해 중소기업의 접근이 용이치 않은 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림 5-3〕 충청남도 중소기업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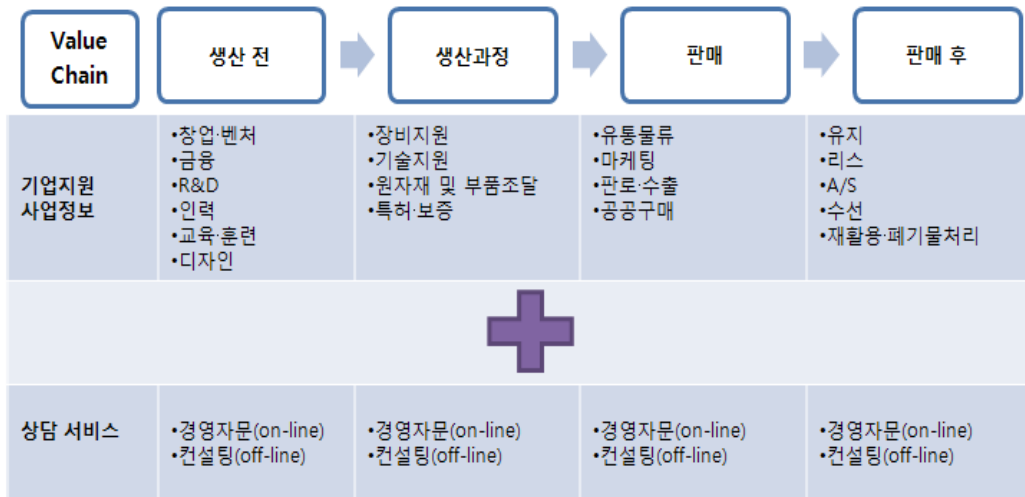


또한 중소기업은 성장단계·가치사슬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의 수요가 상이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개별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와 서비스 공급방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친 기업지원서비스를 개별 기업별로 패키지화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기업지원 사업정보와 상담서비스를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별로 일원화시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상담서비스 중 컨설팅 사업은 현장 중심의 지원분야로 재편하고, 단순 경영자문은 on-line상에서 지원토록 공급방식을 개편토록 한다.

[그림 5-4] 기업가치사슬별 기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 대학, 금융기관, 연구기관, 전문컨설팅, 인력양성기관 등과의 중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기업지원 서비스의 단일관문(single gateway)기능을 담당한다.

기업지원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와 공급자를 상호 연계시키기 위해 지원 상담과 중개기능을 담당할 one-stop solution platform 구축하고, 경제주체들의 만남의 場(포럼, 교류회, 협회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와 지원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원활한 기업 지원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한다. 또한 도내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를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지원 서비스를 단일창구(single window)에서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기업지원에 관한 각종정보의 제공, 검색 등을 종합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업지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토록 한다.

[그림 5-5] 통합적 기업지원서비스 공급시스템(RASS) 구축방안



2) 분배측면

① 양호한 재투자 환경 조성

지역 내 형성된 자본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기업유치 시 가능한 한 본사의 지역 내 입지를 유도하는 것과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자본소득을 지역 내 재투자자로 이어지도록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현재, 충남도는 지역별로는 성장촉진지역과 내포시의 기업유치를 우선시 하고, 업종별로는 4대 전략산업 관련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본사유치 노력과 더불어 유치 시 해당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보조금의 지급비율을 높이고, 기존의 분절화된 기업지원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표 5-2〉 현행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급비율

구 분	보조금 지급비율		기대 효과
	수도권 이전기업	타시도 이전기업	
성장촉진지역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신청액의 50%이내	신청액의 30%이내	낙후지역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업 (지식산업, 자연친화형)	신청액의 50%이내	신청액의 30%이내	도청이전신도시의 경쟁력강화
도 전략산업 (자동차, IT, 바이오, 영상문화)	신청액의 40%이하	신청액의 30%이하	일반지역의 도 전략산업 등 경쟁력 우위업종 유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유치기업	신청액의 35%이하	신청액의 25%이하	도 투자 산업단지 유치활성화
일반지역	지원타당성 검토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 결정		경쟁력우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큰 기업 우선 유치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② 지역자금의 역내순환 활성화

원활한 지역 내 자금흐름은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역경제의 순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다.

2005년 현재, 충남지역은 금융 및 보험 수요 중 역내 조달비율이 46.3%이며, 나머지를 타 지역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하여 설문 및 인터뷰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지역은행의 부재와 기존의 담보대출 및 신용보증, 그리고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항상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계층에 대한 경제활동의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금융의 역할을 재조명할 시점이나, 현재와 같은 금융환경에서는 지역은행이 설립되어도 제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의 지방은행과 같은 설립 및 운용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금융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제도권 금융하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타겟(target)으로 하는 지역금융 기능을 도입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종자돈(seed money)을 마련하되, 지자체와 영세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어 출자하고 소상공인의 예금으로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지역금융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적 약자계층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 및 자금순환을 도모해야 한다.

③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QWL) 향상

충남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가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으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특히, 임금소득의 지역 외 유출비율은 2000년 9.7%에서 2009년 현재, 23.1%로 증가했다. 이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쇼핑 등 정주환경의 상대적 열악함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는 충남에서 얻지만 실제 벌어들인 임금소득의 소비지출은 대전과 수도권 등 정주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제 거주지에서 이루지기 때문이다.

서천, 금산 등 기업 인터뷰 조사에서도 지역 내 인력이 부족하여 상당한 구인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대전 및 군산지역에서 인력을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소득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정주환경의 개선과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QWL)’을 향상시킴으로써 일자리와 거주지를 지역 내로 일치시켜야 한다.

관련하여 충남도는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National minimum)”에 중점을 둔 기존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기업 종사자 정착에 미흡하다는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상생산업단지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 중이다.

한편, 현재 충남도는 “노동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편익시설 확충, 단지관리 개선, 노후 시설 정비, 산업단지 품격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 30~40대 자녀를 둔 주부인력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

실제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이들 여성계층의 근로비중이 상당한 현실을 감안하면 주부계층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은 “노동생활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촉진하여 도내 만연한 구인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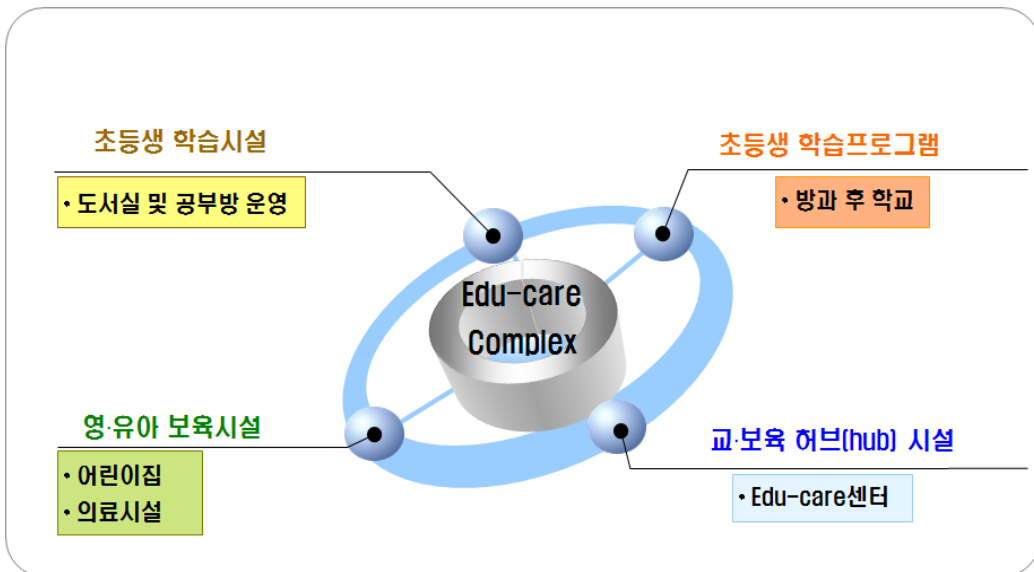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상생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복지형 Edu-care complex”를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에서부터 초등생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다양한 보육·교육·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부들에게는 취업·교육·보육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복지형 Edu-care Complex를 조성함으로써 One-roof service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학습시설 및 프로그램, 네트워크 허브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 영·유아 보육시설 : 어린이집, 의료시설(예방접종 및 기타 건강검진)
- 초등생 학습시설 및 프로그램 : 도서관, 방과 후 학교(다양한 사교육프로그램 도입)
- 네트워크 허브(Network hub) : Edu-care정보센터, 주부취업지원센터

〔그림 5-6〕 노동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형 Edu-care Complex 도입기능



④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프로그램 운영

도내 공업계고 및 특성화고, 그리고 대학과 중소기업간의 산·학 연계 협약체결을 통해 기업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기술적 미스매치(skill mismatch)를 해소함과 동시에 협약을 맺은 해당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학업(대학진학)-취업 병행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동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인재육성 및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해당기업은 공업계고 학생을 先취업 시키고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계약학과를 개설하여 後진학시키는 방식이다. 계약학과 운영은 중소기업의 직원이 당해기업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담당하고, 계약학과 소속 교수들은 이론 및 기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난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 인력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다.

■ 학업-취업 병행 프로그램 개요

○ 추진절차

① 산·학 협력체결

- 도내 전문계고 진학 중학생 및 공업계 고등학생 대상 진로특강 실시

② 충남교육청-중소기업간 현장학습 협약체결

- 공업계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중소기업 현장학습 추진

③ 계약학과 개설·운영

- 학업(야간대학)-취업병행 프로그램 도입

④ 근무성적 우수 및 우수학생 인센티브 제공

- 도내 관련대학과 연계하여 4년제 편입기회 부여
- 생산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 배치

3) 지출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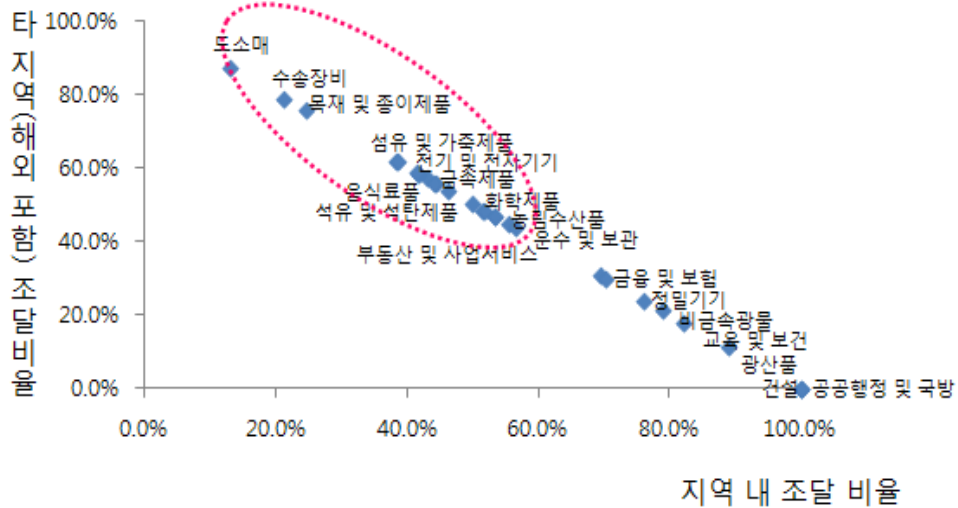
① 소비지출의 역내순환 유도

지출측면에서 충남은 제조업 부문의 최종재 수요에 대한 타지역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부문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역 내 조달비율이 30%이하이며, 서비스업종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조달비중이 높다. 이는 제조업 부문의 최종재 역내조달비율이 낮아 소비과정에서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높게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종재에 대한 타지역 의존이 높은 원인은 지역 내에 중간재 생산기업보다 완제품 (최종재) 생산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게 입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외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최종재 생산기업을 육성하여 소비지출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림 5-7] 최종재 수요에 대한 산업별 역내조달 비율



② 생산과 소비의 연계

지역 내 i 상품의 수요와 공급관계는

$$Q_{S,i}^r \geq Q_{D,i}^r$$

여기서 $Q_{S,i}^r$ 는 지역 내 i 상품의 공급량, $Q_{D,i}^r$ 는 지역 내 i 상품의 수요량이다.

개방경제(open economy)하에서는 위 식의 성립여부와 관계 없이 i 상품의 타지역 이출이 발생한다. 또한 타 지역으로의 상대적 이출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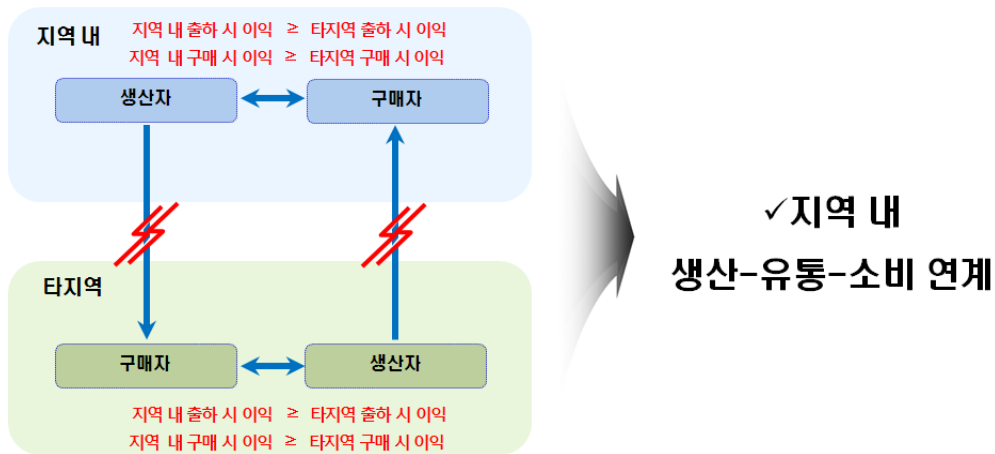
$$\textcircled{1} Q_{S,i}^r > Q_{D,i}^r, \textcircled{2} Q_{S,i}^r = Q_{D,i}^r, \textcircled{3} Q_{S,i}^r < Q_{D,i}^r$$

순으로 나타난다. 이 때, 생산자의 이익은 ① 지역 내 출하 시 이익 < 타지역 출하 시 이익, ② 지역 내 출하 시 이익 ≥ 타지역 출하 시 이익 두 가지 경우이다.

한편, 구매자의 이익은 ③ 지역 내 구매 시 이익 < 타지역 구매 시 이익, ④ 지역 내 구매 시 이익 ≥ 타지역 구매 시 이익 두 가지 경우이다.

①과 ③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지역 내 생산(공급)-소비(수요)의 연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②와 ④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생산되는 중간재와 최종재의 구매자와 생산자간 지역단위 on-line 매칭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자와 구매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8〕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연계방안



4) 기 타

① 경제·사회적 참여공동체 조직

지역의 자원 및 외부자본의 주체적·계획적 활용을 통해 지역 공동의 이익을 도출하려면 경제 주체간 원활한 소통(communication)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정비 차원에서 경제·사회적 참여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기금을 모집·관리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아이디어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 지역사회에 밀착된 혁신적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재단은 재원조성 측면에서 사적재단이나 기업재단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의 다수 시민들과 기업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자원의 개발과 사용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다만, 지역사회의 복지, 환경, 교육,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기구로서의 기존 역할을 넘어 지역의 자원 및 외부자본의 주체적·계획적 활용을 위한 경제주체간 의사결정 및 합의도출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참여공동체를 지역사회재단의 형태로 조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동 재단의 외연적 기능확대를 위한 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경제·사회적 참여공동체 활성화 관련법제 구비

지역이 주도하는 원활한 경제순환의 운용을 위한 일차적 과제는 관련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원 및 외부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의 부가 창출되고 배분되는 과정에서 경제 순환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 제도를 확립하는 일은 경제주체들간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일반화된 신뢰를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은 경제주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원 및 외부자본의 주체적·계획적 활용수준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련 제도 및 조례 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독일 등 동유럽 지역에서 확산 중인 퍼센트 법(percent law)의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동 법은 개인소득세의 1% 한도 내에서 납세자 개인이 지정하는 NPO, NGO, 지역사회재단에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으로서 자의적,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의 배제하되, 참여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주도의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지역 주민이 지정하는 참여 공동체의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주도의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한다.

③ 대·중소 기업간 상호신뢰 기반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경쟁의 패러다임이 기업간 경쟁에서 네트워크간 경쟁, 기업생태계간 경쟁으로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네트워크 내부 구성원들간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충남의 cash-cow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정보산업의 생태계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1차, 2차, 3차 협력업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환경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또는 동반성장을 통해 기업생태계 전체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강화시켜야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관련하여 충남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약체결을 유도하고 연 2회에 걸쳐 동반성장 협약사항 이행실태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련 조치를 취한다.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여 제재조치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언론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반성장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반성장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 유통 6개 분과)를 구성하여 관련활동을 정례적으로 지원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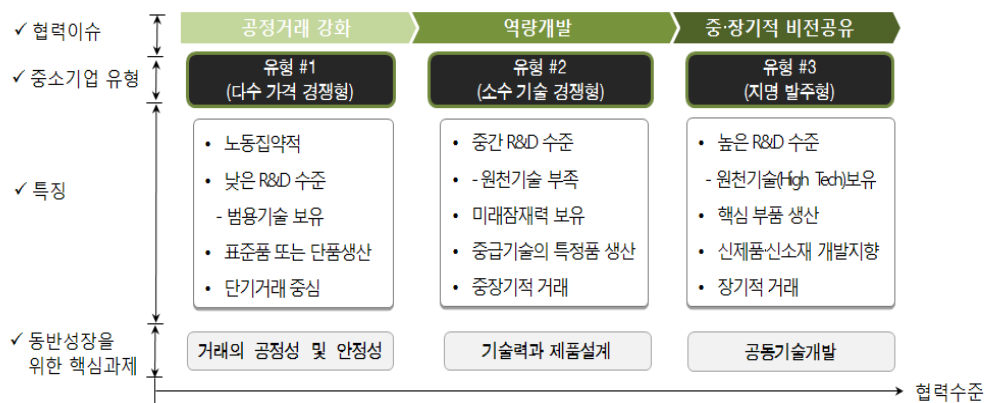
충남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토탈, 동부제철, GS건설 등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해 대금결제, 기술개발, 교육훈련, 재정, 소통경영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며 협력관계가 아닌 경우 일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충남도 차원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조건적인 참여가 아니라 상생협력에 참여할 때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이 창출될 수 있어야 자발적인 동반성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대안은 중소기업 유형별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수준 및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과제가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전략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림 5-9] 중소기업 유형별 동반성장 핵심과제



구체적으로 충남도는 중소기업 유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수의 가격 경쟁형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거래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여 이행실태를 점검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소수 기술경쟁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R&D지원을 통해 기술상용화를 유도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지명 발주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급사슬 및 분업구조를 고려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간 공동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동반성장 협의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도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토록 한다. 이외에도 동반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하고, 1차벤더와 2, 3차 벤더간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가 사업허가 및 사업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도내 입점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농산물 판매협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유통부문의 동반성장 모델개발이 요구된다.

이 경우 농산물의 공급물량을 지속적인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도모한다.

④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는 환경영역의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이기 때문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주요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자체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조건의 상호관계,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 그리고 경제와 사회와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임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이므로 시장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비용들을 내부화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사회적 자본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뢰 있는 사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동질성과 상호간의 인정을 강화시켜주면서 사회비용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충남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

관련하여 충남의 경우,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분야에서 개별 영역별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우, 자신의 영역 내에 국한하여 작동되는 분절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분야의 개별적 네트워크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업인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관련 위원회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즉, 지역단위(area-based)의 “지속가능한 발전조례(가칭)”를 충남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지원해야 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충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론적 검토결과, 지역경제 선순환(virtuous circulation of regional economy)구조를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feed-back)되는 구조” 라 개념적으로 정의 내린다.

둘째, 정량적·정성적 분석의 지역적 범위설정을 위해 지방노동시장권(LLMAs) 접근법을 이용한 결과, 충남지역 15개 시군지역은 노동시장의 기능으로 볼 때 10개의 ‘독립 지역노동시장’, 2개의 ‘통합 노동시장’, 1개의 ‘타광역권 연계형시장’ 으로 구분된다.

셋째, 충남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 “생산 → 분배 → 지출”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과정에서는 투입되는 자원 및 서비스의 역내조달 비율이 낮았으며, 분배과정에서는 지역 외로 유출되는 요소소득(피용자 보수, 영업잉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출과정에서는 최종재화시장에 있어서 지역 내 소비보다 타 지역에서의 소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량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지역에 따라 지역경제의 순환정도는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정량적 분석의 결과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충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각 필요조건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생산측면에서는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업가치사슬 미비로 인한 지역 내 산업생태계가 취약하여 중간재 수요에 대한 역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해외 및 타지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역내 조달비율을 제고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역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관련산업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을 보완하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연관을 형성하고, 기업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지역 내 토착화를 유도해야한다.

분배측면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으로 인해 지역 내 창출된 부가가치가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역외유출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처럼 영업잉여가 역외로 유출되는 주요 원인은 분공장 형태의 기업입지 및 재투자 환경의 미흡함에 기인하며, 피용자 보수는 정주환경 미흡으로 인한 직주분리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종합하면, 임금 및 자본소득의 지역 내 배분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하여 자본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임금소득의 역외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주환경의 개선과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QWL)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출측면에서는 분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소소득의 역외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성장에 비해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의 확대가 요구되나, 순환과정 상 지출은 분배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배측면에서 선순환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충남 내 기업의 양호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하고,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통해 소비의 타 지역 의존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내발적 발전이 지향하는 농업·농촌으로 국한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충남 전역과 전 산업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외연적 확대를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정량정성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나름의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지역통계 구득의 한계로 시군단위 정량적 경제순환구조 규명에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아울러 시군단위 사례조사가 지역상권, 제조업, 소비실태 등에 국한됨에 따라 시군단위 경제순환구조 규명에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미흡함을 보이는 등 1차년도 한계를 노정한 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별로 심화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시군단위 경제순환 구조를 보다 세밀하게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구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동진 외(2008. 6), 복합커뮤니티시설의 의미와 사례, 도시정보, 31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3-17.
- 권정택,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운동의 태동에 관한 고찰-일본의 내발적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제14집.
- 김용웅 외,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03.
- 국토연구원, 마을 만들기-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2011.
- 김태연, 신내생적 농촌발전의 개념적 특성과 활용가능성 모색-세계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농촌개발모델의 모색, 제원연구재단, 2009.
- 김홍배,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2005.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역경제론, 보성각, 2006.
- 박 경, 우리나라 지역간 소득의 역외유출현상(충남을 중심으로), 계간 공간과 사회, 제21권 4호, 통권38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 박 경, 지역개발 전략으로서 내발적 발전론- 일본의 연구동향과 과제, 공간과 사회 통권 11호, 한울, 한국공간환경학회, 1999.
- 박진도 외, 군 지역의 내생적 발전의 에너지 발굴 및 전략의 연구, 지역을 생각하는 모임, 1999.
- 박진도,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체, 교우사, 2011.
- 박진도, 한국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내발적 발전전략과 농촌사회의 통합적 발전, 농촌사회 제20집 1호, 2010.
- 손성태(역), 경제순환과 도시의 경제진흥.
- 손승호, 일본 지방도시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내발적 발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1권 3호, 2008.
- 여형범·이관률·허남혁, 내발적 발전관점에서 본 충남 지역발전의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12.
- 우천식·김태종, 한국경제·사회와 사회적 자본, 한구개발연구원, 2007.
- 윤철석·이성근, 내발적 접근을 통한 지역산업의 특성화와 전문화, 영남지역발전연구 제25집.

일본 경제산업성, 순환형 지역경제의 재구축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4.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4.

임경수, 내발적 발전의 본질과 모형, 추진방향, 지방행정, 2006.

정준호, 지역과 선순환 경제, 지역경제순환연구회 제1차 워크숍 자료, 2012.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 2007.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10.

宮本憲一・横田茂・中村剛治郎, 심재희(역), 지역경제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Campbell R. McConnell, and Stanley L. Brue(1995), Contemporary Labor Economics, Fourth Edition.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Coleman, J.(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oombes M G, Green A E, Openshaw S.(1986), An Efficient Algorithm to Generate official statistical reporting areas: the case of the 1984 travel-to-work areas revision in Britain.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37.

Friedmann, J. and M.Douglass(1978), Agropolitan Development : Toward New.

Jakobsen, O. and Ingebrigtsen, s.(2006), Circulation economics-a turn towards sustain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33 No.8

Johansson, B., Karlsson, R. and Stough, R. R.(2001): Theory of Endogenous Regional Growth, Springer, Berlin.

Laan, van der. and Schalke, Richard.(2001), Reality versus Policy: The Delienation and Testing of Local Labour Market and Spatial Policy Area. European Planning Studies 9(2).

Lowe, P., Murdoch, J. and Ward, N.(1995), Beyond endogenous and exogenous models: Networks in rural development, in J. D. van der Ploeg and G. van Dijk (eds.) Beyond Modernization: The Impact of Endogenous

- Rural Development, Assen, Netherlands, Van Gorcum.
- Lowe, P., Ray, C., Ward, N., Wood, R. and Woodward, R.(1998), Participation in rural development: a review of European experience, Research Report, Centre for Rural Economy, University of Newcastle-upon-Tyne.
- Mike Campbell(1996), Local Labour market Management: Definition, concepts and Instrument 28(Oct).
- OECD(1998a), Decentralizing Employment Policies:New Trend and Challenges, The Venice Conference
- OECD(1998b), Local Management For More Effective Employment Policies.
- P. Dasgupta and I. Serageldin(2000),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 Putnam, Robert D.(1995), Bowling Alone: America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6, No.1.
- Ray, C. (2001), Culture Economies, CRE press, Centre for Rural Economy,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Newcastle upon Tyne.
- Shucksmith, M.(2010),Disintegrated Rural Development?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Planning and Place-Shaping in Diffused Power Contexts, Sociologia Ruralis, Vol 50, Number 1.
- Slee, B.(1994), Theoretical aspects of the study of endogenous development, pp. 184-194, in van der Ploeg, J. D. and Long, A.(eds.) Born From Within: Practice and Perspectives of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ssen, Netherlands: Van Gorcum.
- Stephen Knack and Philip Keefer(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 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 Stimson, R. J. and Stough, R. R. and Slazar, M.(2005),Leadership and institutional factor in endogenou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vestigaciones Regionales 7.
- Stimson, R. J. and Stough, R. R. and Nijkamp, P.(2010),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Measurement and Empirical Investigation.
Strategy for Regional Planning in Asia, in Lo, F. and K. Salie(eds.), Growth
Pole Strateg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sian Experiences in
Alternative Strategy, Oxford: Pergaman Press.
van der Ploeg, J. D. and Long, A.(eds.).(1994), Endogenous development :
Practices and perspectives, pp.1-6, in van der Ploeg and A. Long (eds.)
Born From Within: Practice and Perspectives of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ssen, Netherlands: Van Gorcum.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

〈부록 1〉 시군단위 분석결과(중간재화 수요의 타 지역 조달 정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도단위 지역산업연관표의 지역을 세분화하여 시군단위 지역경제 순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군단위에서 지역간, 산업간 순환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이다. 직접조사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역을 세분화함에 따라 분석된 자료에 대한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시적인 방법,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실제 시군단위 지역의 현황과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차 분석을 통한 결과물을 정리해서 제시하며, 이후 시군단위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경제 순환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충남의 시군단위 지역경제 순환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시도차원에서 제시하였던 지역 내 중간재화 수요의 조달 지역과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지역은 본 연구의 지역범위 설정 결과에 따라 충남 지역을 14개로 구분 하였다.

천안과 아산, 논산과 계룡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나머지 시군은 단일 경제권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타 지역의 경우 충청권인 대전과 충북은 시군단위, 인접지역인 경기, 전북은 북부, 남부의 두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시도로 구분하였음. 총 46개 지역으로 세분화 하였다.

〈 지역순서 및 지역구분 〉

서울, 인천, 경기(남부, 북부),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북(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남(천안아산, 공주, 보령, 서산, 논산계룡, 당진,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광주, 전북(북부, 남부),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충남 지역 14개 지역의 중간재화(제조업) 수요 중 타 지역 조달비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 남부 지역과 전북 북부 지역의 조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4개 지역 모두에서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중간재화 조달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지역은 전북 북부 지역과 대전 지역의 조달비율이 높았다.

〈표 부1-1〉 충남 14개 지역의 중간재화 수요 중 타 지역 조달비율

구분	천안 아산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서울	10.4	7.2	5.4	6.3	5.1	9.8	3.8	8.2	5.5	2.4	5.1	10.0	8.5	10.0
인천	5.5	2.8	2.6	3.4	1.9	6.3	1.4	3.2	2.3	1.3	6.4	4.5	5.7	4.5
경기 남부	40.0	16.5	12.7	15.3	11.6	38.1	11.8	19.6	13.6	6.0	14.1	21.4	22.9	21.6
경기 북부	2.3	1.4	1.0	1.2	1.0	2.6	0.8	1.8	1.1	0.5	1.0	1.9	2.2	1.7
대전 동구	0.4	1.5	0.8	0.2	2.1	0.3	2.8	2.4	1.3	0.5	0.8	0.7	0.5	0.5
대전 중구	0.3	1.1	0.6	0.2	1.5	0.2	1.4	1.3	0.8	0.5	0.7	0.4	0.5	0.2
대전 서구	0.4	1.6	0.9	0.3	2.1	0.3	1.9	2.2	1.1	0.7	1.0	0.6	0.7	0.3
대전 유성구	0.6	2.6	1.6	0.4	2.3	0.4	2.0	4.2	1.5	0.7	1.2	0.7	1.1	0.4
대전 대덕구	1.6	3.8	2.1	0.7	4.5	0.9	6.8	7.1	3.2	1.5	2.1	1.9	1.7	1.2
충북 청주	2.9	4.3	1.8	0.7	3.1	1.3	4.4	4.7	2.4	1.0	2.0	1.4	1.8	1.1
충북 충주	0.5	0.4	0.2	0.2	0.3	0.4	0.3	0.4	0.3	0.1	0.2	0.3	0.3	0.2
충북 제천	0.2	0.2	0.1	0.1	0.1	0.1	0.1	0.2	0.1	0.0	0.1	0.1	0.1	0.1
충북 청원	2.3	2.5	1.0	0.4	1.7	1.2	2.5	3.2	1.9	0.7	1.2	1.0	1.6	0.7
충북 보은	0.1	0.2	0.1	0.1	0.2	0.1	0.3	0.2	0.1	0.1	0.1	0.1	0.1	0.1
충북 옥천	0.2	0.5	0.3	0.1	0.8	0.1	1.7	0.7	0.4	0.2	0.4	0.2	0.2	0.1
충북 영동	0.1	0.2	0.1	0.1	0.3	0.1	1.0	0.3	0.2	0.1	0.1	0.1	0.1	0.1
충북 증평	0.2	0.2	0.1	0.1	0.1	0.1	0.2	0.2	0.1	0.0	0.1	0.1	0.1	0.1
충북 진천	1.4	1.2	0.5	0.5	0.9	0.9	0.9	1.4	0.8	0.4	0.8	0.9	1.2	0.6
충북 괴산	0.2	0.2	0.1	0.1	0.1	0.1	0.2	0.2	0.1	0.0	0.1	0.1	0.1	0.1
충북 음성	1.2	1.1	0.4	0.4	0.8	0.8	0.9	1.2	0.8	0.3	0.7	0.8	1.0	0.5
충북 단양	0.1	0.1	0.0	0.0	0.0	0.1	0.0	0.1	0.0	0.0	0.0	0.0	0.0	0.0
천안 아산	12.4	10.0	6.5	4.9	5.7	9.7	5.1	7.7	6.2	2.6	7.7	7.8	10.4	5.9
충남 공주	0.6	2.0	1.1	0.4	1.8	0.5	0.4	1.5	1.5	0.6	1.8	0.9	1.2	0.5
충남 보령	0.3	0.8	8.5	0.9	0.9	0.7	0.3	0.4	2.2	1.5	3.4	3.0	2.0	2.2
충남 서산	1.2	1.3	5.5	41.0	0.7	7.2	0.2	0.7	1.7	1.0	2.6	8.3	9.3	17.7
논산 계룡	0.5	3.3	2.0	0.3	4.9	0.4	1.9	1.4	2.7	1.7	2.5	1.0	0.9	0.6
충남 당진	1.4	1.2	2.0	2.6	0.7	4.7	0.4	1.0	1.1	0.4	1.5	4.1	3.9	3.8
충남 금산	0.2	0.6	0.4	0.1	1.4	0.2	3.1	0.8	0.6	0.4	0.5	0.3	0.3	0.1
충남 연기	1.0	2.2	0.9	0.3	1.4	0.6	1.4	3.1	1.2	0.5	1.1	0.6	0.9	0.4
충남 부여	0.2	1.5	3.1	0.3	1.6	0.3	0.5	0.6	3.7	2.1	3.2	1.1	1.0	0.7
충남 서천	0.1	0.9	2.6	0.2	1.4	0.3	0.5	0.4	3.3	28.0	1.9	1.1	0.7	0.8
충남 청양	0.2	0.7	1.7	0.3	0.5	0.4	0.2	0.3	1.0	0.5	2.4	1.1	1.1	0.6
충남 홍성	0.5	0.6	3.6	1.6	0.4	1.7	0.3	0.2	0.9	0.6	2.2	3.8	2.5	3.6
충남 예산	0.7	0.9	2.0	1.5	0.5	2.0	0.3	0.5	1.0	0.4	1.8	2.2	2.8	1.5
충남 태안	0.1	0.1	0.8	1.3	0.1	0.4	0.0	0.1	0.2	0.1	0.5	1.4	0.5	6.6
광주	0.3	1.1	1.5	0.4	1.8	0.3	1.9	0.6	1.7	1.8	0.9	0.8	0.5	0.6
전북 북부	2.2	12.0	15.2	2.5	21.5	2.0	9.9	7.7	20.2	31.1	12.1	7.2	4.5	5.1
전북 남부	0.2	1.2	1.6	0.2	2.1	0.2	2.5	0.6	1.7	2.2	1.2	0.7	0.5	0.5
전남	0.6	1.8	2.2	1.6	2.4	0.5	2.3	0.9	2.6	2.5	2.9	1.6	1.0	1.1
대구	0.7	1.2	0.7	0.5	1.6	0.4	4.6	1.7	1.1	0.6	0.7	0.6	0.6	0.4
경북	1.4	2.2	1.2	0.7	2.9	0.8	10.3	3.3	2.0	1.1	1.3	1.1	1.2	0.7
부산	0.8	0.7	0.8	1.0	0.8	0.8	1.7	0.8	0.9	0.9	1.0	0.4	0.7	0.4
울산	0.9	1.1	0.9	2.0	1.0	0.4	1.4	0.8	1.2	0.5	2.6	1.1	0.8	0.5
경남	1.8	2.3	2.5	4.1	3.0	0.7	4.9	1.5	3.2	1.7	5.7	2.3	1.7	1.2
강원	0.9	0.7	0.3	0.4	0.5	0.6	0.6	0.7	0.5	0.2	0.4	0.5	0.5	0.4
제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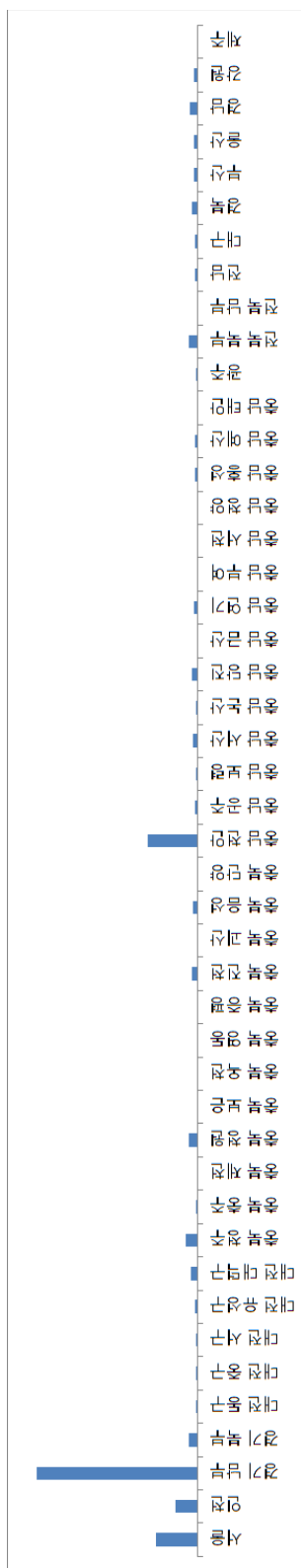
시도단위에서 분석할 때의 결과는 충남 지역의 대부분의 중간 재화 수요의 조달 비율이 수도권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시군단위에서 분석한 결과 전북 북부 지역의 조달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시군의 지리적 조건, 산업구조 등이 다름에 따라 수도권 뿐 만아니라 전북 북부, 대전 지역의 재화를 조달하는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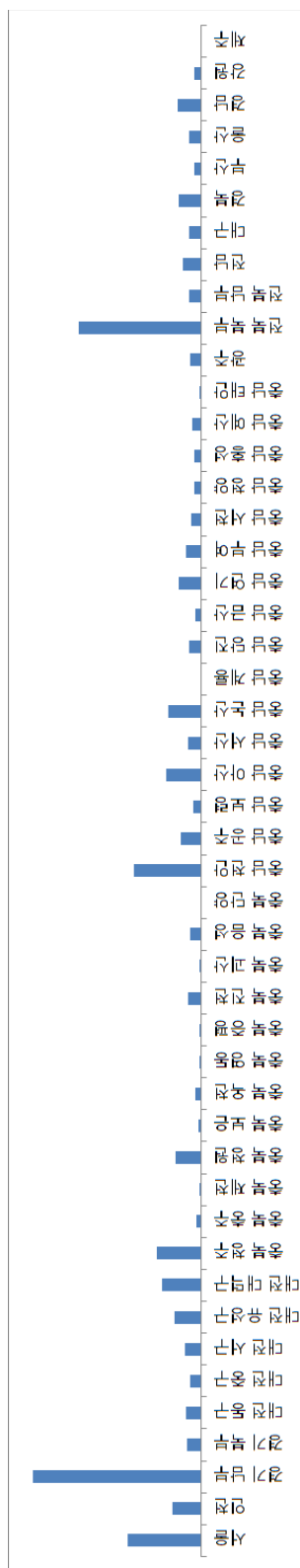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재화의 흐름이 유사한 지역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단위 분석결과, 중간 재화 수요에 대한 조달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시군이 있는 반면, 여러 지역에 고르게 분산된 시군도 있다. 충남의 북부지역 시군의 경우는 대부분 수도권에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남부지역 일부 시군은 전북 북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역 자체의 조달 비율이 대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산 41.0%, 서천 28.0%로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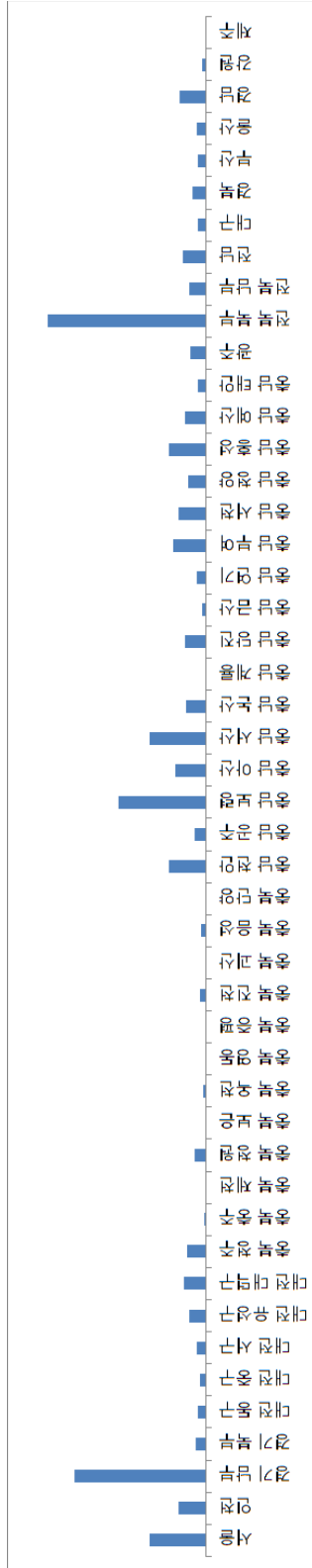
(그림 부 1-1) 천안아산 동안제화수요의 타 지역별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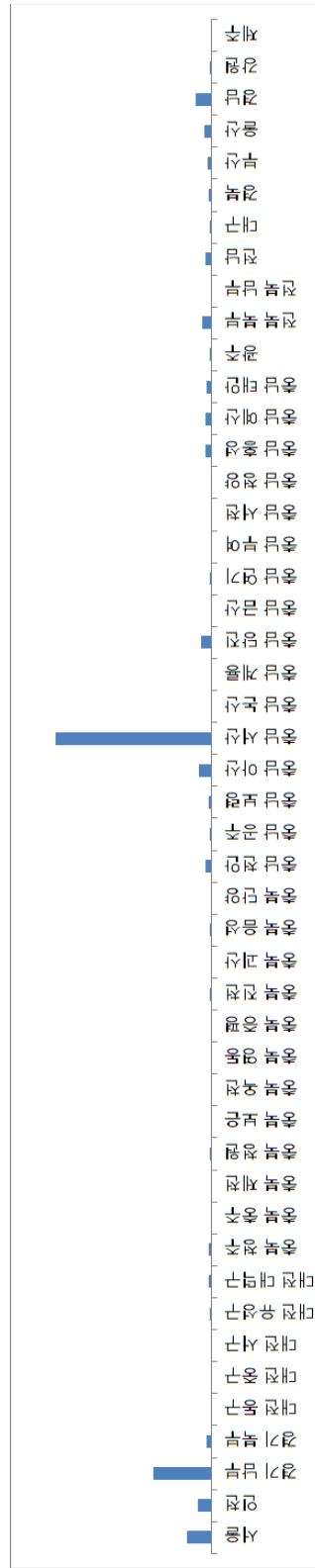
(그림 부 1-2) 국수 중간재화 수요의 타 지역 간별



- 천안이산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주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곡 북부, 대전, 충남의 인접 시군에 고르게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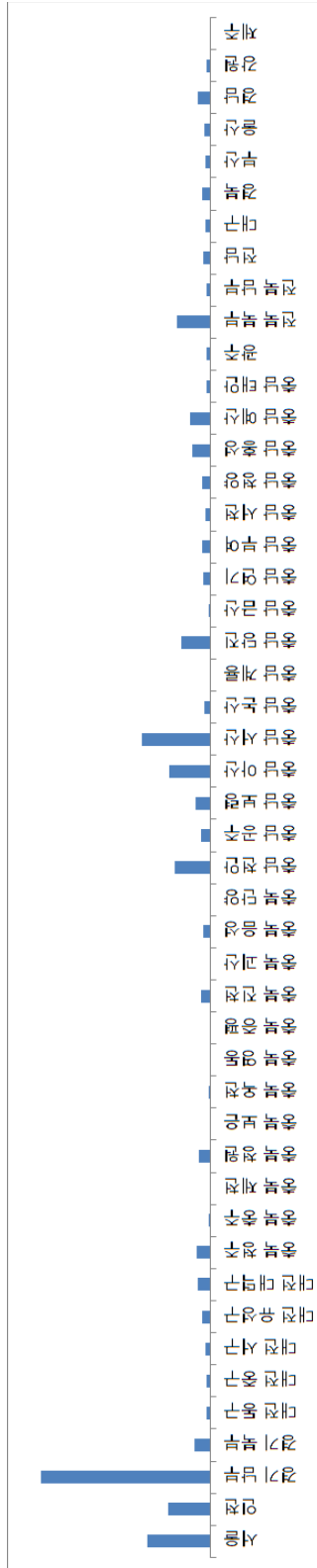


(그림 1-4) 서산 증간재하수역의 수역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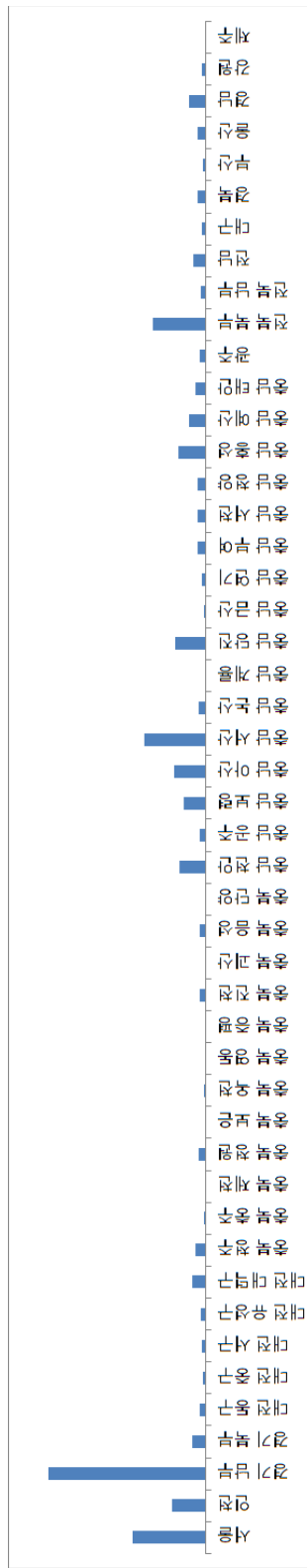


- 보령은 경기 남부보다 전북 북부에서 중간제회를 조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산은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그림 1-11) 예산·중간재·이익·타자·경리·자산·내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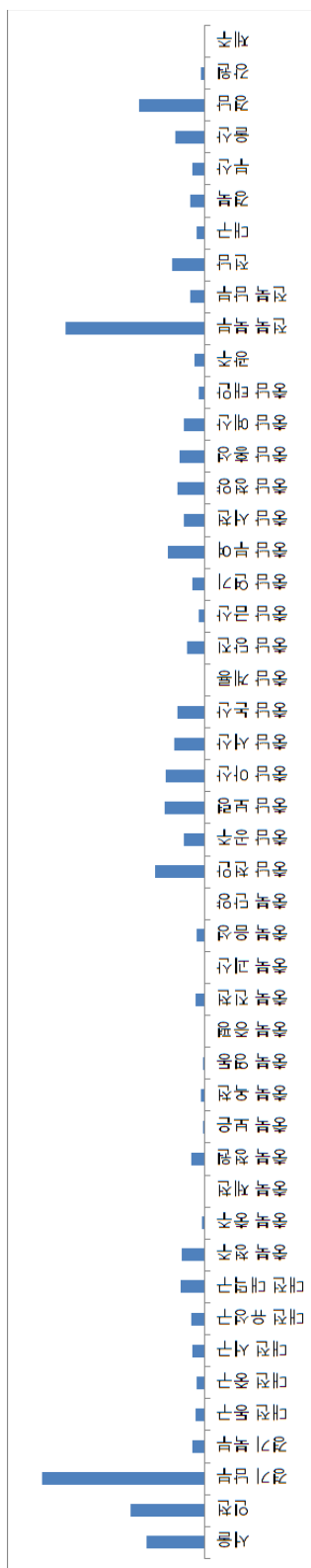


(그림 1-12) 너저골역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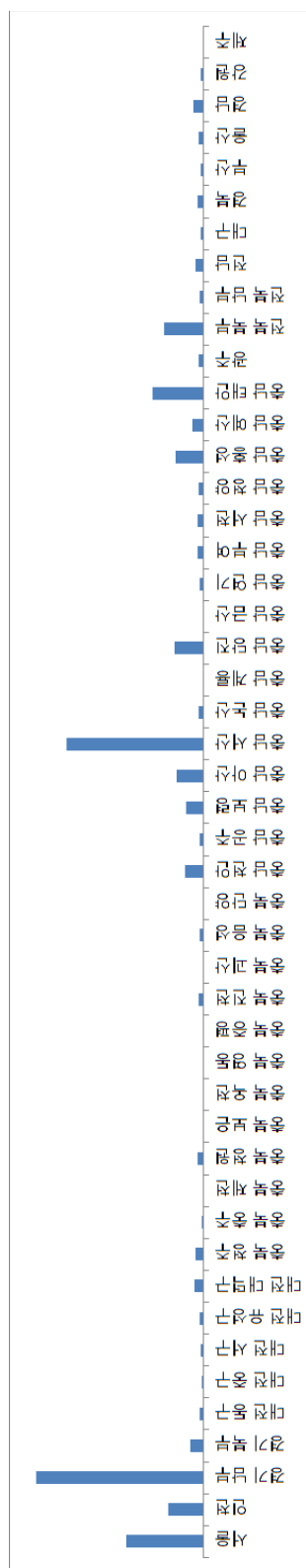


- 예산과 홍성은 지역 내 중간재화 수요의 타 지역 조달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수도권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인접 시군인 서산, 아산, 천안 등에서도 조달하고 있다.

(그림 1-13) 양돈 간제화 수익 타점별 차이



(그림 1-14) 태안중간재하수역의 수역분할



- 청양은 충남 내 타 시군과의 조달 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 태안은 인접한 시군인 서산에서 조달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록 2〉 설문지

ID				
----	--	--	--	--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설문조사서

충청남도과 충남발전연구원은 공동으로 **충남지역산업 발전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 및 정책 수립의 자료만으로 활용되고 조세 등의 기업 부담과는 절대 무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보장** : 설문내용은 통계법 제 13조 및 제 14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문 의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신동호 연구위원 (041-840-1161)

백운성 책임연구원 (041-840-1162)

1. 업종

- | | | |
|--|---|-------------------------------------|
|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제품) | <input type="checkbox"/> 기타기계, 장비 |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및 트레일러 |
| <input type="checkbox"/> 고무 및 플라스틱 | <input type="checkbox"/> 컴퓨터 및 사무기기 | <input type="checkbox"/> 기타운송장비 |
| <input type="checkbox"/> 비금속광물 | <input type="checkbox"/> 기타전기기계 | <input type="checkbox"/> 재생용가공원료 |
| <input type="checkbox"/> 제1차금속(철강관, 주조업 등) | <input type="checkbox"/>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input type="checkbox"/> 조립금속 | <input type="checkbox"/> 의료, 정밀, 광학기계, 시계 | |

2. 주생산물(2가지) : _____

3. 매출액 규모(억원) : 수출 및 내수 포함

2010년	2011(추정)

4. 귀사의 종사자수는?

- ① 사무직·관리직 : ② 생산직 : ③ 기술·연구직 :

5. 금년과 내년 귀사에 있어 충원이 필요한 인원은?

- ① 사무직·관리직 : ② 생산직 : ③ 기술·연구직 :

6. 귀사의 인력수급에 있어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 | | |
|----------------|---------------|-------------|
| ① 채용시장 정보부족 | ② 관련 전문인력 부족 | ③ 지리적 입지 한계 |
| ④ 외국인 근로자 채용곤란 | ⑤ 채용인력의 잦은 이직 | ⑥ 낮은 급여수준 |
| ⑦ 낮은 복리후생 | ⑧ 주변 정주여건 미비 | ⑨ 기타() |

7. 귀사의 직원이 충남에서 거주하는데 있어 교육, 의료 등의 정주환경의 만족도는 어떠하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구분	매우 좋다	좋은편 이다	보통 이다	나쁜편 이다	매우 나쁘다	애로사항
1. 교육여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소비(쇼핑)여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문화생활 여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의료수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주거수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교통 등 인프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귀사의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판매부진 및 매출감소 ② 정책자금 이용곤란 ③ 대출금리 및 부대비용 과다
④ 판매대금 회수 지원 ⑤ 금융권 대출조건 강화 ⑥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 곤란

9. 귀사는 지역(관내)내 금융기관을 주금융기관으로 이용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10. 귀사는 관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① 금융기관의 부재 ② 금융정보 등의 서비스 부족 ③ 차별화되지 않는 금리
④ 애로사항 없음 ⑤ 기타 ()

11. 최근 2년 동안 귀사가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 기술 도입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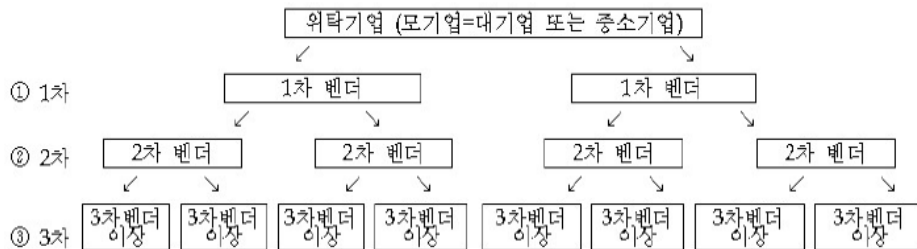
- ①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 등) ②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투자기관 포함)
③ 민간 연구기관 ④ 대기업(모기업) ⑤ 중소기업 ⑥ 외국기업 및 기관(대학, 연구소 등)

12. 위 문항에서 지역(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13. 귀사의 기술(신제품)개발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기술인력 부족 ② 기술개발비 조달 곤란 ③ 신기술 정보부족
④ 연구장비 구비능력 부족 ⑤ 개발기술의 사업화여력 부족

14. 귀사는 최종 완성품 생산 기업으로부터 몇 차의 거래단계(=벤더=수탁기업)에 있습니까?



15. 귀사가 만든 생산품을 납품(판매)하는 기업의 수는 몇 곳입니까?(수출 등 포함)
 ① 1개사 전속 ② 2개사 ③ 3~5개사 ④ 6개사 이상 ⑤ 없음(소비자판매)
16. 귀사의 주 납입처는 어디에 주로 위치합니까? (매출액 중%, 합이 100%)
 ① 관 내()% ② 충남(관내제외)()% ③ 충청권(충남제외) ()% ④ 수도권()%
 ⑤ 영남권()% ⑥ 호남권()% ⑦ 해외(직접수출만) ()% ⑧ 기 타()%
17. 귀사의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탁기업(주된 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액이 귀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18. 귀사의 위탁기업들과의 평균적 거래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3~5년 ④ 5~10년
 ⑤ 10년 이상 ⑥ 단품거래로 기간의미 없음
19. 판매(납품)거래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② 납기단축
 ③ 불규칙한 발주 ④ 거래선 변경시도
 ⑤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 ⑥ 최저가 입찰로 채산성 악화
 ⑦ 납품대금 결제기일 장기화 ⑧ 일부납품후 발주 취소
 ⑨ 없음 ⑩ 기타()
20. 귀사가 거래하거나 관리하는 하위 협력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① 3개사 미만 ② 3~5개사 ③ 5~10개사 ④ 10개 이상
21. 귀사와 거래하는 하위 협력업체는 주로 어디에 위치합니까? (%는 전체 업체중 개수비율, 합이 100%)
 ① 관 내()% ② 충남(관내제외)()% ③ 충청권(충남제외) ()% ④ 수도권()%
 ⑤ 영남권()% ⑥ 호남권()% ⑦ 해외(직접수출만) ()% ⑧ 기 타()%
22. 원자재 구매 관련 귀사의 애로사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량구매로 인한 높은 가격
 ② 원자재 구매관련 정보의 부족
 ③ 대기업 공급독점으로 인한 가격 협상 불가
 ④ 원자재 공급후 가격 지연통보로 인해 판매 가격에 미반영
 ⑤ 기타 ()
23.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업지원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① 지원자금 조달 및 확보 ② 유통 및 판매 지원 ③ 인력수급 지원
 ④ 연구개발투자 지원 ⑤ 각종 규제완화 노력 ⑥ 기타()

24. 귀사가 최근 2년간 외부기관의 시험·검사 등의 장비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① 이용비용이 너무 비싸다 ② 이용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③ 이용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④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보유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⑤ 필요한 시험·검사장비가 없다
 ⑥ 시험·검사장비 보유기관과의 거리가 멀다
 ⑦ 시험·검사를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해야 한다(한 기관이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지 못해서)
 ⑧ 기타()
25. 상기 시험검사 장비활용과 관련하여 충남 지원기관의 이용률은? _____%
26. 귀사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있다(), 없다()
27. 최근 1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28.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 ④ 나쁜편이다 ⑤ 매우나쁘다
29. 노사갈등 이유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① 갈등없음 ② 임금인상, 성과배분 ③ 종업원 배치, 징계, 해고 ④ 노조활동, 노조 전임자
 ⑤ 경영정보공개 및 경영참여 ⑥ 교육훈련, 복리후생 ⑦ 근로시간, 휴일, 휴가
30. 귀사는 동종업종 및 이업종간의 교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활동안함 ② 연4회 미만 ③ 년 10회 미만 ④ 월 1회 이상
31. 위의 활동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소속 업종 협회 ② 소속업종 산학연관 교류회 ③ 업종 구분 없는 친목 교류회
 ④ 지원기관 및 지자체 중심의 교류회 ⑤ 기타 ()
32. 교류 등의 활동에 있어 충남지역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 ④ 나쁜편이다 ⑤ 매우나쁘다
33. 기업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① 직접적인 자금지원 ② 지역의 기업교류분위기 조성 ③ 지자체 주도 운영
 ④ 다양한 교류의 장 마련 ⑤ 기업경영인의 마인드 변화 ⑥ 기타()

귀사의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입해주시시오

바쁘신 시간 중에 본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충남의 소비실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청남도는 충남의 소비실태를 조사하여 지역발전 정책에 반영하고자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사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 등)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비밀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신동호 박사(041-840-1161)
김양중 박사(041-840-1163)

◆ 다음은 기본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거주지는 충남 어느 시군입니까? ()시/군

※ 충남지역 외 거주자는 설문에서 제외

◆ 다음은 소비지출 비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속한 가구의 평균 1개월간 총지출은 대략 얼마입니까? ()만원

2. 그렇다면 총지출비 중 다음 각 항목의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합이 100%가 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비율
식료품	()%
의류 및 신발	()%
주거 및 수도광열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
보건	()%
교통	()%
통신	()%
오락, 문화	()%
교육	()%
외식	()%
숙박	()%
기타	()%
계	100%

◆ 다음은 소비지출 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 10대 소비지출 항목 중 충남에서만 소비가 가능한 주거·광열·수도, 교통, 통신 및
타지역 숙박은 설문에서 제외

※ 표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할 것

1. 귀하는 다음 소비품목을 주로 어느 시도에서 구매 또는 이용하고 있습니까? 합이
100%가 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표 활용)

2. 충남에서의 구매 또는 이용했을 경우 시군의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합이 100%
가 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표 활용)

3. 그렇다면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활용)

- ①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 ②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 ③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 ④ 가족이 나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 ⑤ 내가 다니는 회사가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 ⑥ 기타()

4. 귀하는 다음 소비품목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 식료품(가구에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지출)

소비품목	구매 또는 이용	전국내 시도 비중	구매 또는 이용	충남내 시군 비중
식료품	시도	비중	시군	비중
	서울	()%	천안시	()%
	경기	()%	공주시	()%
	인천	()%	보령시	()%
	대구	()%	아산시	()%
	부산	()%	서산시	()%
	광주	()%	논산시	()%
	울산	()%	계룡시	()%
	대전	()%	금산군	()%
	충남	()%	연기군(세종시)	()%
	충북	()%	부여군	()%
	경남	()%	서천군	()%
	경북	()%	청양군	()%
	전남	()%	홍성군	()%
	전북	()%	예산군	()%
	강원	()%	태안군	()%
	제주	()%	당진시	()%
	계	100%	계	100%

그렇다면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는 다음 소비품목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

①백화점 ②대형매장 ③소형매장 ④전통시장 ⑤인터넷 ⑥ 기타()

■ 의류·신발(의류 및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또는 제작하기 위해 구입한 재료비와 제작,유지,수선 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소비품목	구매 또는 이용	전국내 시도 비중	구매 또는 이용	충남내 시군 비중
의류·신발	시도	비중	시군	비중
	서울	()%	천안시	()%
	경기	()%	공주시	()%
	인천	()%	보령시	()%
	대구	()%	아산시	()%
	부산	()%	서산시	()%
	광주	()%	논산시	()%
	울산	()%	계룡시	()%
	대전	()%	금산군	()%
	충남	()%	연기군(세종시)	()%
	충북	()%	부여군	()%
	경남	()%	서천군	()%
	경북	()%	청양군	()%
	전남	()%	홍성군	()%
	전북	()%	예산군	()%
	강원	()%	태안군	()%
	제주	()%	당진시	()%
	계	100%	계	100%

그렇다면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는 다음 소비품목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

①백화점 ②대형매장 ③소형매장 ④전통시장 ⑤인터넷 ⑥ 기타()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장롱 등의 가구와 가정생활에 필요한 취사,냉·난방,세탁,청소,재봉 등에 필요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

소비품목	구매 또는 이용	전국내 시도 비중	구매 또는 이용	충남내 시군 비중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시도	비중	시군	비중
	서울	()%	천안시	()%
	경기	()%	공주시	()%
	인천	()%	보령시	()%
	대구	()%	아산시	()%
	부산	()%	서산시	()%
	광주	()%	논산시	()%
	울산	()%	계룡시	()%
	대전	()%	금산군	()%
	충남	()%	연기군(세종시)	()%
	충북	()%	부여군	()%
	경남	()%	서천군	()%
	경북	()%	청양군	()%
	전남	()%	홍성군	()%
	전북	()%	예산군	()%
	강원	()%	태안군	()%
	제주	()%	당진시	()%
	계	100%	계	100%
그렇다면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는 다음 소비품목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				
①백화점 ②대형매장 ③소형매장 ④전통시장 ⑤인터넷 ⑥ 기타()				

■ 보건(사람의 질병 예방,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소비품목	구매 또는 이용	전국내 시도 비중	구매 또는 이용	충남내 시군 비중
보건	시도	비중	시군	비중
	서울	()%	천안시	()%
	경기	()%	공주시	()%
	인천	()%	보령시	()%
	대구	()%	아산시	()%
	부산	()%	서산시	()%
	광주	()%	논산시	()%
	울산	()%	계룡시	()%
	대전	()%	금산군	()%
	충남	()%	연기군(세종시)	()%
	충북	()%	부여군	()%
	경남	()%	서천군	()%
	경북	()%	청양군	()%
	전남	()%	홍성군	()%
	전북	()%	예산군	()%
	강원	()%	태안군	()%
	제주	()%	당진시	()%
	계	100%	계	100%
그렇다면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는 다음 소비품목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				
①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②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③개인병원 ④약국 ⑤기타()				

■ 오락 및 문화(오락,취미,문화활동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소비품목	구매 또는 이용	전국내 시도 비중	구매 또는 이용	충남내 시군 비중
오락 문화	시도	비중	시군	비중
	서울	()%	천안시	()%
	경기	()%	공주시	()%
	인천	()%	보령시	()%
	대구	()%	아산시	()%
	부산	()%	서산시	()%
	광주	()%	논산시	()%
	울산	()%	계룡시	()%
	대전	()%	금산군	()%
	충남	()%	연기군(세종시)	()%
	충북	()%	부여군	()%
	경남	()%	서천군	()%
	경북	()%	청양군	()%
	전남	()%	홍성군	()%
	전북	()%	예산군	()%
	강원	()%	태안군	()%
	제주	()%	당진시	()%
	계	100%	계	100%
그렇다면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는 다음 소비품목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				
①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오락시설 ②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 ③개인 문화·오락시설 ④기타()				

■ 교육(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비용)

소비품목	구매 또는 이용	전국내 시도 비중	구매 또는 이용	충남내 시군 비중
교육	시도	비중	시군	비중
	서울	()%	천안시	()%
	경기	()%	공주시	()%
	인천	()%	보령시	()%
	대구	()%	아산시	()%
	부산	()%	서산시	()%
	광주	()%	논산시	()%
	울산	()%	계룡시	()%
	대전	()%	금산군	()%
	충남	()%	연기군(세종시)	()%
	충북	()%	부여군	()%
	경남	()%	서천군	()%
	경북	()%	청양군	()%
	전남	()%	홍성군	()%
	전북	()%	예산군	()%
	강원	()%	태안군	()%
	제주	()%	당진시	()%
	계	100%	계	100%
그렇다면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는 다음 소비품목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				
①문화센터 ②유초중고 공교육기관 ③대학교 ④사설학원 ⑤기타()				

■ 외식 (여타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서비스 받는 데에 대해 지불하는 식사비용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소비품목	구매 또는 이용	전국내 시도 비중	구매 또는 이용	충남내 시군 비중
외식	시도	비중	시군	비중
	서울	()%	천안시	()%
	경기	()%	공주시	()%
	인천	()%	보령시	()%
	대구	()%	아산시	()%
	부산	()%	서산시	()%
	광주	()%	논산시	()%
	울산	()%	계룡시	()%
	대전	()%	금산군	()%
	충남	()%	연기군(세종시)	()%
	충북	()%	부여군	()%
	경남	()%	서천군	()%
	경북	()%	청양군	()%
	전남	()%	홍성군	()%
	전북	()%	예산군	()%
	강원	()%	태안군	()%
	제주	()%	당진시	()%
	계	100%	계	100%
그렇다면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는 다음 소비품목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				
①레스토랑 등 고급식당 ②패밀리 식당 등 중급식당 ③일반식당 ④기타()				

◆ 다음은 기초통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귀하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 귀하 가구의 가구주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 귀하의 가구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월 100 이하 ② 월 100 ~ 200 이하 ③ 월 200~300 이하
④ 월 300~ 400 이하 ⑤ 월 500 이상
- 귀하의 가구원수는 총 몇 명입니까? ()명
- 귀하의 가구에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습니까?
① 예 ⇨ 문4로 이동 ② 아니오
- 19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몇 명입니까? ()명

지역상권 유통 환경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지역상권 유통 환경 조사를 위하여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역에서 소비되는 제품(농수산물, 공산품)의 유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의 거래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설문을 통하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구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분석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지에 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2. 7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문의 : 신동호 연구위원 (042-840-1161)

임형빈 책임연구원(042-840-1164)

1. 귀하의 점포의 소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본인 점포 ② 임대 점포

2. 귀하는 전통시장에서 언제부터 영업하셨습니다?

- ① 1년전 ② 2~3년전 ③ 3~5년전
④ 5~10년전 ⑤ 10~20년전 ⑥ 20년 이전

3. 귀 점포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주인 포함)?(총 명)

4. 귀 점포의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_____평 정도

5. 귀하의 나이는? 만 세

6.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7. 귀 상점에서 취급하는 주요 품목은 무엇입니까?

- ① 농산물 ② 축산물 ③ 수산물
 ④ 가공식품 ⑤ 의류 및 신발 등 ⑥ 가정용품
 ⑦ 음식점 ⑧ 생활서비스 관련업 ⑨ 기타()

8. 귀 상점의 영업 형태는 어떠십니까?

- ① 도매업 ② 소매업 ③ 도매 + 소매업

9. 주로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는 어디서 하십니까?

- ①생산자직거래(작목반) ②도매상에게 구매 ③도매시장(직접구매)
 ④직접채배 ⑤ 영농조합법인 ⑥ 기타 ()

10. 귀 상점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상품 3가지는 무엇입니까?

- ① () ② () ③ ()

10-1.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상품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생산지역은 어디십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2()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3()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10-2.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구매처는 어디십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 직접 재 배	⑤ 영농조합법 인	⑥ 기타 ()
%	%	%	%	%	%
상품 2()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 직접 재 배	⑤ 영농조합법 인	⑥ 기타 ()
%	%	%	%	%	%
상품 3()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 직접 재 배	⑤ 영농조합법 인	⑥ 기타 ()
%	%	%	%	%	%

10-3.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2()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3()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상권 유통 환경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지역상권 유통 환경 조사를 위하여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역에서 소비되는 제품(농수산물, 공산품)의 유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의 거래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설문을 통하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구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분석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지에 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2. 7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문의 : 신동호 연구위원 (042-840-1161)

임형빈 책임연구원(042-840-1164)

1. 귀하의 점포의 소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본인 점포 ② 임대 점포
2. 귀하는 대형마트(SSM)가 영업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년전 ② 2~3년전 ③ 3~5년전
④ 5~10년전 ⑤ 10~20년전 ⑥ 20년 이전

3. 귀 점포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주인 포함)?(총 명)

4. 귀 점포의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평 정도

5. 귀하의 나이는? 만 세

6.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7. 귀 상점에서 취급하는 주요 품목은 무엇입니까?

- ① 농산물 ② 축산물 ③ 수산물
④ 가공식품 ⑤ 의류 및 신발 등 ⑥ 가정용품
⑦ 음식점 ⑧ 생활서비스 관련업 ⑨ 기타()

8. 귀 상점의 영업 형태는 어떠십니까?

- ① 도매업 ② 소매업 ③ 도매 + 소매업

9. 귀 상점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공산품 3가지는 무엇입니까?

- ① () ② () ③ ()

9-1. 질문 9에서 응답하신 상품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9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생산지역은 어디입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수입 등)
%	%	%	%	%	%	%	%
상품 2()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수입 등)
%	%	%	%	%	%	%	%
상품 3()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수입 등)
%	%	%	%	%	%	%	%

9-2. 질문 9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9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구매처는 어디십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생산자직거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생산)	⑤기타 ()
%	%	%	%	%
상품 2()				
①생산자직거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생산)	⑤기타 ()
%	%	%	%	%
상품 3()				
①생산자직거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생산)	⑤기타 ()
%	%	%	%	%

9-3. 질문 9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9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2()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3()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10. 귀 상점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농산품 3가지는 무엇입니까?

① () ② () ③ ()

10-1.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상품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생산지역은 어디입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2()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3()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10-2.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구매처는 어디입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	⑤영농조합법인	⑥ 기타 ()
%	%	%	%	%	%
상품 2()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	⑤영농조합법인	⑥ 기타 ()
%	%	%	%	%	%
상품 3()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	⑤영농조합법인	⑥ 기타 ()
%	%	%	%	%	%

10-3.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0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2()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3()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11. 귀 상점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축산품 3가지는 무엇입니까?

① () ② () ③ ()

11-1. 질문 11에서 응답하신 상품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1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생산지역은 어디입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2()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3()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11-2. 질문 11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1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구매처는 어디십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	⑤영농조합법인	⑥ 기타 ()
%	%	%	%	%	%
상품 2()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	⑤영농조합법인	⑥ 기타 ()
%	%	%	%	%	%
상품 3()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	⑤영농조합법인	⑥ 기타 ()
%	%	%	%	%	%

11-3. 질문 11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1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2()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3()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12. 귀 상점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수산물 3가지는 무엇입니까?

① () ② () ③ ()

12-1. 질문 12에서 응답하신 상품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2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생산지역은 어디입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2()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3()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12-2. 질문 12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2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구매처는 어디입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	⑤영농조합법인	⑥ 기타 ()
%	%	%	%	%	%
상품 2()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	⑤영농조합법인	⑥ 기타 ()
%	%	%	%	%	%
상품 3()					
① 생산자 직거래 (작목반)	②도매상	③도매시장	④직접재배	⑤영농조합법인	⑥ 기타 ()
%	%	%	%	%	%

12-3. 질문 12에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2에서 응답하신 상품 3가지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1()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2()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상품 3()							
① 지역내	②충남지역	③대전	④충북	⑤수도권	⑥호남권	⑦경상권	⑧기타
%	%	%	%	%	%	%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설문결과

1 제조업 부문 - 제조업 실태조사

■ 설문의 개요

○ 설문의 목적

- 제조업 분야의 기업간의 가치사슬, 상생발전, 기업지원 등 순환실태를 조사

○ 설문의 표본

- 조사대상 : 충남 제조업체, 산업중분류(2digit) 200개 업체

- | | | |
|----------------|-----------------------|------------------------|
| 1. 음식료품 | 8. 출판, 인쇄, 기록물 | 15. 컴퓨터 및 사무기기 |
| 2. 섬유제품 | 9. 화학물질(제품) | 16. 기타전기기계 |
| 3. 봉제의목 및 모피 | 10. 고무 및 플라스틱 | 17.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 11. 비금속광물 | 18. 의료, 정밀, 광학기계, 시계 |
| 5. 목재, 나무 | 12. 제1차금속(철강관, 주조업 등)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
| 6. 가구 및 기타제품 | 13. 조립금속 | 20. 기타운송장비 |
| 7. 펄프, 종이 | 14. 기타기계, 장비 | 21. 재생용가공원료 |

- 조사지역 : 충청남도 ①천안시·아산시(140개소), ②금산군(30개소), ③서천군(30개소)

○ 설문의 주요내용

- 기업 일반현황 : 업종, 주생산물, 종사자 일반현황(직능별 인력현황), 매출액 현황

- 기업간 연관관계 (네트워크 및 가치사슬)

: 기업거래단계, 위탁기업수, 위탁기업의 지역, 단일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 위탁기업과의 평균거래 기간, 위탁거래시 애로사항, 위탁거래 단절시 대안, 하위협력업체수, 하위협력업체의 지역, 원자재 구매관련 애로사항

- 기업애로 및 기업지원

: 기업지원, 자금, 인력, 금융기관, 기술개발, 장비활용 등에 대한 기업애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시책, 추가 지원책 등

- 근로자의 정주환경 : 근로자의 정주환경 만족도

■ 시군 제조업 현황

① 천안·아산시 제조업 일반현황 및 조사설계

2010년 기준 천안·아산시의 총 제조업체수는 5,068개업체 135,03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매출액 98조 5,085억원임 (2010년 경제총조사)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식료품제조업이 817개 업체로 16.1%를 점유하고 있고,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이 733개 업체로 14.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728개 업체로 14.4%순임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35,006명으로 25.9%로 전체의 1/4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17,520명으로 13.0% 순임

매출액에 있어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49.2%로 전체의 절반가까이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이 11.6% 순으로 나타남

조사 대상 제조업 분야의 기업당 종사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156.3명으로 가장 크며, 기타 제품 제조업이 2.3명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

〈표 부3-1〉 천안·아산시 제조업체의 기업당 종사자수 현황

산업구분	기업체수	기업당 종사자수
식료품 제조업	817	9.2
음료 제조업	20	25.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1	12.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7.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	4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86	7.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1	23.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3	3.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63	21.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4	6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69	25.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78	39.9
1차 금속 제조업	111	2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33	1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4	156.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9	17.2
전기장비 제조업	312	40.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28	2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1	54.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12.6
가구 제조업	156	14.7
기타 제품 제조업	197	2.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종사자수가 비공개임

〈표 부3-2〉 천안·아산시 제조업체 현황

산업분류 (중분류)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백만원)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매출액	비중
제조업	5,068	100	135,039	100	98,508,488	100
식료품 제조업	817	16.1	7,479	5.5	3,520,993	3.6
음료 제조업	20	0.4	511	0.4	254,895	0.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1	2.8	1,758	1.3	626,630	0.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2.0	755	0.6	85,484	0.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	0.1	246	0.2	50,489	0.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86	1.7	651	0.5	163,467	0.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1	2.0	2,321	1.7	922,888	0.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3	2.8	553	0.4	63,045	0.1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0.1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63	3.2	3,498	2.6	1,692,979	1.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4	0.7	2,109	1.6	1,394,723	1.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69	7.3	9,495	7.0	3,430,164	3.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78	3.5	7,106	5.3	5,959,988	6.1
1차 금속 제조업	111	2.2	2,465	1.8	2,123,216	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33	14.5	9,032	6.7	2,548,872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4	4.4	35,006	25.9	48,435,577	49.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9	2.2	1,870	1.4	468,728	0.5
전기장비 제조업	312	6.2	12,675	9.4	7,434,709	7.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28	14.4	16,970	12.6	6,863,501	7.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1	6.3	17,520	13.0	11,440,677	1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0.2	151	0.1	28,822	0.0
가구 제조업	156	3.1	2,300	1.7	893,800	0.9
기타 제품 제조업	197	3.9	461	0.3	32,978	0.0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종사자수가 비공개임

② 금산군 제조업 일반현황 및 조사설계

2010년 기준 금산군의 총 제조업체수는 824개 업체 7,49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매출액 2조 6,308억원임 (2010년 경제총조사)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식료품제조업이 452개 업체로 54.9%를 점유하고 있고, 금속가공 제품제조업이 58개 업체로 7.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50개 업체로 6.1% 순임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2,559명으로 34.1%로 전체의 1/3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업이 1,731명으로 23.1% 순임

매출액에 있어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61.8%로 전체의 2/3가까이 점유하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업이 11.0% 순으로 나타남

조사 대상 제조업 분야의 기업당 종사자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51.2명으로 가장 크며,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1.3명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

〈표 부3-3〉 금산군 제조업체의 기업당 종사자수 현황

산업구분	기업체수	기업당 종사자수
식료품 제조업	452	3.8
음료 제조업	10	4.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33	5.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8	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3	3.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	13.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0	16.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	23.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0	5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0	7.2
1차 금속 제조업	8	14.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8	7.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	24.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	26.9
전기장비 제조업	12	16.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	9.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	3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
가구 제조업	18	6.7
기타 제품 제조업	20	3.4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종사자수가 비공개임

〈표 부3-4〉 금산군 제조업체 현황

산업분류 (중분류)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백만원)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매출액	비중
제조업	824	100	7,496	100	2,630,809	100
식료품 제조업	452	54.9	1,731	23.1	290,586	11.0
음료 제조업	10	1.2	41	0.5	4,438	0.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3	4.0	196	2.6	25,618	1.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8	1.0	10	0.1	122	0.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0.1	-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3	1.6	45	0.6	4,331	0.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	2.8	310	4.1	84,163	3.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0.7	18	0.2	696	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0	3.6	500	6.7	146,634	5.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	0.5	95	1.3	10,578	0.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0	6.1	2,559	34.1	1,626,704	61.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0	2.4	143	1.9	47,860	1.8
1차 금속 제조업	8	1.0	119	1.6	66,048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8	7.0	454	6.1	99,095	3.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	0.4	72	1.0	16,426	0.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	1.0	215	2.9	34,460	1.3
전기장비 제조업	12	1.5	197	2.6	39,103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	4.7	355	4.7	62,513	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	0.7	192	2.6	37,653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0.2	-	-	-	-
가구 제조업	18	2.2	120	1.6	12,758	0.5
기타 제품 제조업	20	2.4	68	0.9	8,595	0.3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종사자수가 비공개임

③ 서천군 제조업 일반현황 및 조사설계

2010년 기준 서천군의 총 제조업체수는 372개 업체 3,58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매출액 1조 8,747억원임 (2010년 경제총조사)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식료품제조업이 220개 업체로 59.1%를 점유하고 있고, 금속가공 제품제조업이 29개 업체로 7.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이 27개 업체 7.3%순임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식료품 제조업이 1,479명으로 41.2%를 점유하고 있으며, 비금속 광물 제조업이 348명으로 9.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 346명, 9.6%순임

매출액에 있어서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5.3%로 전체의 절반가까이 점유하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업이 17.1% 순으로 나타남

조사 대상 제조업 분야의 기업당 종사자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 115.3명으로 가장 크며,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1.6명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

〈표 부3-5〉 서천군 제조업체의 기업당 종사자수 현황

산업구분	기업체수	기업당 종사자수
식료품 제조업	220	6.7
음료 제조업	4	5.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6	34.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9	5.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115.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	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	41.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39.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12.9
1차 금속 제조업	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8.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
전기장비 제조업	3	2.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	1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1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11.0
가구 제조업	8	2.5
기타 제품 제조업	13	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종사자수가 비공개임

〈표 부3-6〉 서천군 제조업체 현황

산업분류 (중분류)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백만원)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매출액	비중
제조업	372	100	3,589	100	1,874,741	100
식료품 제조업	220	59.1	1,479	41.2	319,791	17.1
음료 제조업	4	1.1	20	0.6	1,747	0.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6	1.6	207	5.8	33,195	1.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	2.7	16	0.4	248	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9	2.4	47	1.3	6,400	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0.8	346	9.6	849,013	45.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	1.9	12	0.3	310	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	1.3	208	5.8	169,953	9.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0.5	-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1.3	196	5.5	60,059	3.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7.3	348	9.7	134,749	7.2
1차 금속 제조업	1	0.3	-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7.8	241	6.7	21,302	1.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0.3	-	-	-	-
전기장비 제조업	3	0.8	8	0.2	1,098	0.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	2.7	128	3.6	21,860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1.3	60	1.7	13,694	0.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1.1	44	1.2	6,786	0.4
가구 제조업	8	2.2	20	0.6	957	0.1
기타 제품 제조업	13	3.5	25	0.7	984	0.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종사자수가 비공개임

■ 조사 기업 일반현황

① 인력현황

총 조사 200개 기업중 300인 이상 대기업(8개), 200인 이상 기업(33개)와 2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167개로 조사 분석됨

조사기업의 인력 중 사무직은 평균 24.9명, 생산직이 80.5명, 연구기술직이 7.3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생산중심기업으로 나타남

연구기술직에 있어서는 조사기업 200개 업체중 55개 업체는 단순 생산 및 위탁생산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연구기술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부3-7〉 기업인력 현황

구분	구분	응답기업수	응답기업 비중
사무직 (평균종사자 24.9명)	1인~5인 이하	51	26.0
	6인~20인 이하	71	36.0
	21인~50인 이하	54	27.0
	51인~99인 이하	16	8.0
	100인 ~	8	4.0
생산직 (평균종사자 80.5명)	1인~5인 이하	6	3.0
	6인~20인 이하	34	17.0
	21인~50인 이하	64	32.0
	51인~100인 이하	47	24.0
	100인~399인 이하	51	26.0
	400인 ~	2	1.0
연구·기술직 (평균종사자 7.3명)	없음	55	27.5
	1인~5인 이하	56	28.0
	6인~20인 이하	78	39.0
	21인~50인 이하	11	6.0

② 매출액

조사 기업의 2010년 매출액은 평균 6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100억~500억 규모의 기업이 전체응답의 절반에 해당하고 있음

조사 기업의 2011년 매출액은 평균 727.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매출액 보다 약 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부3-8〉 매출액 (2010년)

구분	응답기업수	응답기업 비중
50억 이하	70	35.0
100억 이하	21	11.0
500억 이하	75	38.0
1000억 이하	19	10.0
1000억 이상	15	8.0

〈표 부3-9〉 매출액(2011년)

구분	응답기업수	응답기업 비중
50억 이하	68	34.0
100억 이하	20	10.0
500억 이하	75	38.0
1000억 이하	20	10.0
1000억 이상	17	9.0

조사대상기업의 종사자 1인당 기업매출은 평균 6억 46백만원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1인당 매출 4억 28백만원(2010경제총조사)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조사기업 평균고용규모 113명, 평균매출액 727.9억원

■ 기업 거래관계 및 가치사슬

① 거래단계현황

기업 거래단계별 위치에 있어 1차 벤더 기업이 가장 많은 127개 기업 63.5%가 분포하고 있으며, 2차 벤더와 3차 벤더가 각각 32.5%, 4.0%를 구성하고 있음

〈표 부3-10〉 거래단계별 기업현황

구분	응답기업(수)	비율(%)
1차 벤더	127	63.5
2차 벤더	65	32.5
3차 벤더	8	4.0

② 위탁기업 거래 현황

기업이 생산품을 납품(판매)하는 기업은 3개사 이상 다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8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속 납품기업도 5개사가 해당하고 있음

2개사 이하의 납품기업에 위탁거래에 있어서는 1차벤더가 12.6%, 2차벤더가 33.8%, 3차 벤더가 37.5%로 3차벤더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1차 벤더의 경우 3개사 이상의 기업에 납품하는 비중이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업의 위탁관계에 있어 1차 벤더가 폭넓은 위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부3-11〉 기업 납품현황

구분	응답기업(수)	비율(%)
1개사 전속	5	2.5
2개사	36	18.0
3~5개사	100	50.0
6개사 이상	53	36.5
없음(소비자 판매)	6	3.3

기업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탁기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을 단일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조사기업의 75.0%에 달하고 있음

위탁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1개의 기업에 매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도 21%에 이르고 있음

상기 매출액의 비중과 더불어 중규모(50인이상)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탁기업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산업이 많음

〈표 부3-12〉 대표 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기업 수	비중
60% 미만	49	25.0
60% 이상	57	29.0
70% 이상	54	27.0
80% 이상	29	15.0
90% 이상	11	6.0

기업거래단계별 분석에 있어 1차 벤더의 경우 가장 큰 위탁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크게 나타나 주 위탁기업과의 전문공급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2차와 3차벤더의 경우는 1차벤더보다는 다소 낮은 매출비중을 보이고 있음

③ 평균적 거래기간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모기업과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사기업에 있어 5년 이상의 장기적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7.5%인 75개 기업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음

전국의 경우 5년이상의 거래가 63.8%(2008년 대중소기업 납품실태 분석, 중소기업 연구원) 그러나, 3년 이상의 거래가 82.0%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기업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위탁기업들과의 평균적인 거래기간은 3~5년이 44.0%, 5~10년이 31.0%, 1~3년이 14.5%, 10년 이상 거래 6.5% 순으로 나타남

〈표 부3-13〉 위탁기업과의 평균적 거래기간

거래기간	기업 수	비중
1년 미만	1	0.5
1~3년	29	14.5
3~5년	88	44.0
5~10년	62	31.0
10년이상	13	6.5
단품거래	1	0.5

④ 판매(납품)거래시 애로사항

납품거래시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7.5%가 기업이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를 지적하였으며, 지나친 품질수준요구 19.0%, 기업이 납기 단축 14.5% 등으로 나타났음

납품단가 문제가 대·중소기업 거래에서 아직까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기업 거래에 있어 기술보다는 거래당사자간의 힘의 논리에서 비롯되고 있음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통한 해결과제 도출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의 중소수탁기업들 간의 협력 및 공동대응 과제 도출

〈표 부3-14〉 납품거래시의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38	19.0
납기단축	29	14.5
불규칙한 발주	17	8.5
거래선 변경시도	5	2.5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	75	37.5
최저가 입찰로 채산성 악화	11	5.5
납품대금 결제기일 장기화	13	6.5
일부납품 후 발주 취소	1	0.5
없음	5	2.5

⑤ 위탁기업 거래 현황

기업의 매출액대비 위탁기업의 지역별 위치에 대해 충남지역이 6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이 18.3%, 충청권지역이 11.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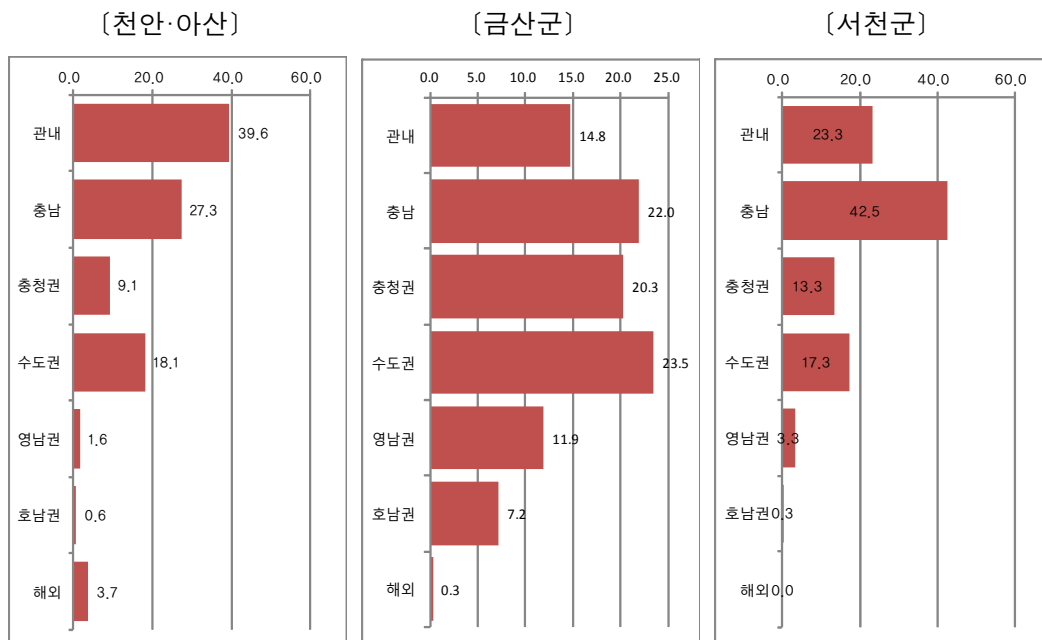
충남 지역내에서만 100% 수요하는 기업은 8개(4.0%) 업체로 나타났으며, 이중 관내지역(시군내)에서 100% 수요하는 기업은 5개 업체(2.5%)로 나타남

〈표 부3-15〉 위탁기업의 지역별 분포

납입지역	납입비율
충남	60.2
충청권(충남제외)	11.2
수도권	18.3
영남권	3.4
호남권	1.5
해외	2.6
기타	0.0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아산지역과 서천군은 지역내 및 충남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산군은 충청권,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위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부3-1〉 위탁기업의 지역간 분포 현황



이러한 특성의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특성으로 천안아산지역의 경우는 전자부품산업과 기계장비, 조립금속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어 충남 및 수도권과의 연계가 강한 특성을 보임

금산군은 인삼관련 식품제조산업과 대형공장(한국타이어, 땡기머리, 조양의료기) 등이 입지해 있어 지역내 교류보다는 전국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서천군은 식품제조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금산과는 달리 해산물관련 식품 제조업이 많아 위탁기업이 관내 및 충남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⑥ 하위 협력업체 수

기업들의 하위 협력업체는 3개사 미만의 소수 기업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5개 기업도 34.0%, 5~10개사 26.5%로 대부분 10개사 미만의 협력업체와 거래하고 있음

〈표 부3-16〉 하위 협력업체 수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3개사 미만	69	34.5
3~5개사	68	34.0
5~10개사	53	26.5
10개 이상	9	4.5

⑦ 하위 협력업체의 지역별 입지

기업의 하위 협력업체의 지역별 입지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이 8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권과 수도권이 각각 8.3%, 6.4%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충남 및 인접지역에 입지하고 있음

이중 충남지역에서 100%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8개 업체(9.0%)에 이르고 있어 중소기업과의 하위 협력업체가 지역적 인접성이 위탁기업과의 인접성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아산지역과 서천군은 지역내 및 충남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산군은 충청권,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위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부3-17〉 하위 협력업체의 지역별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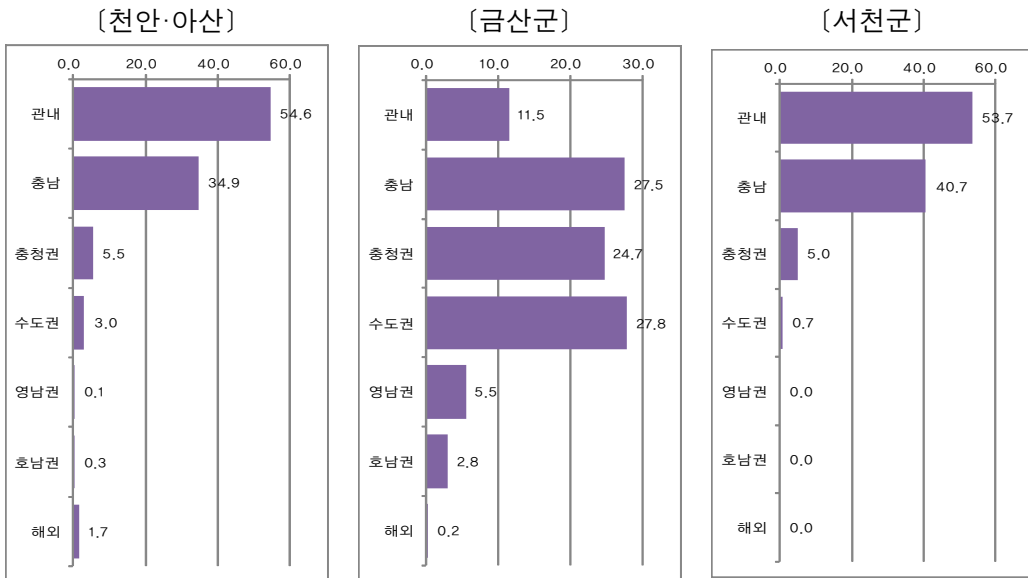
납입지역	납입비율
충남	82.2
충청권(충남제외)	8.3
수도권	6.4
영남권	0.9
호남권	0.7
해외	1.2
기타	0.0

천안아산지역의 경우 위탁기업대비 협력업체는 관내비중이 가장 높고 충남도를 포함하면 89.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금산군은 위탁관계와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서천군은 협력업체의 비중이 관내 53.7%, 충남 40.7%로 충남내 비중이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원재료의 납품과 관련하여 지역생산물을 활용하기 때문임

〔그림 부3-2〕 협력업체 지역별 분포현황



⑧ 원자재 구매 애로사항

원자재구매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구매관련 정보의 부족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소량구매로 인한 높은 가격이 35.5%, 대기업의 공급독점으로 인한 가격협상불가도 19.0%에 이르고 있음

원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은 가격 교섭력이 부족하며, 자신들의 판매가격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은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중소기업의 거래선인 원자재 공급자와 부품 구매자가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들은 가격 교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자재 값 상승의 부담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음

〈표 부3-18〉 원자재구매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소량구매로 인한 높은가격	71	35.5
원자재 구매관련 정보의 부족	81	40.5
대기업 공급독점으로 인한 가격 협상 불가	38	19.0
원자재 공급후 가격 지연통보로 인해 판매 가격에 미반영	10	5.0
기타	0	0.0

■ 기업 애로 및 기업지원

① 기업지원의 애로사항

일반적인 기업지원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문제가 49.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0%로 나타남

〈표 부3-19〉 기업지원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지원자금 조달 및 확보	99	49.5
유통 및 판매 지원	66	33.0
인력수급 지원	12	6.0
연구개발투자 지원	15	7.5
각종 규제완화 노력	8	4.0

② 인력 부족 및 충원

조사기업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충원 인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의 경우 1~2명, 생산직의 경우 1~5인, 연구직의 경우 1~2인 정도로 충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는 적은 규모의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부3-20〉 인력 부족 및 충원계획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사무직	없음	128	64.0
	1인~2인	52	26.0
	3인~5인	20	10.0
생산직	없음	87	43.5
	1인~5인	78	39.0
	6인~10인	24	12.0
	11인~20인 이하	11	6.0
연구·기술직 (평균종사자 7.3명)	없음	164	82.0
	1인~2인	32	16.0
	3인~5인	4	2.0

③ 인력수급 애로사항

조사기업들의 인력수급에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채용시장 정보부족, 채용인력의 잦은 이직이 각각 25.5%, 20.5%로 나타나 기업 및 주변 환경의 영향보다는 인력 자체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지리적 입지 등의 교통문제는 인력수급에 있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부3-21〉 인력수급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채용시장 정보부족	41	20.5
관련 전문인력 부족	56	28.0
지리적 입지 한계	18	9.0
외국인 근로자 채용곤란	3	1.5
채용인력의 잦은 이직	51	25.5
낮은급여수준	22	11.0
낮은복지후생	7	3.5
주변정주여건 미비	2	1.0

④ 자금조달 애로사항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는 판매부진 및 매출감소를 원인으로 응답한 기업 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정책자금 이용곤란,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 곤란을 자금 조달 애로사항으로 꼽았음

〈표 부3-22〉 자금조달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판매부진 및 매출감소	65	32.5
정책자금 이용곤란	40	20.0
대출금리 및 부대비용 과다	25	12.5
판매대금 회수 지원	16	8.0
금융권 대출조건 강화	18	9.0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 곤란	36	18.0

⑤ 지역내 금융기관 이용 애로사항

조사된 기업들 대부분은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주 금융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94.5%) 지역내의 금융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들의 지역내 금융기관 이용함에 있어서 금융정보 등의 서비스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그 뒤로 차별화되지 않는 금리를 선택하여 금융기관들의 기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부3-23〉 지역내 금융기관 이용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금융기관의 부재	36	18.0
금융정보 등의 서비스 부족	79	39.5
차별화되지 않는 금리	54	27.0
애로사항 없음	31	15.5

⑥ 기술 도입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한 경우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들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입하여, 동종업종간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부3-24〉 기술도입처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 등)	64	32.0
국공립 연구기관(정부출연·투자기관 포함)	54	27.0
민간 연구기관	18	9.0
대기업(모기업)	16	8.0
중소기업	27	13.5
외국기업 및 기관(대학, 연구소 등)	2	1.0

기술 도입처의 지역내 수급을 살펴보면 평균 42.5%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비율도 15.5%에 해당하고 있음

⑦ 기술개발 애로사항

기업의 기술개발에 있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기술개발비 조달 곤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문기술인력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기업들의 기술개발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비용과 인력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부3-25〉 기술개발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 수	응답기업 비중
전문기술인력 부족	63	31.5
기술개발비 조달 곤란	74	37.0
신기술 정보부족	36	18.0
연구장비구비능력 부족	12	6.0
개발기술의 사업화여력 부족	15	7.5

⑧ 충청남도 지원기관 장비 이용률

기업의 신기술개발 등에 있어 연구개발, 시험·검사 등의 지역내 장비활용율을 살펴보면 기업의 평균 장비이용률은 45.7%에 이르고 있으며, 이용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높거나 양분되어 있음

〈표 부3-26〉 기업 연구개발의 충남도내 장비 이용률

구분	응답기업수	응답기업 비중
50% 미만	95	48.0
50% 이상	31	15.5
60% 이상	38	19.0
70% 이상	22	11.0
80% 이상	14	7.0

이러한 낮은 장비이용률은 이용절차의 복잡성과 이용비용의 비싼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음

이와 함께 충남도의 장비 자체가 디스플레이와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장비가 주로 구축이 되어 타 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검사장비 보유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부3-27〉 충남도내 장비이용 애로사항

구분	응답기업수	응답기업 비중
이용비용이 너무 비싸다	42	21.0
이용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46	23.0
이용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18	9.0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보유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20	10.0
필요한 시험·검사장비가 없다	42	21.0
시험·검사장비 보유기관과의 거리가 멀다	20	10.0
시험·검사를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2	6.0
기타	0	0.0

■ 기업간 교류활동

① 동종업종 및 이업종간 교류 활동

기업간의 정보교류 등의 네트워크를 위한 동종 및 이업종간 교류활동에 있어 교류활동자체가 없거나 분기당 1회 정도의 형식적인 교류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76.5%로 나타나 기업간 교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교류에 있어서 소속업종협회 및 소속업종 교류회가 전체의 6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류활동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원기관 및 지자체 중심의 교류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체의 2.5%로 극히 드물어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교류회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부3-28〉 동종업종 및 이업종간 교류활동

구분	응답기업수	응답기업 비중
활동안함	38	19.0
년 4회 미만	115	57.5
년 10회 미만	37	18.5
월 1회 이상	10	5.0

② 교류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

이러한 기업간의 교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내의 기업교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39.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교류활동을 위한 자금지원이 38.0%로 나타남.

또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활성화되기까지 지자체 주도의 운영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부3-29〉 교류활동을 위한 지원

구분	응답기업수	응답기업 비중
직접적인 자금지원	76	38.0
지역의 기업교류분위기 조성	79	39.5
지자체 주도 운영	15	7.5
다양한 교류의 장 마련	19	9.5
기업경영인의 마인드 변화	11	5.5
기타	0	0.0

■ 정주환경

① 근로자의 정주환경 만족도

기업의 정주환경은 교통 등 주변 인프라 및 주거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교육여건 및 소비, 문화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응답한 기업이 많았음

〈표 부3-30〉 근로자의 정주환경 만족도

구분	평균값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 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1. 교육여건	3.2	0 (0.0)	68 (34.0)	101 (50.5)	30 (15.0)	1 (0.5)
2. 소비(쇼핑)여건	3.1	1 (0.5)	45 (22.5)	120 (60.0)	32 (16.0)	2 (1.0)
3. 문화생활 여건	2.9	1 (0.5)	34 (17.0)	120 (60.0)	41 (20.5)	4 (2.0)
4. 의료수준	3.1	1 (0.5)	51 (25.5)	119 (59.5)	29 (14.5)	0 (0.0)
5. 주거수준	3.5	3 (1.5)	107 (53.5)	80 (40.0)	10 (5.0)	0 (0.0)
6. 교통 등 인프라	3.6	24 (12.0)	82 (41.0)	78 (39.0)	16 (8.0)	60 (0.0)

실태조사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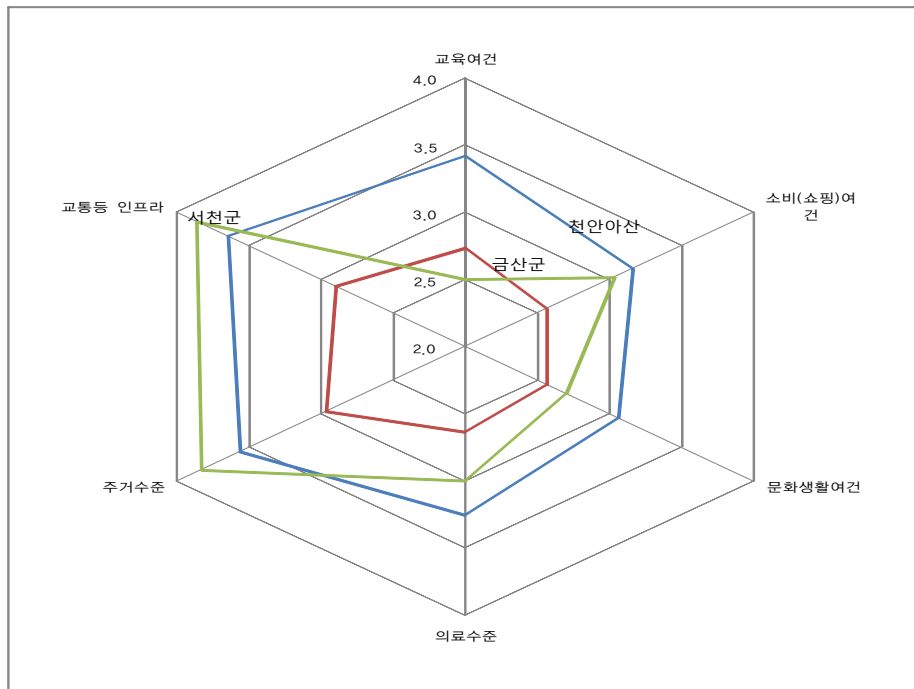
- 천안아산지역은 정주여건 6가지 모두의 지표에서 평균(3점)이상으로 나타남
- 금산군은 주거수준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평균(3점)이하로 낮게 나타나 기업근로자의 정주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서천군은 주거수준과 교통인프라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문화생활 등의 여건은 평균이하로 나타남

〈표 부3-31〉 지역별 근로자의 정주환경

구분	평균값	천안아산	금산군	서천군
1. 교육여건	3.2	3.4 (+0.2)	2.7 (-0.5)	2.5 (-0.7)
2. 소비(쇼핑)여건	3.1	3.2 (+0.1)	2.6 (-0.5)	3.0 (-0.1)
3. 문화생활 여건	2.9	3.1 (+0.2)	2.6 (-0.3)	2.7 (-0.2)
4. 의료수준	3.1	3.3 (+0.2)	2.6 (-0.5)	3.0 (-0.1)
5. 주거수준	3.5	3.6 (+0.1)	3.0 (-0.5)	3.8 (+0.3)
6. 교통 등 인프라	3.6	3.7 (+0.1)	2.9 (-0.7)	3.9 (+0.3)

* 평점은 3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임

〔그림 부3-3〕 지역별 근로자의 정주환경



② 가계소비 부문 - 가구소비 실태조사

■ 설문 개요

① 설문의 목적

지역이 내발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지역이 갖는 한계로 인해 지역 상권은 인근 대도시 상권으로 흡수되기도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시장은 지역 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게 그 수요를 상당
부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조사는 충남 도민의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충남과 충남내 시군의 소비구조와
지역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는 것이 본 조사의 최종 목적임

② 설문의 표본

충남 16개 시군을 표본 조사하여 개별 시군의 소비구조를 파악해야하나. 본 조사에서는
아산, 천안, 금산, 서천 4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표본 수는 각 시군별
50가구로 한정하였음

③ 설문의 주요내용

본 조사는 충남 가구의 10대 소비지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10대 소비지출 항목 중 충남에서
만 소비가 가능한 주거·광열·수도, 교통, 통신과 타 지역에서의 숙박은 설문에서 제외하였음

〈표 부3-32〉 12대 소비지출 항목

1	식료품	7	통신
2	의류 및 신발	8	오락, 문화
3	주거 및 수도광열	9	교육
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0	음식(외식)
5	보건	11	숙박
6	교통	12	기타

본 조사는 크게 2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충남 가구의 소비지출 비율에 대한
조사이며, 두 번째는 충남 가구의 소비지출 지역에 대한 조사임

■ 충남 가구소비 실태조사

○ 소비지출

2012년 우리나라 1·4분기 가계 소비지출은 256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2.2%로, 경기불안 등으로 직전분기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1분기 만에 플러스를 회복했음

12개 주요 소비지출 품목 중 교육을 제외하고 11개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음식·숙박(7.9%), 통신비(7.1%), 주거·수도·광열(6.9%) 등의 지출은 증가한 반면 교육비는 감소(-0.2%)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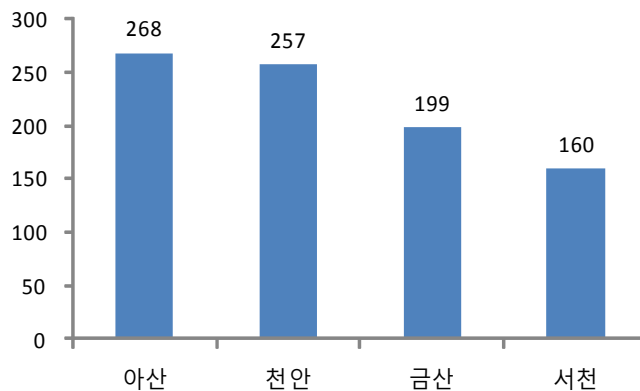
〈표 부3-33〉 충남 시군별 평균 소비지출

(단위: 만원)

시군	평균값
아산	268
천안	257
금산	199
서천	160

〔그림 부3-4〕 충남 시군별 평균 소비지출

(단위: 만원)



충남 시군별 평균 소비지출은 아산시 268만원, 천안시 257만원, 금산 199만원, 서천 16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순이며 지출이 소득과 비례한다고 가정할 때 아산시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천의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을 10대 소비항목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부3-34〉 충남 시군별 소비지출 비중

(단위: 만원,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식료품	51	19.1	51	19.7	45	22.5	40	25.0
의류 및 신발	22	8.3	17	6.6	15	7.3	11	7.2
주거 및 수도광열	18	6.7	18	7.1	14	7.0	13	7.9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4	5.2	16	6.2	12	5.9	9	5.8
보건	17	6.4	20	7.6	14	7.0	10	6.3
교통	27	9.9	24	9.2	18	9.2	13	8.3
통신	17	6.5	17	6.8	18	9.2	11	6.8
오락, 문화	19	7.3	23	8.8	14	6.9	10	6.2
교육	37	13.9	29	11.3	26	13.1	24	15.1
외식	22	8.1	22	8.7	14	6.9	10	6.3
숙박	8	3.2	12	4.5	6	3.2	3	1.8
기타	15	5.7	9	3.7	4	2.3	6	3.5
계	268	100	257	100	199	100	160	100

4개 시군 모두에서 식료품의 소비비중이 가장 높았고, 교육비중이 다음 순이었음

특히 지출수준이 낮은 금산과 서천지역에서 식료품의 소비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소비지출 지역

① 식료품

식료품 지출은 가구에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지출을 의미함

〈표 부3-35〉 식료품 소비지출 시도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서울	3.8	1.9	0.9	0.4
경기	5.0	3.3	2.6	0.8
인천	0.4	0.6	0.2	0.0
대구	0.0	0.2	0.2	0.0
부산	0.4	0.9	0.4	0.0
광주	0.0	0.0	0.2	0.0
울산	0.2	0.0	0.0	0.0
대전	5.2	2.2	7.1	1.1
충남	79.3	87.2	82.2	84.9
충북	2.8	1.1	3.0	0.2
경남	0.5	0.5	0.2	0.0
경북	0.0	0.4	0.2	0.0
전남	0.4	0.0	0.1	0.0
전북	0.4	0.3	2.0	12.5
강원	1.6	1.2	0.7	0.3
제주	0.0	0.0	0.0	0.0
계	100	100	100	100

식료품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87.2%로 가장 높았고, 서천(84.9%), 금산(82.2%), 아산(79.3%) 순이었음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대전이, 천안은 경기,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음

〈표 부3-36〉 충남내 식료품 소비지출 시군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천안시	19.7	86.8	0.0	0.4
공주시	1.4	0.2	0.8	0.0
보령시	0.0	0.3	0.8	6.9
아산시	71.8	5.4	0.0	0.0
서산시	2.2	1.5	0.8	0.0
논산시	0.8	0.2	6.0	1.3
계룡시	0.0	0.0	3.4	0.0
금산군	0.2	0.1	84.2	0.0
연기군(세종시)	0.0	0.2	0.4	0.2
부여군	0.2	0.0	2.0	7.3
서천군	0.2	0.8	0.6	83.9
청양군	0.2	0.3	0.6	0.0
홍성군	0.8	0.7	0.0	0.0
예산군	1.1	1.5	0.0	0.0
태안군	0.4	1.4	0.2	0.0
당진시	1.0	0.6	0.2	0.0
계	100	100	100	100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든 시군에서 자가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자가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86.8%로 가장 높았고, 금산(84.2%), 서천(83.9%), 아산(71.8%) 순이었으며,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가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გი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부여가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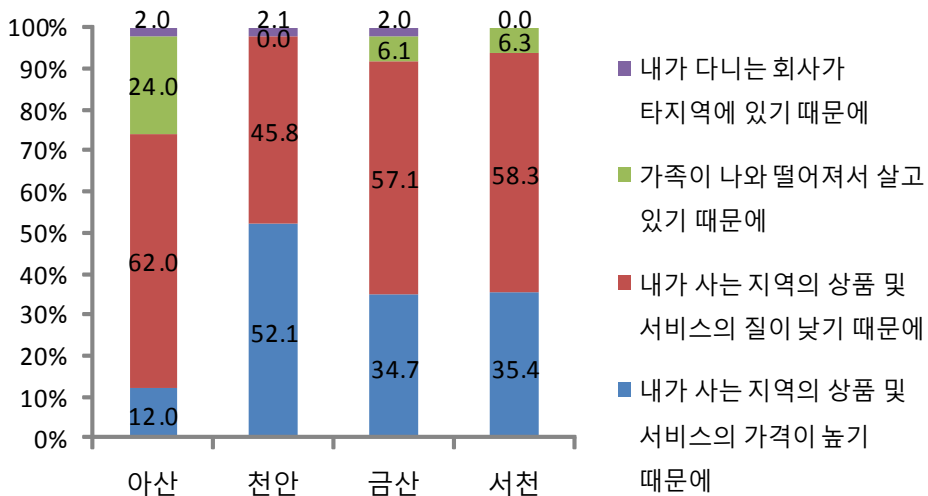
〈표 부3-37〉 식료품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12.0	52.1	34.7	35.4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62.0	45.8	57.1	58.3
가족이 나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24.0	0.0	6.1	6.3
내가 다니는 회사가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2.0	2.1	2.0	0.0

〈그림 부3-5〉 식료품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가장 높았고, 천안은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금산의 경우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았고 서천의 경우도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부3-38〉 식료품의 주요 소비 장소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백화점	2.0	2.0	0.0	0.0
대형매장	42.0	80.0	6.0	76.0
소형매장	28.0	10.0	70.0	6.0
전통시장	28.0	8.0	24.0	18.0

식료품의 주 소비처는 아산시의 경우 대형매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안은 대형매장(80.0%), 금산은 소형매장(70.0%), 서천은 대형매장(76.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부3-39〉 식료품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식료품	충남내 소비비중과 충남외 주소비지역	낮음	보통	보통	보통
		(대전)	(경기)	(대전)	(전북)
	자기지역 소비비중과 충남내 주소비지역	낮음	보통	보통	보통
		(천안)	(아산)	(논산)	(부여)
	타지역 소비이유	낮은 질	높은 가격	낮은 질	낮은 질
	주소비 장소	대형매장	대형매장	소형매장	대형매장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② 의류 및 신발

의류 및 신발 지출은 의류 및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또는 제작하기 위해 구입한 재료비와 제작, 유지, 수선 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

〈표 부3-40〉 의류 및 신발 소비지출 시도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서울	9.6	8.9	5.5	4.4
경기	4.4	5.0	2.0	1.0
인천	0.0	0.0	0.2	0.0
대구	0.0	0.3	1.0	0.0
부산	0.2	0.3	0.6	0.0
광주	0.0	0.0	0.0	0.0
울산	0.0	0.0	0.0	0.0
대전	8.6	1.6	21.3	5.2
충남	76.6	83.6	67.9	71.0
충북	0.6	0.3	1.2	0.0
경남	0.0	0.0	0.0	0.0
경북	0.0	0.0	0.0	0.0
전남	0.0	0.0	0.0	0.0
전북	0.0	0.0	0.3	18.4
강원	0.0	0.0	0.0	0.0
제주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천안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충남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83.6%로 가장 높았고, 아산(76.6%), 서천(71.0%), 금산(67.9%) 순이었다. 특히 서천과 금산은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음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서울시, 천안은 서울,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음

〈표 부3-41〉 충남내 의류 및 신발 소비지출 시군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천안시	34.4	97.3	5.8	2.4
공주시	0.2	0.1	2.0	0.4
보령시	0.0	0.0	0.0	5.8
아산시	65.4	2.6	0.0	0.0
서산시	0.0	0.0	0.0	0.0
논산시	0.0	0.0	8.5	0.8
계룡시	0.0	0.0	1.6	0.0
금산군	0.0	0.0	81.7	0.0
연기군(세종시)	0.0	0.0	0.4	0.0
부여군	0.0	0.0	0.0	8.0
서천군	0.0	0.0	0.0	82.8
청양군	0.0	0.0	0.0	0.0
홍성군	0.0	0.0	0.0	0.0
예산군	0.0	0.0	0.0	0.0
태안군	0.0	0.0	0.0	0.0
당진시	0.0	0.0	0.0	0.0
계	100	100	100	100.2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გი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7.3%로 가장 높았고, 서천(82.8%), 금산(81.7%), 아산(65.4%) 순이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გი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부여가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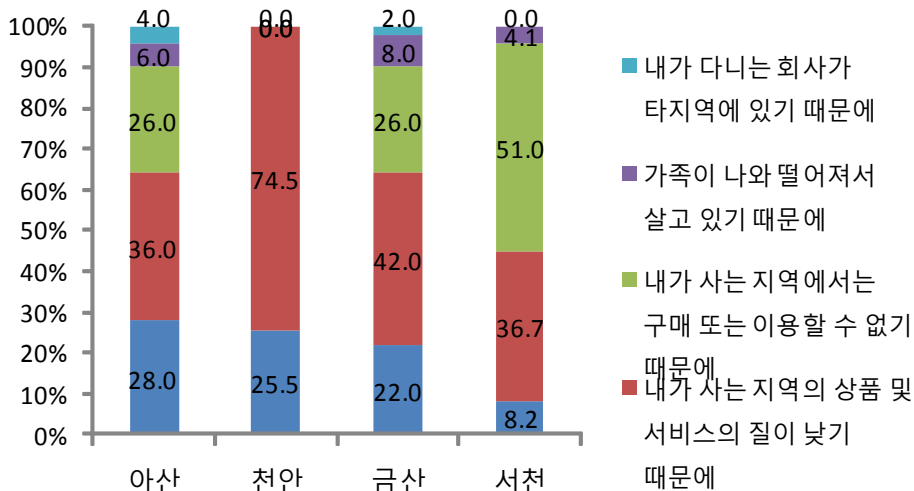
〈표 부3-42〉 의류 및 신발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28.0	25.5	22.0	8.2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36.0	74.5	42.0	36.7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26.0	0.0	26.0	51.0
가족이 나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6.0	0.0	8.0	4.1
내가 다니는 회사가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4.0	0.0	2.0	0.0

〔그림 부3-6〕 의류 및 신발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가장 높았고, 천안도 역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금산의 경우도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았으나, 서천의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부3-43〉 의류 및 신발의 주요 소비 장소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백화점	24.0	48.0	18.0	0.0
대형매장	34.0	16.0	20.0	28.0
소형매장	34.0	30.0	54.0	64.0
전통시장	6.0	4.0	4.0	4.0
인터넷	2.0	2.0	4.0	4.0

의류 및 신발의 주 소비처는 아산시의 경우 대형매장과 소형매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안은 백화점(48.0%), 금산은 소형매장(54.0%), 서천도 소형매장(6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부3-44〉 의류 및 신발 소비 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의류 신발	충남내 소비비중과 충남외 주소비지역	낮음	보통	낮음	낮음
		(서울)	(서울)	(대전)	(전북)
	자기지역 소비비중과 지역외 주소비지역	낮음	높음	보통	보통
		(천안)	(아산)	(논산)	(부여)
	타지역 소비이유	낮은 질	낮은 질	낮은 질	지역에 없음
	주소비 장소	대·소형매 장	백화점	소형매장	소형매장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③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지출은 장롱 등의 가구와 가정생활에 필요한 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필요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

〈표 부-45〉 가정용품 소비지출 시도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서울	5.0	4.6	2.6	1.8
경기	3.2	5.1	1.4	0.4
인천	0.6	0.0	0.2	0.0
대구	0.0	0.0	0.0	0.0
부산	0.0	0.0	0.0	0.0
광주	0.0	0.0	0.2	0.0
울산	0.0	0.0	0.0	0.0
대전	8.0	1.9	26.8	2.4
충남	81.0	87.7	64.0	68.4
충북	2.2	0.7	3.6	0.2
경남	0.0	0.0	0.0	0.0
경북	0.0	0.0	0.0	0.0
전남	0.0	0.0	0.0	0.0
전북	0.0	0.0	1.2	26.8
강원	0.0	0.0	0.0	0.0
제주	0.0	0.0	0.0	0.0
계	100	100	100	100

가정용품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천안, 아산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87.7%로 가장 높았고, 아산(81.0%), 서천(68.4%), 금산(64.0%) 순이었다. 특히 서천과 금산은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음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서울이, 천안은 경기,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부3-46〉 충남내 가정용품 소비지출 시군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천안시	27.9	96.3	1.6	2.6
공주시	0.4	0.0	1.0	0.6
보령시	0.0	0.0	0.0	5.2
아산시	71.3	3.3	0.2	0.0
서산시	0.0	0.0	0.0	0.0
논산시	0.0	0.0	8.8	0.6
계룡시	0.0	0.0	5.0	0.0
금산군	0.0	0.0	82.8	0.0
연기군(세종시)	0.2	0.0	0.8	0.0
부여군	0.0	0.0	0.0	7.6
서천군	0.0	0.0	0.0	83.4
청양군	0.0	0.0	0.0	0.0
홍성군	0.0	0.0	0.0	0.0
예산군	0.2	0.4	0.0	0.0
태안군	0.0	0.0	0.0	0.0
당진시	0.0	0.0	0.0	0.0
계	100	100	100	100.2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გი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6.3%로 가장 높았고, 서천(83.4%), 금산(82.8%), 아산(71.3%) 순이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გი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부여가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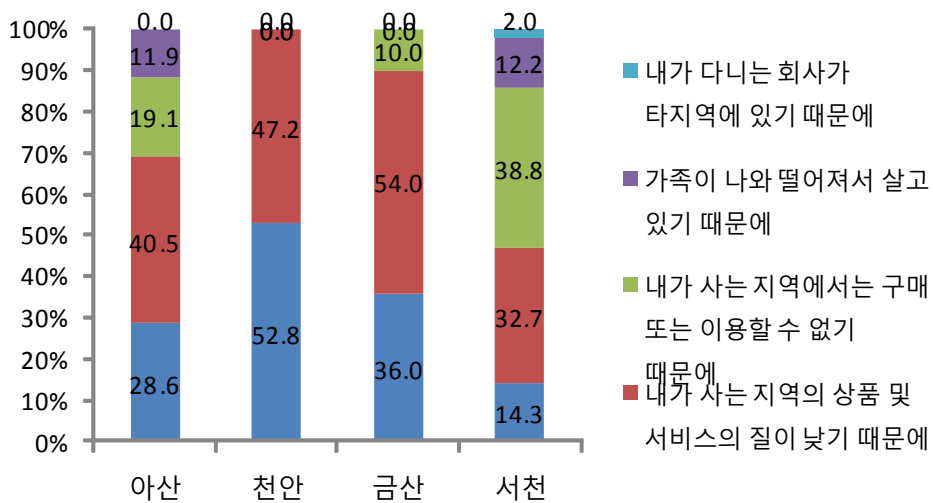
〈표 부3-47〉 가정용품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28.6	52.8	36.0	14.3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40.5	47.2	54.0	32.7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19.1	0.0	10.0	38.8
가족이 나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11.9	0.0	0.0	12.2
내가 다니는 회사가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0.0	0.0	0.0	2.0

〈그림 부3-7〉 가정용품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고, 천안은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금산의 경우는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았으나, 서천의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부3-48〉 가정용품의 주요 소비 장소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백화점	4.0	8.0	10.0	0.0
대형매장	64.0	88.0	26.0	74.0
소형매장	22.0	4.0	58.0	12.0
전통시장	2.0	0.0	6.0	10.0
인터넷	8.0	0.0	0.0	4.0

가정용품의 주 소비처는 아산시의 경우 대형매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안은 대형매장(88.0%), 금산은 소형매장(58.0%), 서천은 대형매장(7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부3-49〉 가정용품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가정 용품	충남내 소비비중과 충남외 주소비지역	보통	보통	낮음	낮음
		(서울)	(서울)	(대전)	(전북)
	자გი지역 소비비중과 지역외 주소비지역	낮음	높음	보통	보통
		(천안)	(아산)	(논산)	(부여)
	타지역 주소비이유	낮은 질	높은 가격	낮은 질	지역에 없음
	주소비 장소	대형매장	대형매장	소형매장	대형매장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④ 보건

보건 지출은 사람의 질병 예방, 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

〈표 부3-50〉 보건 소비지출 시도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서울	6.4	4.9	2.0	2.0
경기	3.0	2.6	1.2	0.0
인천	0.0	0.0	0.0	0.0
대구	0.0	0.0	0.0	0.0
부산	0.0	0.0	0.0	0.0
광주	0.0	0.0	0.0	0.0
울산	0.0	0.0	0.0	0.0
대전	5.6	0.6	26.0	3.0
충남	84.2	91.7	70.8	76.0
충북	0.8	0.2	0.0	0.0
경남	0.0	0.0	0.0	0.0
경북	0.0	0.0	0.0	0.0
전남	0.0	0.0	0.0	0.0
전북	0.0	0.0	0.0	19.0
강원	0.0	0.0	0.0	0.0
제주	0.0	0.0	0.0	0.0
계	100	100	100	100

보건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천안, 아산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충남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1.7%로 가장 높았고, 아산(84.2%), 서천(76.0%), 금산(70.8%) 순이었으며, 특히 서천과 금산은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었음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서울시, 천안도 서울,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음

〈표 부3-51〉 충남내 보건 소비지출 시군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천안시	25.8	98.4	1.2	4.4
공주시	0.4	0.0	0.2	0.2
보령시	0.0	0.0	0.0	2.0
아산시	73.8	1.6	0.0	0.0
서산시	0.0	0.0	0.0	0.0
논산시	0.0	0.0	5.0	3.4
계룡시	0.0	0.0	1.0	0.0
금산군	0.0	0.0	92.0	0.0
연기군(세종시)	0.0	0.0	0.6	0.0
부여군	0.0	0.0	0.0	4.0
서천군	0.0	0.0	0.0	86.2
청양군	0.0	0.0	0.0	0.0
홍성군	0.0	0.0	0.0	0.0
예산군	0.0	0.0	0.0	0.0
태안군	0.0	0.0	0.0	0.0
당진시	0.0	0.0	0.0	0.0
계	100	100	100	100.2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기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8.4%로 가장 높았고, 금산(92.0%), 서천(86.2%), 아산(73.8%) 순이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기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천안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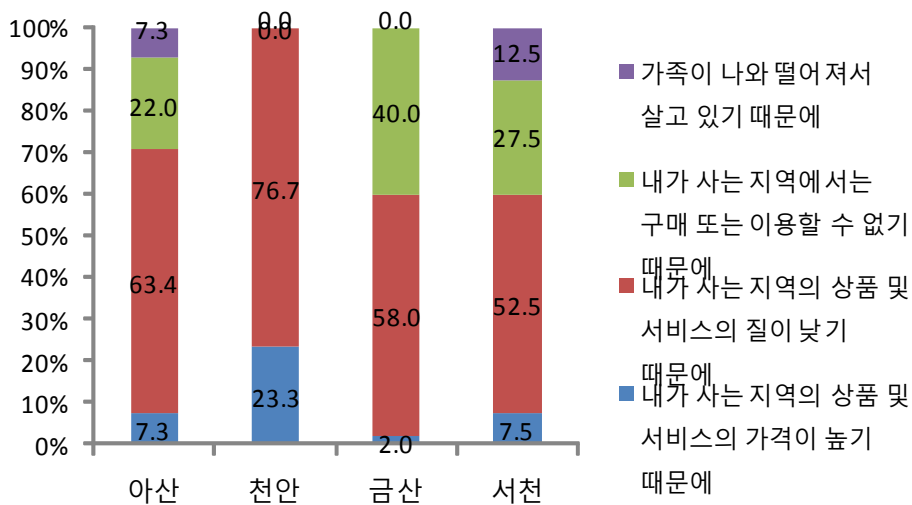
〈표 부3-52〉 보건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7.3	23.3	2.0	7.5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63.4	76.7	58.0	52.5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22.0	0.0	40.0	27.5
가족이 나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7.3	0.0	0.0	12.5

〔그림 부3-8〕 보건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4%로 가장 높았고, 천안도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금산의 경우도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8.0%로 가장 높았고, 서천의 경우도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부3-53〉 보건의 주요 소비 장소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92.0	100.0	100.0	24.0
개인병원	8.0	0.0	0.0	70.0
약국	0.0	0.0	0.0	6.0

보건의 주 소비처는 천안, 금산의 경우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산 역시 500병상 미만 종합 병원이라는 응답이 92.0%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천의 경우 개인병원이라는 응답이 70.0%로 가장 높았음

〈표 부3-54〉 보건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보건	충남내 소비비중과 충남외 주소비지역	보통	높음	낮음	낮음
		(서울)	(서울)	(대전)	(전북)
	자기지역 소비비중과 지역외 주소비지역	낮음	높음	높음	보통
		(천안)	(아산)	(논산)	(천안)
	타지역 주소비이유	낮은 질	낮은 질	낮은 질	낮은 질
	주소비 장소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개인병원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⑤ 오락·문화

오락·문화 지출은 오락, 취미, 문화활동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

〈표 부3-55〉 오락·문화 소비지출 시도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서울	10.2	4.1	2.7	1.0
경기	6.6	4.0	1.0	1.2
인천	0.4	0.0	1.0	0.2
대구	0.0	0.4	0.4	0.2
부산	0.6	1.2	1.4	1.2
광주	0.0	0.0	0.0	0.2
울산	0.0	0.0	0.2	0.2
대전	7.2	1.0	24.8	3.2
충남	71.7	85.5	65.3	70.1
충북	1.2	1.2	1.6	1.0
경남	0.0	0.4	0.2	0.2
경북	0.2	0.2	0.0	0.2
전남	0.0	0.1	0.0	0.2
전북	0.0	0.0	0.4	20.7
강원	1.4	0.9	0.6	0.4
제주	0.5	1.0	0.6	0.0
계	100	100	100	100

오락·문화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천안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충남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85.5%로 가장 높았고, 아산(71.7%), 서천(70.1%), 금산(65.3%) 순이었으며, 특히 금산은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서울시, 천안도 서울,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음

〈표 부3-56〉 충남내 오락·문화 소비지출 시군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천안시	28.0	95.3	0.4	1.6
공주시	1.4	0.3	0.6	0.8
보령시	0.4	0.0	1.0	3.4
아산시	67.2	2.3	0.0	0.0
서산시	0.8	0.6	0.8	0.0
논산시	0.0	0.3	2.2	0.4
계룡시	0.0	0.0	0.8	0.0
금산군	0.0	0.0	93.1	0.0
연기군(세종시)	0.0	0.0	0.2	0.6
부여군	0.0	0.0	0.0	5.6
서천군	0.0	0.0	0.0	87.6
청양군	0.0	0.0	0.0	0.0
홍성군	0.0	0.0	0.0	0.0
예산군	0.4	0.2	0.0	0.0
태안군	0.8	0.5	0.7	0.0
당진시	1.0	0.5	0.2	0.0
계	100	100	100	100.2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გი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5.3%로 가장 높았고, 금산(93.1%), 서천(87.6%), 아산(67.2%) 순이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გი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부여가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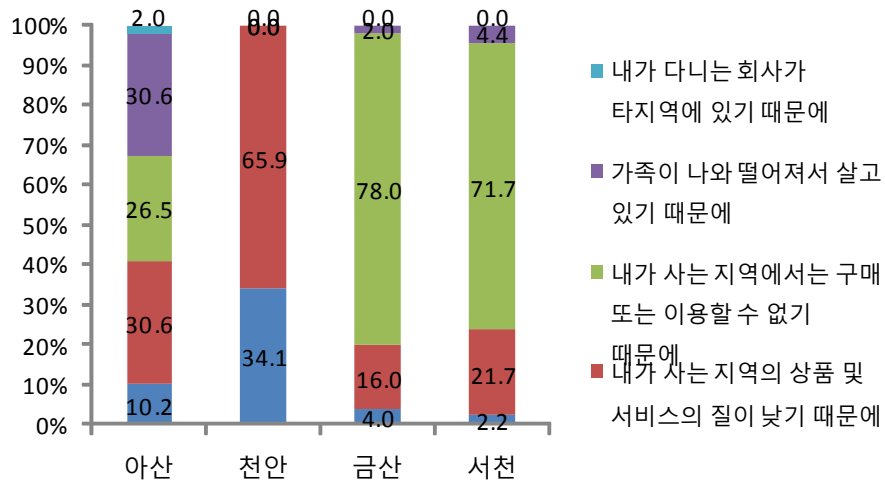
〈표 부3-57〉 오락·문화를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10.2	34.1	4.0	2.2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30.6	65.9	16.0	21.7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26.5	0.0	78.0	71.7
가족이 나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30.6	0.0	2.0	4.4
내가 다니는 회사가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2.0	0.0	0.0	0.0

〔그림 부3-9〕 오락·문화를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가족이 나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0.6%로 가장 높았고, 천안은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금산의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8.0%로 가장 높았고, 서천의 경우도 같은 이유가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부3-58〉 오락·문화의 주요 소비 장소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오락시설	12.0	14.0	4.0	8.0
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	64.0	50.0	70.0	56.0
개인 문화·오락시설	24.0	36.0	26.0	36.0

오락·문화의 주 소비처는 4개 시군 모두에서 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오락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개 시군에서 모두 낮았고 천안(14.0%), 아산(12.0%), 서천(8.0%), 금산(4.0%) 순으로 나타났음

〈표 부3-59〉 오락·문화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오 락 문 화	충남내 소비비중과	낮음	보통	낮음	낮음
	충남외 주소비지역	(서울)	(서울)	(대전)	(전북)
	자გი지역 소비비중과	낮음	높음	높음	보통
	지역외 주소비지역	(천안)	(아산)	(논산)	(부여)
	타지역 주소비이유	낮은 질 가족과 떨어져 살기때문	낮은 질	지역에 없음	지역에 없음
	주소비 장소	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	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	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	극장 등 중소 문화·오락시설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⑥ 교육

교육 지출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의미

〈표 부3-60〉 교육 소비지출 시도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서울	11.2	9.7	6.2	6.3
경기	5.8	7.0	2.9	0.0
인천	0.0	0.0	0.0	0.0
대구	0.0	0.0	0.0	0.0
부산	0.0	0.6	0.0	0.0
광주	0.0	0.0	0.0	0.0
울산	0.0	0.0	0.0	0.0
대전	7.6	10.6	16.2	5.3
충남	74.5	69.1	74.7	71.8
충북	0.9	3.0	0.0	0.0
경남	0.0	0.0	0.0	0.0
경북	0.0	0.0	0.0	0.0
전남	0.0	0.0	0.0	0.0
전북	0.0	0.0	0.0	16.6
강원	0.0	0.0	0.0	0.0
제주	0.0	0.0	0.0	0.0
계	100	100	100	100

교육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모든 시군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음

충남 내 소비비중은 금산이 74.7%로 가장 높았고, 아산(74.5%), 서천(71.8%), 천안(69.1%) 순이었으며, 특히 천안은 자기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서울시, 천안과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음

〈표 부3-61〉 충남내 교육 소비지출 시군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천안시	27.2	98.5	1.4	7.9
공주시	3.1	0.0	2.1	0.0
보령시	0.0	0.0	0.0	0.0
아산시	69.7	1.5	0.0	0.0
서산시	0.0	0.0	0.0	0.0
논산시	0.0	0.0	0.0	0.0
계룡시	0.0	0.0	0.0	0.0
금산군	0.0	0.0	96.4	0.0
연기군(세종시)	0.0	0.0	0.0	0.0
부여군	0.0	0.0	0.0	1.2
서천군	0.0	0.0	0.0	90.9
청양군	0.0	0.0	0.0	0.0
홍성군	0.0	0.0	0.0	0.0
예산군	0.0	0.0	0.0	0.0
태안군	0.0	0.0	0.0	0.0
당진시	0.0	0.0	0.0	0.0
계	100	100	100	100.2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გი지역 내 소비비중은 천안시가 98.5%로 가장 높았고, 금산(96.4%), 서천(90.9%), 아산(69.7%) 순이었으며,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გი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공주, 서천은 천안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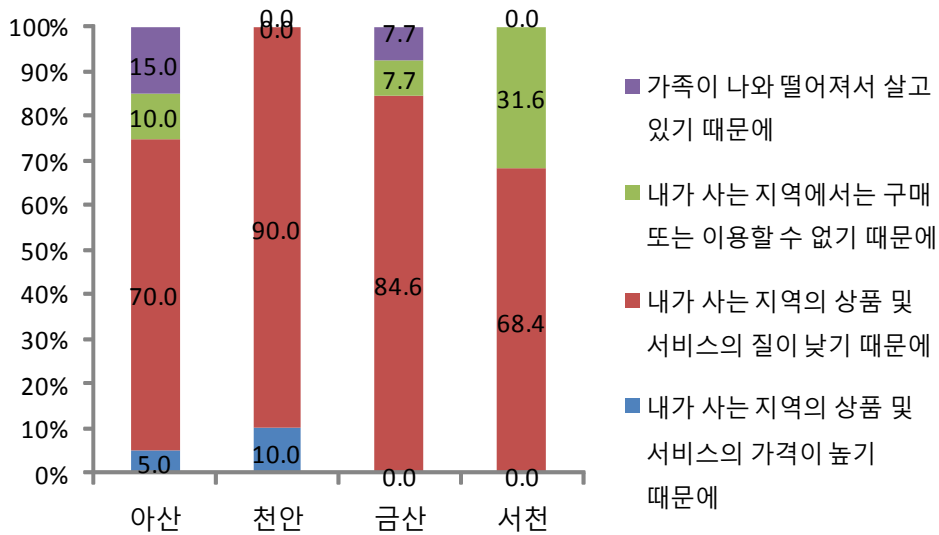
〈표 부3-62〉 교육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5.0	10.0	0.0	0.0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70.0	90.0	84.6	68.4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0	0.0	7.7	31.6
가족이 나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15.0	0.0	7.7	0.0

〔그림 부3-10〕 교육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4개 시군 모두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특히 서천의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1.6%에 달해 타시도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표 부3-63〉 교육의 주요 소비 장소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문화센터	0.0	0.0	2.9	0.0
유초중고 공교육기관	44.1	24.2	20.0	20.5
대학교	32.4	12.1	34.3	30.8
사설학원	23.5	63.6	42.9	48.7

교육의 주 소비처는 아산의 경우 공교육기관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안은 사설학원이라는 응답이 63.6%로 가장 높았으며, 금산과 서천의 경우도 사설학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42.9%, 48.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표 부3-64〉 교육의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교육	충남내 소비비중과 충남외 주소비지역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서울)	(대전)	(대전)	(전북)
	자기지역 소비비중과 지역외 주소비지역	낮음	높음	높음	높음
		(천안)	(아산)	(공주)	(천안)
	타지역 주소비이유	낮은 질	낮은 질	낮은 질	낮은 질
	주소비 장소	유초중고공 교육기관	사설학원	사설학원	사설학원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⑦ 외식

외식 지출은 여타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서비스 받는 데에 대해 지불하는 식사비용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

〈표 부3-65〉 외식 소비지출 시도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서울	1.6	1.5	0.6	1.0
경기	1.0	0.2	0.8	0.7
인천	1.0	0.6	0.3	0.3
대구	0.8	0.4	0.3	0.0
부산	3.6	3.7	2.2	1.5
광주	0.6	0.6	0.2	0.2
울산	0.4	0.8	0.1	0.2
대전	9.7	2.6	21.2	2.5
충남	70.3	79.7	67.6	66.2
충북	1.8	1.2	1.9	1.0
경남	2.2	2.4	0.6	0.6
경북	0.6	0.6	0.3	1.2
전남	1.4	1.1	0.4	0.2
전북	0.6	1.1	2.5	23.4
강원	3.4	2.8	0.7	0.9
제주	1.0	0.7	0.3	0.1
계	100	100	100	100

외식의 경우 충남내 소비비중은 모든 시군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 충남 내 소비비중은 천안이 79.7%로 가장 높았고, 아산(70.3%), 금산(67.6%), 서천(66.2%) 순이었으며, 특히 금산은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충남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대전이, 천안은 부산, 금산은 대전, 서천은 전북이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부3-66〉 충남내 외식 소비지출 시군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천안시	20.8	84.6	0.3	3.0
공주시	1.6	0.6	0.5	0.6
보령시	0.2	0.5	0.4	5.6
아산시	71.6	8.0	0.0	0.0
서산시	1.2	1.3	0.5	0.0
논산시	0.4	1.2	2.3	1.2
계룡시	0.0	0.0	1.8	0.0
금산군	0.0	0.1	92.9	0.2
연기군(세종시)	0.8	0.1	0.2	1.0
부여군	0.0	0.0	0.0	9.1
서천군	0.0	0.0	0.0	78.7
청양군	0.0	0.0	0.0	0.0
홍성군	0.7	0.9	0.0	0.0
예산군	0.4	1.1	0.0	0.0
태안군	1.3	0.8	0.7	0.4
당진시	1.0	0.8	0.4	0.0
계	100	100	100	100.2

충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자გი지역 내 소비비중은 금산시가 92.9%로 가장 높았고, 천안(84.6%), 서천(78.7%), 아산(71.6%) 순이었으며, 특히 아산시의 경우 자გი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모두 자გი지역이 제1의 소비지역이었고 아산시의 경우 천안이, 천안은 아산, 금산은 논산, 서천은 부여가 제2의 소비지역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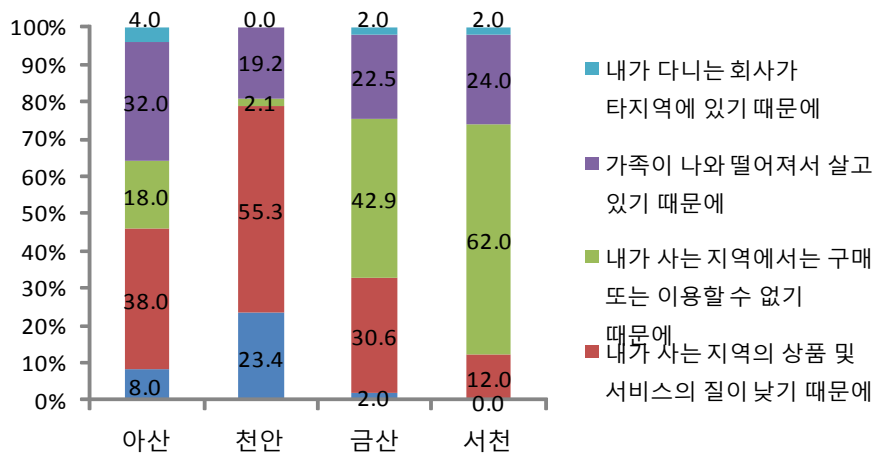
〈표 부3-67〉 외식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8.0	23.4	2.0	0.0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38.0	55.3	30.6	12.0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18.0	2.1	42.9	62.0
가족이 나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32.0	19.2	22.5	24.0
내가 다니는 회사가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4.0	0.0	2.0	2.0

〔그림 부3-11〕 외식을 타시도 또는 시군에서 소비하는 이유

(단위: %)



타시도나 시군에서 소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아산과 천안은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그러나 금산과 서천의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부3-68〉 외식의 주요 소비 장소

(단위: %)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레스토랑 등 고급식당	12.0	10.0	0.0	2.0
패밀리 식당 등 중급식당	26.0	52.0	24.0	12.0
일반식당	62.0	38.0	76.0	86.0

외식의 주 소비처는 아산의 경우 일반식당이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안은 패밀리 식당 등 중급식당이라는 응답이 52.0%로 가장 높았으며, 금산과 서천의 경우는 일반식당이라는 응답이 각각 76.0%, 86.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표 부3-69〉 외식 소비지출 분석결과

구분		아산	천안	금산	서천
외 식	충남내 소비비중과 충남외 주소비지역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대전)	(부산)	(대전)	(전북)
	자기지역 소비비중과 지역외 주소비지역	낮음	보통	높음	낮음
		(천안)	(아산)	(논산)	(부여)
	타지역 주소비이유	낮은 질	낮은 질	지역에 없음	지역에 없음
	주소비 장소	일반식당	패밀리 식당 등 중급식당	일반식당	일반식당

주: 90%이상 높음, 80~90% 보통, 80%이하 낮음

■ 역외 유출 비용계산

가구당 타 시도 및 타 시군 소비비용과 가구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역외 유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음

〈표 부3-70〉 가구당 타시도 및 시군 소비비중

(단위: %)

10대 소비항목	아산		천안		금산		서천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식료품	20.7	28.2	12.8	13.2	17.8	15.8	15.1	16.1
의류 및 신발	23.4	34.6	16.4	2.7	32.1	18.3	29.0	17.2
가정용품	19.0	28.7	12.3	3.7	36.0	17.2	31.6	16.6
보건	15.8	26.2	8.3	1.6	29.2	8.0	24.0	13.8
오락·문화	28.3	32.8	14.5	4.7	34.7	6.9	29.9	12.4
교육	25.5	30.3	30.9	1.5	25.3	3.6	28.2	9.1
외식	29.7	28.4	20.3	15.4	32.4	7.1	33.8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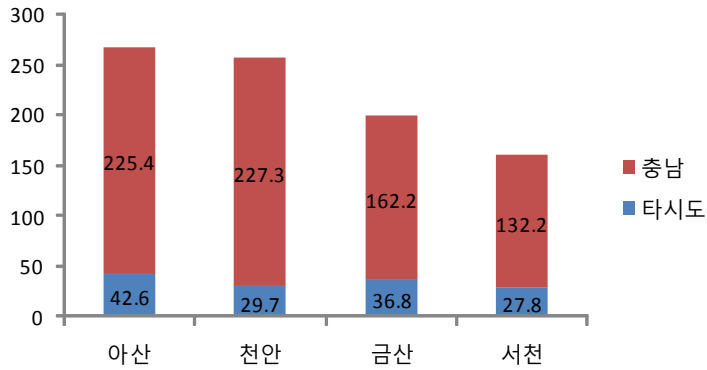
〈표 부3-71〉 가구당 타시도 및 시군 소비지출 비용

(단위: 만원)

10대 소비항목	아산		천안		금산		서천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식료품	10.6	11.4	6.5	5.8	8.0	5.8	6.0	5.5
의류 및 신발	5.2	5.9	2.8	0.4	4.7	1.8	3.3	1.4
가정용품	2.6	3.2	2.0	0.5	4.3	1.3	2.9	1.1
보건	2.7	3.8	1.6	0.3	4.1	0.8	2.4	1.1
오락·문화	5.5	4.6	3.3	0.9	4.7	0.6	3.0	0.9
교육	9.5	8.4	9.0	0.3	6.6	0.7	6.8	1.6
외식	6.4	4.3	4.5	2.7	4.5	0.7	3.4	1.4
계	42.6	41.6	29.7	11.0	36.8	11.7	27.8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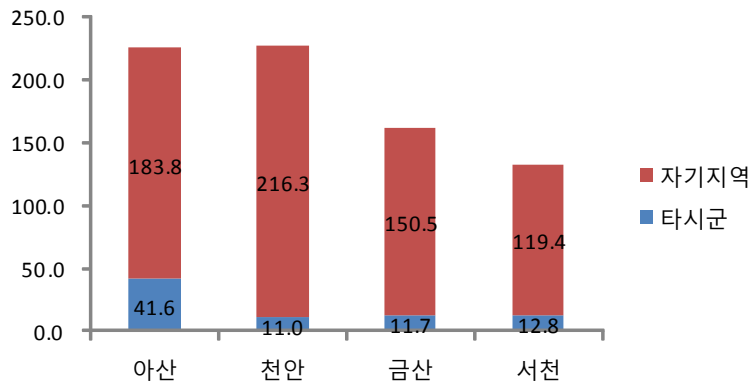
[그림 부3-12] 4개 시군의 타시도 소비지출

(단위: 만원)



[그림 부3-13] 4개 시군의 타시군 소비지출

(단위: 만원)



아산시는 가구당 타시도에서 월43만원을 소비하고 충남내 타시군에서 월42만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타시도에서 월30만원, 타시군에서 월11만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산군은 타시도에서 월37만원을 소비하고 타시군에서 월12만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타시도에서 월28만원, 타시군에서 월13만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기에 4개 시군의 가구수를 곱하면 타시도 및 시군의 총 소비지출 비용을 파악할 수 있음

〈표 부3-72〉 타시도 및 시군 총소비지출 비용(월)

(단위: 억원)

10대 소비항목	아산		천안		금산		서천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식료품	119.1	128.7	147.9	133.0	19.5	14.2	16.0	14.5
의류 및 신발	58.4	66.2	63.5	8.7	11.4	4.4	8.9	3.7
가정용품	29.6	36.2	44.7	11.8	10.4	3.2	7.8	2.8
보건	30.5	42.6	37.0	6.5	10.0	1.9	6.4	2.8
오락·문화	61.8	51.4	74.8	20.7	11.6	1.5	7.9	2.3
교육	107.0	94.7	204.7	6.9	16.2	1.7	18.1	4.2
외식	72.0	48.4	103.6	62.6	10.9	1.6	9.1	3.8
계	478.5	468.2	676.1	250.2	89.9	28.6	74.2	34.1

아산시는 타시도에서 월479억을 소비하고 충남내 타시군에서 월468억을 소비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타시도에서 월676억, 타시군에서 월250억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산군은 타시도에서 월90억을 소비하고 타시군에서 월29억을 소비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타시도에서 월74억, 타시군에서 월34억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부3-73〉 타시도 및 시군 총소비지출 비용(년)

(단위: 억원)

10대 소비항목	아산		천안		금산		서천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타시도	타시군
식료품	1,429	1,544	1,774	1,596	234	171	193	174
의류 및 신발	701	794	762	105	137	53	107	45
가정용품	355	435	537	142	125	38	94	34
보건	366	511	444	78	120	23	77	34
오락·문화	742	617	898	249	139	18	95	27
교육	1,284	1,136	2,457	82	194	21	217	50
외식	864	581	1,243	751	131	19	109	45
계	5,742	5,619	8,114	3,003	1,079	343	890	410

아산시는 타시도에서 연5,742억을 소비하고 충남내 타시군에서 연5,619억을 소비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타시도에서 연8,114억, 타시군에서 연3,003억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산군은 타시도에서 연1,079억을 소비하고 타시군에서 연343억을 소비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타시도에서 연890억, 타시군에서 연410억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결론 및 시사점

○ 식료품

아산은 대전과 천안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식료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식료품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천안의 경우는 가격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산과 서천은 질적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아울러 금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에서 전통시장과 소형매장에서의 소비비중이 낮아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의류 및 신발

아산은 서울과 천안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천안의 경우는 자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질적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금산과 서천은 대전과 전북에서의 소비비중을 낮추어 가야할 것이며 특히 서천은 시장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시장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산과 천안은 대형매장과 백화점에서의 소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점에서 영세상권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아산은 천안에서 소비되는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의 소비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천안의 경우는 자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질적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금산과 서천은 대전과 전북에서의 소비비중을 낮추어 가야할 것이며 특히 서천은 시장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시장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산과 천안, 서천은 주 소비장소가 대형매장이라는 응답이 높아 전통시장과 소형매장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보건

아산은 천안에서 소비되는 보건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비중을 낮추기 위해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천안의 경우 자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질적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금산과 서천은 대전과 전북에서의 소비비중을 낮추어 가야할 것이며,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오락·문화

아산은 서울과 천안에서 소비되는 오락·문화의 소비비중을 낮추기 위해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시장의 질적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산시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오락·문화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천안의 경우 자체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질적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금산과 서천은 대전과 전북에서의 소비비중을 낮추어 가야할 것이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오락·문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짐

○ 교육

아산은 서울과 천안에서 소비되는 교육의 소비비중을 낮추기 위해 이 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질적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천안의 경우도 대전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질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금산과 서천은 대전과 전북에서의 소비비중을 낮추어 가야할 것이며, 사교육 시장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외식

아산과 천안은 타지역으로 소비되는 외식의 소비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특히 금산과 서천은 외식을 위한 시장형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

소비시장은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많지는 않으나 영세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음

충남은 부가가치의 외부유출이 타시도보다 높고 지역으로 유입된 부가가치도 소비시장에서 한번 더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충남은 기업 부가가치의 유출과 더불어 소비시장에서의 유출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며, 충남은 서울 및 수도권과 가깝고 광역시인 대전과도 인접해 있음

이는 지역의 시장집중력을 약화시켜 지역상권이 발전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지역발전의 밑거름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산시는 연5,742억이 타시도에서 소비되고 있고 천안시는 연8,114억, 금산군은 연1,079억, 서천은 연890억이 타시도에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지역상권은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충남내 타 시군에서의 소비는 차치하고서라도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이와 같은 지출은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지역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비록 아직까지 지역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해서 타시도에서의 소비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상권을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임

여러 지자체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혜성을 강조하는 사회적경제를 도입하고 로컬푸드 운동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있음

새롭게 제정된 협동조합법도 이와 같은 지역민의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시장도 이제는 변화를 생각해야 할 때임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역간 비교우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호혜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이 지역 내에 정착된다면 지역상권은 지금보다는 건강한 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임

③ 유통 부문(지역 상권중심) - 지역상권 유통 환경조사

■ 설문 의 개요

○ 설문 의 목적

지역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유통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로컬푸드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까운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하면 생산품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를 단순화시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 하는 것임. 따라서 생산자가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됨

본 조사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과 지역 외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하며, 조사를 통하여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들의 생산지와 유통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함

○ 설문 의 표본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산물들의 유통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SSM)을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이 진행되었음

지역적으로는 충남내 대도시인 천안, 아산지역과 중소도시인 금산, 서천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표본 수는 4개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각 50부씩 200개의 상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음. 대형마트의 경우 4개 지역에서 11곳을 조사하였음

○ 설문 의 내용

지역 상권 유통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소비되는 항목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각 품목별 생산지역의 비율, 구매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전통시장의 경우 각 상점마다 취급하는 상품이 달라 품목별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대형마트의 경우 모든 품목을 취급함에 따라 품목별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천안지역 전통시장 유통현황

① 일반현황

- 천안지역 중앙시장,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음
- 점포 소유 형태
 - 점포 소유 형태는 본인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30.0%, 임대점포로 운영하는 경우가 70.0%로 임대점포로 운영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음

구분	빈도	비율(%)
본인 점포	6	12.0
임대 점포	44	88.0

- 영업기간
 - 영업기간은 대부분 20년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10~20년 동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기간	빈도	비율
1년전	1	2.0
2~3년전	5	10.0
3~5년전	8	16.0
5~10년전	11	22.0
10~20년전	20	40.0
20년 이전	5	10.0

- 종업원 수
 - 전통시장의 종업원수는 모두 3人以下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2人以下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9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인원	빈도	비율
1인	21	42.0
2인	26	52.0
3인	3	6.0
4인이상	0	0.0

○ 점포 면적

- 전통시장의 점포면적은 33.1㎡(10평)이상 66.1㎡이하(20평) 점포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49.6㎡(16평)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의 비율이 높았음. 대부분의 점포가 30평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점포 면적의 평균은 39.3㎡(11.9평)으로 나타났음

면적	빈도	비율
9.9㎡ 이상~29.8㎡ 이하	21	42.0
33.1㎡ 이상~66.1㎡ 이하	26	52.0
69.4㎡ 이상~99.2㎡ 미만	2	4.0
99.2㎡ 이상	1	2.0

○ 연령층

- 전통시장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의 연령층은 3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49.9세로 나타남

○ 성별

- 전통시장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의 성별은 남성 28.0%, 여성 72.0%로 여성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높았음

○ 영업 형태

- 전통시장의 점포 영업형태는 96.0%가 소매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품구매처

-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는 대부분 84.0%의 상인들이 도매상에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16.0%로 대부분 도매시장 및 도매상에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율
생산자직거래(작목반)	0	0.0
도매상에게 구매	42	84.0
도매시장(직접구매)	8	16.0
직접재배	0	0.0
영농조합법인	0	0.0
기타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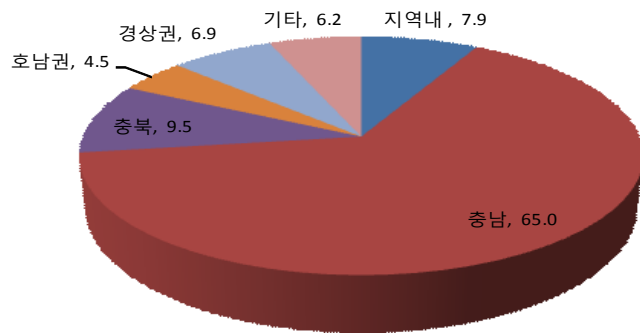
② 품목별 유통

<농산물>

○ 농산품의 생산지역

- 천안지역 전통시장에서 취급되는 농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지역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 9.5%, 지역내 7.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시장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중 천안 지역 및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비중은 73% 정도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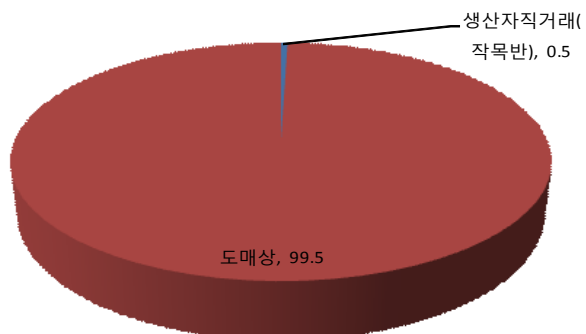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7.9
충남	65.0
대전	-
충북	9.5
수도권	-
호남권	4.5
경상권	6.9
기타	6.2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이 99.5%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자 직거래가 0.5%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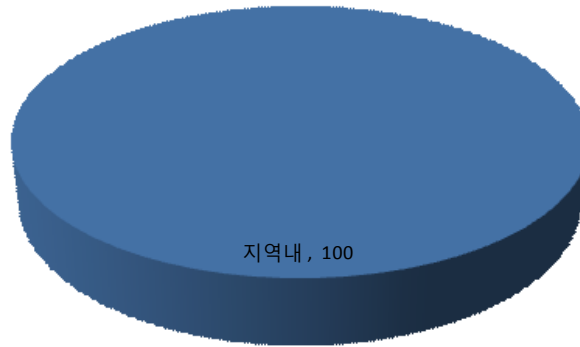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0.5
도매상	99.5
도매시장	-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내가 100%로 조사되었음

구분	비율
지역내	100
충남	-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
경상권	-
기타	1.3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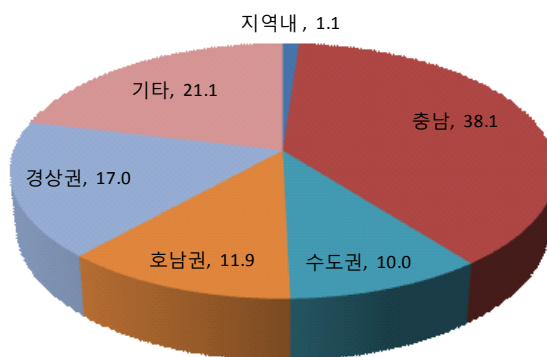


<수산물>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22.1%, 경상권 17.0%, 호남권 11.9%,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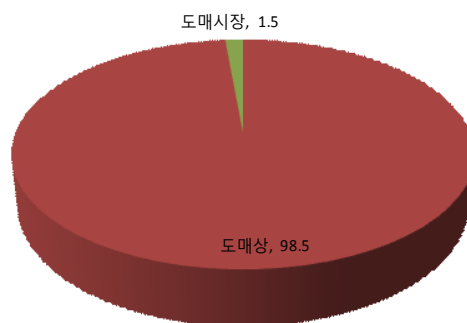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1.1
충남	38.1
대전	-
충북	-
수도권	10.0
호남권	11.9
경상권	17.0
기타	22.1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로는 도매상 98.5%, 도매시장 1.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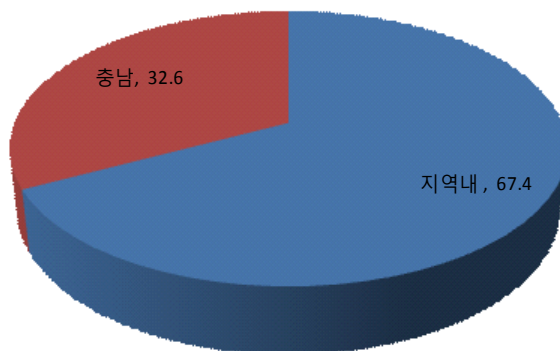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작목반)	-
도매상	98.5
도매시장	1.5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내 67.4%, 충남 32.6%로 조사되었음

구분	비율
지역내	67.4
충남	32.6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
경상권	-
기타	-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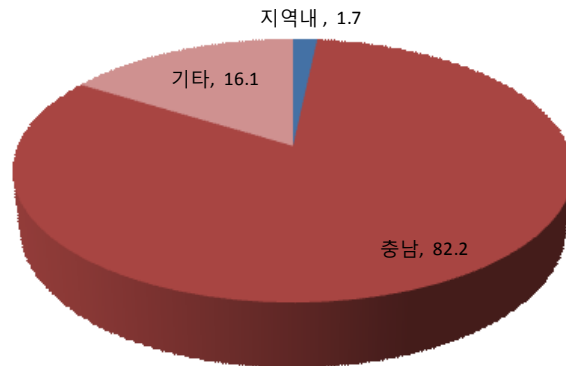


〈축산〉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취급 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16.1%, 지역내 1.7%,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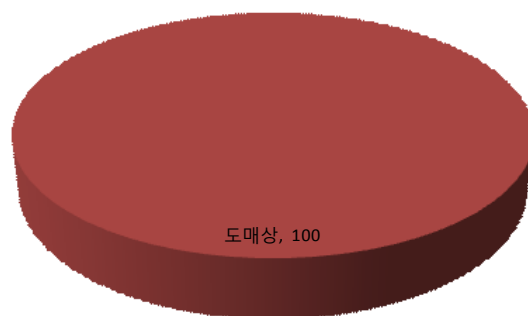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1.7
충남	82.2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
경상권	-
기타	16.1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이 100%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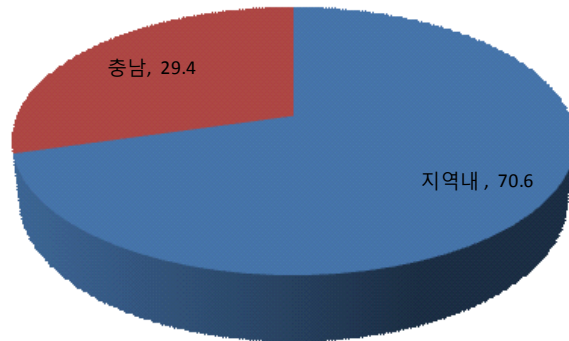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
도매상	100
도매시장	-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내 70.6%, 충남 29.4%로 나타났음

구분	비율
지역내	70.6
충남	29.4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
경상권	-
기타	-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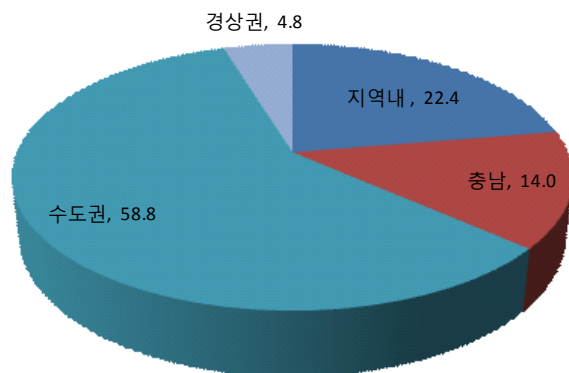


<공산품>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취급 상품의 생산지역은 수도권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내 22.4%, 경상권 4.8%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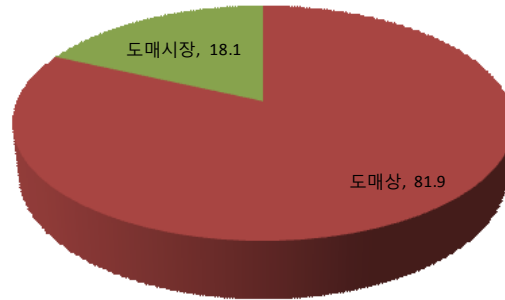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22.4
충남	14.0
대전	-
충북	-
수도권	58.8
호남권	-
경상권	4.8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81.9%, 도매시장 18.9%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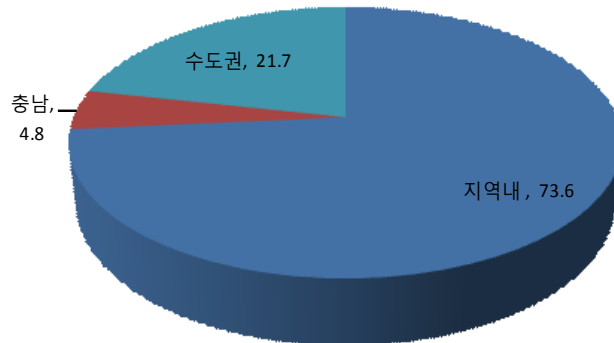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
도매상	81.9
도매시장	18.9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 내 73.6%, 수도권 21.7%, 충남 4.8%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비율
지역내	73.6
충남	4.8
대전	-
충북	-
수도권	21.7
호남권	-
경상권	-
기타	-
계	100



■ 아산지역 전통시장 유통현황

① 일반현황

- 아산내 온양온천시장, 아산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점포 소유 형태
 - 점포 소유 형태는 본인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30.0%, 임대점포로 운영하는 경우가 70.0%로 임대점포로 운영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음

구분	빈도	비율(%)
본인 점포	15	30.0
임대 점포	35	70.0

- 영업기간
 - 영업기간은 대부분 20년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10~20년 동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기간	빈도	비율
1년전	0	0.0
2~3년전	5	10.0
3~5년전	5	10.0
5~10년전	3	6.0
10~20년전	25	50.0
20년 이전	12	24.0

- 종업원 수
 - 전통시장의 종업원수는 모두 5人以下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2人以下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8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인원	빈도	비율
1인	21	42.0
2인	23	46.0
3인	3	6.0
4인	2	4.0
5인 이상	1	0.0

○ 점포 면적

- 전통시장의 점포면적은 33.1㎡(10평) 이상 66.1㎡(20평) 이하의 면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부분 125.6㎡(40평)이하의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점포 면적의 평균은 54.3㎡(16.4평)임

면적	빈도	비율
9.9㎡ 이상~26.5㎡ 이하	9	18.0
33.1㎡ 이상~66.1㎡ 이하	30	60.0
69.4㎡ 이상~99.2㎡ 미만	6	12.0
99.2㎡ 이상	5	10.0

○ 연령층

- 전통시장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의 연령층은 3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51.4세로 나타남

○ 성별

- 전통시장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의 성별은 남성 38.0%, 여성 62.0%로 여성이 더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 영업 형태

- 전통시장의 점포 영업형태는 모두 소매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품구매처

-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는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상에게 구매하는 경우도 33.3%로 대부분 도매시장 및 도매상에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율
생산자직거래(작목반)	2	4.0
도매상에게 구매	36	72.0
도매시장(직접구매)	11	22.0
직접재배	2	2.0
영농조합법인	0	0.0
기타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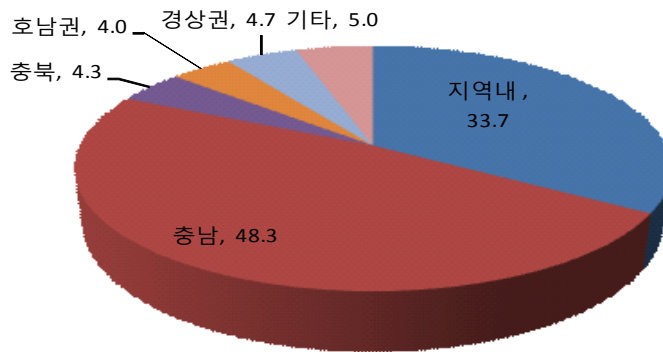
② 품목별 유통

<농산물>

○ 농산품의 생산지역

- 아산지역 전통시장에서 취급되는 농산품의 주요 생산지역은 충남지역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내가 33.7%, 기타지역 5%, 경상권 4.7%의 순으로 나타났음
- 시장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은 아산 지역 및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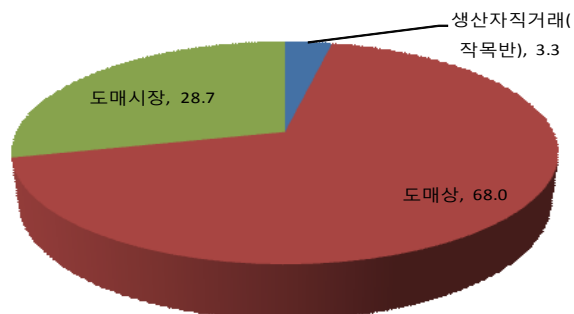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33.7
충남	48.3
대전	-
충북	4.3
수도권	-
호남권	4.0
경상권	4.7
기타	5.0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도매시장 28.7%, 생산자 직거래 3.3%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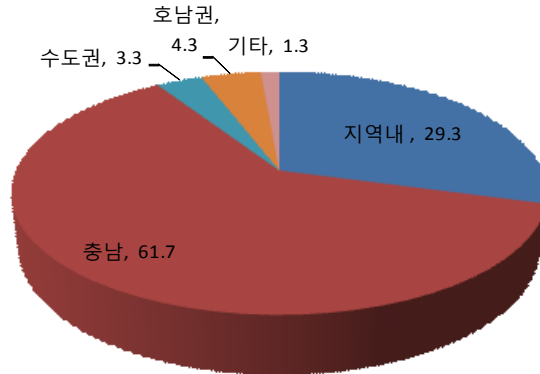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3.3
도매상	68
도매시장	28.7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충남이 61.7%, 지역내가 29.3%, 호남권이 4.3%, 수도권이 3.3%로 조사되었음

구분	비율
지역내	29.3
충남	61.7
대전	-
충북	-
수도권	3.3
호남권	4.3
경상권	-
기타	1.3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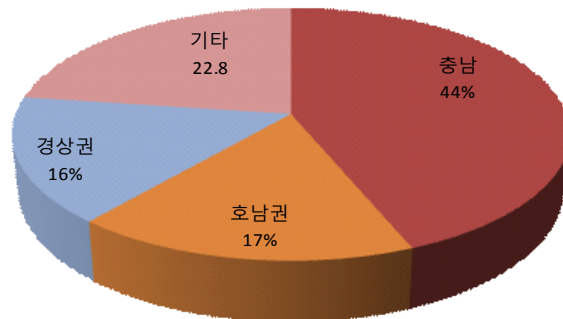


<수산물>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22.8%, 호남권 17.2%, 경상권 16.1%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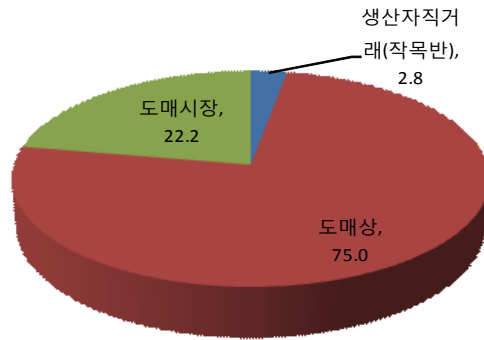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
충남	43.9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17.2
경상권	16.1
기타	22.8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로는 도매상 75.0%, 도매시장 22.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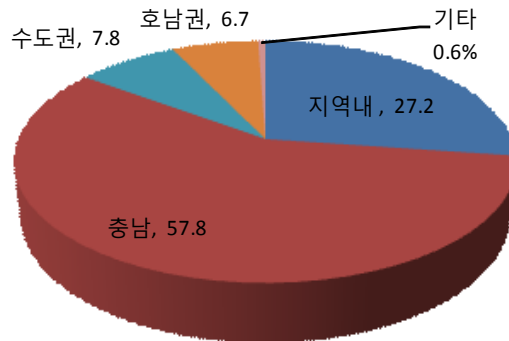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작목반)	2.8
도매상	75.0
도매시장	22.2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충남 57.8%, 지역내 27.2%, 수도권 7.8%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비율
지역내	27.2
충남	57.8
대전	-
충북	-
수도권	7.8
호남권	6.7
경상권	-
기타	0.6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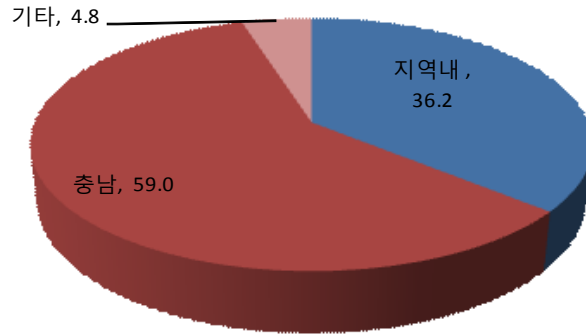


〈축산〉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취급 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내 36.2%, 기타 4.8%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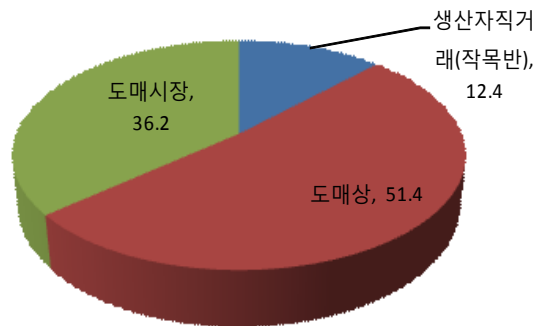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36.2
충남	59.0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
경상권	-
기타	4.8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51.4%, 도매시장 36.2%, 생산자 직거래 12.4%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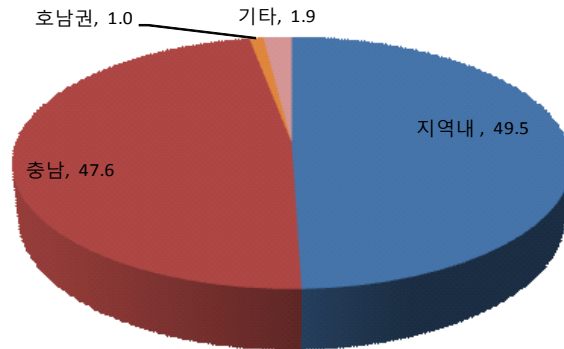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12.4
도매상	51.4
도매시장	36.2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내 49.5%, 충남 47.6%, 기타 1.9%, 호남권 1.0%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비율
지역내	49.5
충남	47.6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1.0
경상권	-
기타	1.9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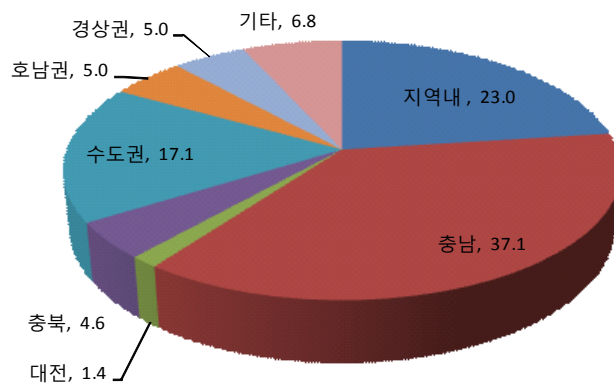


<공산품>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취급 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내 23.0%, 수도권 17.1%, 기타 6.8%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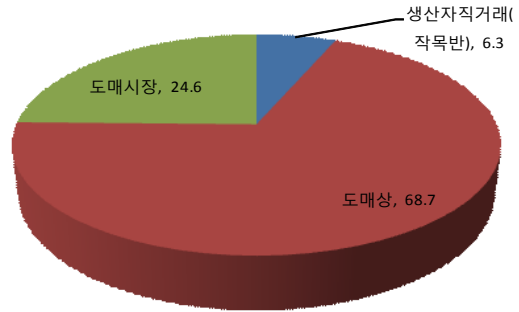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23.0
충남	37.1
대전	1.4
충북	4.6
수도권	17.1
호남권	5.0
경상권	5.0
기타	6.8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68.7%, 도매시장 24.6%, 생산자 직거래 6.3%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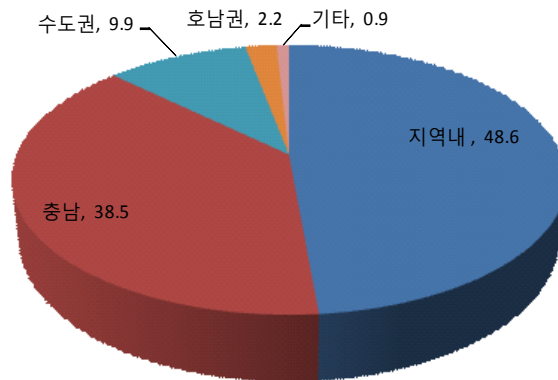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6.3
도매상	68.7
도매시장	24.6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 내 48.6%, 충남 38.5%, 수도권 9.9%, 호남권 2.2%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비율
지역내	48.6
충남	38.5
대전	-
충북	-
수도권	9.9
호남권	2.2
경상권	-
기타	0.9
계	100



■ 금산지역 전통시장 유통현황

① 일반현황

- 금산전통시장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음
- 점포 소유 형태
 - 점포 소유 형태는 본인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76.0%, 임대점포로 운영하는 경우가 24.0%로 본인의 점포로 운영하는 점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빈도	비율(%)
본인 점포	38	76.0
임대 점포	12	24.0

- 영업기간
 - 영업기간은 20년 이전부터 영업한 점포가 34.0%이며, 10년이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비중이 56.0%로 나타났음

기간	빈도	비율
1년전	4	8.0
2~3년전	4	8.0
3~5년전	8	16.0
5~10년전	6	12.0
10~20년전	11	22.0
20년 이전	17	34.0

- 종업원 수
 - 전통시장 점포의 종업원수는 모두 2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인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54.0%를 차지하고 있음

인원	빈도	비율
1인	27	54.0
2인	23	46.0
3인	0	0.0
4인이상	0	0.0

○ 점포 면적

- 전통시장의 점포면적은 33.1㎡(10평)이상 66.1㎡(20평)이하의 점포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20평 이하의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점포 면적의 평균은 37.7㎡(11.4평)로 나타났음

면적	빈도	비율
9.9㎡ 이상~29.8㎡ 이하	14	28.0
33.1㎡ 이상~66.1㎡ 이하	36	72.0
69.4㎡ 이상~99.2㎡ 미만	0	0.0
99.2㎡ 이상	0	0.0

○ 연령층

- 전통시장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의 연령층은 3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53.1세로 나타남

○ 성별

- 전통시장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의 성별은 남성 48.0%, 여성 52.0%로 점포운영의 남녀성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영업 형태

- 전통시장의 점포 영업형태는 96.0%가 소매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품구매처

-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도매상에게 구매(74.0%)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도매시장에서 직접구매(16.0%), 생산자 직거래 하는 상인도 10.0%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빈도	비율
생산자직거래(작목반)	5	10.0
도매상에게 구매	37	74.0
도매시장(직접구매)	8	16.0
직접재배	0	0.0
영농조합법인	0	0.0
기타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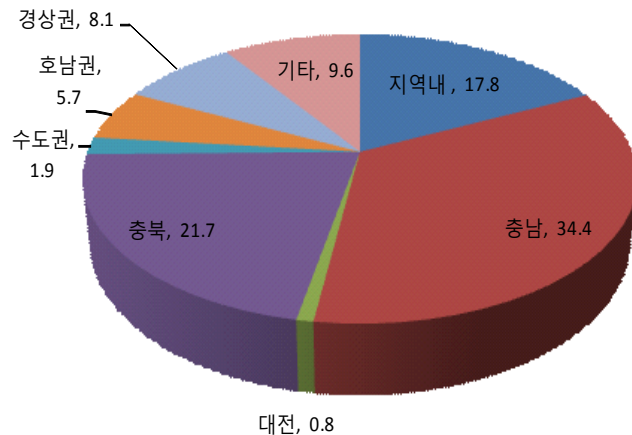
② 품목별 유통

<농산물>

○ 농산품의 생산지역

- 금산지역 전통시장에서 취급되는 농산품의 주요 생산지역은 충남지역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 21.7%, 지역내 17.8%, 기타 9.6%, 경상권 8.1%의 순으로 나타났음
- 시장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은 금산 지역 및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지역 보다 충남 지역의 농산물 비중이 낮고, 특히 충북지역의 농산물의 유통이 많이 나타났으며, 기타 타지역 농산물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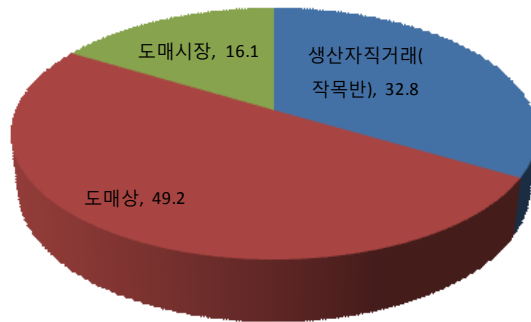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17.8
충남	34.4
대전	0.8
충북	21.7
수도권	1.9
호남권	5.7
경상권	8.1
기타	9.6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생산자 직거래 32.8%, 도매시장 16.1%, 순으로 나타났음
- 금산지역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구매처 특징으로는 생산자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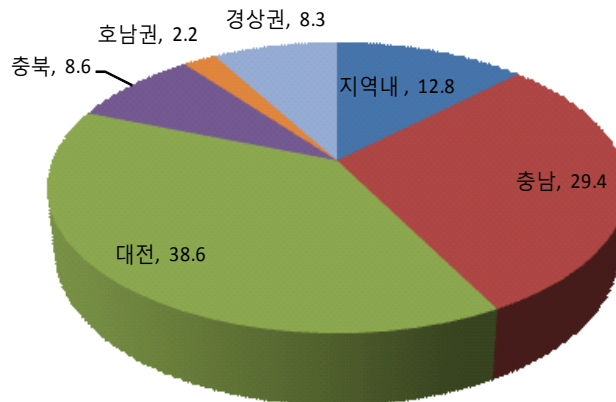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32.8
도매상	49.2
도매시장	16.1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대전이 38.6%, 충남 29.4%, 지역내 12.8%, 충북 8.6%, 경상권 8.3%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비율
지역내	12.8
충남	29.4
대전	38.6
충북	8.6
수도권	-
호남권	2.2
경상권	8.3
기타	-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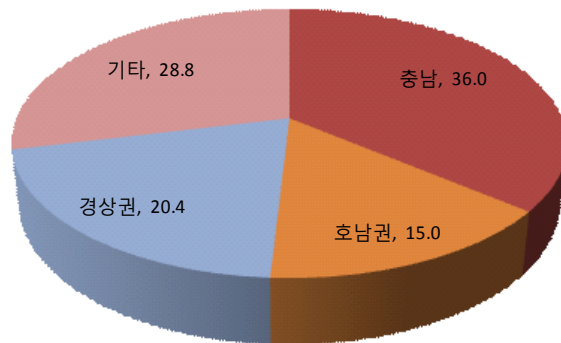


〈수산물〉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지역 28.8%, 경상권 20.4%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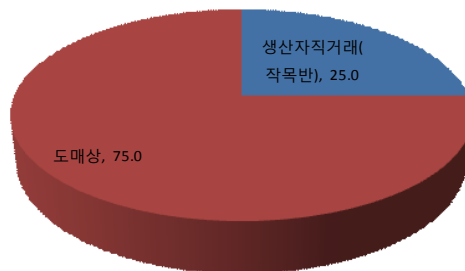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
충남	36.0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15.0
경상권	20.4
기타	28.8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로는 도매상 75.0%, 도매시장 25.0%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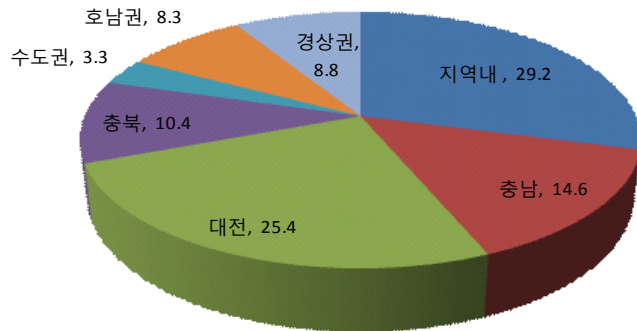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작목반)	25.0
도매상	75.0
도매시장	-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내 29.2%, 대전 25.4%, 충남 14.6%, 충북 10.4%, 경상권 8.8%, 호남 8.3%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비율
지역내	29.2
충남	14.6
대전	25.4
충북	10.4
수도권	3.3
호남권	8.3
경상권	8.8
기타	-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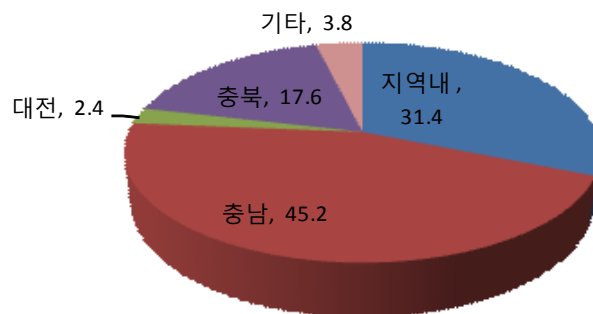


<축산>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취급 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내 31.4%, 충북 17.6%, 기타 3.8%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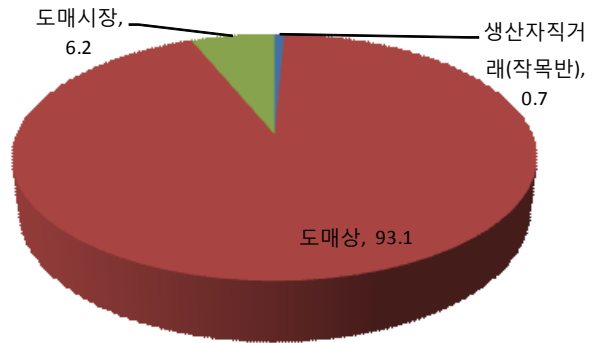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31.4
충남	45.2
대전	2.4
충북	17.6
수도권	-
호남권	-
경상권	-
기타	3.8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93.1%, 도매시장 6.2%, 생산자 직거래 0.7% 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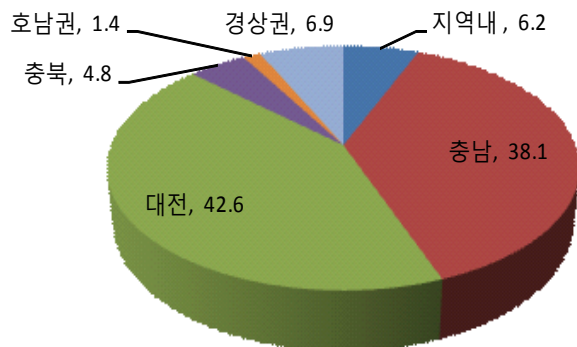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0.7
도매상	93.1
도매시장	6.2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대전 42.6%, 충남 38.1%, 경상권 6.9%, 지역내 6.2%로 나타났음

구분	비율
지역내	6.2
충남	38.1
대전	42.6
충북	4.8
수도권	-
호남권	1.4
경상권	6.9
기타	-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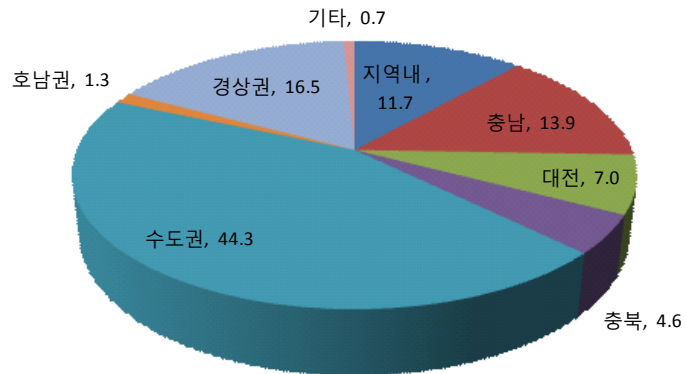


<공산품>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취급 상품의 생산지역은 수도권 44.3%, 경상권 16.5%, 충남 13.9%, 지역내 11.7%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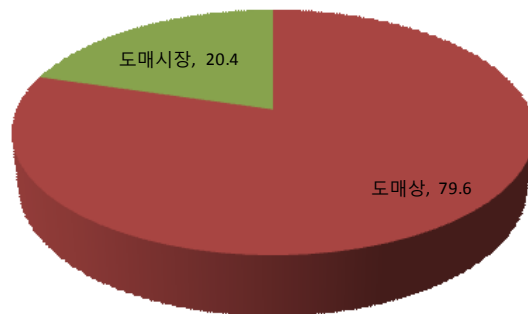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11.7
충남	13.9
대전	7.0
충북	4.6
수도권	44.3
호남권	1.3
경상권	16.5
기타	0.7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79.6%, 도매시장 20.4%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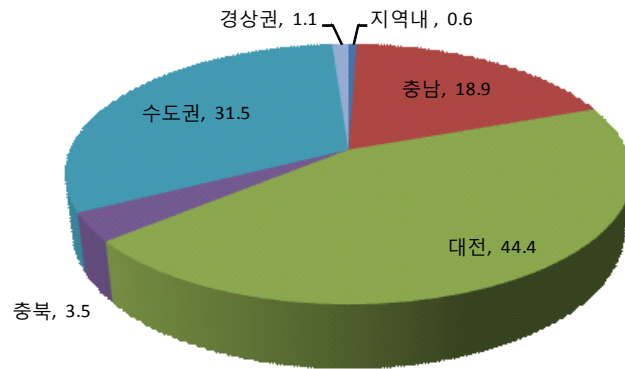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
도매상	79.6
도매시장	20.4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대전 44.4%, 수도권 31.5%, 충남 18.9%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비율
지역내	0.6
충남	18.9
대전	44.4
충북	3.5
수도권	31.5
호남권	-
경상권	1.1
기타	-
계	100



■ 서천지역 전통시장 유통현황

① 일반현황

- 서천지역 한산전통시장, 서천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음
- 점포 소유 형태
 - 점포 소유 형태는 본인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48.0%, 임대점포로 운영하는 경우가 52.0%로 본인소유와 임대점포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음

구분	빈도	비율(%)
본인 점포	24	48.0
임대 점포	26	52.0

- 영업기간
 - 영업기간은 10년~20년 동안 운영해온 점포가 52.0%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점포가 5년이상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음

기간	빈도	비율
1년전	0	0.0
2~3년전	1	2.0
3~5년전	2	4.0
5~10년전	15	30.0
10~20년전	26	52.0
20년 이전	6	12.0

- 종업원 수
 - 전통시장 점포의 종업원수는 대부분 2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38.0%는 1인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원	빈도	비율
1인	19	38.0
2인	27	54.0
3인	2	4.0
4인	1	2.0
5인이상	1	2.0

○ 점포 면적

- 전통시장의 점포면적은 9.9㎡(3평)이상 26.5㎡(8평) 이하의 점포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30평 이하의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점포 면적의 평균은 35.7㎡(10.8평)로 나타났음

면적	빈도	비율
9.9㎡ 이상~26.5㎡ 이하	27	54.0
33.1㎡ 이상~66.1㎡ 이하	21	42.0
69.4㎡ 이상~99.2㎡ 미만	0	0.0
99.2㎡ 이상	2	4.0

○ 연령층

- 전통시장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의 연령층은 2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57.9세로 나타남

○ 성별

- 전통시장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의 성별은 여성 68.0%, 남성 32.0%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영업 형태

- 전통시장의 점포 영업형태는 96.0%가 소매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품구매처

-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도매상에게 구매(86.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생산자와 직거래, 도매시장에서 직접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빈도	비율
생산자직거래(작목반)	4	8.0
도매상에게 구매	43	86.0
도매시장(직접구매)	3	6.0
직접재배	0	0.0
영농조합법인	0	0.0
기타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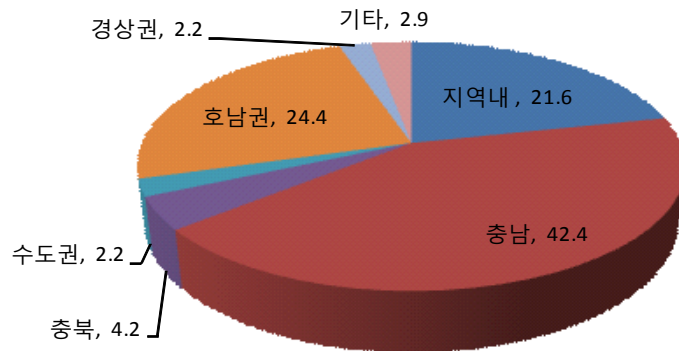
② 품목별 유통

<농산물>

○ 농산품의 생산지역

- 서천지역 전통시장에서 취급되는 농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지역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 24.4%, 지역내 21.6%, 충북 4.2%의 순으로 나타났음
- 시장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중 서천 지역 및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비중은 64% 정도로 나타났음
- 특히 호남권이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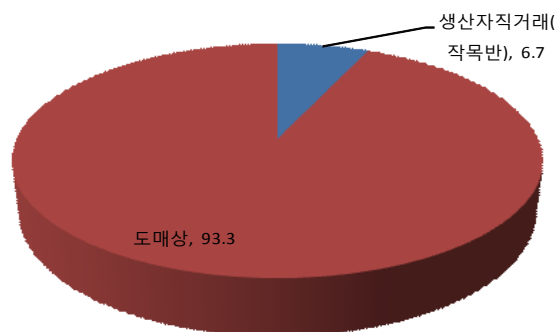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21.6
충남	42.4
대전	-
충북	4.2
수도권	2.2
호남권	24.4
경상권	2.2
기타	2.9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이 9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자 직거래가 6.7%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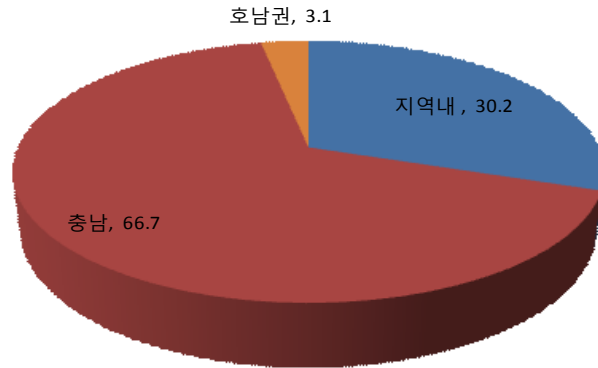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6.7
도매상	93.3
도매시장	-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충남 66.7%, 지역내 30.2%로 조사되었음

구분	비율
지역내	30.2
충남	66.7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3.1
경상권	-
기타	-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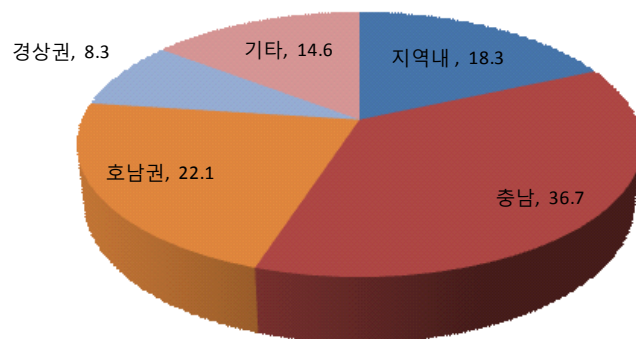


<수산물>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 22.1%, 지역내 18.3%, 기타 14.6%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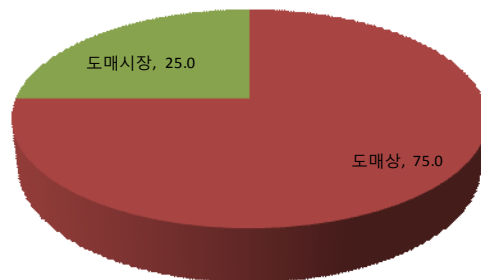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18.3
충남	36.7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22.1
경상권	8.3
기타	14.6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로는 도매상 98.5%, 도매시장 1.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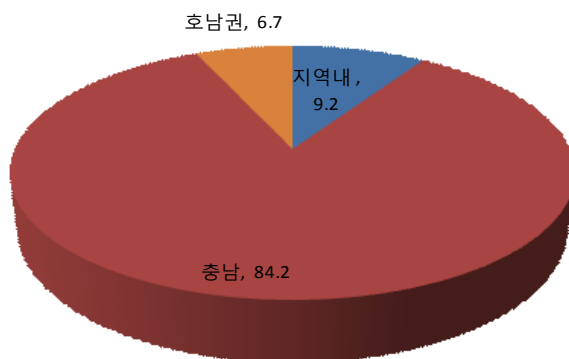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작목반)	-
도매상	75.0
도매시장	25.0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충남 84.2%, 지역내 9.2%, 호남권 6.7%로 조사되었음

구분	비율
지역내	9.2
충남	84.2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6.7
경상권	-
기타	-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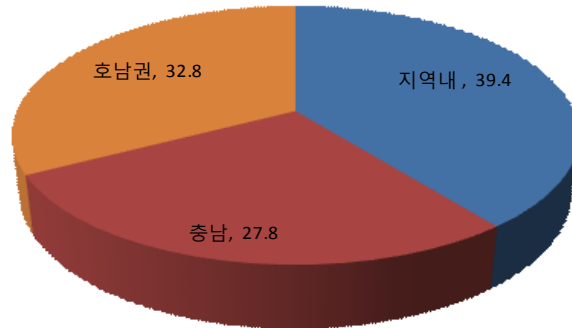


〈축산〉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취급 상품의 생산지역은 지역내 39.4%, 호남권 32.8%, 충남 27.8%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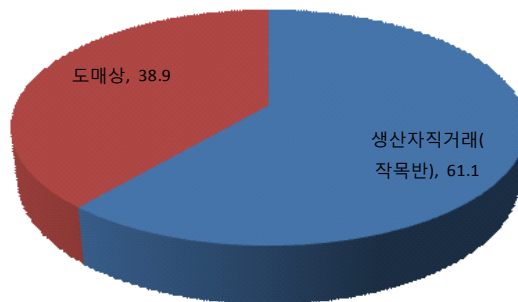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39.4
충남	27.8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32.8
경상권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생산자직거래 61.1%, 도매상이 38.9%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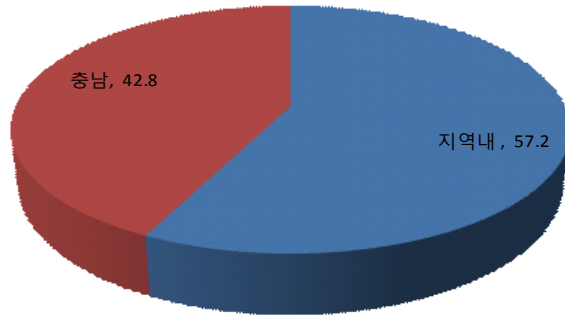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61.1
도매상	38.9
도매시장	-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내 57.2%, 충남 42.8%로 나타났음

구분	비율
지역내	57.2
충남	42.8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
경상권	-
기타	-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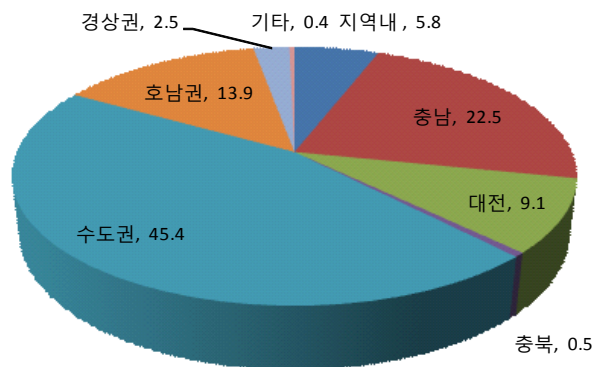


<공산품>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취급 상품의 생산지역은 수도권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 22.5%, 호남권 13.9%, 대전 9.1%, 지역내 5.8%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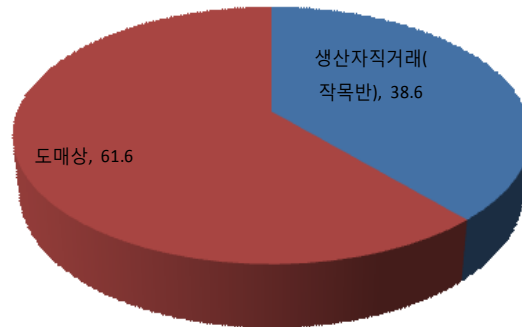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5.8
충남	22.5
대전	9.1
충북	0.5
수도권	45.4
호남권	13.9
경상권	2.5
기타	0.4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61.6%, 생산자직거래 38.6%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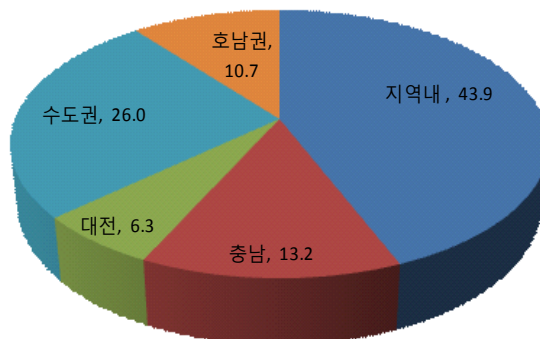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38.6
도매상	61.6
도매시장	-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 내 43.9%, 수도권 26.0%, 충남 13.2%, 호남권 10.7%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비율
지역내	43.9
충남	13.2
대전	6.3
충북	-
수도권	26.0
호남권	10.7
경상권	-
기타	-
계	100



■ 대형마트(SSM) 유통현황

① 일반현황(천안, 아산, 금산, 서천)

- 천안지역은 대형마트 2곳, SSM 8곳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유통현황의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점포 소유 형태
 - 점포 소유 형태는 임대점포로 운영(81.8%)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음

구분	빈도	비율(%)
본인 점포	2	18.2
임대 점포	9	81.8

○ 영업기간

- 영업기간은 3년~5년 동안 운영해온 마트가 36.4%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 10년 이하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간	빈도	비율
1년전	0	0.0
2~3년전	3	27.3
3~5년전	4	36.4
5~10년전	3	27.3
10~20년전	1	9.1
20년 이전	0	0.0

○ 종업원 수

- 대형마트의 종업원수는 10인 이상 20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점포가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0인 이상의 대형으로 운영하는 점포가 18.2%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빈도	비율
5인이상~10인미만	1	9.1
10인이상~20인미만	5	45.5
20인이상~30인미만	3	27.3
300인이상	2	18.2

○ 점포 면적

- 대형마트의 점포면적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826.5㎡(250평)이상 1586.8㎡(480평)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의 분포가 가장 높았음
- 점포면적의 평균은 1,430.4㎡(432.7평)로 나타났음

면적	빈도	비율
495.9㎡ ~ 760.3㎡	4	36.4
826.5㎡ ~ 1,586.8㎡	5	45.5
3,305.8㎡ ~ 4132.2㎡	2	18.2

○ 연령층

-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의 연령층은 3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41.9세로 나타남

○ 성별

-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의 성별은 90.9%가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업 형태

- 대형마트의 영업형태는 81.8%가 도매소매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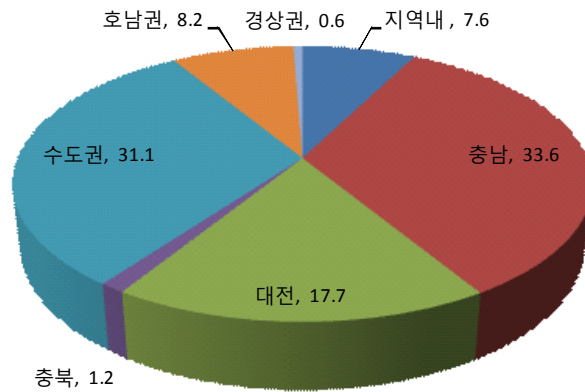
② 품목별 유통

<농산품>

○ 농산품의 생산지역

- 대형마트(ssm)에서 취급되는 농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지역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31.1%, 대전 17.7%, 호남권 8.2%, 지역내 7.6%로 나타났음
-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농산품들은 지역의 전통시장 보다 수도권 및 타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내에서 공급되는 농산품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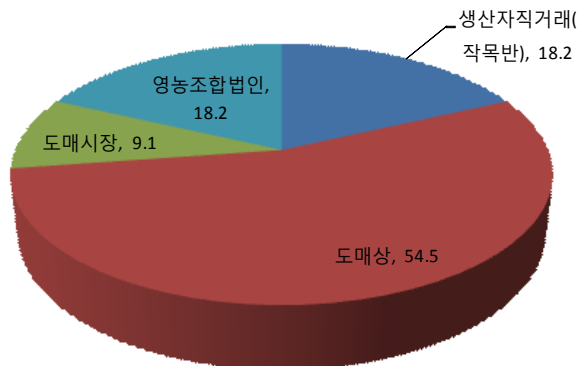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7.6
충남	33.6
대전	17.7
충북	1.2
수도권	31.1
호남권	8.2
경상권	0.6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이 5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자 직거래가 18.2%, 영농조합법인 18.2%, 도매시장 9.1%로 조사되었음
-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도매상의 비중이 낮고 생산자 직거래, 영농조합 법인에서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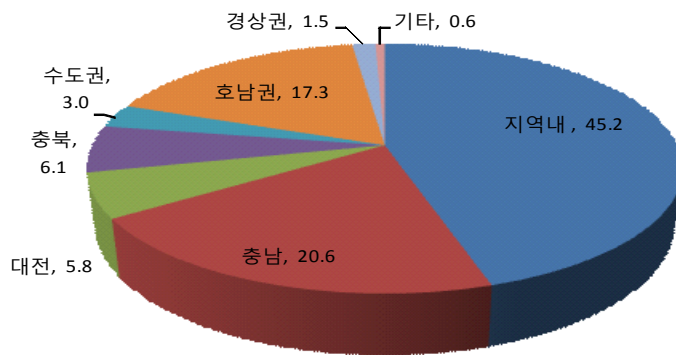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18.2
도매상	54.5
도매시장	9.1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18.2
기타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내 45.2%, 충남 20.6%, 호남권 17.3%, 충북 6.1%, 대전 5.8%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비율
지역내	45.2
충남	20.6
대전	5.8
충북	6.1
수도권	3.0
호남권	17.3
경상권	1.5
기타	0.6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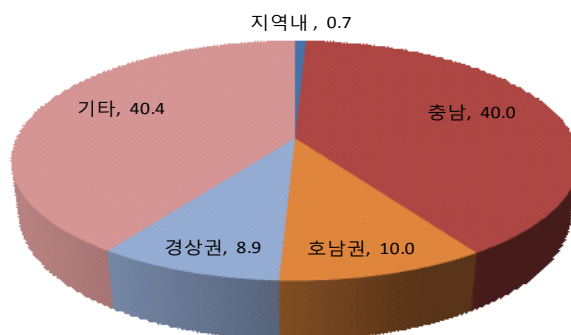


<수산물>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수산품의 생산지역은 충남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40.4%, 호남권 10.0%, 경상권 8.9%, 지역내 0.7%로 나타났음
- 수산품의 공급지역도 전통시장보다 지역내에서 공급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타지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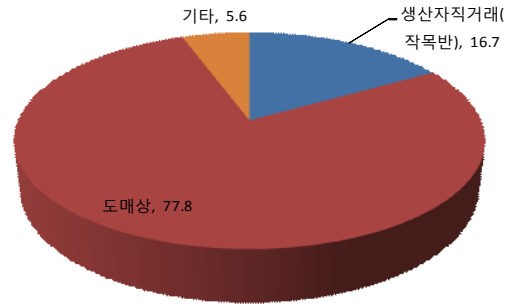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0.7
충남	40.0
대전	-
충북	-
수도권	-
호남권	10.0
경상권	8.9
기타	40.4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로는 도매상 77.8%, 생산자직거래 16.7%로 나타났음
- 전통시장 보다 규모가 큰 대형마트의 경우 대량으로 물량이 거래됨에 따라 생산자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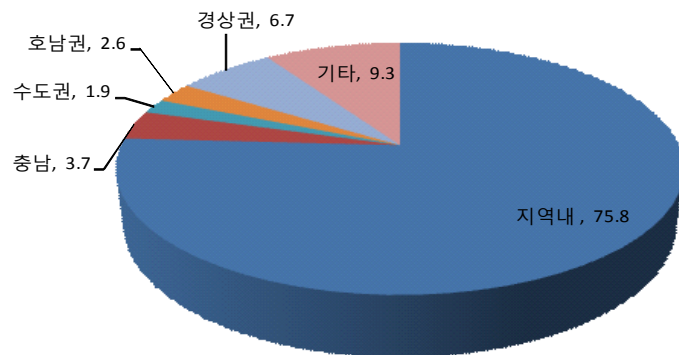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작목반)	16.7
도매상	77.8
도매시장	-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5.6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내 75.8%, 기타 9.3%, 경상권 6.7%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비율
지역내	75.8
충남	3.7
대전	-
충북	-
수도권	1.9
호남권	2.6
경상권	6.7
기타	9.3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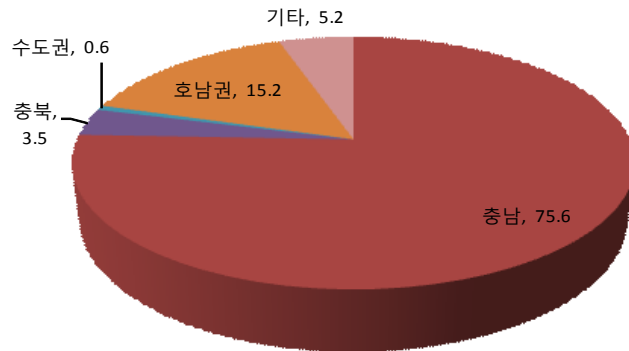


〈축산〉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취급 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 75.6%, 호남권 15.2%, 충북 3.5%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축산품의 경우 지역내에서 공급되는 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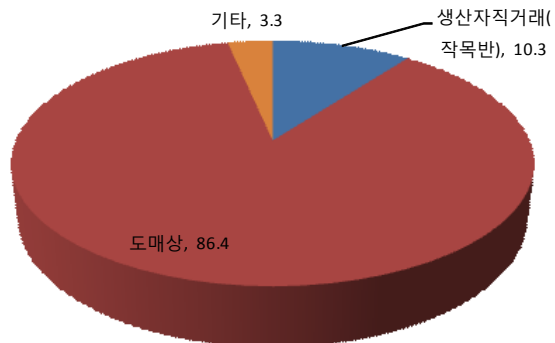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
충남	75.6
대전	-
충북	3.5
수도권	0.6
호남권	15.2
경상권	-
기타	5.2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86.4%, 생산자직거래 10.3%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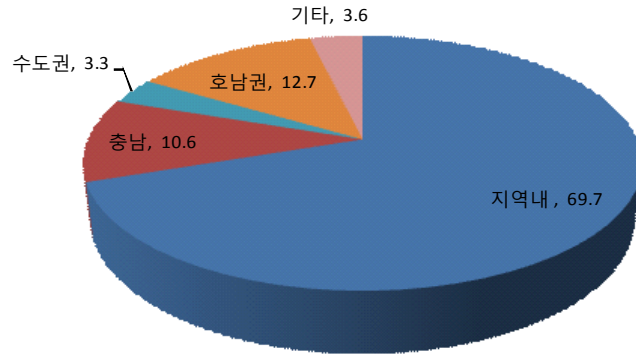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10.3
도매상	86.4
도매시장	-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내 69.7%, 호남권 12.7%, 충남 10.6%로 나타났다

구분	비율
지역내	69.7
충남	10.6
대전	-
충북	-
수도권	3.3
호남권	12.7
경상권	-
기타	-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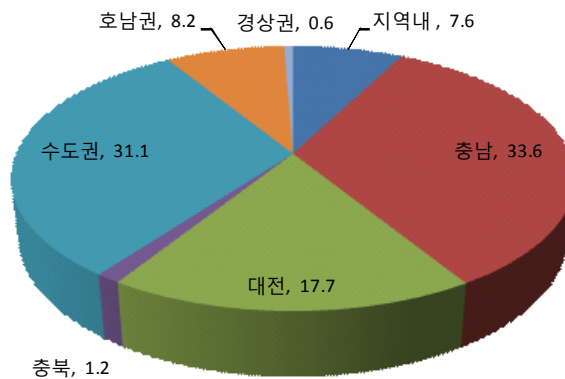


<공산품>

○ 취급상품의 생산지역

- 취급 상품의 생산지역은 충남 33.6%, 수도권이 31.1%, 대전 17.7%, 호남권 8.2%, 지역내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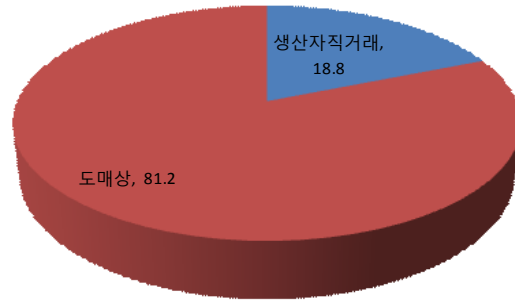
구분	비율
지역내	7.6
충남	33.6
대전	17.7
충북	1.2
수도권	31.1
호남권	8.2
경상권	0.6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

- 취급 상품의 구매처는 도매상 81.2%, 생산자직거래 18.8%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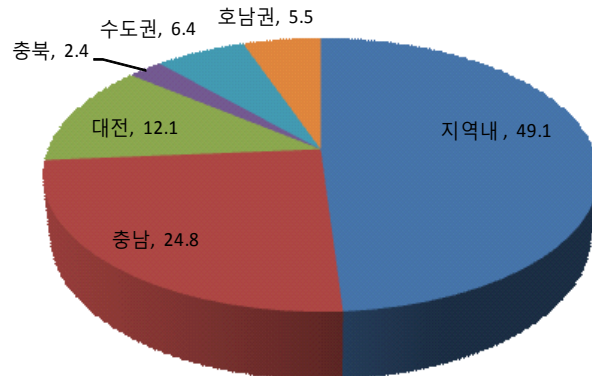
구분	비율
생산자직거래	18.8
도매상	81.2
도매시장	-
직접재배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계	100



○ 주요 취급 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

- 주요 취급상품의 구매처가 있는 지역은 지역 내 49.1%, 충남 24.8%, 대전 12.1%, 수도권 6.4%, 호남권 5.5%의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비율
지역내	49.1
충남	24.8
대전	12.1
충북	2.4
수도권	6.4
호남권	5.5
경상권	-
기타	-
계	100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내부연구진 · 임재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백운성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임형빈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이종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임병철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12-06 ·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

글쓴이 · 신동호외 7인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2년 12월 31일 / 발행 · 201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161(지역경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99
ISBN · 978-89-6124-195-3 03350

<http://www.cdi.re.kr>

© 2012,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